

THE MISSILE

1962年 9月 20日
1962年 9月 25日

月
刊

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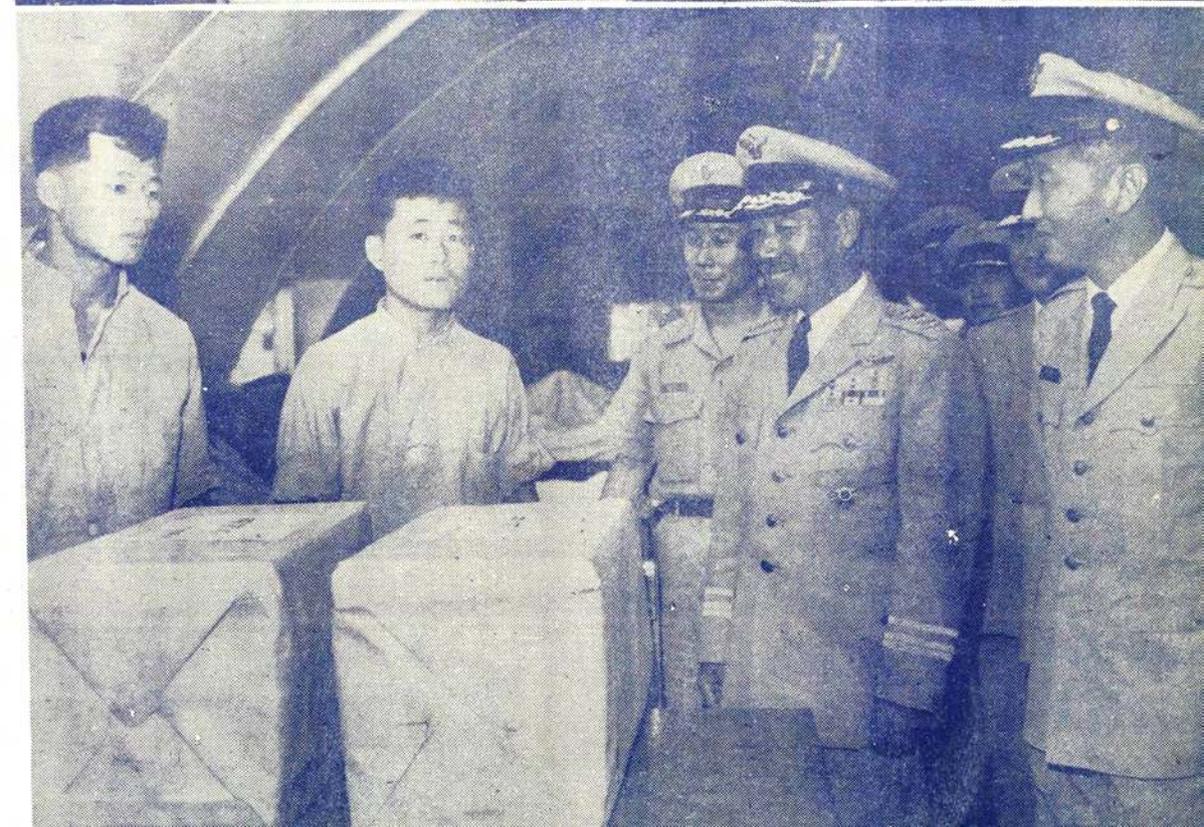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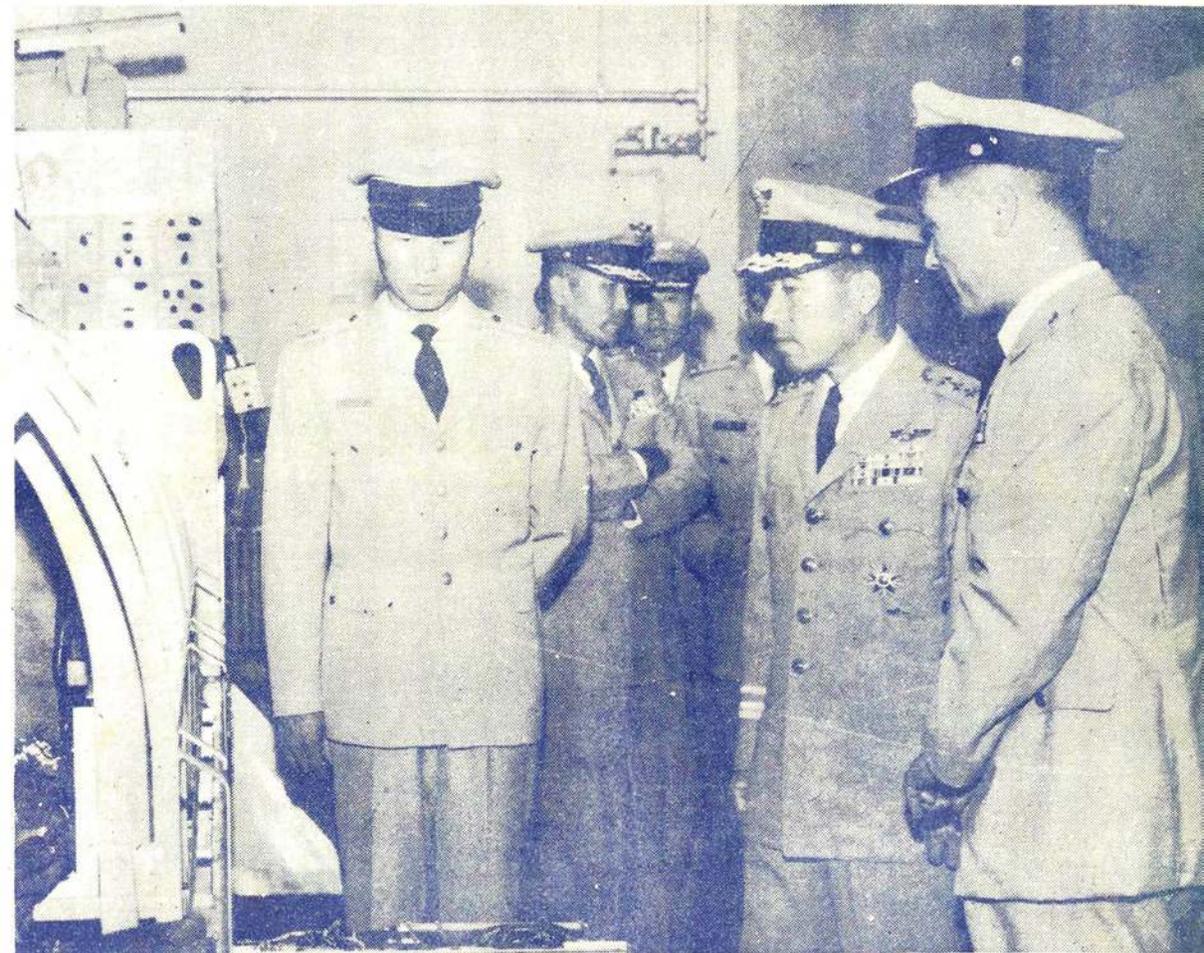
1962

10

國軍의 날 特輯號



제 18 호



干城

朴正熙

——朴正熙最高會議議長揮毫——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권능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출전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부종하여 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천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밤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집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세로서 국민을 위하며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報 叢>

- ◇ 張盛煥總長 各部隊 初度巡視(表紙二面)
- ◇ 美 第五空軍司令官「차푸 E·스마트」中將 空軍本部 來訪(表紙 三面)
- ◇ 張盛煥總長에게 金聖恩 在鄉軍人會長이 感謝狀(表紙 三面)
- ◇ 空軍將校婦人會서 順天水災民에 救護金品寄託(表紙 三面)
- ◇ 오늘의 空軍(挿込)
- ◇ 韓國空軍發展概要(挿込)

表紙 그림·문학 지
目次·권·우경희
挿 畫·이순재

揮 毫

.....

大統領 權限代行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 朴正熙

紀念辭

..... 空軍參謀總長 空軍中將 張盛煥(四)

空軍에 부치는 글

제 十四회 「국군의 날」에 즈음하여
陸軍參謀總長 陸軍大將 金鍾五(六)
海軍參謀總長 海軍中將 李孟基(七)
海兵隊司令官 海兵中將 金斗燦(八)

이달의
卷頭論文

建國理念과 國家再建

..... 金東河(九)

△國軍의 날詩▽ 民族의 젊음 위에

..... 朴斗鎮(三)

十月 「상달」의 今昔 △이달의 歷史▽

..... 李丙燾(九二)

實戰手記
나의 出惠 回顧
나의 出惠 日記

△ 하늘은 우리의 일터 △국군의 날에▽
..... 空軍大領 李豪英(四一)
..... 空軍大領 玄昌健(四五)
..... 空軍中領 朴희규(五三)
..... 空軍中領 高大池(八六)

人工衛星과 將來戰

△論壇▽
..... 空軍中領 高大池(八六)

홀리간 蒼空의 落穂들

△蒼空俱樂部時代▽
..... 馬海松(八三)

◇ THE LONGEST DAY △戰爭映畫·노르만디의 上陸作戰▽

..... 趙 景 圭(六三)

한글날 특집

우리 말과 현대 생활
..... 趙 景 圭(三八)

한국 문학의 「멋」
..... 楊 主 東(三一)

우리 말과 영어
..... 洪 福 佑(三四)

우리 말의 운치
..... 金 俊 煥(一三)

國際聯合에 대한 우리의 期待
..... 金 昌 順(三八)

소聯의 拒否權 一〇〇回가 意味하는 것
..... 趙 景 圭(八八)

△ 체코와 東獨의 食糧危機
..... 趙 景 圭(八八)

△ 리오데 자네이로 △世界驚異巡禮▽
..... 趙 景 圭(七七)

特輯

국군의 날과 명예에

人格과 名譽
..... 金 桂 淑(一六)

名譽 價值的인 慾求다
..... 李 殷 相(一九)

韓國人의 수치심
..... 金 貞 玉(二一)

軍人과 功名心
..... 韓 鶴 洙(二三)

名譽와 評判
..... 成 仁 基(二五)

조비에 트聯邦의 매스·메디아 △現代의 매스·킴▽
..... 空軍中領 金基漸(九三)

西歐의 防衛勢力
..... 趙 景 圭(五五)

中共軍의 派爭과 矛盾
..... 趙 景 圭(五九)

太平洋地域의 空軍力
..... T.S 무어만(六〇)

北傀 飛行士들의 訓練과 生活
..... 空軍大尉 趙 景 圭(四九)

全體主義國家觀의 誤謬 △民主主義에 미나▽
..... 趙 景 圭(七二)

共産主義와 間接侵略 △共産主義에 미나▽
..... 李 東 賢(七八)

貨幣의 形態와 그 制度 △生活經濟▽
..... 崔 榮 福(八〇)

김치와 비타민 △生活科學▽
..... 崔 榮 福(八〇)

나폴레옹傳記
..... 白 大 鉉(一〇三)

안델신 童話集
..... K·나이트(九五)

릴케의 편지
..... 崔 榮 福(九九)

빌헬름·마이스터
..... 朴 木 月(一〇一)

나폴레옹傳記
..... 徐 廷 柱(一〇四)

第二次大戰과 航空機 △航空發達史▽
..... 白 大 鉉(一〇三)

장병 페이지
..... K·나이트(九五)

▲글·그림▽한 생애
..... 朴 峽 賢(一一三)

라디오
..... 成 慶 麟(一〇六)

無限의 挑戰
..... 林 仁 洙(一〇九)

고요
..... 韓 承 五(一一〇)

가을의 章
..... 趙 景 圭(一一一)

創作 更生
..... 洪 性 裕(一一二)

間諜 Three Six
..... 柳 起 英(一一九)

漫畫
..... 趙 景 圭(六六)
..... 이 시 지(六七)



축

國軍의 날

해 해 육 국

병 방

대 군 군 부

군진수칙

-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유대도 기절하여 추호도 적을 도울지 않겠다.
-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전임자면 취임자를 충실히 수임하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처분당할 때에도 적의 질문, 고문, 협박을 제외하고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우방에 불리한 정황 기타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 나는 조국에 기밀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질 것이다.
- 나는 조국을 기탄없이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혁 명 공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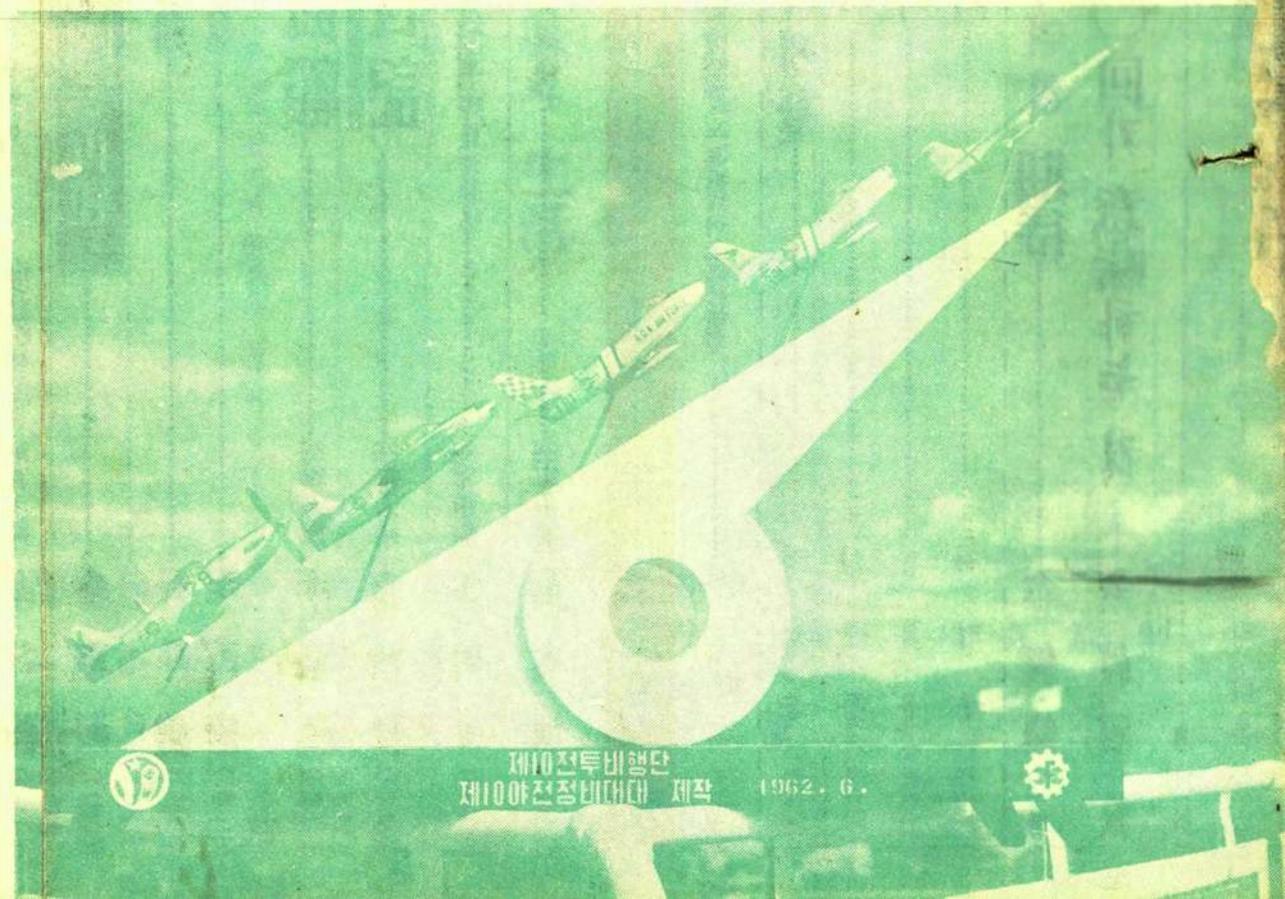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덕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은익의 노래

조지훈 작사

김성태 작곡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를 지키려는
원이 뭉쳐서
하늘높이 베지어
솟아 오르니
그 이름도 아름답나
창공의 용사
해동정 보라매가
바람을 단다
하늘에 살아서
높아지라 이상아
희망에 빛나는
아 은빛 날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하늘을 지키려는
원이 뭉쳐서
죽음으로 맹세코
난개를 퍼니
그 모습도 미더웁나
창공의 용사
검은 구름 헤치며
웃으며 간다
하늘에 살아서
넓어지라 도량아
정의에 빛나는
아 은빛 날개다 |
|--|---|



제10전투비행단
제10야전정비대대 제작 196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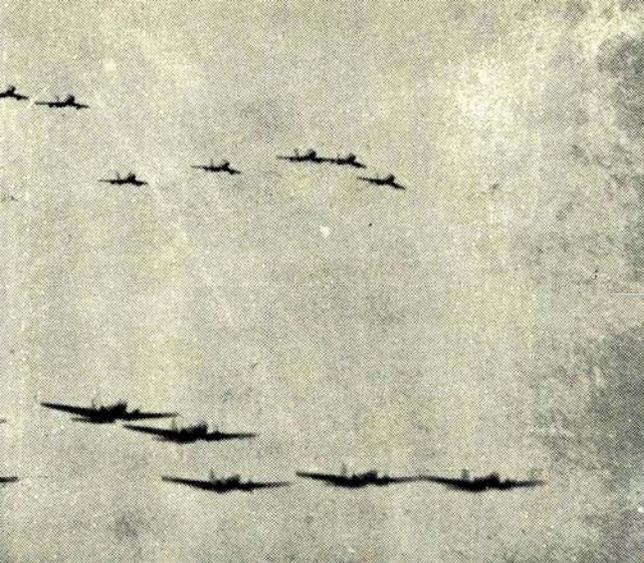


여름이 찾아

국군의날
특집화보

1962

필승의태세



韓國空軍發展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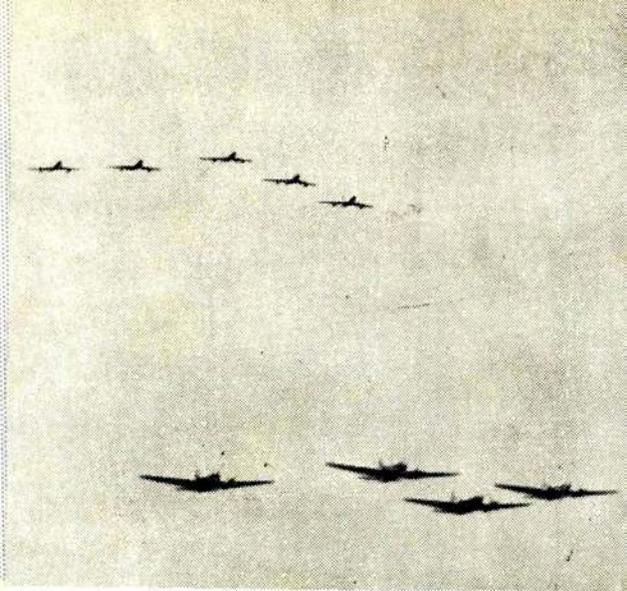
一、初 創 期

空軍의 創建은 八·一五解放과 더불어 海
外 空軍界에서 活躍하고 있던 韓國의 先覺
者들이 繼續 還國함에 따라 現代 國防에
있어서 空軍力이 차지하는 比重의 絕對性과
또한 北韓傀儡들의 南侵野慾을 豫見하는
가운데 空軍運動을 展開한데서부터 始作이
된다.

그리하여 韓國空軍 創建을 爲한 첫 段階
로서 이른바 七人幹部로 呼稱되는 우리 空
軍界의 大先輩들即 二十餘年을 海外에서
活躍한 崔用德 將軍(二代 總參謀長)을 비
롯한 金貞烈 將軍(初代 및 三代 總參謀長)
朴範集 將軍(初代 參謀副長 故少將) 張德
昌 將軍(四代 參謀總長) 李根哲 將軍(二
代 飛行團長 故准將) 金英煥 將軍(初代
飛行團長 故准將) 등이 一九四八年 四月
一日에 空軍部隊 創設 幹部要員으로 國防
警備隊 步兵學校에 入校하여 所定의 教育
課程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一九四八年 五月 五日에 航空部
隊가 創設되고 初代 部隊長에는 崔用德 將
軍이 就任하였다.

一九四八年 九月 十三日에는 美軍으로부터
더 I-14 型 輕飛行機 十臺를 引受하게 되
었음으로 航空部隊을 航空司令部로 昇格시
키는 同時에 그 隸下에 飛行部隊과 航空基
地部隊을 創設하고, 그보다 二日後인 九月
十五日에는 太極標識를 단 十臺의 飛行機
가 우리 操縱士들의 손에 依하여 서울 上空



建軍 14 周年 ——。

躍進하는 우리 공군은 不撤晝夜 祖國의 하늘을 지키며 戰力強化에 總力を 傾注하고 있다.

언제건 때만오면 命令一下 하늘의 獅子로서 蒼空을 주름잡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비틈없는 경계태세에 꾸준한 교육훈련 —— 여기 몇개의 斷面을 모아 오늘의 공군을 부각 한다.

에서 最初로 歷史的인 初飛行을 實施하였다.

이처럼, 우리 공군은 最初에는 陸軍의 하
나의 隸屬部隊로서 發足하였으나 現實的인
情勢로 보나 또는 先進國家의 編制上으로
보다라도 우리 공軍의 早速한 獨立이 要請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第一次의 인
措置로서 人的強化策을 爲하여 一九四九年
二月十五日 陸軍航空士官學校의 設立을 보
게 되었고 金貞烈將軍이 初代 校長에 就任
하게 되었다.

한편, 一九四九年 六月二十八日 航空局
의 設置를 보아 初代 局長으로 朴範集 將
軍이 補任되어 軍行政의 基礎를 確立함으
로서 空軍發展은 漸次로 軌道에 오르게 되
었다.

그러나, 아직도 搖籃期를 免치 못한 이
때에 共產主義者들의 使賊을 받은 不純分
子들에 의하여 麗順 叛亂事件 濟州島 叛亂
事件 등이 發生하였으며 創設의 空軍은 同
叛亂經歷을 爲한 作戰에 參加하게 되었다.
이처럼 多事多難한 建設期를 거쳐 一九四
九年 十月一日 드디어 空軍 獨立을 보게
되고 初代 參謀總長에는 金貞烈將軍이 就任
하였다.

그後 一九五〇年 五月 十四日에는 國民
의 精誠어린 獻納金으로 購入된 建國機(1
— 6, 練習機) 十臺의 命名式이 內外貴賓
과 多數의 市民이 參席한 가운데 汝矣島基
地에서 盛大히 舉行되었다.

그러나 우리 공軍이 獨立한지 不過 八個月
만에 六·二五의 共產 南侵을 當하였던 것
이다.



(上) 비행 관제
(下) 각종 무기 장진

二、戰 亂 期

獨立日後하여 아직 一軍으로서의 기틀이 잡히기도 전에, 不意의 共產南侵을 當한 우리 空軍은 甚히 唐惶하였으나, 곧 이에 對處하여 汝矣島 飛行場內에 作戰指揮所를 設置하고, 當時 保有中이던 二十二臺의 輕飛行機로써 UN 空軍機가 來到하기 前인 七月十日까지의 期間中 韓國地上軍과 UN 軍과의 連絡任務을 비롯한 敵情偵察 및 傳單撤布 등에 協力하는 한편, 當時 戰鬪機 들인 轟도 保有치 못하였던 만큼, 三十一과 운드」의 國產爆彈 數個씩을 이들 輕飛行機에 싣고 東豆川, 議政府等 戰線에 나가 南下中인 敵軍에게 目測으로 投下하였다.

이와 같이 不利한 條件에서 苦闘하던 때에 마침 二次大戰時에 威力을 發揮하던 F-51(一名 무스탕) 十臺를 美軍으로부터 引受, 一九五〇年 七月 三日부터 戰鬪訓練도 받을 사이 없이 出擊을 開始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韓國에서의 F-51 戰鬪機에 依한 最初의 歷史的인 出擊이었으며, 이 戰鬪機 들은 우리 地上軍을 掩護하고, 南下하는 敵을 猛擊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

一九五〇年 九月 十五日에는 UN軍이 仁川에 歷史的인 上陸作戰을 敢行하였으므로 韓國空軍도 이에 呼應하여, 基地를 鎮海로부터 汝矣島를 거쳐 平壤에까지 前進시켰고 平壤, 宣川, 江界, 安州等 地區에 出擊하여 赫赫한 戰果를 올렸고 失地回復이 거의 安邊되려 할 때에 中共軍의 大舉 介入으로 또 다시 撤收치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韓國空軍은 戰鬪部隊를 大田基地에 移動시켜서 作戰을 繼續케 하는 同時



임무를 마치고 착륙



헬리콥터 출동

약진은겨듭

에 殘餘 飛行團兵力은 濟州基地에 移動시켜 次期作戰에 對備하여 加一層 猛烈한 訓練을 展開하였고 訓練된 兵力을 續續 一線基地에 派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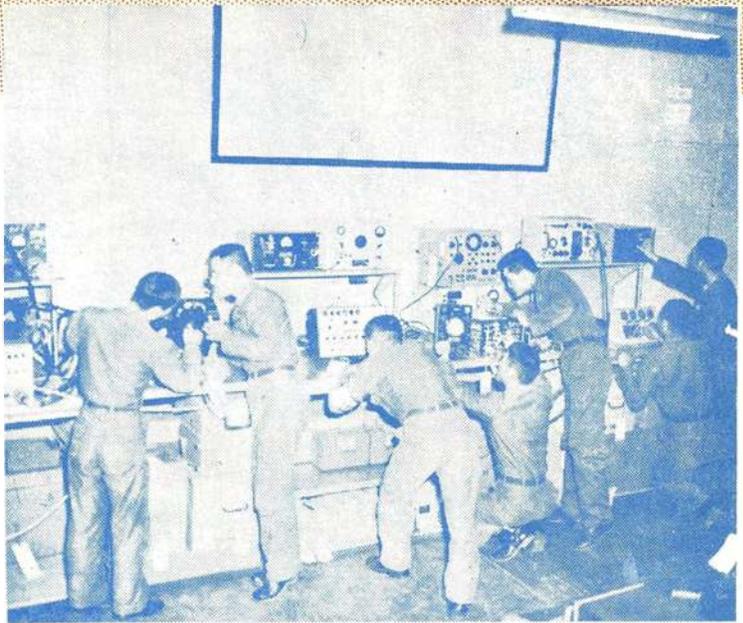
한편 後方地域에서는 智異山을 中心으로 亂動하던 共匪 討伐作戰에 參加하여 共匪 掃蕩에 많은 功獻을 하는 同時에 一線에서는 金斗萬 准將(當時 階級 少領)을 비롯하여 百回出戰을 突破하는 勇士들이 續出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韓國空軍의 戰力은 名實 共히 強化됨으로써 一九五一年 十月을 期하여 江陵地區를 根據地로 하여 敵後方에 對한 韓國空軍 單獨 出擊作戰을 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同年 十月 二十八日에는 東部戰線에서 韓國地上軍을 直接 支援하는 空地協同作戰을 展開하였으며, 一九五二年 十二月 二十五日에는 當時 第一戰團飛行團 長 張德昌 將軍 直接指揮下에 敵의 所謂 크 리스마스」攻勢를 先制하는 大出擊을 敢行 하여 赫赫한 戰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一九五三年 七月 二十七日 國土가 兩斷된 채 休戰은 成立되었는데 其間 韓國空軍은 單獨出擊을 開始한 以來로 休戰成立日까지 無慮 八、二七六回의 有効出擊을 敢行하였고, 三九名의 百回出擊 勇士를輩出하였는데 이로써 人的 物的으로 敵에게 損失은 至極히 莫大한 바 있었다.

三、休 戰 後

UN軍의 強打를 받아 共產南侵은 一旦 折은 되었으나 後日의 傀儡 再南侵에 對



복잡한 기재 취급 훈련



상황 설명

備지 않을 수 없어, 韓國空軍도 猛烈한 訓
 練期에 들어가, 裝備改善을 通한 現代空軍
 의 偉容을 갖추게 되었는데, 于先 次 段階
 로 最新 제트機 保有를 爲한 제트操縱教育
 및 整備教育에 注力하였으며, 一九五五年 六
 月에는 第一次로 F-86 세이버 제트機 五
 臺의 正式引受로 韓國空軍도 드디어 現代化
 된 空軍으로서의 第一步를 내어 디다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레이다」에 對한 技
 術教育과 C-46 輸送機의 操縱 및 整備教
 育이 進行되었고, 一九五五年 十月 第七回
 航空日에는 우리나라 初有의 제트機 空中
 展示가 實施되어 數萬 觀衆의 歡呼를 받았
 다. 뿐만 아니라 一九五七年 十月부터는 國
 內 主要基地間에 C-46에 依한 定期輸送
 業務를 開始하였고, 一九五八年 一月에는
 美空軍으로부터 航路通信 統制業務를 正式
 으로 移讓받아 航空機의 安全航行에 있어
 서 韓國空軍이 그 主導의 役割을 하게 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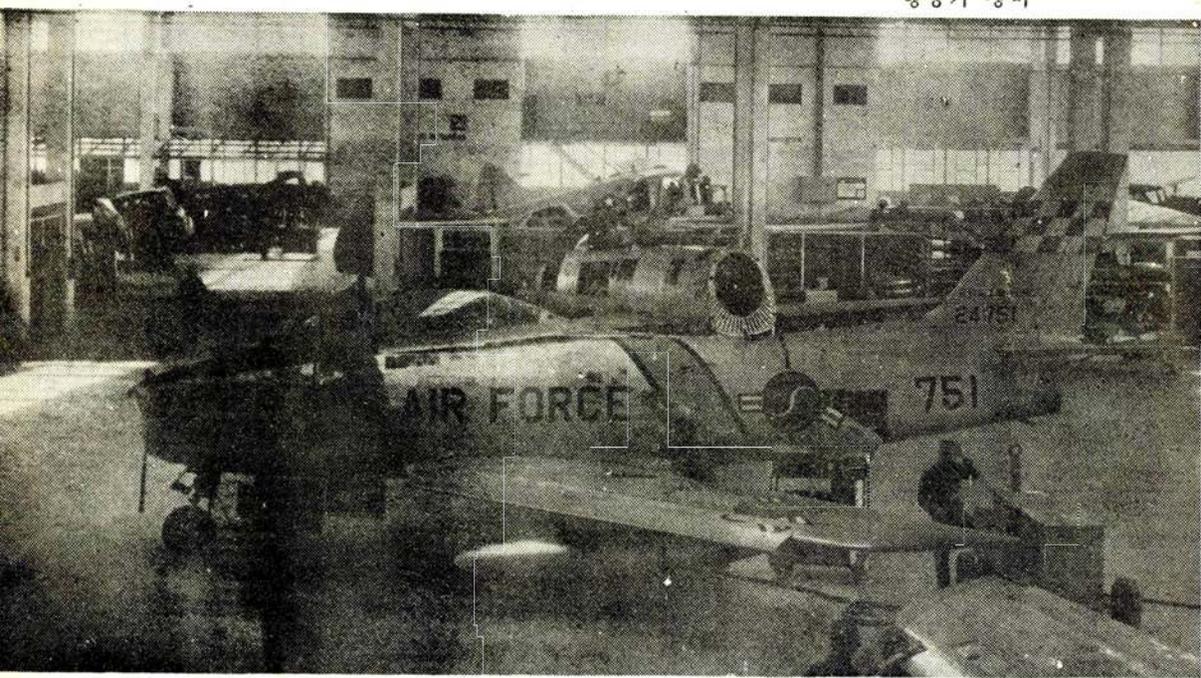
한편, 우리空軍의 唯一한 戰闘機로서 活
 躍하던 F-51이 一九五七年 五月 二十八
 日附로 使用이 禁止되었으므로, 空軍의 戰
 闘部隊인 第一〇戰闘飛行團은 完全히 제트
 戰闘機(F-86)로써 裝備하게 되었고, 一
 九五八年 八月에는 또하나의 戰闘飛行團即
 第十一戰闘飛行團이 金浦基地(K-14)에서
 創設되었으며, 一九六〇年 四月 十五日에
 는 F-86D型 全天候遊擊機 18臺를 導入,
 第一〇戰闘飛行團에 第一〇八遊擊飛行大隊
 를 創設함으로써 우리空軍 現代化에 拍車
 를 加하였다.

준비는 만



기상 관측

항공기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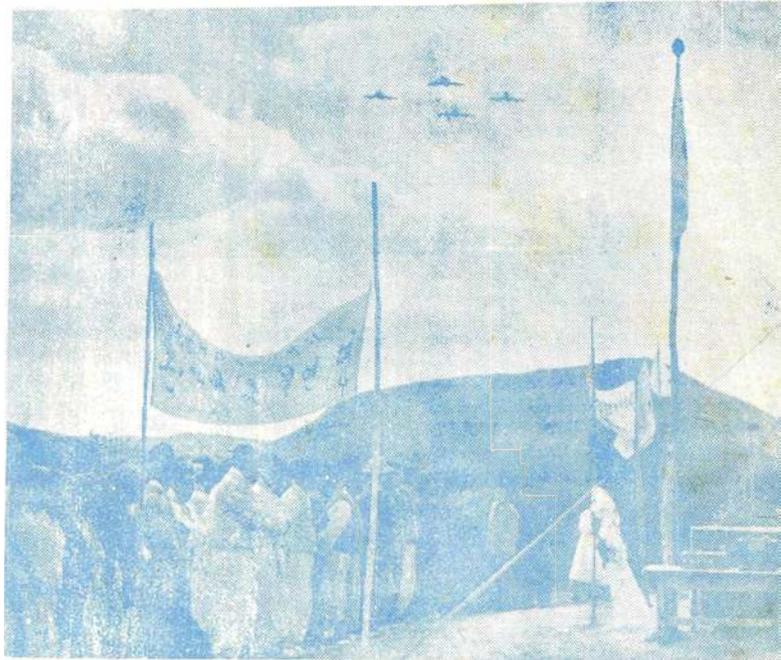


腐敗와 貧困의 틈바구니에서, 人間의 良識과 民族의 繁榮을 蠶食하던 不法과 不正이며, 祖國을 亡치려던 諸般 毒索을 除去함으로써 子孫萬代의 基盤을 鞏固히 하고자, 一九六一年 五月 十六日, 우리國軍은 敢然히 일어서 祖國革命을 일으켰고, 몰소 國家再建의 先鋒이 되어 우리의 宿願인 國土統一을 完遂하려는 聖스러운 大目標 밑에 經濟再建으로 民生苦를 追放하고, 戰力增強으로 國土防衛에 總力을 傾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空軍에 있어서도 一九六一年 度부터는 더욱 全將兵이 一致團結하여 革新 國家方針에 呼應하여, 戰術空軍으로서의 位置를 堅持하는 同時에 戰鬪力增強에 餘念이 없었다. 그리하여, 同年 七月 一日을 期하여, 우리空軍은 戰術空中作戰, 空中探索 救助와 偵察作戰 및 모든 訓練을 좀더 効率的으로 運營하게 하고, 또한 萬一 戰爭突發時에는 韓美協同 防衛作戰과 陸·海·空 및 海兵隊의 協同作戰을 圓滑히 進行하기 위하여 指揮權을 統合하는 作戰司令部를 烏山에 創設함으로써 指揮系統을 一元化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리고, 同日附로 F-86D型 全天候遠擊戰機로 裝備된 第一〇九遠擊飛行大隊을 第一〇戰團飛行團 傘下에 포함시켜 創設하였고, 同年 八月 十五日에는, 大邱基地(K-12)에 駐屯중인 全部隊의 後方機構를 統合하여 效果的인 業務을 進行하기 위하여 第一〇七基地戰隊를 創設하고, 그後 더욱 強化되는 K-12基地 各部隊의 後方支援에 萬全을 期하여 同基地戰隊를 基地團으로 昇格하였다.

공군약수



맏고 맹활약중
 벽지 농어촌부락들과 자매관계를
 재건활동의 일환으로 각부대는
 벽지 농촌과의 자매결연

現代戰의 諸般 樣相을 보더라도, 今後의 戰爭에 있어서는, 반드시 陸·海·空이 完全一體가 된 立體戰이 무엇보다도 가장 緊要不可缺의 條件이므로, 우리空軍에 있어서 도 空地協同作戰을 完遂하기 爲하여 戰術 및 節次를 統合的으로 教育하기 爲한 空地協同作戰教育隊가 作戰司令部 傘下로 K-16 基地에 創設되었다.

그리고, 創軍以來로 우리空軍에 充實한 航空廠이 없었기 때문에 各種 航空機의 整備을 저의 外國에 依存하여야 하는 隘路가 莫甚할 뿐더러 莫大한 國庫金의 流出을 막기 爲하여 着工되었던 東洋 屈指의 規模와 施設을 兼備한 우리의 大航空廠이 그동안 三年間의 工事を 끝마치고 一九六二年四月二十九日에 드디어 竣工되었는데 이로써, 現代化中에 있는 우리 韓國空軍에 또한 하나의 새로운 面貌와 偉力を 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空軍은 L-4型 練習機 一〇臺를 入手하여 서울上空에서 感激의인 初飛行을 하였을 때부터 이미 十三個星期에 걸쳐 끝없는 荆棘의 道를 걸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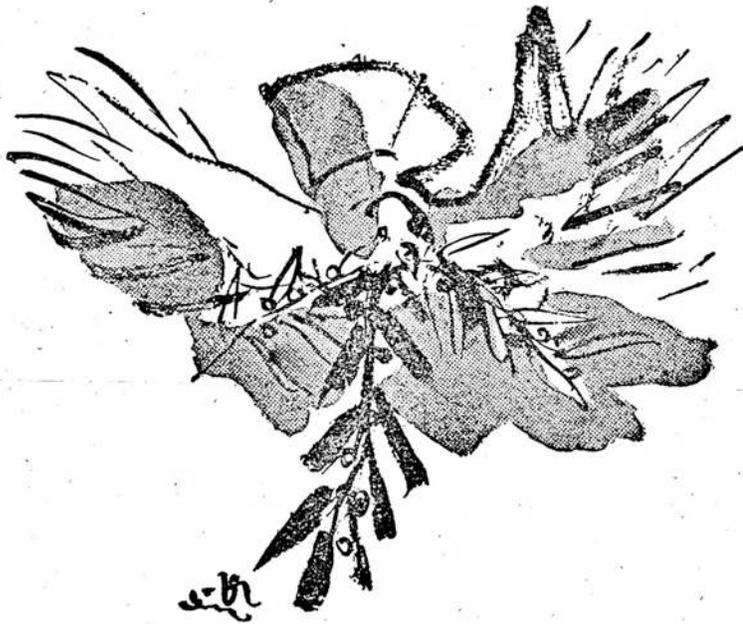
그러나, 六·二五의 戰亂을 겪으면서 우리空軍은 飛躍의인 大發展을 이룩하였으니 航空機에 있어서도 B-51 무스탕機 時代를 거쳐 이제 新銳 Z機로 裝備되었고, 人的, 物的 및 戰術面에 있어서도 우리國土를 守護하는데 거의 不自由를 느끼지 않을 程度로 되었음은 實로 慶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發展을 가져온 背後에는 全空軍將兵의 피와 땀과 더불어 自由友邦으로부터의 많은 援助와 또한 全體國民의 아낌없는 後援과 熱誠에 緣由한 結晶이라 할 것이다.

미 사 일

제 18 호
1962

發 行 處 · 空軍本部 政訓監室
發 行 兼 編 輯 人 · 空軍大領 朱 貞 鎬
印 刷 處 · 空 軍 教 材 廠
印 刷 人 · 空軍大領 金 石 桓



국군의날 특집호

民族의 젊음 위에

—國軍의 날에—

朴斗鎭

일찌기 역세엿던 東方의 밝은 나라
民族의 젊음 위에 榮光 있거라。

그실리어 햇별에 赤銅으로 뻗적이는
凜凜한 당신들이 우리들을 지킨다。

우리들의 아기를

우리들의 아낙을

우리들의 누이를

우리들의 형제들

우리들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지킨다。

우리들의 散步路

우리들의 食事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休息

우리들의 思索과 잡짜리를 지킨다。

당신들이 銃을 잡고 敵을 막는 位置

당신들이 무너지면 우리들도 무너지고

당신들이 너머지면 우리들은 죽는다。

우리들의 오늘의 營爲와 來日에의 計算

愛人을 家族을 이웃을 親和하는、

生活과 欲求와 去來와 計算

建設과 虛榮과 葛藤의 모두까지

猜忌와 派爭과 不義의 모두까지

당신들의 勞苦로써 마음대로 하게하는

당신들은 英猛한 民族의 字護者다。

民族의 正義를

民族의 安全을

民族의 自由、自主

統一과 平和已爲한

바다같은 가슴으로 바다들을 밀어라。

山岳같은 骨格으로 山岳들을 넘어라。

하늘같은 마음으로 하늘들을 날아라。

일찌기 여세있던 東方의 밝은 나라。

民族의 靑을 위에 榮光 있거라。

建軍 第十四周年

國軍의 날을 맞이하여

參謀總長
空軍中將

張 盛 煥



현하 國際情勢는 公산침략의 위협하에서 긴장이 날로 加重되어 가고 있으며, 北韓傀儡 또한 이러한 公산진영의 窺포에 便乘하여 再侵을 위한 戰力強化에 寧日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재건과 자립경제를 이룩하여야 하는 이 중대한 時期에 建軍 제 十四주년 國軍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지난 날을 되살피고 앞으로의 決意를 새롭게 하는 오늘 의 意義는 실로 큰 것으로서 國軍 여러분과 더불어 同慶하여 마지않는 바 임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公軍은 少數의 航空機와 더불어 創軍된 이래 오늘 의 面貌를 갖추기까지 온갖 苦難과 逆境속에서 長足の 발전을 거듭하여 왔읍니다.

連絡機에 手榴탄을 싣고 敵陣 깊숙히 들어가 적의 地上軍에게 投下하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거니와 熾烈을 極한 전쟁중에도 國民 여러분분의 절대적인 後援과 美國을 위시한 自由友邦의 적극적인 支援, 그리고 公軍장병의 헌신적인 奉仕에 크게 힘입어 차츰 戰術空軍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自由와 祖國守護의 前衛의 役割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우리 公軍으로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전쟁중에 자란 우리 公軍은 끊임없는 전력증강을 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東洋屈指의 航空廠 竣工, 全天候 邀擊비행大隊의 創設등으로 우리에게 부하된 空中防禦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全力을 다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宇宙開拓의 숨가쁜 경쟁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공산진영의 공군력증강은 自由世界의 安全을 위협하고 있으며 피뢰공군은 이를 배경으로 間斷없이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의 至大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六·二五동란을 회상할 때 우리는 制空權을 완전히 掌握함으로써 敵機의 空襲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항상 유리한 위치에 놓을 수가 있었읍니다.

더우기 가공할 武器의 發達과 공군력의 증대는 현대전의 樣相을 달리하여 軍事的目標에만 局限되던 戰爭이 이제 戰線의 前後方을 莫論한 全面的 戰爭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래에 있을 有機的이며 과학적인 전쟁에 적응하여 언제 있을지 모르는 敵侵에 對備하는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한다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敵侵으로부터 국민의 生命과 財産 그리고 自由를 지킨다는 莫重한 우리의 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공군은 自由友邦空軍과 더불어 일단 有事時에는 적에게 결정적인 打擊을 가할 수 있는 萬般의 대세를 갖추고 국민 여러분이 고요히 잠들고 있는 순간까지도 경계임무에 당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新型機를 導入하고 新基地를 건설하는 등 점차 증대하여가는 적의 침략위협에 대비함으로써 적이 어느 때 어떠한 方式으로 기습을 가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를 反擊挫折시킬 수 있는 防空態勢強化에 총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산침략을 沮止하는 一便 낯고 부패한 과거를 일소하고 새로운 터전위에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새나라를 건설하는 중대한 時點에서 있습니다. 國防 없는 국가재건은 없으며 국가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국방력 강화란 기대할 수 없고 또 그 어느 것이나 국민의 적극적인 協力 없이는 성취하기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전은 總力戰임을 생각할 때 군사력 強化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없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전군 十四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本人은 공군 전장병과 더불어 勝共의 信念을 한층 鞏固히 하고 國防態勢를 확립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使命을 완수하는데 盡力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그간의 국민 여러분의 盤援에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一九六二年十月一日



陸軍參謀總長 金鍾五

의의 깊은 제十四회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에 주야로 분투하시는 공군장병 여러분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회고하여 보건태 一九五一年 이날은 우리들이 불법남침하여 적공산군의 총수같은 공세를 오랜 고전난투끝에 깨쳐버리고 전멸(戰列)을 가다들이 복진을 개시, 드디어 원한의三八선을 돌파하였던 날인 것입니다.

이날로 비롯된 우리들의 복진작전은 그후의 미묘한 국제정세의 제약때문에 비록 무참히도 저지 당하였지만은 우리들의 비장한 결의와 열원은 휴전기간의 숨막히는 통분속에서 우리들의 가슴에 변함없이 맥박(脈膊)처럼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군은 피로써 확보한 현방어선을 굳게 지키는 한편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앞날을 위해서 전력강화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공군의 발전은 실로 눈부신 바 있어 강화된 전투편제의 위용과 이를 담당하는 공군장병의 고도로 향상된 전투기술은 온 세계의 한결같은 희망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극동방면에 중요한 일익(一翼)을 책임지겠음 되었읍니다. 또한 새로운 전략기술의 추향(趨向)이 공, 해, 육의 협동유대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는 이 마당에 공군의 비약적 전진은 유군으로서도 더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으며 육군자체의 발전에도 커다란 고무(鼓舞)와 격려(激勵)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한국전 당시의 미비된 공군을 추세워 오늘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성장하기 까지에는 공군장병 여러분의 뛰어난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點綴)된 투쟁과 노력의 자취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경의와 찬탄을 또한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五·一六 군사혁명 백척 간두의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진흥의 큰 걸음 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기를 마친 우리나라 군대에게는 공통적으로 그 현실을 분석 검토하고 종합된 대공 전투역량으로 일대 야전을 도모할 중대한 기회가 주어졌 것입니다. 따라서 혁명후 이를 위한 우리 군대의 노력과 정에는 우리가 군대성장기에 바쳐 온 것이상으로 과단과 인내 그리고 창의력을 소요했지만 우리의 만족할만한 수준에까지 이르러는 아직도 많은 노력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축보다는 오히려 반성과 권기의 날로 지켜오고 있는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군장병의 기백속에는 무엇보다도 또한 해의 포부와 자오가 고동(鼓動)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 본인은 우리 공, 육군서로의 협동(協同)과 유대(紐帶)를 일층 강화하자는 것을 호소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개념의 추이에 비추어 우리들의 협동과 유대는 더욱 절실히 바래지고 있을 뿐 더러 금차 혁명의 주도체로서 앞으로 민족 번영의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동과 유대는 어느 때 보다도 중대하게 되고 있습니다.

협동과 유대의 전제는 우리로서의 친선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국토방위의 공통적 사명에 투신하고 있다는 자부와 긍지를 지키고 뜨거운 전우애로서 단결해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이번 삼군 제정호 및 표지(標識)의 통일을 보게 된 것도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무분별한 자군간의 반목이 국방과 나아가서는 국운을 위태롭게 하였던 외국의 사례(史例)는 우리에게 중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서 본인은 또한 우리 공, 육군을 앞으로 더욱 훈련과 전비를 강화하자는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변동과 일진일보하는 전략기술 개념의 추이(趨移)속에서 우리의 전투역량도 역시 이와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괴뢰군은 휴전이후 출몰 차기 남침을 위한 전비증강

애 강군하여 온 결과 전선병력의 애 방대한 자원 및 증원역량을 확보하기에 이르렀고 북한 일대의 삼십여개 공군기지에는 근 천 대를 헤아리는 공군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적지않은 위협을 주고 있는 현 정세는 우리들의 반공 적개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공 이념을 더욱 높여 언제나 적을 누를 수 있으며 언제라도 멸공전장에서 치구(馳驅)할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에 꾸준한 정력을 다하는 한편 전투 태세를 완비하는데 창의와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필승 한국군의 전통은 이후 우리들의 결속과 노력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다시한번 국군의 날의 의의를 되새기며 공군장병 여러분의 무운장구를 충심으로 빌어마지않는 바입니다.

은익(銀翼)의 용사들이여! 불패(不敗)의 조인(鳥人)들이여! 영광있으라!



海軍參謀總長 李孟基

軍事革命後 多事多難한 가운데 어느 듯 두번째의 「國軍의 날」을 맞이 했습니다.

「國軍의 날」은 우리 國軍의 創設을 記念하는 날인 동시에 다시 한번 國防을 다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날 國民들이 出血의인 莫大한 税金을 내면서까지 우리 軍人을 기르고 아끼는 理由가 어찌 있겠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軍隊가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해 줄 뿐만 아니라 外寇의 侵略을 막아냄으로써 國民에게 國家의 安全保障을 約束해 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國軍에게는 國家의 干城으로서 나라와 民族을 지키는 榮譽로운 使命이 賦與되어 있습니다.

大韓民國憲法에 依하면 우리의 國土는 틈없이 島嶼를 包含한 韓半島의 全域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法理論을 必로 必要도 없이 嚴然한 내 疆土는 내 血肉이 살고 있는 北쪽 땅을 우리는 共產傀儡에게 獨占 當한 채 내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찌기 海軍을 開拓하여 世界를 制覇한 英國이 「自己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바다를 領海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힘이 약하다고 하여 남의 나라를 함부로 侵略하는 것도 決코 용서 못한 일이지만 내 同胞 내 疆土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國軍이란 外敵의 侵入을 防備하는데 있지만 失地恢復은 더욱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國軍에게 지어진 가장 큰 使命의 하나는 共產黨의 붉은 물결속에서 溺死狀態에 놓여 있는 以北 同胞을 救해 내는 것입니다. 이 길은 團結의 길이요 國防의 길이이며, 나아가서는 民族解放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보람 찬 길을 걷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北傀를 制壓하고 民族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이 아쉽습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國軍은 끊임없이 努力해 왔읍니다. 앞으로는 더 한층 戰技鍊磨를 비롯한 戰力增強에 刻若勉勵하여 精神的인 면에서나 戰術戰略的인 면에서나 能히 北傀를 壓倒하고 凌駕할 수 있는 臨戰態勢를 갖추도록 非常한 覺悟와 決意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空軍將兵 여러분 우리는 지금 革命課業完遂로 民族中興의 大轉機를 마련해야 할 重大한 時運에 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現實은 經濟復興없이 는 完全한 國防을 期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軍人으로서 國防에 힘써야 함은 勿論 國土建設에도 積極 協助하여 國防 및 經濟建設의 二大課業 完遂에 原動力이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특히 이 機會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陸, 海, 空軍 및 海兵隊 등 各軍內의 團結과 協助問題입니다. 科學戰이며 立體戰인 現代戰에 있어서 各軍間의 緊密한 連絡과 協助없이 는 到底히 最後의 勝利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航空機를 가지지 못한 우리 海軍으로서 는 空軍의 協助없이 上陸作戰을 비롯한 其他 海上作戰에 있어 훌륭한 戰果를 期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空軍과 海軍은 各各 特殊합니다. 그러나 그 特殊한 가운데서도 普遍化한 하나의 有機的인 大生命體로서 空, 海渾然一體가 될 때 空軍은 空軍으로서 또 海軍은 海軍으로서 莫強한 軍隊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民族 守護와 國防의 어렵고도 무거운 짐을 보다 가볍게 나누어 질 수 있으리라 고 믿습니다. 空軍將兵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더 한층 우리 海軍과 空軍의 理解와 友誼를 增進하고 나가서는 더 많은 協助로서 兩軍間의 紐帶를 強化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紙面을 通하여 貴紙 미사일의 發展과 아울러 空軍將兵 여러분 武運과 健勝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海兵隊司令官 金斗燦

國軍의 날이자 곧 空軍創設記念日이기도 한 뜻깊은 十月一日을 마지하여 海兵들의 가장 親近한 戰友인 空軍將兵 여러분에게 本人은 衷心으로 祝賀의 뜻을 傳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十四年前 極히 보잘 것 없는 兵力과 裝備를 가지고 誕生한 空軍이 그간 눈부신 飛躍과 發展을 거듭하는 가운데 마침내 現代 空軍을 象徵할 수 있는 莫強의 戰力을 建設하여 祖國 防衛의 근거한 一環이 되고 있는 今일에 이르렀다는 것은 正녕코 우리 創軍史上에 가장 特記할 여러분의 業績이며 同時에 空軍의 자라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六·二五動亂中 機先侵攻을 加해은 北韓傀儡의 實戰用戰機 二百臺에 對抗하여 不過 十餘臺의 練習機를 가지고 緒戰을 치른 그때의 悲憤과 그 후 우리 空軍이 太極旗 標識로 鮮明한 戰機를 熟練된 솜씨로 操縱해서 雪辱의 첫 出擊을 開始하였을 때 눈물어린 熱狂의 喝采를 보냈던 當時의 感激은 지금도 記憶에 生생한 바가 있으며 動亂全期間을 通하여 『유엔』軍中 第二位의 빛나는 出擊記錄을 樹立함으로써 每樣 對共作戰의 앞장이 되어

上軍 支援와 制空權 確保의 重責을 遂行해 나온 여러분의 赫赫한 戰功에 對하여 國民들은 한결같이 깊은 感謝와 마음속으로부터 높은 讚揚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空軍이 더욱 增強되고 더한층 現代化되어야 한다는 것은 非但 六·二五의 敎訓에 미루어서 만이 아니라 將次 到來한 戰爭이 새로운 戰略戰術의 概念을 同伴하고 있는 現代戰이라는 데서 必然의으로 實現되지 않으면 안될 當爲性을 띠고 있으며 더우기 空軍은 高度의 立體戰下에서 遂行되는 上陸作戰을 通하여 우리 海兵隊와는 不可分離의 密接한 關係에 있으므로 國家의 戰略動豫備隊로서 次期作戰에 對備하고 있는 海兵隊의 自體強化 目標도 其實은 空軍의 強化問題와 그대로 相通하는 무엇보다도 時急한 國防의 共同課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多幸히 우리의 이 懸案은 國民들의 絶對的인 聲援과 援助當局의 깊은 理解로 말미암아 漸次 그 成實을 거두어가는 段階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努力을 앞으로 繼續해서 더욱 強力히 展開하여야 할 것이며 空軍과 海兵隊는 이러한 共同의 目的을 指標해서 언제나 有機的인 相互協同을 보다 더 緊密히 維持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確信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歷史의 인 五·一六革命을 一大轉機로 하여 對外的으로는 反共의 모든 態勢를 再整備 強化하고 對內的으로는 祖國再建의 大課業을 全國民이 舉族의으로 遂行하고 있는 重大한 時點에 놓여 있습니다.

舊惡과 腐敗와 貧困으로부터 國家民族의 危機를 救出한 우리 들은 革命初期에 發揮한바 불타는 愛國心과 無限한 勇氣와 果敢한 實踐力을 여기저기 더 한층 북돋우고 더욱 더 倍加하여 革命 第二年의 最大課業인 經濟 五個年計畫을 舉軍의으로 強力히 推進하므로써 民族主義 福祉國家建設에 보람있게 寄與하는 한편 對共戰力의 不斷한 培養으로 自立國防態勢를 鐵桶같이 確立하고 나아가서는 宿願의 勝共統一聖業을 우리들 自力으로 期於히 成就 하고야 말 것이라 함을 오늘 意義깊은 國軍의 날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空軍의 無窮한 發展과 總長任을 비롯한 空軍 全將兵의 倍前의 建勝과 成功을 祝願하는 바입니다.

建國理念과 國家再建

金 東 河

△最高會議 外務國防委員長▽



의 文
論 頭 卷
이

悠久半萬年の 歴史를 記錄하였고 單一民族의 純潔을 連綿히 이어받아 素朴하나마 固有한 民族文化를 쌓아 올린 우리나라는 決코 自畫自讚이 아니라 世界어느나라에 못지 않는 建國의 바탕을 갖고 있다. 盛衰興亡이 人類史를 가로 엮는 起伏이라면 이 나라의 宿命도 이 攝理에 超然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들의 祖上과 우리들이 겪은 民族의 哀歡은 또한 너무나도 明暗의 交錯이 많았었다. 아득한 前날의 明暗은 고사하더라도 封建李朝의 末路를 재촉한 新世紀의 黎明도 이땅에는 決코 따사로운 햇살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다. 異民族의 등살에 受難의 十字架를 걸머지고 暗憺한 世相을 咀呪하던 半世紀에 가까운 苦難의 歷程은 實로 지루하고도 뼈저린 記錄이 아닐 수 없다.

這間에 있어서 三·一烽火로 斷末의 絶叫을 부르짖기도 했고 뜻있는 先驅者들로 하여금 身命을 鴻毛와 같이 던지겠끔 하였던 것이다. 흐르는 時間과 더불어 渴望하던 光復의 瞬間은 드디어 왔었지만 運命의 惡戯는 또다시 우리 民族에게 苛酷한 試鍊을 賦課하고야 말았다. 國土의 兩斷과 아울러 民族의 分裂을 强要당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荆棘의 旅程이 始作되었던 것이다. 韓半島의 折半 땅에나마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團結을 가져오고 長久한 歲月속에 스며든 社會的 弊習을 果敢히 打破하고 民主主義 制度를 樹立하여 國民 各個人의 機會를 均等히 賦與하여 各自의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겠끔 하는 모—든 條件과 秩序를 創設하여 國民生活의 均等向上을 圖謀하고 나아가서 國際平和에 貢獻할 수 있으

며 그러하므로써 우리와 우리들의 後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과 繁榮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는 倖存 建國의 歡喜도 한때였고 貧困한 政治속의 百惡이 亂舞하여 波瀾말던 이 땅의 將來를 또다시 累卵의 危機속에 물아 넣고 말았던 것이 바로 一九六一年五月十六日 前夜에 이르기까지의 이나라 이겨레가 겪어야 할 現實이 었었다.

雄渾한 建國의 理念을 앞세우고 三千萬의 大行進이 浴浴히 흐르는 民族中興의 새아침을 想像하던 倖存 國民들의 期待가 한날 蜃氣樓와 같이 홀어져 사라질때 國民들의 虛脫感은 比할 수 없이 컸고 背信의 憤怒는 드디어 噴火口를 터뜨리고야 말았던 것이다.

四·一九、五·一六은 바로 그것이였다. 百尺竿頭에서 祖國의 運命을 救出하고 眞正한 建國理念을 早速한 時間內에 具顯하려는 熱意의 結晶體가 바로 革命의 主體勢力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革命政府에서는 이 崇高한 民族中興의 聖業인 國家再建課業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에 對하여서 言及하면 이미 革命旗幟를 올린지 一個星期이 넘었다. 第一段階의 淸掃作業은 電光石火로 끝났고 第二段階인 建設段階는 바야흐로 全速으로 進行中에 있다. 近代國家의 經濟는 多樣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屬性으로 되어 있다. 高度의 物質文明은 바로 生産力의 肥大를 擔保로 維持되는 것이기에 再建課業의 最大의 目標은 健全한 經濟秩序의 確立에 두어야 함은 說明을 必要치 않는다. 그러기 革命政府는 재빨리 經濟計劃을 내놓은 바 있다.

即 第一次로 五個年을 單位로 하여 子先 基幹産業의 土臺를 構築하는데 主力을 두고 있으며 經濟成長率을 急進的으로 擴大하는 意慾의인 政策들이 續續執行되고 있는 것이다. 萬身瘡痍의 既存産業施設의 補強擴大는 勿論 新規施設의 創設等 눈부신 胎動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一方 産業構造의 改善과 아울러 精神改造의 革命課業 또한 줄기차게 步調를 같이 하고 있다.

前揭한 三·一建國理念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長久한 歲月속에서 움트고 싹튼 온갖 社會的 弊習과 어두운 그림자를 刷新打破하고 正義와 勤勉과 同胞愛로써 民族團結을 이룩하는 人間改造事業이 經濟建設과 併進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록 形而上學的인 이 課業이 難之難事인 課業中的 하나이기도는 하나 우리들의 心境은 다음의 古時調로 臨하고 있다.

『泰山이 높다 해도 하늘아래 피로다. 사람이 제 안 오르고 피만 높다 하더라.』 『로마는 바로 아침에 이룩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 그러나, 「로—마」로 通하는 길은 주름잡을 수는 있다. 취지 않고 부지런히 줄기차게 다름 질치자 「로—마」를 向해서…………』

이 같이 物心兩面의 改革과 再建은 決코 容易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앞길에는 許多한 峻山峻嶺이 가로놓여 있다. 飢餓線의 國民所得은 擴大再生産은 커녕 單純再生産도 어렵게 하였고 따라서 枯渴에 處한 民族資本은 生産力을 瀕死의 境地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腐敗와 無能한 지난날의 政治는 이
러한 現實에는 아랑곳 없이 만진만을 치고 있었던 것이
다. 한 사람의 政治人이 벼락 富者가 되는가 하면 그 裏
面에는 수많은 被奪群像이 그들에게 주어진 唯一한 抵
抗인 阻呪와 怨恨으로 날이지고 해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國運을 어지럽힌 政治의 橫暴가 極限을
向하여 줄달음칠때 이 나라를 赤侵으로부터 保衛한, 정
녕코 祖國大韓과 의 運命共同體인 젊은 獅子들인 國軍勇
士들의 손에 依하여 殞命直前에서 救出되었다.

이렇듯 革命의 緣由를 考察할때 五·一六의 舉事는 神
이 아직도 이 땅을 버리지 않았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이제 建國理念과 國家再建을 論함에 있어 가장 主要點
을 要約해서 結論을 앞세운다면,

첫째, 우리들은 우리와 우리 子孫들에게 우리 祖上들
이나 우리들이 겪은 뼈저린 經驗을 다시는 되풀이 시키
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 千年社稷을 盤石위에 올려
놓고야 말 것이다.

富強하고 平和스럽고 自由로운 祖國幸福을 永遠이 누
릴 수 있는 祖國의 기틀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련해 놓
아야만 後孫들에게 對한 義務를 다하는 것이 될 것이요.
나아가서는 못난 祖上이라는 陋名을 벗게 되겠기에 들을
깨물고 全力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들 것은 建國의 五大理念인 三·一獨立精
神을 바탕으로 하여 悠久한 正義人道에 立脚하여 民族의
團結로서 民主主義의 開花를 期하는데 온갖 努力과 犧牲
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하여 國民 各自은 各人이 가지고 있는 能力
과 知慧를 最高度로 發揮하여 所屬된 職域에서 創造的
인 努力을 아끼지 않아야만 벼락 歷史的인 使命을 完遂
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로 再建의 中心課題인 民主主義制度의 確立은 그
前提要件으로 機會均等이 先行해야 된다는 것이다.

過去 우리들은 制憲의 明白한 趣旨속에서도 國民 各自
는 政治、經濟、文化、社會의 온갖 部面에서 均等한 機
會를 소리 높이 웨쳐왔다. 적어도 形式的으로는 그랬을
런지는 모르나 實地 內容面에 있어서는 一般國民들은 許
多한 制約속에서 各自의 天稟을 發揮할 機會를 喪失하고
默殺當하여 왔다.

그것이 얼마나 이 나라 發展과 繁榮을 抑制하였으며,
遲延시키었는가 想到할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哀到을
禁할 길 없다. 그러므로 國家再建課業에 있어 크게 比重
을 차지하고 있는 課題의 하나로 이 命題의 解決을 들 수
있다.

이미 施施中에 있는 各部面에서의 公開競爭制度는 바
로 이 問題를 다루는 試金石인 것이다.

그러므로써만 人智와 能率의 合理的인 組織動員이 可
能하며 國家全體의 綜合力量이 遺漏없이 具像되는 것이
다. 近代 國家社會는 高度의 物質文化的 消費가 隨伴한
다. 그러므로 物質調達은 곧 生存을 意味하겠끔 되었다.
아무리 道義的인 國家秩序가 確立되어 있다고 해도 物
質的인 消費財에 窮한다면 그것은 한낱 坐禪의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生産力의 擴大야 말로 우리 再

建課業의 最大最高의 目標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目標만은 期必코 爭取해야만 된다。

目標物은 멀고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
나 오르고 다달아야 한다。 萬에 一이라도 이 자리에서 屈
한다면 우리는 永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奈落의 구렁텅
이에서 죽어 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子孫을 奴隸
船에 賣買하는 斷腸의 血淚를 뿌리게 될 것이다。

建國의 理念에서 이미 指摘하다 싶이 우리는 우리와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거나와 이러한 建國의 理念을 우리 손으로
우리 世代에 實踐하기 爲해서라도 우리는 生産力增強에
全力을 기울여서 富의 源泉을 마련해야만 한다。

五個年經濟計劃은 바로 그 富의 源泉을 構築하는 「주
춧돌」이다。 비록 오늘에 따라서 풍부하고 豊裕한 生活이 없다가
더라도 우리는 밝은 來日에 살자!

來日의 꿈을 갖다준 五·一六의 아롱진 깃속에 포근히
잠겨서。

시

절이 바람

일병 이 상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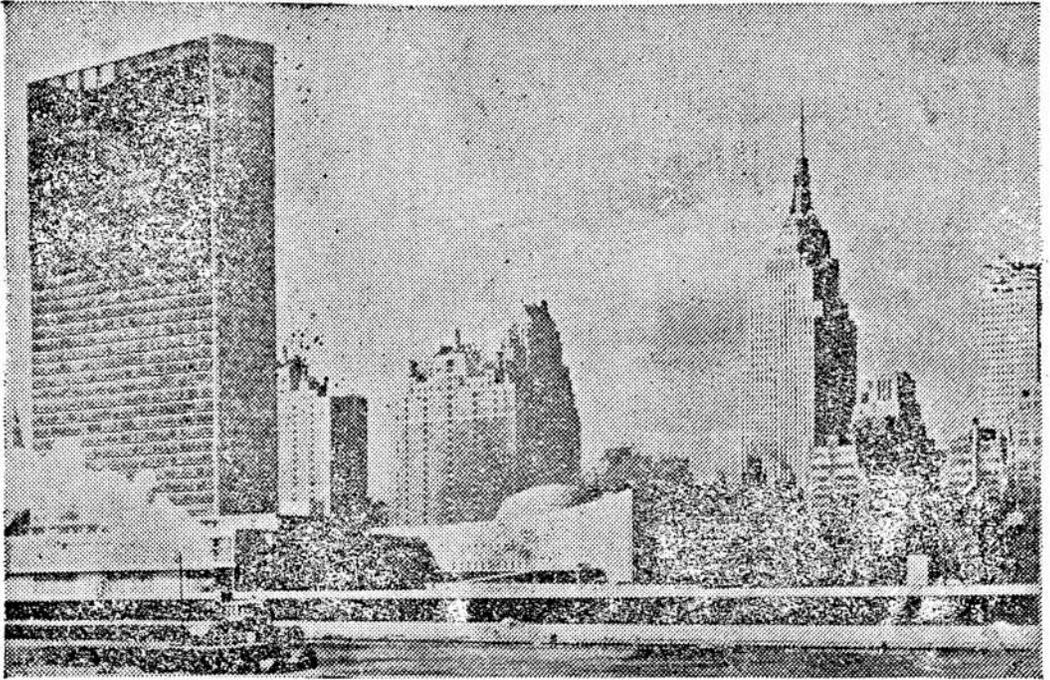
여기 절은이가 있다.
회오리 속을 휘감겨간,
가랑잎의 餘韻처럼
沈黙하는 기백이
온통 절은 가슴에 서리어 있다.
절은이가!

希望의 열이 치솟는 太陽의 閃光이
새세대의 잠을 깨우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 모두 풀는 가슴을 열고,
散血된 눈동자를 한꺼번에
조국의 기폭아래 멈추어 보자.
절은이가!

그대의 情熱과 時代의 울부짖음을
오직 우리의 뇌리속에서 躍動하는 것이다.
침착된 現實이 死線에 놓여도
우리는
용감히 내일의 기약을 응시하자.
용감히 生을 양산에 충실시켜 보자.
단약

그대가 淚線上에서 절박된다면
靑春의 意識創造을 忘却하는 것이려니
生命을 넘어서라도
時代에 順應竝進 할지어라.
靑春의 血氣를 증미는 저주와 수치의 교차점.
그 狀態를

미래를 위한 체험분으로 여겨
少女의 마음으로
새 세대의 燦爛한 閃光에
「滿足」이라 約束해 볼지어다.
반파라 자랑쳐 보자.
(제10월번호)



UN에 對한 우리의 期待

金 俊 煥

<東洋通信 外信部長>

유엔·대이에 부쳐서

(一)

「유엔」은 오는 九月十八일부터 第十七次總會의 幕을 올린다. 此의 例外 없이 總會의 議題로 採擇되어 온 韓國問題는 今年 總會에도 上程될 것이 確實視되거니와 五·一六革命後 두번째로 「유엔」總會의 開催를 맞이하는 우리는 새로운 決意와 萬端의 準備를 가지고 對「유엔」外交에 萬全을 期해야 하겠고 더우기 五·一六後에 이룩한 諸般 改革과 「유엔」의 諸原則을 支持하고 우리 韓國政府의 國土統一方案을 友邦 諸國과 非共産 中立諸國에게 徹底하게 認識시킴으로써 韓國問題의 討議에 있어 우리에게 보다 많은 支持가 있겠음 積極的인 努力이 展開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 政府는 이미 오래 前부터 第十七次 「유엔」總會에 對備한 여러 措置를 取하여 왔음이 周知된 事實이니와 우리는 韓國과 「유엔」의 特殊한 關係 및 지난년의 第十六次總會를 概觀하고 今次 總會를 展望함으로써 「유엔」에 對한 우리의 期待를 풀이하여 보고자 한다.

(二)

세상 말할 必要도 없는 일이지만 韓國과 「유엔」은 달리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이 密接하고 特殊한 關係를 가진다.

첫째, 「유엔」은 大韓民國 政府의 樹立에 있어 産婆役을 하였다.

一九四五年 日本의 敗亡으로 第一次

世界大戰이 끝나고 韓半島가 日本에서 解放된 後 三八線 以北을 占領한 蘇聯은 그들의 占領 地域을 共產化하는 데에 만 汲汲하였을 뿐 三八線 以南을 占領한 美國側과 韓國의 獨立을 위한 眞摯한 協調을 가질 것을 拒否하였다. 그리하여 美國側은 韓國問題를 「유엔」에 提起하였고 一九四七年十一月 第二次 「유엔」總會에서 韓國獨立問題의 討議를 보게 되었다. 이때 總會는 「유엔」 韓國委員會를 組織하고 同委員會의 監視下에 韓國에서 自由選舉를 實施할 것을 決議 하였다.

그러나 共產側은 同 「유엔」 韓國委員會團이 北韓으로 들어오는 것을 拒否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一九四八年二月二十六日 「유엔」總會는 于先 「유엔」 韓國委員會의 監視下에 우리의 可能한 地域에서 藍 우리의 意思로 選舉를 實施할 것을 決議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總會의 이 決議에 따라 諸般節次를 밟은 後 同年 五月十日에 制憲國會를 選出하였고 뒤이어 同年 八月十五日에는 大韓民國 政府의 樹立 宣布하였던 것이다.

둘째, 大韓民國 政府는 「유엔」에 依하여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받았다.

前述한 바와 같이 「유엔」 韓國委員會의 監視下에 實施된 自由選舉로 우리 國會를 構成하고 政府를 樹立한 後 一九四八年 十二月十二日 「유엔」 總會는 大韓民國 政府를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하는 決議案을 四十八對六으로 通過시켰다.

세째, 「유엔」은 共產侵略으로 부터 韓國을 保護하였다.

一九四八年 八月十五日을 期하여 우리 政府가 樹立되자 美國側은 軍政下에서 그들이 擔當하였던 一切를 政府에 引繼하고 一九四九年 六月二十九일까지에 韓國으로 부터 全美軍을 撤收시켰다. 그 사이 北韓에 共產 使館을 政權을 세우고 充分한 裝備을 갖춘 共產軍을 育成하기가 狂奔하였던 蘇聯은 美軍이 撤收한 後인 一九五〇年 六月二十五日을 期해 北韓傀儡軍의 南侵을 命하기가 이르렀다.

共產軍의 南侵이 있자 「유엔」安保理事會는 共產侵略軍의 即時 撤收를 要求하는 同時 「유엔」會員國들의 支援를 要請하였다. 이 結果 「유엔」十六個國이 韓國動亂에 參戰하여 逆境속에서 苦戰中이던 韓國軍의 盟友로서 隊列을 같이하여 中共軍으로 補強된 共產軍을 擊破하였고 韓國을 守衛하기가 이른 것이다. 一九五〇年 七月七日 「유엔」이 「프루만」美國大統領을 任命하도록 要請하여 「맥아더」將軍이 그 職을 擔當한 以來 韓國軍과 「유엔」이 派遣한 十六個國 軍隊는 同一한 指揮系統下의 戰友로서 前例없는 協同作戰을 遂行하였던 것이다.

셋째, 「유엔」은 韓國을 保護할 責任이 있으며 韓國問題의 解決을 促求해야 할 義務가 있다.

一九五三年 七月二十七日의 休戰協定으로 韓國戰爭은 一旦 休戰되었으나 共產威脅은 尙存한다. 이 共產威脅으로부터 韓國을 守護해야 하는 것은 「유엔」의 責任이요 義務이다. 現在 韓國에도 「유엔」軍이 繼續 駐屯中이며 韓國軍도 「유엔」軍司令官의 指揮權下에 있음이 現實인즉 「유엔」은

將次 發生될 지도 모르는 國際共產主義勢力의 모든 策動 앞에서 韓國을 守護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韓國 政府 樹立의 產婆役이 「유엔」이었고 또 오직 「유엔」의 權能과 力量을 承認 信奉하고자 하는 것이 即 韓國이기 때문이다.

(三)

우리와 「유엔」의 關係가 以上과 같이 密接·特殊한 것이기에 每年 「유엔」總會가 開催되면 韓國問題가 거의 外溢의 議題로 上程되어 왔다.

昨年 九月부터 開催되었던 第十六次總會에서는 一九六〇年度의 第十五次總會에서 議題 幅奏로 次期總會로 討議를 延期할 것을 決議한 案件中에 韓國問題가 들어 있어 韓國問題가 自動的으로 上程되었었다.

第十六次總會에서 韓國問題의 討議가 開始된 것은 一九六一年 十二月十二일부터 이었다. 總會 第一委員會(政治委員會)全會員國으로 構成된 「韓國問題」를 上程하기에 앞서 共產卒徒國인 外蒙古는 十一月三十日 韓國問題 討議에 南北韓代表를 함께 招請하자는 決議案을 提出하였고 十二月七日에는 「유엔」軍을 南韓으로 부터 撤收시키라 하는 決議案을 提出하였다. 같은날 蘇聯은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會(UNCRK)를 廢止하라는 決議案을 提出하였다. 한편 美國은 十二月九日 大韓民國 代表團을 韓國問題 討議에 招請한 것을 要求하는 決議案을 提出했던 것이다. 뒤이어 十二月十二日 韓國에 參戰하였던 「유엔」十五個國은 統一된 韓國의 實現을 위한 「유엔」의 目的을 再確認하는 決

議案을 提出하였다.

政治委員會에서 討議가 始作되자 共產側은 特히 五·一六革命의 發生을 트집잡아 虛無孟浪하고 不當하기 짝이 없는 非難을 韓國에 加하였으므로 이에 對해 美國代表 「찰스·요스트」氏는 十二月十三日의 演說에서 「韓國政府는 國民들에 對한 모든 責任感을 보여 주었다. 韓國政府는 改革을 通하여 國民의 生活를 改善하였다. ... 우리의 大韓民國 政府는 北韓傀儡처럼 不幸한 命運이 리를 樂園이라고 主張하지 않는다. ... 그러나 戰禍와 經濟的 困難에도 불구하고 大韓民國에서 自由 民主主義는 近年에 鼓舞的인 發展을 보여 주었다」고 痛快한 反駁을 加했던 것이다.

같은날 政治委員會는 大韓民國代表를 同委員會의 韓國問題 討議에 無條件 招請하는 同時 北韓傀儡가 韓國問題 取扱에 있어서의 「유엔」의 權能과 權威를 認定한다는 條件附로 北韓代表도 招請한다는 決議案을 六十三票 對 十八票 棄權 十九票로 通過시켰다. 이것은 南北韓代表를 同等한 資格으로 招請한다는 外蒙古 決議案에 對하여 希臘 및 泰國의 北侵은 條件附로 招請한다는 修正案을 提出하여 採擇되었던 것이다.

이 北韓傀儡의 條件附 招請이라는 線은 一九六一年 四月에 있었던 第十五次總會에서 美國代表 「아들라이·스탈린슨」氏에 依해 처음 示唆되었던 方針이다. 同方針이 비록 亞阿中立勢力과의 折衝이라는 當時의 客觀的 條件에 對한 配慮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에는 理解가 가나 우리로서는 容納키 어려운 不當한 傾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北傀는一九四八年以來 「유엔」의權威와權能을無視해왔고 韓國戰에서「유엔」에 正面 敵對하였거늘 또 大韓民國이 韓國의唯一合法政府로「유엔」의承認을 얻은 바 있거늘 그들과우리를 同席시킨다는 것은 萬不當한言不成說인 것이다. 多幸히 北傀에對한條件附招請은 十九日 政治委員會에서 五十四票對十七票 不參十一票로 撤回되었다.

앞서 政治委員會의 招請을 받은 우리代表 崔德新外務長官은 十二月十四日 同委員會에 出席하여 「유엔」原則을 遵奉하여 「유엔」과 協調하는 立場을 闡明하였으며 同月二十日下午 政治委員會는 參戰十五個國이提出한 韓國問題決議案을 五十五對十一票權二十으로 通過시켰고 同日 밤總會는 同決議案을 六十對十一票權二十七票로 承認하였다. 同決議案은 「平和의인方法에 依한 代議政府形態下의 統一·獨立·民主韓國의 樹立과 同地域(韓半島)의 國際平和 및 安全한 回復을造成하려는」 「유엔」의 目的을 再確認하는 同時의 UNCURK의 存續을 命하는 것이었다.

이 決議案이 앞서 政治委員會를 通過하자 敗色을 짐작한 蘇聯은 UNCURK 解體 決議案을 外蒙古는 南韓으로부터의 外軍撤收를 要求하는 決議案을 各各 撤回하였으며 參戰十五個國의 決議案이 通過됨으로써 十六次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論은 段落을 보았던 것이다.

(四)

以上第十六次總會의 經過를 보아서도 짐작되는 일이지만 今年 總會의

서도 共產側은 韓國問題의 討論에對해 熾烈한 妨害工作을 展開한 것이다. 共產側의 戰略은 必然的으로 UNCURK의 解體·南韓으로부터의 外軍撤收·北韓傀儡의 無條件招請 等 陳腐한 要求를 手段으로 하게 될 것이다. 亦아울러 韓國政府에 對한 無道한 虛偽 宣傳을 擇하게 될 것이다.

蘇聯은 이미 지난 六月 「南韓」으로부터의 外軍撤收」問題를 討論한 것을 「유엔」에 正式으로 要求한 바 있으며 「유엔」總會가 韓國問題를 上程하면 昨年總會에서 決議案들이 또 提出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

蘇聯이 今年에는 진작부터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 今年 總會에서 共產側은 韓國問題를 圍繞하고 더욱 熾烈한 攻勢로 나올지도 모른다. 그 境況에 共產側의 加重된 外交攻勢는 그 動機가 自明한 것이다. 從前의 孤立外交를 止揚한 우리 革命政府의 積極外交가 其 成果에 對해 그들이 焦燥感을 가지게 된 것이다.

共產側이 今年 總會에서 使用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戰術으로는 이른바 國際會議案이 登壇할지도 모른다. 「라오스」의 境況을 例로 하여 全히 性格을 달리하는 韓國問題에도 「라오스」와 같은 方法을 適用시키고자 의지 提案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越南問題에 關한 國際會議을 開催해야 한다는 共產側 主張에서 엿보이고 있다.

그러한 共產側案이 提起되는 境況은 一九五四年의 「제네바」會議가 어떻게 締結되었던가를 아는 우리로서는 一顧의 價値조차 없는 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五)

崔外務長官은 지난 七月三日 記者會見席上에서 今年度「유엔」總會對策이 이미 마련 되었다고 밝히고 「유엔」監視下의 南北總選舉라는 統一方案과 北韓傀儡의 同席을 拒否한다는 根本原則에 의거한 總會 때와 變함이 없었다고 敷衍하였다.

五·一六革命後 政府는 數次에 걸쳐 世界各部分에 親善使節團을 派遣한 바 있지만 特別히 亞阿中立諸國에 對한 積極外交로 여러 新生國家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되었음은 從前에 비해 相當히 有利한 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겠다.

今年의 「유엔」總會는 아마도 例年과 같이 UNCURK 報告形式으로 韓國問題를 討論하게 될 것으로 豫想되거니와 우리는 「유엔」이 다시 한번 韓國에 對한 유엔의 責任을 強力히 再確認하게 될 것을 期待하는 것이다.

昨年 十二月二十日 UNCURK 代表로 「유엔」總會에 參席했던 比律賓의 「후앙·아페그라도」氏는 이렇게 發言하였다……「韓國 防衛를 위해 UN이 擔當하고 있는 基本役割에 비추어 外部 侵略으로부터의 安全이 韓國에 保障되지 않으면 안된다. UN이 繼續 支援해야 하는 責任은 아직도 重大하다. 왜냐하면 韓國은 아직 廣範圍한 援助를 必要로 하거나 繼續的인 挑戰을 無視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 말은 그대로 「유엔」에 對한 우리의 期待를 代辯하는 表現이라 할 것이다.

(끝)

東西 逸話 없어진 뇌물

성종대왕 때였다. 어느 판리가 지방에 갔다가 미단 열 필을 받고 있을 줄을 몰지 않게 처리해준 일이 왕의 귀에 들어왔다. 그 판리가 돌아와 부명(復命)을 하자 왕은 그를 편전에 불러 물었다. 「요번 일에 수고가 많았을 줄 안다. 틀려대 너는 이런 물건을 좋아한다니 상금으로 가져라.」 하고 미단 열 필을 내 놓았다.

그러나 판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뇌물을 받은 것이 판로 되었음을 알고 그 판리는 사사나 무처럼 편면서 죽여달라고 부러 하였다.

그러나 왕은 「죄됨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호유(曉諭)하고 나그려이 용서해 주었다.

그 후 또 어느 재상이 척추(戚屬)인 어느 고을 수령에게서 민어와 석이 몇 마리를 받고 그것 이 뇌물인가 염려가 되어 임금앞에 부복하여,

「신의 척추되는 아무 고을 수령이 이런 것을 노모(老母) 찬수(饑需)로 쓰라고 보내왔기므로 받았을니다.」 하고 말하였다.

「정도로 주는 것은 예(禮)요 뇌물이 아니니 받아도 무방하오」 뇌물은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청렴결백한 이도(吏道)인가.

特輯

근근이 인간과 명에

人格과名譽



金 桂 淑

△哲博·서울師大教授▽

現代는 宇宙圈까지 征服할만큼 科學과 技術이 발달하고 있는 동시에 여기에 따라서는 또는 그것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진 社會人間關係에 대한 科學的 研究도 왕성하며 또 많은 成果를 나타내고 있다. 現代人은 좀더

나은 社會生活과 올바른 人間形成을 위하여 各方面에 있어서 싸우고 있으며 특히 現代 社會는 모든 分野에 있어서 「民主的 發展」을 그 最大의 目的으로 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社會와 人間의 問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人間의 모든 努力 심지어는 自然科學的 發達까지도 어떻게 하

면 人間의 올바른 民主的 發展에 참다운 寄與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問題가 진지하게 論議되고 있다. 아니 실지로 討議되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現代의 科學的 研究는 극도로 專門의이며 技術化되어 있는 동시에 綜合的인 發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실지로 그림으로써 많은 成果를 나타내고 있다. 科學的 研究뿐만 아니라 社會問題 人間問題의 解決에 있어서도 綜合的 研究, 따라서 綜合研究所의 發達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科學的 發達에 있어서도 人間的 要因의 問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科學의 發達이라 科學的 研究라고 하면 전연 人間的 要因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러나 좀더 高次的인 發達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니 참다운 現代의 發達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問題의 하나이다.

또 現代의 社會組織은 대단히 복잡한 동시에 組織의 이며, 또 「컴뮤니케이션·메디

아」의 발달과 함께 대단히 統制力이 강하며, 따라서 機械的인 機能이 支配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社會生活이라고 하면 이와같은 機械的인 組織體속에 있어서의 被動的인 生活만으로서 이해하는 동시에 그 物質的이며 機械的인 生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 벗어날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도 現代社會生活에 있어서의 한 特徵이라고 한다. 더우기 이와 같은 傾向의 強化는 高度의 科學的 發達과도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社會生活」이라, 「民主生活」이라고 하면서도 實生活과 行動에 있어서는 그 自身の 「人間的」 機能에 대한 沒理解와 함께 「人間價値」에 대한 철저한 認識의 不足 때문에 現實에 있어서의 社會生活과 人間關係 따라서 社會的 發達에 있어서의 障害와 弊害는 대단히 크다. 즉 社會와 人間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社會行動」의 問題는 올바른 現代的 發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行動은 한편에 있어서는 集團의 成員으로서의 個人的 獨特한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集團의 成員으로서 集團과 같이 共通인 行動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같이 集團과의 關係에 의하여 社會的 人間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나, 그러나 우리의 個性의 發達は 家庭에 있어서의 人間關係와 生活樣式은 물론이요, 그 道德觀의 영향을 받으면서 交友關係와 學校生活 또는 集團의 性格에 따라서 달리 形成되며 左右되기 때문에, 우리의 社會生活은 社會行動과 함께 個性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社會心理學에 있어서는 性格, 能力, 氣質 등의 個人的인 特性을 總

稱해야 「個性」이라고 하며, 그것을 英語로서는 「필스넬리티」라고 한다. 그런데 보통 「필스넬리티」를 人格이라고 번역하면, 心理學者가 쓰는 人格은 주로 복잡한 精神現象을 意識活動속에서 融和시키며, 統一시키는 個體에 있어서의 統一體를 말한다. 즉 過去와 現在 또는 未來에 대한 時間的 統合意識과 함께 現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한 空間的 統合意識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心理學에 있어서는 人格이라고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過去에서 未來를 向하여 發達變化하는 精神現象에 대한 意識的 統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個性」을 가진 個體로서의 人格도 사람, 즉 人格의 存在를 非人格의 存在에서 區別하는 絶對的인 特性이다.

그런데 사람은 個體로서의 存在인 동시에 社會的 人間으로서 社會的 行動을 하기 때문에 위에 논한 人格의 特性은 社會的 行動에 있어서는 具現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人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倫理的인 面に 있어서 問題되어야 한다. 아니 倫理에 있어서는 사람의 사람다운 價値를 「人格」에 둔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人格은 心理學에 있어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 人格은 個體에 있어서의 經濟的 意識內容의 統合이나 連續에 그치지 아니하고, 自我意識에 의한 精神的 統一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人格은 그 自身の 動機에 대하여서도 選擇(自由選擇)을 하며, 여러가지 活動을 目的的 法則에 의하여 決定하는 동시에 그 活動에 대하여서는 責任을 질러야 하며, 또 실지로 責任을 질 能力을 가진 主體를 의미한다. 더우기 그러한 能力이라

고 하는 것은 다만 그러한 性格을 가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自身이 自律的으로 普遍的 價値를 가진 行動을 하도록 決定하며 行動하려고 하는 참다운 自由意思를 가진 道德的 存在인 동시에 人格(人格者)은 그 自身 價値를 가져야 한다. 「一般事物의 價値는 功利的인 것에 있으나, 人格은 內的 價値와 道德的 價値를 가져야 한다. 즉 人格은 「尊嚴性」을 가져야 하며, 威嚴이 있어야 하며, 品位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萬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같은 人格의 發達이 不完全하면, 意識分裂뿐만 아니라 精神分裂에 빠지며, 二重人格이나 複合人格에 빠질뿐만 아니라 人格喪失 또는 人間疎外에까지 이르게 된다. 더우기 이와 같은 現象은 극단적인 對立狀態에 있으면서 環境을 克服하지 못하는 現代人的 特徵의 하나이라고 하면, 現代人으로서의 우리는 人格의 問題에 대하여 再檢討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이 現代의 病徵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最善을 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人格으로서의 우리의 使命이다.

二

사람을 社會的 行動으로 이끌어가는 原動力은 欲求다. 사람은 누누를 막론하고 그 自身の 欲求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行動한 뿐만 아니라 그 行動을 통한 社會生活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人間關係를 促進하면서 또 欲求를 여러가지 方法에 의하여 處理하려고 노력한다. 이런때에 있어서 社會的 行動의 基本的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對立 協力 逃避 등이다. 더우기

이와 같은 社會的 行動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것을 복잡하고도 統制的인 社會生活 가운데서 各自가 어떻게 處理하여나가는나하는 것은 各自의 特性 따라서 人格에 의하여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個體로서의 個別的인 精神的 發達과 함께 集團內의 다른 成員과의 心的 交流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集團에 의하여 規定된 約束이나 統制力의 영향도 대단히 크다. 즉 法律이나 慣習과 같은 것은 統制力에 의한 集團行動이며 반대로 集團에 統制力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群衆에 있어서와 같은 非統制的인 集團行動으로서 나타내게 된다. 더우기 現代와 같이 「메스 컴퓨니케이션」이 발달한 時代에 있어서는 集團行動의 영향은 더욱 크다. 또 集團의 各成員은 集團行動을 직접 表面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集團態度와 集團意見으로서도 나타낸다. 심지어는 無條件 남에게 따라가는 態도와 意見, 先入見과 偏見 등까지도 큰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또 全體에 큰 영향을 준다. 더우기 이와 같은 여러가지 行動과 精神的 活動이 混同되어서 全體社會의 機能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現代 社會에 있어서 主體的이며 道德의이며 참다운 民主的인 生活을 營爲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또 現代人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人格이 要求되는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欲求와 그 處理方法에 있어서의 人格의 問題에 대하여 진지한 研究를 하여야 한다. 創造的인 性의 人間形成은 극히 중요하다.

사람은 社會生活을 의미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社會成員으로서의 自己의 일을 分擔遂行하려고 하는 社會性을 發揮하는 동시에 그 集團속에서 또 獨立한 하나의 人間으로서도 認定받을려고 하는 自我實現의 欲求를 가지고 있다. 自己의 存在를 주장하며, 自己의 생각을 實現시킬려고 한다. 이 欲求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더 積極化하여 自己의 欲求와 感情 또는 思想을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表現하여 自己의 存在를 남에게 뚜렷하게 알릴려고 하는 欲求는 「自我表現」의 欲求다. 이 欲求는 少年期에서부터 青年期에 걸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日誌도 쓰며 小說도 써 보며, 모양도 내 보며, 또는 남이 아니하는 것을 하여 불려고 애쓴다. 青年期가 지나서도 自己의 社會的 位置가 不確實하거나 또는 어떠한 社會的 行動에 失敗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回復하기 위하여 분발하는 경우도 많다. 文學家가 失戀을 契機로 大作을 創作하였다는가 하는 것은 모두 그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自我表現의 欲求의 具體的인 것으로서 「名譽」를 들 수 있다.

우리는 社會의 歷史的인 環境속에서 여러가지 欲求를 가지는 동시에 이것을 잘 處理하기 위하여 目標을 設定하며 評價하며, 또는 그것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知能과 技能의 全力을 다한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社會的인 欲求로서는 經濟活動을 비롯하여 統制活動 家庭生活 身體的 活動 및 精神活動 등을 들 수 있는데 名譽에 대한 欲求는 權力欲이나 立身出世欲과 함께 統制活動에 속한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自己의 存在와 位置 또는 價値를 특히 認定받으며, 尊敬받으며, 稱讚을 받을려고 하는 데서 名譽는 成立된다. 그러기 때문에 名譽는 어디까지든지 社會的인 것이다. 그런데 이 社會的인

어떤 집에서 말을 시집 보내면서 시집가서는 말준대를 잘 하여야 하는니라고 일러 보냈다. 이 색씨는 시집에 가서 말을 조심해 쓰는데 한 번은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을 보고 「송아지 님이 머지님을 쓰시고 마당에서 뛰시니까 강아지 님이 보시고 저지십니다」 하더니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다가 시아버지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밥상님을 모시고 내 밥님이 들어가 오니 아버님 대갈님을 치시요」 하더라.

名譽가 다만 外的인 名譽이나 他律的인 것에 그칠 때에는 그것은 功名心에서 벗어날 것이며 道德的인 抱負가 缺如될 때에는 虛榮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서 참다운 名譽는 사람에 있어서의 道德的인 尊嚴性 즉 人格的 價値의 自覺에 의한 道德的인 名譽를 의미하여야 한다. 그런데 人格이 道德的인 價値意識에 의한 自我의 統一인만큼, 참다운 「名譽」는 이와같은 참다운 人格의 基盤위에서야 하며, 또 여기에서 社會的인 欲求로서의 名譽는 그 참다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道德的인 意識과 큰 抱負遂行에 대한 熱情으로서 우리의 目的을 追求하며, 좁고 적은 自己를 참다운 人格的인 人間으로 形成시킬 때에 우리의 社會的인 欲求는 참으로 充足될 것이며, 「名譽」도 그 참다운 價値를 가진 것이다. 學校에서 監督者없는 試驗制度인 「어네·세스·덱」制度를 장려하는 것도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物慾에 눈이 어둡고 人格을 無視하는 現代人의 反省도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다.

名譽心은 價值的인 慾求다



— 그 內在性의 正當한 把握을 위하여 —

鷲山 李 殷 相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우리나라 근대문학계에
한문으로 된 유명한 수필 한편을 번역해서 읽어
보고자 한다.

작자는 윤양 김윤식(雲養 金允植), 제후는 「모
기 이야기」(苦蚊說) —

호남 전주(全州)의 모기라던 전국에 이름이 들
렸고 해안지대에 있는 모든 모기들도 역시 전주 모
기와 형제를 서로 닮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다 순천 금오도(順天金鰲
島) 모기를 추대하여 할아버지를 삼기 때문에, 금
오도 모기가말로 일국의 모기 대왕인 것이다.

이 설에는 본시 사슴이 많아, 사슴 때문에 금오
도의 이름이 일찍부터 전국에 들렸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데서부터 양식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사람의 피를 마시러 오는 자가 많은데, 그 때 도어
기 와서 모두들 모기에게 살을 뜯겨서 피가 감해지
기 때문에 「금오도 사슴은 반드시 사람에게 보약이
되지 못한다」고 까지 하는 말이 생겼으니 그것은
사슴의 피가 사람에게 보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
라 모기의 해롭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곳 모기는 크기가 쇠파리만하
고 임부리는 보릿가스람이(麥芒) 같으며, 한눈이

올어도 우뢰소리 같고, 배를 지어 날면 하늘을 뚫
으며 낮에도 사람의 살 위에 영겨들어 피를 빨기
를 빈대처럼 하는 것이다.

어느날 밤, 나는 누웠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득 일어나 탄식 하되

『모기야 내가 무슨 죄냐』
하고 말하자, 다침 경상도 함안(咸安)으로부터 왔
기 때문에 함안이라고 불리우는 이가 있어, 모기
불을 피우다가 나의 탄식소리를 듣고 웃으며 하는
말이,

『천하에 완전한 부이만 없는 것이오. 그리고 또
반드시 서로 뒤집어지는 이치가 있는 것을 당신은
모르시오? 해가 들었다가는 지고, 달도 차면 기울
고, 또 물은 불을 이기지 마는, 흙이 도리어 물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범은 능히 온갖 짐
승을 먹어 천하에 적이 없지 마는 티벌레에게는 씹
히고야 말며, 연가시(蠶繭)는 매미를 잡아먹는 참
새(黃雀)가 그 뒤를 밟는 것은 보복이 바로 소
연하지오. 또 인간의 일로 말하자라도 큰 부자에
게는 반드시 그 재산을 짊어 자가 생기고, 조금
더덕한 자라도 그 이익을 갈라 가져는 자가 있는
법이니 그게 모두 다 하늘의 시키는 일이오. 당신

이 사슴의 피를 마신지 몇달 동안에 피가 황색하
고 살이 부드러워지니까 아마 하늘이 모기를 시키
서 당신의 이익을 갈라 가져게 하는가 보오』
한다.
『그때 그렇겠소. 내가 취한 이익을 모기와 더불어
갈라 가져서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좋거니와
사슴은 그때 모기에게 무슨 은혜를 끼쳤기에 이렇
이 모기가 나서서 복수를 하는 것인고.』
『함안』이 다시 하는 말 —
『보시오. 모기란 하찮은 미물이오. 또 더
구나의 로운 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슴
이 아니었다면 그 이름을 사슴에 드날릴 수가 없
었을 것이니 어찌 그게 큰 은혜가 아닐 것이오.』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초연히 앉아 탄식하였다.
『미물도 명에 앞서는 죽는 것인가?』
(윤양문집에서)

韓末, 金雲養의 수필 「苦蚊說」은 名譽心
이란 生命과 함께 그比重을 다루는 것임을
말한 諷刺的인 名品이다.

그러나 모기같은 微物이야 名譽가 무엇인
지 알것이 있으랴마는, 아닌게 아니라 다른
動物 가운데는 저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저
를 욕하면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數十年前까지만해도 시골에서는 우리 옛
풍속의 한가지로 「소싸움」을 붙이는 일이
많았는데, 두편 소임자는 각각 제소 곁에까
지 다가서서 「우리소 잘한다」고 應援을 해
야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싸움이
끝난뒤에, 소는 저를 應援해 주지 않은것에
패선한 생각을 품고 제집 주인을 뽐로 떠반
아 크게 상치기까지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같이 動物에게도 名譽心의 一端이 있음
을 발견할 수가 있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더구나 人間이란 生物的條件에 있어서서 모든 動物과 더불어 다른것이 없지마는, 한 걸음 나아가서 價值的條件을 더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비로소 모든 動物과는 다른存在인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人間의 三大慾이란, 食欲과 色慾과 名譽慾을 말함인것인데, 그 中에 食, 色, 두가지는 生物的인 現象이지마는, 名譽한가지만은 價值的인 慾求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보면 人間이 모든 動物과 다른 까닭이야말로 名譽慾한가지를 더가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名譽慾이란 人間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基本的인 慾望의 하나인 것이다. 人間으로서의 價值的인 品位에 대한 자기의 스스로의 矜持요, 誇示요, 自負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人間은 자기의 價值的인 存在로서의 要素인 「名譽」에 대해서 자기의 스스로 그것을 尊重히 여기고 또 그것을 毀損치 않고 保全, 強化하기 위해서 온갖 努力을 기울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 名譽慾의 善良한 充足을 위해서는 오히려 食欲이나 色慾같은 人間으로서의 生物的인 慾望을 스스로 制壓함에까지도 이르는 것이다. 아니 모든 財産이나 地位나 生命까지라도 유쾌히 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東西古今의 歷史上, 數 많은 忠臣들과 殉國義士와 殉教, 殉職者에게서 그 好適한 例를 보는 것이다.

사슴이 뿔을 아끼는 以上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名譽를 最大限으로 아끼고, 위하는 것임은 勿論이요, 특히 敎養과 知識을 쌓을수록 그 度는 점점 더 強大해 지는 것

임을 본다.

그래서 자기의 名譽를 毀損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努力을 다할 뿐만아니라, 혹시 그것이 毀損되는 경우에는 그것때문에 食欲을 全廢하고 苦惱하기도 하며, 또 마침내는 名譽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計畫을 세우고 加一層 努力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같은 人間은 名譽를 生命과같이 소중한 價値로 아끼고 尊重히 여기는 것이므로 자기의 스스로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尊重히 여기 주기를 要求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와 남과의 사이에 各人の 名譽를 서로 위해주는 調節과 交換에 의해서 社會의 秩序가 서고, 社會의 發展이 있고, 나아가서 모든 文化는 向上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名譽를 維持한다는 것은 道德上乃至 法律上의 權利로서 保障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萬一 그것을 남이 毀損하는 경우에 法律上으로 告訴하는 것쯤은 初級の 이야기요, 生命을 걸고 死闘함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人間이 가진 名譽感情의 根本原則이 그것이나 아니라, 우리의 日常生活에 있어서 우리自身이 누구나 탐내고 있는 名譽慾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對인 態度를 가져야 하겠느냐는 그것이다.

나는 앞에서 「名譽란 것은 人間으로서의 價值的인 品位에 대한 자기의 스스로의 矜持요, 誇示요, 自負이기 때문에 生命과같이 尊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要請되는

것은 그 價值的인 品位에 대한 自己充實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스스로가 矜持로 여길만한, 誇示할만한, 自負할만한, 尊重히 여길만한, 「名譽로운 實質的인 內容」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림에도不拘하고, 우리는 대양,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할 「名譽로운 實質的인 內容」 그것은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다만 남에게 자기를 尊重히 여기 주기를 期待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 名譽위에 賞讚을 加해 주기만 強要하기까지 하는 일이 많음을 본다.

名自의 名譽에 대한 他人의 尊重이란 것은 人間社會發展의 가장 소중한 項目中的의 한가지임은 勿論이다.

그러기 때문에 古來로부터 「民衆이 가지고 있는 食欲(色慾性慾), 名譽慾의 三慾을 充足히 해주라」는 것이 爲政者의 成功要訣인 것이요, 그리고 또 하필 爲政者뿐 아니라, 모든 部面的 指導者나 모든 機關의 運營者에게까지 가장 要緊한 妙諦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國民이나 群衆이 「名譽」에 대해서 強烈한 意慾을 가질수록, 그 國家 그 社會가 힘차게 發展되어지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指導者는 대양 그 本有한 意慾을 살려 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軍隊라는 組織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名譽慾을 充足시켜 주는 곳에 더 큰 功績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옛날로부터 論功行賞이란 것이 바로 그 때문에 있어 온 것이요, 또 언제나 必要不可缺한 것임도 勿論이다. 이 名譽慾의 正當한 充足으로 말미암아서

는 一, 二人만이 아니라 全軍의 士氣가 왕성해져서 大勝利, 大功績을 成就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다 指導者들이 群衆의 名譽慾을 살려서 썩어야함을 말함이 아니라, 國民이나 群衆 자신들로서는 어떤 態度를 가져야 하겠느냐는 것이 보다 더 重要한 點인 것이다.

옛날 漢나라 때, 馮異라는 將軍이 있었는데, 그는 大將 論功行賞이 있을 적이면 모든 將兵들은 서로 다투어 功을 내세우기에 바쁘건만, 그는 홀로 멀리 떨어져 큰 나무 밑에 가서 우두커니 쉬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일러 「大樹將軍」이라고 일컬었고 인하여 그 이름이 歷史에 실려 後世에까지 전한 것임을 본다.

남의 賞勳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자기 자신이 矜持로 여길만한, 誇示할만한 自負할만한, 스스로 尊重히 여길만한, 名譽로운 實質의 內容을 갖추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저절로 그 報答이 오고야 마는 것이다.

名譽는 결코 外部的인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內在的인 것이다. 價值的인 品位를 어찌 外部에서 判定할 수 있을 것이라, 설혹 外部의 賞勳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萬一 그것이 內在的인 實質이 없는 것이라면 그 名譽는 도리어 逆效果로 辱됨이 되고야 마는 것이다.

저 王辰亂이란 무서운 戰爭이 끝난 뒤에 朝廷에서는 歷史的인 大論功行賞이 있었다. 그때 最高의 一等功臣은 三人으로 選定되었던 것이니, 忠武公과 權擧都元帥와 그 외 다른 사람은 忠武公을 謀陷하고 姦

流들과 享樂하고, 戰爭에서 敗北하여 倭賊의 眷아래 지저분하게 죽어, 그 머리가 日本으로까지 侮辱의 標本品으로 실려 가기가 지한 元均이었다.

王亂의 一等功臣이란 外部의 賞勳을 가지고 元均의 價值的存在로서의 名譽로운 品位가 確立되어지는 것이 아님은 여기 明白히 立證되어 있음을 본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名譽에 대한 正當한 意慾을 발휘해야 할 따름이다. 內在的인 價

韓國人の 수치심

金 貞 玉

△梨大學生處長▽

價를 充實히 갖추는 곳에 名譽慾의 眞正한 生命이 있는 것이다.

아무런 實質의 品位를 갖추지 못하고 다만 外部의 賞勳만을 탐하는 것은 名譽慾에 대한 자기 冒濫인 것이다.

남의 尊重을 要求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尊重할만한 價值的인 品位를 먼저 세우도록, 그것의 內在性을 正當히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이 下等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옳다고 긍정이 되면 마음의 동요나 주위의 유혹에 끌리어 가지 않는 자제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 어 왔다. 또 생활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스스로 인정도 한다. 물론 우리가 下等동물이 되어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생각이 있는 지 없는지 자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확실하이 인간의 자제력이 모디 어 한 개인에 구한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도덕이 되고 한 가정이면 그 집안의 가 풍을 이루며 한 사회에서는 그 社會倫理가 형성 되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한국은 예로부터 「東邦禮儀之國」이란 칭찬을 받아 왔다. 특히 儒敎의 發祥地인 中國으로부터 이 最大의 찬사를 받아 왔는 것이다. 禮를 잘 알고 잘 지키는 나라라 하는 것은 결국 禮의식이 많다는 뜻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내가 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남에게 선뜻 주는 항상 남생자를 먼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 삼한시대 때 이미 行者는 서로 길을 비키면서 먼저 가는 것을 권했다는 기록이 생생히 남아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도 禮儀를 밝히 알어서 행하는 나라라고 한 말이 결코 과장된 찬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예는 어디서 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행하여 지는 것인가.

李氏王朝에 가장 학문의 黃金時代를 이루게한 性理學의 骨子인 四端七情을 잠깐 보면 사람은 仁, 義, 禮, 智가 根本으로 있어 이것이 外氣에 접촉이 되어 行動으로 옮기게 되고 이로 因하여 情으로 發되니 이것이 喜, 怒, 哀, 樂, 愛, 惡, 欲의 七情이라고 했다. 그리고 理의 仁, 義, 禮, 智의 根本 善한 본연지체(本然之體)는 사람만이 所有한 가장 귀한 본성이라 했고 또한 사람은 그 본성에 어긋날때 곧 부끄러움(羞恥)을 알게 되어 자기를 억제하고 그 수치를 감에서 벗어 남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람은 본시 결양심이 많았다. 거기가 유교가 들어온 후로부터 천년넘어 그 교리를 깊이 연구하고 또 학자들은 몸소 실천해 왔다. 옳은 것을 볼때 서슴치 않고 쫓아하는 다시 말하면 취사선택(取捨選擇)에 있어서 과감하게 나가는 성격을 또한 우리는 가졌다. 아무리 李氏王朝에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았으나 學者는 극히 제한된 수효만 있었고 거국적으로 민도가 낮았던 그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유교의 예법은 전국적으로 퍼져서 산간벽지 불학무식한 백성들까지 미풍양속을 이루지 않았는 곳이 없다. 그만큼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어 왔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준다.

그런데 요새와서 우리는 가끔 「좀 이리저리 말했으면」하고 느끼는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나는 어느날 아침 출근시간에 눈을까보아 갈팡질팡하다가 시발택시를 하나 불러타게 되었다. 차에 막 오를려고 하니 한신사가 옆에서 같이 좀 타게 해달라고 한다. 그

리고서 내 대답도 들을 생각않고 車안으로 들어와 앉어 버린다. 車는 급히 달렸다. 세종로에 오니 이 신사는 운전수 보고 내리겠다고 한다. 정거하자마자 그 사람은 어느 누구고도 고맙다는 말 없이 그리고 물론 돈 좀내겠다는 말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참 딱했다. 그리고 한심스러웠다. 나중이라도 좀 무안이나 할줄 알았으면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人間의 아름다운 감정中의 하나인 羞恥心은 아예 없는것 같기만 하다.

한번은 市場에를 갔다. 황홀하게 펼쳐진 포복들을 이리 저리 구경하고 있으려니까 서분 한국말이 들린다. 고개를 절레 절레 몇등을 넘어 보니 미국 젊은 부부인듯한 외국인 이 찬란하게 짜진 양단을 만지면서 그 값을 흥정하고 있는 것이다. 열댓 들었어도 엄청난 호가다. 슬슬 나는 그 옆으로 갔다. 그리고 그 포복상 보고 왜 부엌때문에 제 값을 안 부르고 그렇게 비싸게 하는냐고 하고 그들을 도와서 비단을 사게 해주었다. 그 외국사람은 물론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 포복상하고 그 옆에 女人们은 나보고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 「아저머니 팔어 주어서 고맙긴 하지만 글썩 아저머니 미국 사람에게 비싸게 안 팔고 누구한테 팔겠어요, 돈 좀 많이 받을려고 했드니...」 나는 기가 막혀 그들을 보았다. 「신용 있게 외국인을 대하세요 자꾸 팔릴 터이니...」

한 잘사는 친구집에 가게 되었다. 누구의 생일인듯 음식이 굉장히 나온다. 모두 맛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먹고 즐겼다. 후식을 더욱 맛있게 먹으면서 인제는 여러가지 지난이 야기를 하며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대문안으로 누가 들어서는 것 같

더니 곧이어서 말을 옥신 자신 주고 받는것이 들린다. 이때 안주인이 화가 난듯 「다음에 오라는데 왜 지랄이야 지금 바빠다니까」 알고 보니 신문배달꾼, 그 어린애는 지난달 신문값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안주인은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빠서 못 주겠다고 야단이다. 나는 송허물 없는자이라 그이보고 「이것보우, 날마다 아침 저녁 빠지는 일 없이 신문을 갖다주고 돈 달라는데 그 왜 안주? 정말 돈이 없소? 시간이 없다니 그 야단법석하는 시간에 그애 돈 갖다주면 안 되우? 줄 돈은 줘서다」 알 수 없는 일은 自己가 본 신문 그리고 내야 할 돈을 왜 이리 핑계저리 핑계 하면서 안주는 전지 모르겠다.

신문뿐만 아닌듯, 머우기 있는 이가 공연히 자기 딸 돈을 도리어 호명을 해가면서 안주는 일이 꽤 있는 듯싶다.

단 몇 사람으로 구성된 회원이었다. 시간은 오후다섯시 구성된 회원은 매우 집값은 분들이었다. 다섯시 오분전에가니 한 분이 와게시고 三十分 늦어 또 한분 이렇게 해서 한時間 二十分후에 다 왔지만 정작 사회할 회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속에서 불이 이는 듯했다. 언제까지 이렇게들 시간을 안지킬 작정인가? 회장 한시간 사십분 늦게와가지고 늦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도 시간이 더욱 시간 낭비, 어떻게하면 우리에게도 시간에 對한 엄숙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까?

백지가 자전거를 드리받았다. 자전거와 사람은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택시속에 탔든 우리들은 손에 땀을 쥐고 악 소리 질렀지만 운전수는 뛰어나가 자전거 탄 사람이 많이 상하지 않는 것을 보자, 그 사람을 나

구쳐 이르켜 가지고 「이 자식이 죽고 싶거든 어대 가서 되지지 누구 못 할 짓 시킬려고 차 앞에서 알진 거리는 거나」 그리고는 이 뺨 저 뺨을 친다. 아무리 해도 이해 못 하겠다. 먼저 가서 아픈 것을 알다 물고 부추해주고 위로해 줄 것 같은데 도리어 賊反荷杖格으로 때리고 욕하니 참말로 알 수 없는 일이다. 해방 이후 이 나라는 남의 손에서 두 동 장이로 잘라 졌다. 그 탓에 우리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점점 잃어 가게 되었다. 부모형제 들이 별한 채 고향을 그리워 하면서 세월 보내는 사람도 많고 있고 그 보다 더 절박한 것은 경제적 위협 아래 적반속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게 된 것이다. 이렇기에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처럼 절망 지심을 내버려야 할 것인가 어딘가를 가나 매마른 성격에 부닥진 거센 목소리! 싸움! 증오! 論語에 이런 말이 있다. 「道之以德하고 齊之以禮면 有耻且格이니라」德으로써 가르치고 禮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움이 있고 格이 있게 되니 그 非心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孔子의 말씀인 「衣食이 足해야 예법을 안다」는 말이 千秋의 진리인 듯 그렇게 도 예절을 알았든 우리가 지금 같은 자박한 인심을 갖게 된 그 이전은 안정된 生活이 不足한데 있다고 생각 된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점점 잃어 가는 책임감, 돈이 정말 없는데 돈에 對한 관심이 아직도 實際의 이 못 되는 것 그리고 「남이 하면 나도 해야지」하고 流行에 쉽사리 감겨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내적(大敵)으로 알고 과감히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 국은 지금의 二十代에 있는 것이다. 二十代 靑年들의 決心은 곧 한 국의 約束된 將來 基礎가 될 것이다. 그 光明한 앞

軍人과功名心

韓 鶴 洙

△空軍中尉 軍牧▽

一、사람에게는 名譽慾이 있다

名譽慾은 人間의 三大慾中에 하나이다. 食慾, 性慾, 名譽慾은 人間本能的의 基本要素이다. 이 三大慾望의 派生으로 物慾이라는 지 權力慾이라는지 其他 다른 慾望이 나온다. 慾望이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意味한다. 사람이란 元來 하고 싶은 存在이다. 무엇을 하고 싶다. 프다의 存在이다. 사람은 하고픈 意慾이 없어진 때에는 人生自體의 存在意義를 喪失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먹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한다. 이러한 觀點으로 볼 때 사람은 慾望의 化身이다. 살고픈 意慾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者요, 絶望에 빠진 者이다. 그러한 者에게는 希望이나 장래나 建設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그의 마음과 生活에는 自暴自棄와 悲哀와 無氣力만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絶望을 느끼면서도 살고 싶어한다. 三大慾望中에 食慾이나 性慾은 自己保存과 自己繁殖을 하고 싶어 하는 慾望이다. 그

날을 담당해 나갈 靑年들은 분명히 仁, 義, 禮, 智에다 羞恥心을 간직해서 다시 「東방에의 나라」를 이룩해 누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名譽慾은 自己를 값있게 하고 높여려는 慾望이다. 自己의 生을 더욱더 값있게 하고 燦爛하게 빛나게 하고 榮光스럽게 하고픈 慾望이 名譽慾이다. 名譽라는 말은 稱讚, 評判, 尊敬, 價値, 尊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稱讚받기를 좋아한다. 「나」라는 代名詞를 알기 始作할 때부터 名譽慾은 成長하기 始作한다. 自己가 남에게 認定받기를 願하는 마음이 漸次 強力하게 되어진다. 自我意義가 뚜렷해짐과 同時에 自己存在 價値를 높이려는 마음은 더 強해진다. 自己라는 存在에 對하여 좋은 評判과 名譽를 받기를 즐기게 된다. 名譽는 人間의 道德的 品位와 人格의 品位의 自覺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名譽는 人間의 道德的인 尊嚴性에 대한 自覺, 人間만이 가진 倫理的 標準을 自覺하는 것과 結付되어 있는 것이다. 좋은 評判이나 이름을 얻는 것이나 道德的 品位와 人格의 高尚함이 남에게 認定되어 稱讚과 尊敬을 받게 되는 것이 名譽이다. 그러므로 正當한 名譽慾은 人格을 높여주는 推進力이 된다. 自己의 價値를 높이고 品位를 높이고 남의 存在를 높이고 나야

가서 人間의 尊嚴性을 높여려는 慾望이 強力하게 作用할 때에 人間存在을 높이고 되어진다. 여기에는 人間속에 있는 德性과 資質을 發見하고 開拓하고 活用하여 보다 더 높이고 高邁한 人格을 만들려는 意慾이 強하게 作動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德性과 資質을 잘 開發하여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을 높인 科學者、政治家、道德家、宗教家들에게 真正한 名譽를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理由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名譽慾이 過度해지면 功名心에 사로잡혀 自己를 亡치고 남을 망치고 國家民族을 망치고 온 人類에게 苦痛과 괴로움을 주게 된다. 名譽慾이 過度해지면 自己昇化 人間價値의 向上보다 自己擴大를 일삼게 된다. 그래서 自己存在에 對한 過大評價를 하게 되고 自信이 생겨서 自己를 사랑하게 되며 自己追求에 沒頭하게 되며 自高하여 自滿狀態에 빠져 自矜하게 되며 自己 安樂과 自惚境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徹底한 個人主義와 自己中心主義로 움직이게 된다. 自己의 存在만 키지고 남의 存在가 보이지 않게 되어져서 남을 征服하기를 일삼게 된다.

이러한 者는 傍若無人이 되어 驕慢하며 남을 無視하고 賤待하게 된다. 自己主張과 思想을 남에게 強要하며 造作된 稱讚과 名聲으로 滿足하고 阿附하고 阿諛하는 者의 巧言令色에 귀가 가려서 自己評價와 남에 對한 評價를 높게 할 수 없게 되어진다. 이러한 사람은 自己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自己辯護에 充實하고 自己名譽에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지 除去、毀謗、抹殺、肅清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類型의 人間은 政治人이 되면 獨裁가 되고 宗教人이 되면 獨善者가

되고 經濟人이라면 至毒한 「싸이록」이 되기 마련이다. 名譽慾이 過度해지면 自己를 擴大하여 絶對化하게 된다. 이러한 型의 가장 典型의 人間으로써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을 들 수 있다.

「콜치카섬의 寒微한 家庭에서 出生한 野心 많은 青年 「나폴레옹」은 軍人이 되어 革命의 소용돌이 속에서 風雲兒처럼 頭角을 내밀게 되자 自己擴大에 全力을 기울여 皇帝가 되고 그것도 滿足치 못하여 皇后 조세핀을 버리고 오스트리아 皇女를 취하여 自己가 皇統인 것처럼 假裝하고 나아가서는 유럽 全體를 征服하여 自己의 主張을 貫徹하려 하였다. 그 結果로 유럽 全體는 戰爭속에 呻吟하였다. 그는 極히 驕慢하여져서 不可能이란 말을 辭典에서 배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그 不可能은 그를 掩襲하여 그로 하여금 孤島 「센토 헤레나」섬의 이슬로살아지게 만들었다.

「히틀러」는 독일 사람의 優秀性에 對한 名譽를 너무 強調한 結果 第二次世界大戰을 일으켰고 數千萬의 生命을 송두리채 빼앗아 갔다. 「스탈린」은 自己의 主張대로 하기 위해서는 數千萬人을 肅清과 虐殺의 祭物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過度한 名譽慾은 自己를 망치고 남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 그러므로 名譽慾에 對한 調節과 節制가 必要하다. 사람의 慾望에는 傾向性이 있는 까닭에 統制를 하지 않으면 아주 絶望의 奴隸가 되어 自己擴大만 일삼게 되어지는 것이다.

二、軍人は 功名心에 사로잡히기 쉽다
軍人は 國家의 名譽를 걸머지고 나선勇

士이다. 國家의 品位와 尊嚴性을 해치려는 者가 있을 때에 단호히 일어나서 싸우는 것이 軍人이다. 國家의 安全과 名譽를 爲하는 職分을 가진 軍人は 人間自體의 權利와 尊嚴性과 品位를 守護하는 把守軍이다. 戰爭史를 보면 大概의 경우에 同族 혹은 國家의 名譽守護를 爲해서 싸운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領主나 帝王들은 大部分이 將軍들이었다.

싸움에 勝利하여 凱旋하는 將軍에게 最大의 尊敬을 드리는 理由는 그들이 國家와 民族의 運命을 걸머지고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軍人の 職分은 名譽를 爲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職分이라고 말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軍人は 저마다 戰功을 세우기를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다. 軍人は 國家와 民族全體의 福祉와 名譽를 爲하여 個人의 便宜와 立場을 돌보지 않고 일어나서 自己를 犧牲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軍人は 名譽를 爲해서 부름을 받고 名譽를 爲해서 싸우고 名譽를 爲해서 犧牲까지 즐겨 擔當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軍隊의 階級制度가 功名心을 刺戟하기 쉽다. 階級은 個人各者의 名譽가 되는 까닭에 功을 많이 세워서 進級을 빨리 하여 上級者가 되기를 願하는 마음이 懇切해진다. 간혹 軍務에는 充實치 못한 者가 上級者 個人에 對한 忠誠(?)은 絶對的인 者가 있다. 阿附나 阿諛을 일삼고 농간을 부리는 者도 간혹 있다. 이러한 者는 大部分 實力이 없거나 無能者에 屬하는 部類들이다. 指揮官이 바뀔 때마다 그 집권은 이런 部類들로 因하여 달코 더워워진다. 報賞制

度는 個人的 功名心을 刺戟하여 큰 效果를 노린 制度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自己가 認定받기를 願하고 稱讚받기를 願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 戰功을 세워서 훈장을 받거나 表彰을 받는 것은 名譽스러운 일이다. 正當한 競爭을 通한 勝利 혹은 戰功을 널리 알리고 稱讚하고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名譽에 對한 慾望을 刺戟하게 되어 奮發케 하는 힘이 된다. 士氣振作을 시키는 데 큰 效果를 가져온다. 歷史上 가장 많은 勳章을 만든 사람은 「나폴레옹」이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勳章을 달아줌으로써 功名心을 刺戟하여 自己의 目的을 達成한 사람이었다. 大概보면 獨裁者들은 많은 勳章을 만들어서 名譽心을 刺戟하여 큰 效果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창제도나 너무 濫用되거나 過度하게 높혀졌을 때 잘못된 傾向이 나타난다. 남의 戰功을 自己의 戰功처럼 잡칭하는 일도 생기고 남의 功을 毀謗하는 일도 생긴다. 그러한 典型的인 人物 가운데는 晉진해 元均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忠武公의 戰功을 自己의 戰功인 것처럼 假裝報告하기도 하고 또한 忠武公을 毀謗하기를 마치 아니 하였던 事實을 우리는 戰史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功名心에 눈이 어두워지면 猜忌心이 나오고 猜忌心이 強해지면 남을 毀謗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團結은 瓦解되고 軍紀는 紊亂해진다. 軍人이라는 職分이나 階級制度이나 호상제도 까닭에 軍人은 功名心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 軍人은 功名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특히 注意해야 한다.

三、사람의 값인 功名心에 있는 것은 아니다

正當한 名譽慾은 사람의 價値를 높혀준다. 그러나 過度한 名譽慾은 私事로운 功名心이 되어 自己擴大한 利益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正當한 名譽는 功名心이 아니다. 功名心은 自己個人이 높아치고 남에게 認定을 받으려는 마음이다. 正當한 名譽란 客觀化되어 남들이 認定해주고 尊敬해주는 것을 意味한다. 남이 尊敬해주는 것과 自己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다. 사람은 큰 사람 일수록 功名에左右되지 않는다. 民族的 英雄 李舜臣將軍은 自己의 戰功을 떠나서 提督 陳璘에게 돌려주었을 적에 明軍은 李舜臣將軍에게 대하여 陳璘提督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禮로 恭敬했으니 이에 敬服한 陳提督은 明帝에게 上報한바 皇帝는

명예와 평판

성

인

기

△韓國日報副社長▽

수은주(水銀柱)가 九寸三、四도를 오르내려서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 중후(中伏)허리에 「명예와 평판」이란 제목의 만필(漫筆)을 쓰자니 구슬땀을 뻘뻘 흘리고 앉은 필자의 모양이 만화거리가 될 것 같아 혼자서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

「명예와 평판」이란 얼핏보면 시원할듯한 제목 같으나 명예를 얻고 좋은 평판을 듣자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도 하

忠武公에게 明軍 水軍都督이라는 벼슬과 관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明나라 水軍都督이라는 이름을 自處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恒常 忠淸、全羅、慶尙、水軍 統制使라는 職銜을 썼다고 한다. 이와 같은 人物은 功名心에 對한 關心이 없다. 그러나 小人들은 功名心이 強하다. 남을 물고 뜯으면서도 齟齬같이 올라가겠다고 날뛰는 사람의 값은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有名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自我의 資質을 發見하고 正當하게 開發하여 發展시키는 同時에 남에게 有益을 주는 데 自身을 提供함으로써 값이 있다. 人間 自體의 尊嚴性과 價値를 높여려는 일을 한 사람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當時에는 功名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埋藏과 侮辱을 당

(P二七五 계속)

고 참고 寬容(寬容)하고 있는 돈을 잘 쓸 줄도 알아야 할 일이니 따지고 보면 어려운 애기요, 무더운 애기가 될밖에 없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라 필자 자신이 만필이나 마 잘 썼다는 평판을 듣자면 더욱 맘을 안 둘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명예란, ① 좋은 평판을 얻는 일, ② 세상에 들어난 좋은 이름, ③ 도덕적 존엄과 인격의 품위에 대한

자각(自覺)이 남에게 승인되거나 존경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풀이되어 있으며 평판이란, ① 비평하여 시비를 판정하는 일, ② 세간의 비평 ③ 유명한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풀이 그것이 원말(原語)보다 도리어 어려워 알듯도 하고 모를듯도 하지니와 한말로 잘라 말하자면 좋은 일을 하면 명예도 나고 평판도 좋으며 나쁜 일을 하면 명예도 꺾이고 평판도 나빠진다고 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의 「유앙스」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양의 동서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볼 것이다.

명예나 평판은 물론 좋은 의미의 명예와 평판은 일부 특수한 사람을 배롱고는 누구나 얻고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원한다고 바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약간의 명예를 얻고 좋은 평판을 듣는다 하여도 거개는 그 자리가 아니면 며칠이 못가져 잊어지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옛부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가하면 「이름은 죽백에 드린다(名垂竹帛)」라고 하여 역사적 기록에 남긴다는 말도 있고 또 유방백세(流芳百世)라고 해서, 명예와 평판이 기리 빛난다는 말도 있는 하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역사에 올라 백년 천년 빛나는 예는 지극히 적은 것이다.

인류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부터는 아득해져 알길이 없지마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해서부터 五천여년만 보더라도 역사에 이름 석자가 기록된 인간만 쳐도 성군(聖君)을 비롯하여 현상(賢相), 명장(名將), 충신(忠臣), 열녀(烈女), 효자(孝子), 거부(巨富),

예술가, 대 문장가(文章家), 학자(學者) 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직도 세계의 인류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되고 숭배되는 인물이 얼마나 되는가 세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낙양산」 터히 높고 낮은 저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絶代佳人)이 누구누구. 우리도 죽어지면 저 모양 되리로 다 하는 六자백이 나오지도 한 일이 아닌

가. 몸은 비록 흠보됨이 되었으나 그의 정신과 주장이 많은 사람의 핏속에 맥맥히 살아 있어서 숭배되고 존경되는 예를 들자면 아마도 공자(孔子), 석가牟尼(釋迦牟尼), 예수, 「모하메트」등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공자의 가르침은 본시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規範)으로 인(仁)을 중심으로(義), 예(禮), 지(智), 신(信), 을 논하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인격을 닦고 가정을 화목하고 질서있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길을 얘기하고 논한 것이니 이것은 교(教)라고 할 수 없고 도(道)라고 일컬어온 것이다.

공자가 큰 뜻을 가지고 성진만한 인물이 있나 해서 천하를 두루다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사수(私塾)를 열고 또 어느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문하(門下)에 모였던 제자는 三천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제자 일흔 두명이 있어서 공자의 유도(儒道)를 전하고 부연 주석해서 이 유도는 동양 三국에 널리 퍼져 숭상되는 것이다. 지금 중국 본토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쳐서 이른바 가족생활까지 단란하게

못하게 하고 인민공사라는 계도를 만들고 있으므로 공자의 가르친 길은 쇠퇴해 버렸으리라고 추측되지마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을 비롯해서 전세계에서 그의 가르침은 아직도 지켜오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생존해 있을 때보다도 죽은 후에 더욱 그의 명망은 높아지고 또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서 二천五백여년 후인 지금까지 이른 것이다.

「석가牟尼」는 지금부터 二千五百餘年前 「히말라야」 산 남쪽에 있는 가비라성(迦毗羅城) 주 정반왕(淨飯王)의 왕자로 태어나서 공자극히 남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그는 생노병사(生老病死)의 四苦(苦)를 구제하겠다는 생각에서(二심九세 때라함) 물레 궁전을 떠나 산과 산에 들어가 고행(苦行)하기 六년만에 정각(正覺)을 해서 불법(佛法)을 펴넌 헌 분이며,

예수는 유대(猶太)국에 나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여 인류를 영원히 구제하고자 설교를 하고 다니다가 마침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이며,

「모하메트」는 회회교의 개조로서 그는 지금부터 일천三百여년전 아랍민족의 종교와 사상 및 사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연구 끝에 「아라」라는 신(神)의 계시를 받아 새로 운 종교(회회교)를 펴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당시 지배자의 박해를 받아 지금의 「메디나」라는 곳으로 쫓겨가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곳에서 교세를 확장해서 「메카」를 뺏고 여러 종족을 정복하여 「아라비아」 전토를 휩쓸었던 인물이다.

이상에서 간추려 본 바와 같이 그들은 모두가 위대한 사상가요, 종교가로서 그들의

주장과 목적이 작게는 민족, 넓게는 세계인류를 바로 살게 하자는데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점에서는 공통한 것이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고행을 한 사람이 수천년동안에 어찌 이 몇 사람 뿐이리오마는 위에 말한 몇분의 사상과 주장은 아마도 사람의 심리를 끄는 점이 많았다고 할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것이 종교화하여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그들을 신앙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들의 명예는 점점 기리 빛나간다고 볼 것이다.

이 다음으로 수천년동안 또는 수백년동안 명예가 전하는 유명한 인물이 많이 있다. 철학자, 과학자, 음악가, 예술가,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군왕이나 충신이 있는가 하면 평판 높은 미인으로 서서(西施) 양귀비(楊貴妃)며, 황진이(黃眞伊) 같은 명기까지 있다.

그런가하면 살아있을 때는 상당한 명예를 지니고 또 좋은 평판을 받았던 인물들도 죽어짐에 따라 잊어버려지거나 또는 도리어 유물 먹는 경우도 있고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때 명예와 평판은 어떤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인 동시에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잘 한데나 어떤 행동에 대한 명예와 좋은 평판은 비교적 얻기 쉬운 일이나 한 개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명예와 좋은 평판을 얻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상 싶다.

어떻게 해서 사람의 평가는 관두것을 덮어 놓고서 해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란 신(神)이 아닌 이상 장점이 있는가 하면 결점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장점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 있어서 명예도 얻게 되고 좋은 평판도 듣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중에는 명예나 좋은 평판이 나를 도외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모든 세상의 번거러운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 고행을 하는가 하면 비술을 주어도 마다하고 초당에 누어 유유자적 자연을 벗삼아 삶을 즐기는 이도 있다. 임금이 되라는 권유를 듣고 귀가 더러워졌다 하여 그 귀를 맑은 강물에 씻었다는가 하면 그런 말을 듣고 그 강물을 송아지에게도 먹이지 않았다는 옛 얘기는 결벽을 지나쳐 괴벽이라고 하겠거니와 부귀와 영화 궤에 포멸(毀譽褒貶)을 마치 뜬구름같이 생각하여 은둔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은 허무주의자들이라고 웃어 버릴 일만도 아닌가 한다.

어찌 그뿐이랴. 산다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인척(生也) 一片浮雲起(起)이고 죽음이란 한 조각 뜬 구름이 없어진 것(死也) 一片浮雲滅(滅)이라는 불교의 사상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명예와 평판을 도외시하는 것인 것이다. 어찌는 먼저도 말했거니와 일만은 명예와 좋은 평판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서양사조에 휩쓸려드는 이제와서는 전과 달라서 명예는 몰라도 좋은 평판은 얻기도 쉽고 잃기도 쉽다고 해서 잘 못일가.

인치고(人氣) 노름인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부문에서 특출만하면 평판이 좋아지고 명예까지 얻기가 쉽다. 미인대회에 뽑히거나 명예도 유행한 곡마단 잘 불러도, 야구를 잘 해도 평판이 고 이름이 들날리니 말이다.

일시적인 명예나 평판은 그러해도 기리 빛나는 명예와 평판이란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순간적인 부나 귀나 권력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입혀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존경하고 숭배치 않을 수 없게 하는 데서 오는 까닭이다.

요컨대 많은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하면 명예와 평판은 저절로 얻어질 것이오 자기만 위해 권력을 탐하고 지위다름만하고 부귀를 탐한다면 저절로 유과 비난이 돌아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닐 것인가?

(P 二五에서 계속)

한 일들이 非一非再하다. 그러나 後世에 그들의 功德이 認定되어 追慕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死後에 名將軍이라는 格言이 생겨나기까지 한 것이다. 人格의 價値는 남이 알아 주고 못할아 주는 것으로 評價될 性質의 것이 아니다.

우리 軍人은 功名에 左右되어 賤薄한 行動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爲하는 崇高한 犧牲精神으로 남을 爲해서 自身을 犧牲할 立場에서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軍人은 나라와 民族을 爲해서 말없이 功名도 없이 自己全體를 提供하는데 값이 있는 것이다.

無名勇士의 碑를 對할때 우리는 무엇을 의미면서 尊敬을 表하는 것은 그들의 功名이 들어나지 않고 國家를 爲해서 받쳤기 때문이다. 無名勇士의 功德을 높이 認定하면 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자.

우리말과 우리글



우리 말과 현대 생활

정 인 승

△한글 학자▽

현대는 과학 경쟁의 시대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의 경쟁 시대이기도 하다. 물질면으로의 과학 경쟁과 정신면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의 경쟁, 이 두 경쟁 관념이 씨가 되고 날이 되어서 움직이고 나가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다. 이러한 현

대에 처한 우리의 생활은 두말할 것 없이 과학의 생활이어야 하며, 또한 민주주의의 생활이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경쟁 생활이어야 한다. 그러함으로서만 시대가 발전되고 역사가 전진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역사의 바퀴는 거꾸로 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적 사생활로부터 사회적 공생활의 자향 전반에 걸쳐 그러하지 않음이 없지마는, 특히 인류 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언어 생활에 있어 과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쟁 생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글날을 맞이함에 즈음하여, 우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 과거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 하였으며, 현대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 형편에 있으며, 또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대강 고찰해 보고자 한다.

二

우리말은 예로부터 원래 우리 겨레의 본질적인 우수성과 함께 또한 본질적으로 우수하였던 것이니, 그 음운의 풍부함과 형태 변화의 자유로움으로부터 그 표현력과 활용성이 매우 일찍부터 발달되었던 것이다. 이는 저 신라 때의 여러 가지 사자(향가)들이 당시의 선진 문화국인 중국의 시문을 능가할 만큼 훌륭하였고, 또는 중국의 고전인 어려운 한자들을 중국말이 아닌 우리말을 가지고 자유롭게 풀이하여 자유롭고 습득함으로써 한문을 중국사람 이상으로 능숙하게 다루기도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서 우리말 자체의 본질적인 우수성을 녀겨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봉건시대의 영토유익이 빛어낸 골육상쟁으로, 먼 당나라의 힘을 끌어들이어서 669년 삼국을 병합한 결과로는, 당나라 문화의 무조건 침입을 줄거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화 제도를 중국식으로 고치기에 힘쓰게 됨으로 인하여, 이 땅은 글과 말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있어 중국 문화의 식민지가 되게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신라의 문화는 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쇠퇴의 일로를 밟게 되었으며, 따라서 고려의 예술도, 이 조의 학술도 모두 한문화의 예속으로 자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三

이조 초기의 재건 도상에서 우리겨레의 본질적인 우수성이 획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一四四六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인 것이니, 중국의 한문 글자는 우리 말과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 써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우리말에 맞는 글자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확신하고서, 당시의

갖가지 곤난한 애로와 사대사상에 사로잡힌 완강한 반대들에 흔들림이 없이, 이 몇몇한 지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당시로서는 거의 무리에 가까운 실현을 강행하였고, 이어서 이 글로써 우리말을 표현하기를 적극 장려하였던 결과로, 우리말이 비로소 문화어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었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말은 제 본질에 맞는 글자를 얻어서 바야흐로 우리 문화향상에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뜻밖에 一五〇四년 연산주의 발광적인 폭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의 유일한 지팡이가 되는 한글이 갑자기 된 버락을 만나 빈사상태에 빠져 버렸으니, 길을 잃은 우리 말은 올바른 발전을 하지 못하여 남의 갈수록 한자 말에 밀리고 놀리어서 이후 약 四백년 동안 우리의 언어생활은 한자어 전성시대가 되고, 따라서 우리 문화는 한문화 일색으로 질게 물들어 버려서 우리 역사는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완전히 한 문화의 식민지 역사가 되고 만 것이다.

四

현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과거를 현대생활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실로 침통한 반성을 금할 수가 없다. 만일 연산의 폭정을 겪은 당시의 우리 앞사람들이 세종년의 한글 창제한 원대한 뜻을 능히 뜻이 살리어서 이 글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그것으로 교유하고 모든 실제 생활을 그것으로써 영위하기에 힘썼더라면 우리의 전통적인 우수한 문화이던 고려의 예술이나 하는 빈문구로만 남기고 그쳤을 것이 아니고, 우리겨레의 본질적인 우수한 사고력, 우수한 지능, 우수한 기술들이 그 표현력과 활용성의 풍부한 우리말 우리글을 통하여 자유롭게 발달되고 향상되어서 능히 세계를 지도해 나갈 수도 있게 되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서글픈 느낌도 가지어 보게 된다. 오늘날의 우리 형편을 돌아보매 너무나 안타깝고 원망스럽기도 하다.

五

민족의 흥망이 문화의 성쇠에 직결되고, 문화의 성쇠는 말과 글의 이용에 달린 것임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되어서 의식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겨우 이제로부터 약

七〇년 전인 갑오경장(一八九四) 때부터였으니, 이는 한문한자의 본고장인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과학적으로 패배한 사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일찌기 우리보다 뒤졌던 동서 여러 나라들이 모두 과학 경쟁으로 우승열패하게 되는 실태를 많이 보기도 듣기도 하는 동시에 과학의 발달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과 글의 과학화로부터 기초가 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 시대이었다. 그러나, 숙담에 「입맛나자 장벌어진」 격으로, 세상 물정을 겨우 알게 되자 나라힘은 이미 기울어져서, 당시 과학으로 한 걸음 앞섰던 자에게 어느덧 무도한 약육강식을 당하게 된 것이 곧 우리 역사상 최대의 치욕인 한일합병(一九一〇)인 것이었다. 이래 三六년간 우리겨레는 음으로 양으로 온갖 기만 농락과 같은 압박 천대 속에서 패את길 것은 다 패את기었으나, 오직 우리말 우리글 만은 그렇게 오직 우리말 우리글 없이는 포학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 우수한 본질은 도리어 거센 바람에 연련 풀과도 같이 많은 시험과 단련을 거듭한 끝에 속살을 더욱 굳게 가다듬어 가지고 해방의 봄 바람을 맞이했던 것이다.

六

이와 같이 과거의 우리 언어 생활은 많은 파란과 곡절을 겪었다고, 말과 글 자체의 발전에 몹시 많은 저해를 받아왔고, 따라서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의 실속없는 무의미한 생활에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남부끄러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끝, (一), 예로부터의 우수성을 가진 우리말은 신라의 통상 이후로 옛날의 문화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二), 이조 초기의 한글 창제는 연산 이후로 다시 참값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三) 갑오경장부터의 과학생활 기도는 한일합병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많은 충절을 겪어오는 가운데에 한자어는 상하천여년을 통하여 꾸준히 우리말을 줄먹어 오고 필경에 우리말의 태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지난 三六년 동안 강제력으로 부과된 일본어가 가중되고, 최근에는 새로운 신진 문화의 수입에 편승하여 각종각양의 필요 이상의 외국어들이 시시각각으로 정신의 어지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바람에 기성세력을 가진 한자어가 이런 서투른 외국어들에게 세력을 안 빼기려는

뜻이 더 한층 기세를 부리어 별의별 새로운 형태로 도깨비처럼 나타나 날뛰는 판국에 이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거쳐 언어의 「자유」라, 혹은 「자연현상」이라고 간단히 또는 너그러운 아량으로 보아 버릴 일인가? 더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러한 언어 현상을 「어휘의 풍부화」라, 「문화의 발전상」이라고 변조내지 장려할 만한 일인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심한 소화불량으로 고통하는 위장병 환자에게 좋은 영양물이라고 그 위장에 맞거나 안 맞거나 이것 저것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이는 것이 결코 그 병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 더욱더욱 소화불량을 악화시켜 위험한 결과를 짓게 함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七

사실 우리의 현대생활은 필요 이상의 너무 과중한 각종언어 부담 때문에 그로부터 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를 막대한 소비로 말미암아 정말 현대생활을 바르 하기 위한 과학의 습득 연구에 대하여는 언어생활을 능률적으로 영위하는 데

큰 나라들과 비교될만한 에베르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과학 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민의 언어 부담부터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해야 할 것이니, 이는 현대 후진 국가들의 공동된 노력임은 물론이요, 선진국들도 역시 현대생활의 경쟁을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기 위하여 우선 한글 전용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의 에베르기를 가장 많이 소도시키는 한자 학습의 강요를 지양함과 동시에 막중한 한자어의 부담 경감을 피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새로 수립되는 각종 외국어들도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힘써 사양하고 쉽게 통할 수 있는 우리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八

이러한 일이 혹이나 언어의 자연현상을 무시하는 일인 것 같지마는, 언어에 있어서의 자연현상이란 것은 저 자연계의 자연현상과는 동일시될 수 없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심리작용에 관련이 되는 사람 사회의 자연현상인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경제계의 물가 변동이나 정치계의 갖가지 사회상

도 모두 사람의 심리작용이 근저가 되는 것임과 마찬가지로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 그것이 가령 과학 발전을 위하여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도, 그것이 좋아하면 자연히 그리될 수 있는 것이요, 혹은 다른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도, 그것이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그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현재의 우리 언어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한자어거나 또는 어떠한 피상한 외국어이거나 말하더라도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특수한 경우, 또는 혼자만의 개인 취미에 그치는 경우면 물론 자유일지라도, 일반 국민생활로의 언어로서는 만일 대중에게 이해가 곤란하고 혹은 오래를 일으키기 쉬운 말들은 사회에도 유해무익할 뿐 아니라, 말하느라 자신에도 도리어 손해가 될 따름이니, 그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사실상으로, 이미 한자어나 외국어들이 습관이 되어 온 기성 지식인들로서, 한글 전용이나 용어 병치화 등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기에 다소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사실적인 견지에서 우선 국민 대중의 급속한 민도 향상과 아울러 세계

<한 글 날>

대의 주인공 후진 후손들의 과학 연구에 충분한 에네르기를 길러주기 위하여 오늘날의 개인적인 다소의 불편을 차라리 달게 여기는 아량을 가지고 현대 생활의 공동영위에 적극적



한국文學의 「멋」

△新羅歌謠의 문학적 優秀性▽

梁 柱 東

△詩人·文博▽

「한국文學의 멋」의 一例로 내가 일찍 애써 考究한 新羅古歌의 멋진, 문학적 優秀性을 흠뻑 강조·해설해 본다. 이러한 제것의 禮讚이 까딱 하면 拙劣은 國粹的 陋見에 빠져 나의 戲作 「김치 頌」 [陶弘景의 詩改作] — (山) (嶺) (白雲) 盤中何所有, 血上多沾也. (君)

只可自怡悅, 不堪持贈你. (你)는 「外國人」로 되기가 일수요, 또한 遼西사람들이 웃을 「靑 돼지」가 되지도 하다. 「遼東」사람이 치는 돼지가 흰 새끼를 낳았다. 친하의 貴物로 생각하여 입

법하는 것이 오늘날 기성 세대의 책임이요 의무이며, 또한 당면한 현대 민주주의의 실천인 동시에 앞날의 민주주의 발전 을 촉진하는 길 이 되는 것이다.

금제 進上코자 흰 돼지를 지고 萬里 길을 걸어 遼西 땅에 가 보매 그 고장의 돼지는 모두 흰지다 「靑 돼지」를 번지고 돌아왔다는 故事. 그러나 「내임마」의 얼골은 실명 약간의 마마자국이 있어도 생각할수록 一性情深한 어여쁜 얼골이거니, 남 대해 좀 자랑한들 어찌 하리.

내가 일찍 半生의 心血을 傾注하여 우리 先民이 남긴 文學 遺產 중의 現存 最古作인 新羅古歌謠 (세속에 이를 「鄉歌」라 부르나, 「鄉歌」란 「시골노래·상노래」의 뜻으로 마치 한글을 「謄文」이라 이름과 같은 자기 陔視의 못

마땅한 이름이므로 「必也正名」(孔子)의 가르침에 의하여 나는 그 말을 일체 쓰지 않는다. 그 原稱인 본말은 「저니 놀애」(詞腦歌) — 「古歌研究」序說, 第三章 참조를 解讀·註釋하여 이를 公刊할 때 「조선 古歌 研究」(一九四二年) 그 讀解와 語學的 證釋에 골몰하여 그 「문학적 鑑賞·비평 내지 文化史的 考察」은 이를 闕略 (同書 凡例) 하였고, 이어 麗代 歌謠의 箋註에서도 同様の 이유에 의하여 「그 意圖와 成果는 순수한 古語學的·考證學的 태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 以上의 것, 다시 말하면, 재료의 吟味나 評說 — 그 批判的인 견해·주장」같은 것엔 대개 言及이 없었다 (麗謠箋註)序, 一九四七). 그러나 사실 古歌謠 연구에 있어서 前者는 오히려 後者를 위한學的 준비와 토대라 이를 것이므로 古歌의 문학적 사상적 연구가 더 근본적인 要請임은 말할 것도 없는데, 鄙著가 모두 그것에 미치지 못했음은 恨스러운 일이었다. 爾來 또 여간한 雜事에 휘둘려 겨우 麗謠 몇 篇에 관한 戲評 (麗謠箋註) 附篇 「評說」二篇) 외에 아직 도 그 소위 「第三卷」(同書序)에의 念願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을 부끄러워한다. 어서 누구의 손으로라도 羅·麗 古歌의 문학적 해석·비평, 더구나 그

「이메올로기」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詞腦歌의 문학적 卓越性 — 그야 現存 羅歌 十四首가 모두 個個 「絶작」이라 하는, 그중의 대부분은 확실히 「血上」의 김치나 「遼東의 白豕」가 아닌, 문학적으로 극히 優秀한 絶작임이 사실이다. 우선 現存 詞腦歌의 制作된 年代로부터 보자. 最古 冀童謠가 西紀 六〇〇년 이전, 最近 「處容歌」가 同八七九년의 所成인즉, 대략 六世紀末로부터 九世紀까지의 作也. 당시 西歐엔 그리스·로마를 제하고는 이에 比擬한 詩歌가 싸조차 없던 시대이니, 우리의 古歌는 年條로 보아 중국·印度·그리스 등을 제외한, 세계 詩歌史상의 「넘버 四」位 쯤을 차지한만하다. 이러한 古詩歌 그것도 문학적으로 극히 優秀한 작품이 이 極東의 小邦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만도 세계文化에 당당히 자랑할만하다. 아깝게도 지금은 우리만이 외치는 「독안의 자랑」일 뿐, 세계에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老舖」라도 商品이 흥물하여 「큰 어머니 떡도 크고 맛좋아야 사먹는다」하리라. 그러면 우리 古詩歌의 質的水準은? 羅歌 十四首가 개개의 특질로 보아 어느 것이나

뜻깊은 秀作 아님이 아나나, 순연한 문학적 眼目으로 보아, 순모르진 몰라도, 그 約 半數는 참으로 뛰어난 驚異로운 작품들이요, 그중에는 한국문학의 주요한 특질인 하나인 「멋」을 진작 나타낸 멋진 걸작이不少하다. 이를테면 年代順으로「**融天師**」**「擘星歌**」의 最古한「**메타포어**」와 멋진 경쾌한「**유모어**」,「**風謠**」의「**江南多蓮葉**」**「無色**」**「素朴**」**「悠遠性**」**「佚名老人**」**「獻花歌**」의 修辭的인 技法과 語法을 통한 멋진「**風流**」**「月明師**」**「祭亡**」**「妹歌**」의 漢·晉古詩를 훨씬凌駕하는 哀切한 人聲觀과 그 깊디깊은 悲傷·忠談師「**讚耆婆**」**「郎歌**」의 저 劈空撰出의 高邁한 멋진「**託意**」와 希臘唱劇의 三部樂을 연상케 하는 그 탁월한「**構成**」, 그리고 또 저「**處容歌**」의 그 奇想天外의「**이데**」와 독특한 멋진 노래法 等等——어느 것이 문학적으로 우수한 멋진「**걸작**」 아님이 있는가? 이제 그 한 본보기로「**讚耆婆郎歌**」한首만을 여기 잠간 展示하여 보자.

「**讚耆婆郎歌**」는 저 羅代人の 정치적 理想을 노래한「**安民歌**」와 함께 當代의 異僧 名歌 人 忠談師의 作——

景德王 忠談師
三月三日에 王이 歸正門樓上에

남시와 左右에게 이르되, 「누가 途中에서 榮俗僧 한분을 데려오로?」 그때에 마침 大德이 말쑥한 威儀로 行동기되니 가느라 左右가 바라보고 引見하니, 王이 가로되, 「나의 소위 榮僧이 아니로다. 물릴지어다.」 다시 한중이 누미웃을 입고 櫻筒을 지고 南쪽으로 오거니, 王이 반가이 보고 樓上에 불러다가 그 筒속을 들어나니 茶具뿐이다. 「비가 누구나?」 중이 가로되, 「忠談이로소이다.」 「어찌 갔다 오느뇨?」 가로되, 「제가 해마다 三月三日, 九月九日에 차를 끊어 南山 三花嶺 彌勒世尊님께 드림은데, 지금 바로 드리고 돌아오나이다.」 王이 가로되, 「寡人도 한병 차를 얻어 마신 연분이 있었을까?」 중이 차를 다려 드리는 데, 右의 風味가 이상하고 명숙의 향내가 코를 찌른다. 王이 가로되, 「朕이 일찍들으니 師가 저온 耆婆郎을 기리(讚)는 노래가 그 뜻이 매우 고상하다하니, 과연인가?」 「그리하오이다.」 王이 가로되, 「그러면 朕을 위하여 「**讚**」를 지으라.」 중이 당장에 勅命을 받들어 노래하여 마치니, 王이 가륙히 여겨 王師를 封하였으나 중이 再拜하더니 곧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三國遺事**」卷二▽

이 名歌의 作者를 소개키 위하여 좀 긴 引文을 꺼리지 않았다. 詞腦歌 十四首 중에서도 鄙見으로 最高의 「멋진 걸작」으

로 생각되는 그의 作 「**讚耆婆郎歌**」를 독자의 便宜를 위하여 약간 현대語로 고쳐 그 全首를 다음에 보인다. 「**耆婆**」(기보) 「**長命男**」의 뜻)란 젊은 花郎長은 달리 傳과 所見이 없으나, 그의 花郎으로서의 높은 人品과 人格·志操를 찬양한 노래가 얼마나 奇想天外의 멋진「아이다어」로 되었는가를 보라.

耆婆郎을 기리는 노래

「**얼치**」네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좇아 떠가는 것이
니아? 「**새**」파란 나리「**내**」에
郎의 죽(모양)이 있어라! 이
도 나리 조약(小石)에 郎의
지니시던 마음의 꿀을 좇아
저.」
아, 「**장**」(稱)가가 높아서
리를 모를 花班(花郎長)이여!

(**얼치** 眞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耆郎이 드시 이슈라
郎이 더니다사온
아오 갖가지 노파)

이 노래는 진작 그 「**높은 뜻**」
高邁한 詩想으로 新羅 王
— 國內에 噴傳되었던 名歌,
그러기에 景德王의 말에도 「**朕**
嘗聞師讚耆婆郎詞腦歌, 其意甚
高」운운이라 한 것이다.
우선 그 奇想天外의 멋진 詩
法! 作者는 「**耆婆郎**」이란 諱

은 花郎長의 드높은 「**人格**」과 理想·志操를 기림에 있어서 한 마디도 그것에 직접 言及함이 없이, 돌연히 劈空撰出의 「**달**」과의 問答體를 빌어와 前八句에서 그것을 은연중 暗喻로 傍叙하고 (일마나 的確한 「**이**」**「이**」를 주는 효과적 手法인 가!), 結二句에서 「**갖가지**」를 빌어 그것을 正叙하였다. 그러나 우선 그 「**問答體**」의 「**天衣無縫**」한 솜씨를 보라! 독자의 便宜를 위하여 右 解詩에 내

가 引用符를 蛇足으로 덧붙여 第一—三句가 「**달**」에게 試問하는 辭, 第四—八句가 答의 擬答임을 보였으나, 原詩엔 무론 그런 것이 있었을 리가 없고, 오로지 독자의 문학적 想像力을 기다릴 뿐. (이런 경우에 平明 坦을 爲主하는 西詩라면 필시 「**내가 달에게 묻되**」…… 「**달**

나도안 두리
세파론 나리여히
일도 나릿 저찌히
무수히 3을 좇누아저
서리 묻누을 花班이여)

이 대답하기를……」운운의 句 소리를 붙여 詩興을 平板化한 것이다.)
前 八句의 詩意——
「**구름**」장막을 꿰 열어젖히며
등두뿔이 나타나는 달아,
너는 흰 구름을 좇아 西쪽으로
떠가는 것이 아나냐?」
(달이 대답하되)

『나는 흰 구름을 좇아감이 아
니로세.
멀리地上을 굽어보니,
새파란 關川 냇가에
香郎의 모양이 있어라! 이
제로부터 냇가 모랫길 위에
郎의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의 끝을 좇으러 하유네.」
後二句 「亂」 「結辭」에
가르되,

「아아, 잣 가지가 드높아서
리를 모르울 花郎님이여!」
우선 그問·答·結辭로 된
三部體. 이는 위에 잠깐 言及
한 대로 저 希臘의곡의 「男·
女·合唱歌. 不期而同되는 희
한한 技法과. 또 그 詩 癖 두
에 넘나던지는 「일치배」 「라
는」 아닌 밤중에 흥두께 「같은
異樣의 手法. 내가 위에 「구름
장막을 짙 열어젖히매」라는 구
구한 補註를 더했으나, 그런 부
질없는 「客語」까지를 蛇足으로
덧붙임은 나같은, 혹은 西詩 같
은 庸才의 詩法, 저 鄭松江의
네 長歌(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星山別曲」의 덧붙
어진 各 詩 句 「江湖에 病이
기과」 「이몸 삼기실 제」 「때
가느 더 자시」 「엇던 나날 손
이」 등도 이에 비하면 당초부
터 문제가 안되는 凡庸한 「發
聲法」이랄 수 밖에.

그러나 이 노래의 最高의 妙
技, 奇絶한 멋진 詩想은 무른
저 第八句의

『마음의 끝을 좇아저』 「마음
미 조를 좇아저」의 「마음의 끝」
이란 한구에 있다. 달이 西쪽
으로 감은 저저 뜻없이 감이 아
니라, 『냇가 모래위에 香郎이
서서 지냈던 「마음의 끝」을 좇
아 감』이라고 달이 答하는 것이
다. 이로써 千年 뒤에 나서 이
詩를 읽는 독자 우리들은 눈만
감으면 문득, 千年 전 어느 달
밤 東方 新羅 夜 關川 냇가
흰 모래위에 홀로 우뚝, 혹은
고개를 약간 위로 젖힌채, 멀
리 아득히 西天을 바라보며 무
한한 憧憬과 머나먼 理想을 그
곳에 부쳐보내며 외로이 섰던
젊은 花郎 香婆의 그 곱고도 孤
高한 姿態, 그 드높은 포부와
교양과 人格이 눈앞에 역력히
나타날 만큼 그 「이메이지」가
실로 놀랍게 鮮妍하지 않은가!
하필 「西方」은? 想必 「淨土」
에의 憧憬·想念일시 분명하나,
구대여 佛談에만 의지할 것도
아니다.

『현실』의 세
계를 초월한 未
知의, 不可見의,
영원한, 구구적
「彼岸」의 세계.
바로 흥겨우니
한 폭의 「幾何」
圖로 이를 표현.
선명할 수밖에.
「香郎」의 「마

음의 끝」을 좇아 달은 西쪽으
로 간다! 위의 그림 중의 1
0의 문제는, 한자 香郎의 高邁
한 「정신」의 표시일 뿐 아니라,
실로 인류의 理想의, 또한 詩
의, 문학의 영원한 문제.

結句 「잣가지」 은유는 또 일
마나 힘찬, 香郎의 드높은 志
操를 나타낸 正叙法인가! 나
의 釋註에 덧붙였던 漢譯 —
宿枝高兮不知霜, 若有人兮後
花郎!

이 「讚香婆郎歌」 한篇의 至妙
한 멋진 「소식」을 어찌 筆舌
로 다 하랴! 「표현을 絶」 하단
말은 이런 作을 두고 이름이겠
다. 詞腦歌 十四首 — 그중 絶
妙한 上記 六, 七篇만도 모조리
그 문학적 優秀性을 詳說할 겨
를이 없기에, 이 한首만으로써
그 「一斑」을 엿본 것이다.

이런 훌륭한 멋진 문학적 遺
産이 있어도, 우리가 內的으로
이것을 문학적·高次的으로 해
설·비평할 수가 없고, 더구나
對外的으로 이를 소개·宣揚할
기회와 노력의 지극 없었었다.
아무리 희한한 古董, 차근차근
당한 製品이라도 후쿠야마, 당
김은 땅 밑에 잠겨있어서 그
眞價와 聲價를 천하에 알릴 길
이 없다. 어서 바빠 이들 古歌
에 대한 문학적·천학적·내지
사상적·이데올로기적 연구가

젊은 우수한 學徒들에게서 나
오고, 그보다 더 時急한 것은
— 이 귀중한 우리 겨레의 멋
진 걸작 古詩歌들을 여러 외국
語로 번역·소개하여 그 眞價
를 세계에 문고 외국에 宣揚할
이다. 이 방편의 일 — 통렬이

우리 古典의 세계적인 소개와
번역에 젊은 유능한 學徒·文
人들의 奮起가 있기를 바라 마
지 않는다. 그런 실제적인 크
나한 노력의 成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구구한 이런 漫
文 따위는 그야말로 上記한 대
로, 「독안의 외친」이나 「이불
추의 춤」에 그칠 뿐이겠다.

附記. 저름을 在歐의 한 젊은 學
者 「李鶴洙」가 鄭著者를 抄譯하고
詞腦歌 十四首를 모조리 英譯하여
그에 관한 評說을 붙여 커다란 著書
를 刊行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Peter H. Lee, Studies in
the stendens, 1959, Roma.)
그의 詞腦歌 英譯은 逐字譯·意譯
을 並行한 우수한 번역의 — 「一斑」
으로 上述한 「讚香婆郎歌」의 譯詞은
다음의 보인간.

Ode to Knight Kilbo
(Pushing her way through the
clouds, /the moon that appears,
/is she not pursuing white clou-
ds? /In the blue sand-beach/Knight
Kilbo's image is there, /Hence-
forth in the pebbles of the stream/
I shall seek the depth of his
mant, / that on the knight char-



『현실』의 세
계를 초월한 未
知의, 不可見의,
영원한, 구구적
「彼岸」의 세계.
바로 흥겨우니
한 폭의 「幾何」
圖로 이를 표현.
선명할 수밖에.
「香郎」의 「마

ished. / O towering pine, / Knight of Knights, you do scorn forst.)

The moon that pushes her way Through the thickets of clouds, Is she not pursuing The white clouds?

Knight Kilbo once stood by the water Reflecting his face in the blue: Henceforth I shall seek and gather

In pebbles the depth of his minds.

Knight, you are the towering pine, that scorn forst, ignores snows.

충실한 번역이나, 但 가장 충 요한 六一八句의 原歌意를 그 못 해서, 번역하여 全首의 主眼 (上掲圖說 참조)을 틀리게 술 것임이 유감이다.

우리 말과 英語



洪 福 柔

△梨大教授▽

주어진 題目 「우리 말과 英語의 比較를 嚴密한 意味에서 는 내가 다룰 수 없는 것 같아 서 사양하였다. 이것은 내가 하 는 英文學과 關聯있는 英語문 어나 우리 國語에 關해서도 研究가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常識 的으로 敎養程度의 內容을 꼭 써달라는 부탁이기에 題目을 「우리 말과 英語」라고 해서 制約을 좀 늦추고 敢히 本을 들 게 되었다. 이 點, 讀者의 양 해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 말과 英語라고 하면, 各 各 特殊性을 가지고 있어서 全然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 同時에 各種 言語 에 共通되는 一般性도 가지고 있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이다. 무릇 言語라고 하는 것은 人 類 만이 가진 重要な 生活手段 의 하나이다. 사람은 이것으로 喜怒哀樂의 感情을 發露할 뿐 아니라, 意思를 傳達하고 知識 과 思想을 交換하게 되는 것이 다. 그 結果로 사람의 知識이

發達되고 文化的 向上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言語를 통해서 相對 方的 思考方式 生活樣式 情緒 面 등을 理解하고 想像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相對 方을 徹底하게 理解하려면 그 言語에 通하는 것이 重要이라 고 생각한다. 마주앉아 얘기를 해 보면 풀리지 않는 問題가 없 다고 하는 것도 이런데 起因하 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말은 우리의 生活에서 울 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國 土사람을 잘 나타내는 것과 마 찬가지로 英語는 또한 英語를 말하는 英國이나 美國사람들의 生活에서 生成 發達한 것이기 때문에 英語를 잘 알게 되면 英 美國民을 잘 理解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말과 英語를 比較研究해 보면 兩國民 사이의 差異點과 類似點이 明白하여 지며 自然히 理解增進 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東西洋의 思考方式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말과 英語에 나타 나는 相異點을 發見하는 것은 매우 興味있는 일이라고 느껴 진다. 우리 말과 英語에는 各 各 一定한 語順이 있어서 말을 할 때 一定한 方向을 가리키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方向을 가리키는 데, 「東西」라고 하는 것은 兩者가 다 「東」을 먼저 내어 놓

고 「西」를 나중에 말해서 East and West 라고 하지만 「南北」이라고 할 때는 英語에서 North and south 라고 「北」을 먼저 말하여 우리 말과는 反對 이다. 또 四方向을 우리 말에서 는 「東西南北」이라고 하지만, 英語에서는 普通 「北南東西」 (North, South, East, West) 라고 한다. 또 다음과 같은 말 도 우리 말과 英語가 相反하는 語順을 나타내고 있다. 左右 (Right and left), 飲食 (Eat and drink), 貧富 (Rich and poor), 水陸 (Land and water), 老少 (Young and old), 晴雨 (Rain and shine) 여기서 우 리가 알 수 있는 것은 英語를 말 하는 民族이 우리 보다 北方을 重要視한다는 것이요, 그 저 마 시는 것보다는 진짜로 먹는 것 을 가난한 것보다는 富한 것 을, 늙은 것 보다 젊은 것을, 바다 크다는 사람이 사는 陸地 를 더 크게 생각하고, 해나는 날의 즐거움보다 비오는 날의 걱정을 더 많이 해서 對備한다 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며, 이에 對 한 우리의 無知에서 오는 誤解 도 풀리게 되는 것이다. 言語가 같지 않은 탓으로 國 民사이의 融合이 如意하지 못

<한 글 낱>

한事實은 우리가 흔히 보고야는 바이다. 말이 같지 않기 때문에 誤解가 생기고, 그 誤解의 結果가 平和를 害치고, 戰爭으로 이끄는 일까지 있으니 人生의 不幸으로 이以上가는 것도 없을 것이다. 萬一全世界가 같은 言語를 쓴다면 얼마나 幸福할 것인가. 所謂 世界語라고 하는 것은 이런 見地에서 過去 數百年間 여러 사람들에 依해서 案出되어 왔던 것이다. 그 主要한 것이로는 Volapük, Esperanto, Ido, Occidental, Novial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도 에스페란토는 가장 優勢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各國語를 排擊하고 世界를 風靡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簡單한 것이다. 元來 그것은 人造語이기 때문에 無味한 것이고 그 속에는 情緒가 들어 있지 않으며, 그것으로 무슨 想像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것을 評하여 不規則한 英語綴字에 對한 發音記號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名義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亦是 사람의 피가 通하는 산 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계에 許多한 國語 가운데서 英語가 地球上의 廣大한 地域에서 使用되고 있다는 點, 또 古來로 優秀한 文藝作品을

豐富히 가지고 있다는 點等은 이것을 가장 有力한 世界語의 候補者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우리말에 못지 않게 英語에도 關心을 가져야 하는 理由가 여기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用語는 完全히 純粹한 것은 없고, 多少의 外國語가 混入되어 있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는 우리말에서나 英語에서나 같은 現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國계의 門戶를 開放하고 있는 國의 言語인수록 外國語를 많이 吸收하고 있는 것이다. 近代語에 借入되는 語彙는 모든 分野와 모든 國土에 걸쳐서 있는 것이다. 科學의 發達, 國際關係의 緊密化等, 여러 事情이 그 背後에 있는 것은 勿論이지만 이것은 그 國民의 一般文化에 對한 攝取力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 내는 尺度이기도 하다.

이런 攝取力과 自由自在로 造語力이 英語의 長점이다. 英國國民은 混種民族이고 그 國語가 混交語라는데 英語發達의 根本原因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虛飾을 버리고 共通의 實質을 살린다고 하는 國民性이 그 言語의 發達史에 나타나 있다고 본다. 英語史는 屈折語尾의 廢棄를 爲始하여 形式上으로는 모든 것이 簡素化

해 가는 進展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表現力과 表現效果는 增加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우리말에 들어 온 外來語도 相當히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傾向을 보이고 있다. 例를 들면 라디오, 텔레비죤, 파자마, 크레온, 말크, 미싱, 펜, 잉크, 스케이트, 스키, 레코드, 미스터, 미쓰等等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있다. 그리하여 最近 韓國을 訪問한 어느 美國婦人이, 한국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英語의 單語를 듣고 나서, 한국말은 英語와 비슷하니 배울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한 얘기가 있을 程度이다.

우리말이 英語에 가까워 간다는 印象을 주는 것과 같은 比例로 英語는 우리말에 가까워 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Kinchi, Chige, Shinsuro, Chaimi等等 한국말이 英語에 그양 侵透해 드는 것을 우리는 每日 보고 또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과 英語의 交流가 甚하게 되면서 各其 固有한 文法과 語順이 무너져 가는 데 이것은 兩者에서 便利를 가져 오게 되어 있다. 우리의 表現을 거꾸로 하는 것이 英語라고 普通생각하고 있기 때문

에 우리에게는 英語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近者에 와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뿐 아니라, 漸次로 英語의 表現이 우리말의 그것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學校文法을 배운 學徒들을 당황하게 하는 表現이 每日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좋은 例로 [US Education's No. 1 Man (美國教育界의 第一人者)]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비록 學校文法에는 상치되는 表現이지만 英語가 簡素化되면서 그 語順이 우리말의 그것과 같은 結果를 가져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表現 때문에 不便을 느끼는 커녕 그것이 우리 生活에 꼭 들어 맞기 때문에 滿足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이것을 무슨 들어 歡迎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과 英語의 表現이 接近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破格文法을 우리가 不便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滿足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言語는 사람이 使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變하며 살아 있는 것이다. 사람이 孤島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것같이 사람의 말도 孤立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分野의

버릴 수가 없다. 어느 나라 말든
지 多少間 敬語가 없는 예는 없겠
지만 우리나라처럼 層層이 區分되
어 있는 言語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事實은 한편 語感의 細密한 發
達이나 禮儀바른 民族이란 特徵으
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
한 말 待遇는 格式대로 使用하지 않
으면 잘잘못 禮儀에 어긋나는失
禮가 되어 버린다. 우리는 가끔 閩
巷·街頭에서 『나가 무어야』 『왜 해
라물해』 하는 等屬의 理由를 들면
서 박음이 자못 激烈해 가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말 待遇에
神經이 날카로운 우리 社會의 言衆
들로서는 이問題에 對해서 無關心
할 수가 없는 것은 오히려 當然하
다고 하겠다.

흔히 옛이야기에 傳하는 바로
『아버님 대간님의 짐벌님이 불
으셨읍니다』
란 우수운 말이 있다. 누구나 이
말한 말에서 어디가 어떻게 틀렸도
는 것을 잘 안다. 恭遜한 말씨에도
一定한 格式이 必要하며, 많이만 불
이던 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터이다.

萬一 나이 어린 孫子라면, 할아버
님의 眼을 붙잡고서 『털이 많이
어』라고 했을 때, 『오오, 털이 많
이 났다』라는 對答으로 그냥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나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춘부장이시다.

이러한 表現을 어떤 相對方에게
서 들었을 때, 느끼지는 뒤안스는
무엇일까? 우하는 反面에 弄談이

나, 조롱인 反面에 親近함이나 그
밖에 짧게 表現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음을 안다. 또, 우리말은 『이』에
對한 『齒牙』 『나이』에 對한 『年歲
春秋』 『머리』에 對한 『頭上』……
等 漢字語가 優位에서서 恭待語가
되는 것이 常例이다.

그족(足)이 매우 크다.
가(脚)이 퍼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족이나 脚
이란 말이 그렇지는 않다. 위의 예
와 비슷이 색다른 뒤안스에 짓는다.
恭待의 位置에서는 格式을 벗어난
非禮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非
禮를 是非하는 것을 골뎠고 말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破格
이 주는 뒤안스를 問題삼아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微妙한 語感이 우
리말의 색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事
實을 이야기 해 보려는 心算에 지
나지 않는다.

이것은 對答인 對人關係에서만 成
立할 수 있는 例들은 것이므로,
親疎를 넘어서는 순히 다른 뜻으로
번져 버린다.
아버님前
어머님前
先生前 前
教授前

前이나 안을 다루었다고 하면 不
遜의 책망이나 無識의 나무람을免
하기 어렵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더 큰 論難에 當面할 것이다.

故郷 까마귀만 바로 반갑다는 말
이 傳한다. 멀리서 外地에서 母語
의 情에 鄉愁를 느끼는 것이 人間

의 常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까마귀는 서울 사는 시골사람이 제
고장의 方言에 情을 느끼게 마련이
다. 이런 도에서 所謂 國語의 愛護
尊重이란 實용기가 흐르는 母語에
根據된 當然한 歸結이라고 볼 것
이다.

母語의 韻致는 이와 같은 鄉愁에
서 우리나라는 興致며 맛인 것이다.
그 뒤안스에서 느껴진 것이라도 좋
고, 재미로운 느낌이 나 멋이라도 좋
다. 萬一 이러한 맛이나 멋이 싸일
수가 없다면, 그는 우리나라 사람
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自己
貶視한 일상은 가없는 사람임에 틀
림이 없다. 때로는 漢文에만 能한
이가 漢文의 韻致에 魅惑되어 우리
말에서는 그런 것을 맛볼 수 없다는
恨歎하는 例를 본다. 또한, 日語
敬敷만을 받은 이가 日語의 妙味에
英語에만 能한 이가 英語의 멋에 사
로잡히기가 인수다. 이처럼 外國語
에 陶醉된 境遇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國語의 妙味를 바가 없다. 때로는
外國語의 그 妙味를 우리말로 옮겨
보고 나서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
여, 우리말의 興致가 없음을 簡單
히 論斷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앞은 생각이다. 남의 것은 좋
은 것만 보고, 내 것은 천한 것만 보
고 스스로를 낮추었으니 말이다. 實
上 事大思想에서 움츠러들고 해야 할
지, 스스로 낮추기를 일삼는 이도
없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맛이나
멋에 젖어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나라
의 뒤안스나 재미로운 느낌을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1932. 8. 28.)

강도들은 이 물반적인 한 말이
아찔해 버렸다. 이 흥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빈틈을 찢러 이
렇게 말하였다.
『사실은 동두록님에게는 정때
부터 말해 놓았으니까 자, 안내
해 드리지요.』

안장 서서 강도들을 창고에 안
내하고는 쓸만한 것을 모조리 들
추어 꺼냈다. 이것을 보자 강도
들은 좋아서 날뛰었다.
이름에 이흥장은 물때 바깥으
로 나가기가 바쁘게 창고문을 파
달아 버렸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그는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집안사람들이 모두 일어
나 도리어 그 강도들을 모조리
제포한 것은 물론이다.

李鴻章의 배짱

청(淸)나라 제일의 대정치가였던 이 흥장이 아직 소년시절
집에 일꾼으로 있을 때였다.
어느날 밤 뱃간에 가려고 밖
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십六, 七
명의 강도가 둘러 싸더니,
『창고로 안내해라!』
하였다. 그 말을 듣자, 깜짝 놀
날 줄 알았던 이 흥장은 뜻밖에
도침착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 당신들은 동씨(鄧氏)의
졸도입니까?』
강도들은 이 물반적인 한 말이
아찔해 버렸다. 이 흥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빈틈을 찢러 이
렇게 말하였다.
『사실은 동두록님에게는 정때
부터 말해 놓았으니까 자, 안내
해 드리지요.』
안장 서서 강도들을 창고에 안
내하고는 쓸만한 것을 모조리 들
추어 꺼냈다. 이것을 보자 강도
들은 좋아서 날뛰었다.
이름에 이흥장은 물때 바깥으
로 나가기가 바쁘게 창고문을 파
달아 버렸다.

「유엔. 데이」에 부쳐서

蘇聯의 拒否權 百회가 意味하는 것

金 昌 順
△內外問題研究所長▽



〈그로미코〉

자메는印度國防相은 票決에 앞서 同案에 對한 反對立場을 表明하였고 蘇聯은 印度에 對한 政治的 제스처어로서 拒否權을 行使한 것이다.

五個常任理事國中 蘇聯을 除外한 美 英佛國府의 四個國의 拒否權行使가 一九四六年三月의 安保理事會의 召集以來 全部해서 七回인데 比해 蘇聯의 拒否權行使回數가 百회에 達했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一九四八年의 케코스로바카아의 共產쿠데타를 調査하려는 企圖, 베르린 封鎖에 終止符를 찍으려는 動議, 蘇聯軍에 依한 一九五六年 헝가리蜂起의 無慈悲한 彈壓에 對한 彈劾決議案 이런 것이 모두 案保理事會에서 蘇聯의 拒否權에 依해 埋葬되어 버렸다.

國家의 尤인加入薦舉는 五一回가 같은 方法에 依해 抑壓되었다. 유엔의 監視下에서 實施된 總選舉를 通해서 組織된 大韓民國政府의 尤인加入은 十餘年을 두고 實現을 보지 못한 것도 蘇聯의 拒否權行使에 緣由한 것이다.

安保理事會의 機能을 麻痺시키는 이 拒否權이란 대체 무엇인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安保理事會의 議決事項은 實質事項과 節次事項으로 區分되는데 節次事項의 경우는 常任理事國(五個國), 非常任理事國(七個國)의 區別없이 七票의 贊成만 있으면 議決된다. 그러나 實質事項에 있어서는 五個常任理事國을 包含하는 七個國의 贊成이 있어야 議決된다. 다시 말하자면 五個常任理事國中 어느 一個國이 否票를 던져도 議決는 成立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即 拒否權이다.

이렇게 五大國에게만 國家主權의 完全한 行使가 容許되고 다른 加盟國에 對해서 그것이 拒否된 理由는 어디에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國際政治의 現實에 對한 認識이 그 動機가 된 것이다고 말할 수 있다. 平和에 對한 威脅平和의 破壞, 또는 侵略行爲가 있는 경우 유엔은 迅速히 그리고 效果的으로 行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是強大國을 包含하는 比較的 少數의 國家로써 構成된 安保理事會에 平和維持의 主要責任을 賦課함이 妥當하

國際聯合 憲章 抄

○: 우리의 聯合國의 人民들은 말할 수 없는 人類의 悲哀를 우리 古代에 두번이나 가져온 戰爭의 慘禍로부터 後代들을 免脫케 하며 基本의 人權, 個個人의 존엄과 가치, 男女의 平等權과 大國小國의 同權에 대한 信念을 確立하며 正義가 유지되고 또 條約이나 그밖의 國際法의 源泉에서 발생하는 義務의 존중이 維持될 수 있는 條件을 確立하며 또 보다 큰 自由 안에서 社會의 進歩와 生活水準의 向上을 促進할 것을 결의하고 이 目的을 위하여 寬容을 實踐하고 신앙한 이웃으로서 서로 平和에 共存하며 국제적 평화안전을 維持하기 위하여 우리의 力量을 結合하며 共同利益을 위함이 아니고는 武力을 行使치 아니할 것을 保障하는 모든 原則을 受諾하고 모든 原則을 設定하며 全人民의 경제적 사회적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際機構를 利用할 것을 결의한 바 이 目標을 달성기 위하여 우리의 努力을 結束시키기로 결의하였다(前文에서).

○: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一, 국제적인 평화안전을 유지할 것을 위하여 平和에 對한 위협을 방지 除去하고 侵略 기타 평화파괴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有效한 集團措置를 강구할 것이며 平和의 手段으로서 平和破壞의 念慮있는 國際間의 紛爭 또는 局面을 調整處決할 것. 二, 各人民의 同權과 自決과의 原則

지난 六月二十二日 蘇聯은 카슈미르 紛糾의 解決策을 討議하는 유엔安保理事會에서 紛糾當事國인 印度와 파키스탄에 對해 兩國間의 直接協商을 促求하는 愛蘭의 決議案에 否票를 던지므로써 百回째의 拒否權을 行使했다. 이 拒否權行使의 直接的인 動機는 二個中隊分의 MIG-17Z 戰機의 賣買協商이 進行되고 있는 對象인 印度를 刺戟하는 것을 避하려는 데 있었다.

모스렘勢力이 優勢한 카슈미르에서 住民投票가 實施되면 同地域이 파키스탄에 併合되는 結果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는 印度는 住民投票實施에 關한 유엔 總會의 決議를 無視해 왔으며, 六月十五日에 安保理事會가 召集된 日에 이르러 數個非常任國家에 對해 自國自體의 카슈미르 決議案을 受諾하도록 運動하였다. 愛蘭案이 提出되

다(유엔憲章 第二四條). 安保理事會에는 最後에 가서 平和維持를 爲해 軍事行動을 取할 必要가 生길 수도 있다(憲章 第四二條). 그런 경우 實力의 背景을 提供하는 것은 強大國의 軍事責任이다. 따라서 平和維持의 究極의 責任은 能力은 強大國에 歸着된다. 拒否權은 이러한 責任과 能力에 따라 賦與해야 한다는 것이 셴프란스스 코에서 열린 유엔憲章 起草會議(一九四五年)에서 拒否權制度가 制定된 思想의 背景을 이루고 있었다. 셴프란스스 코 四國(美英佛蘇)共同聲明書의 다음과 같은一項이 拒否權設定의 意義를 端的으로 說明해 주고 있다.

『常任理事國의 第一義의인 責任을 生지할 때, 現世界情勢下에서는 國際 平和 및 安全의 維持간은 重大事項에 있어서 스스로 贊成하지 않는 決定에 따라 行動한 義務를 常任理事國이 負擔하리라고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句節을 檢討해 보면, 安保理事會의 決定과 行動은 그 決定과 行動을 發端으로 하는 連續의인 事件을 (Chain of events)에 대해 安保理事會는 結局에 가서는 유엔憲章 第七章에 依한 強制措置를 取해야 할 경우 도 있을 수 있다는 假定에 想到할 수 있다. 卽 事件連續의 終着點에 強制措置를 두고 行動力 軍事力을 保有하는 強大國家(常任理事國)가 스스로 贊成하지 않는 決定(終着點의 強制措置에 拘束받는 것 같은 非現實의인 事態를 避하기 위해 事件連續의 全過程에 있어서 拒否權을 待使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拒否權自體의 否定은 國際政治現實의 無視와 같은

意味를 가진다.

問題는 拒否權制度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濫用に 있다고 하겠다. 拒否權濫用の 意味부터 定義해 보겠다.

拒否權濫用の 경우로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拒否權制度設定의 趣旨에 反한 行使와 政治去來의 道具로서의 行使이다.

拒否權制度設定의 趣旨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軍事的措置가 取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強大國의 責任을 考慮한 데 있다. 셴프란스스 코會議의 四大國共同聲明은 安保理事會의 어떠한 決定도 究極에 가서는 強制措置를 取하는 것이 아냐는가의 決定으로 連結되는 것임을 指摘하고, 그러므로 紛糾處理의 어느 段階에 있어서의 理事會의 決定도 究極의 措置(強制措置)를 取하는 경우에 가장 主要한 役割을 맡을 強大國에 全員一致의 贊同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써 拒否權設定의 意味를 說明하고 있다. 유엔憲章의 多數 決定原則에 있어서 하나의 例外를 이루는 이 制度가 安保理事會에 適用된 것은, 多數決定에 依해서, 軍事力이 微弱한 弱小國家들의 責任이 隨伴될 수 없는 決定을 防止하려는 目的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拒否權은 安保理事會가 數에 支配되어「無軌道」한 行動을 하게 되는 것을 牽制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實地에 있어서 拒否權은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만 行使되지는 않았다. 一九四六年 시리아-레반 問題에 있어서 蘇聯이 拒否權을 行使한 例

를 들어 보자.

이 事件에 있어서 英佛兩國軍의 시리아 및 레반을 撤收가 問題가 되었다. 시리아-레반 兩國는 英佛軍의 同時 即時 撤收를 要求했고, 英佛은 撤收에 反對하지 않았으나 그 時期와 方法을 關係各國의 協議에 의해 決定해 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래서 美國이 妥協案을 提出했는데, 그 내용은 外國軍隊가 시리아-레반으로부터 可及의 速히 撤收할 것, 그것을 위해서 當事國이 早速히 協商을 開始할 것을 安保理事會는 確信하며 또 當事國이 그 交渉의 結果를 報告할 것을 要請한다는 것이었다.

票決에 있어 英佛은 棄權했으나 蘇聯은 拒否權을 行使했다. 英國案은 否決되고 安保理事會는 同問題에 關係 何等의 決議도 이룩하지 못했다. 그後 英佛은 시리아와 레반에서 撤收했으나 兩國軍 軍隊를 撤收시키지 않았던들 安保理事會는 그러한 事態에 關係해서 傍觀하는 態度만을 지키고 있는 結果가 되었을 것이다.

蘇聯의 拒否權行使의 理由는 美國案의 內容이 不充分하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拒否權의 本來의 趣旨은 安保理事會가 無軌道한 行動을 取할 수 없도록 牽制하려는 데 있다. 內容이 不充分하므로 拒否權을 行使했다는 것은 拒否權의 濫用이다.

萬若 美國案이 英佛軍의 同時, 即刻 撤收를 要求한 것이 라면 英佛이 그 要求에 應하지 않을 경우 終着點에 強制措置를 想定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것에 對해서 拒否權을 行使한다면 理解할 수 있는 問題이나 何等의 強制措置를 想定하지 않은 決議案에 對해

을 존중하는 基礎 위에서 諸問題의 友好關係를 進展시키며 기타 適當한 辦法을 써서 全世界의 平和를 強化할 것.

三, 국제법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人道的性質을 가진 국제 문제를 해결지를 것이며 人種, 性言語, 宗教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人權과 基本的自由를 중하도록 助長獎勵할 것.

四, 이 共同目的의 達成에 있어서 각각은 행동을 조화시키는 中樞가 될 것. (憲章 第一條)

○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서 總會 安全保障理事會, 經濟社會理事會, 信託統治理事會, 國際司法裁判所 및 事務局을 設置한다. (憲章 第七條一項)

○ 總會는 다음과 같은 目的을 위하여 研究를 發議하고 또 勸告한다.

一, 政治的分野에 있어서 국제협력 을 促進할 것. 또 국제법의 漸進的 發達 및 그 法典化를 장려할 것.

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普通의分野에 있어서 국제협력 을 促進할 것. 아울러 人種, 性, 言語宗教의 差別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人權과 基本的自由의 實現을 원조할 것. (憲章 第十三條一項)

○ 국제연합에 의한 任務 有効한 行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가 명국은 국제평화안전유지책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안전 보장이사회에 부과하며 또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책임에 의한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加盟國을 代表하여 行動하는 데 동의한다. (憲章 第二四條一項)

서 거부권을行使한 것은 거부권本來의趣旨에 어긋나는行動이라고 하지는 않을 수 없다.

一九六一年十二月 공고의 루돌프相이 逮捕된 事件이 일어났을 때 英國은 國際赤十字社에 眞相調査를依頼하자 是 決議案을 提出했으나 蘇聯의 거부권에 의해 埋葬되었다. 이亦是 시리아·레바논問題의 경우와 同一한 거부권의濫用이라 하겠다.

이 두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부권의行使는 理事國間에 最大公約數의 決定의 成立을 沮止하고 事態의改善을 妨害하고 理事會를 麻痺시키고 만 것이다.

政治的인 目的을 위해 거부권을利用하는 것도 거부權濫用의 範주에 들 것이나 거부權은 元來 多數의 暴舉에 對해서 少數의 意見을 保護한다는 意味를 지닌다. 그것이 強大國間의 政治的인 去來에서 道具로서 利用되어 弱小國家가 犧牲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現實에 있어서는 이러한 拒否權行使의 例를 찾을 수 있다. 유엔의 新規加盟容認問題를 생각해보자. 蘇聯은 一九四七年以來 加盟申請國의 一括容認를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유엔憲章 第四條一項은 「유엔에 있어서의 加盟國의 地位는 憲章에 提示된 義務를 受諾하고, 또한 본 「유엔」 機構에 依해 이 義務를 遂行할 能力 및 意思가 있다고 認定되는 모든 平和愛護國에 對해서 開放된다」로 되어 있다. 伊太利의 加盟問題가 提起되자 蘇聯은 同國이 이 憲章의 條項에 依해 加盟資格을 具備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그 加盟을 容認할 用意가 있는

나 伊太利와 같은 狀態에 있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芬蘭등과 同時에 容認해야 한다는 條件을 提示했다. 이리하여 問題가 생기자 安保理事會는 國際司法裁判所의 勸告를 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問題點이 介在한다. 하나는 憲章 第四條 第一項의 加盟條件이 一般의인가 또는 다른 加盟申請國의 容認를 條件으로써 添加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인데 司法裁判所는 그 條件이 一般의인라는 判決을 내렸다. 또한 各기 問題點은 어느 特定의 加盟申請國의 容認條件을 다른 加盟申請國의 容認條件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點이다. 이것은 憲章의 明文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蘇聯의 加盟國一括의 容認案은 分明히 憲章의 規定과 相反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은 一九四七年以來 一括容認를 主張하여 많은 國家의 加入을 妨害해 왔다. 그것은 蘇聯이 自國이 推薦하는 申請國의 要因을 條件으로써 自由陳營 申請國을 容認하겠다고 한 것을 意味한다. 이렇게 거부권이 政治的인 去來의 道具가 되면서 많은 小國이 오랫동안 犧牲되어 왔다. 거부권이 政治的인 去來의 道具로서 利用된 例는 蘇聯에 依한 百回제의 拒否權行使의 對象이 된 지난 六月의 愛蘭案(가슈민粉料를 印度, 파키스탄 兩國間에서 協銷하라고 勸誘한)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蘇聯이 愛蘭案을 拒否한 理由는 印度를 歡心을 사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즉 狹少한 政治的인 利益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蘇聯은 다시금 拒

否權을 濫用한 것이다. 蘇聯은 유엔憲章의 精神과 安保理事會의 本來의 目的을 無視하여 拒否權을 濫用, 유엔機能을 麻痺시키듯 해 왔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拒否權制度는 國際政治의 現實에 비추어 宜當의 存在理由를 가진 것이니 만큼 問題는 그 撤廢의 與否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濫用의 牽制即制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셀프란시스 四國共同聲明에 依하면 拒否權制度의 根據는 事件連鎖論으로써 說明될 수 있다. 蘇聯이 五一回에 걸쳐 拒否權을 行使한 新規 加盟申請國容認問題를 생각해보자. 이 問題는 어떻게 보아도 事件連鎖와는 直接的으로는 連結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拒否權과 加盟問題는 分離시킬 만한 充分한 證據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紛糾의 平和的인 解決에 關한 勸告決議案에 對해서 拒否權을 行使한다는 것은 拒否權을 設定한 根本理由에 違反된다. 이 根本理由는 強制措置에 있어서의 強大國의 軍事責任에 直結되어 있다. 平和를 위한 勸告의 性質의 決議案은 拘束力을 갖지 않으면 直接 強制措置와 連結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도 拒否權制限의 大義名分을 질 수 있을 것 같다.

其他 拒否權制限의 分野와 名分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이 拒否權의 制限을 위한 憲章改正의 움직임에 全面的으로 反對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여기에 벌써 拒否權行使의 舞臺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 國際聯合加盟國은 이 壇장에 의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을 受諾 및 履行함을 同意한다. (憲章 第二十五條)

○: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연합 11개국으로 구성한다. 中華民國, 佛蘭西國, 스베트 社會主義 共和國, 聯邦大브리튼 및 北都아일랜드 聯合王國, 아메리카 合衆國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 된다. (憲章 第二十三條 一項)

○: 安全保障理事會의 理事國은 各一票의 投票을 가진다. 議事節次事項에 關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은 七個理事國의 贊成投票으로써 行한다. 其他 모든 事項에 關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常任理事國의 同意投票을 포함하는 七個理事國의 贊成投票으로써 行한다. (憲章 第二十七條)

○: 어느 紛爭이나 事態의 계속 이 국제평화안전회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는 여하한 분쟁이라도 조사할 수 있으며 또 국제적 압력을誘導하거나 紛爭을 惹起시킨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사태라도 이를 조사할 수 있다. (憲章 第三十四條)

○: 비록 국제연합의 加盟國이 아닌 國家라도 自國이 當事國이 된 紛爭이든 如何한 것이나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總會의 注意를 환기할 수 있다. (憲章 第三十五條 二項)

但 이 當事國은 本憲章이 規定된 바 平和解決을 위하여 미리 受諾하여야 한다. (憲章 第三十五條 二項)

◇寫眞은 出擊當時의 筆者



나의 出擊 回顧

李 豪 英

<空軍大領>

民族의 宿願인 統一을 못이룬채 「休戰」이라는 말뚝을 板門店에 세운지 十餘年.....

비록 우리의 첫전에 銃聲은 안들려 오나 사무치는 戰爭의 悲哀는 그 때를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生生하게 記憶하고 있을 것이다.

當時 나는 愛機와 더불어 敵陣 깊숙히 날라 爆彈을 퍼붓던 出擊의 感懷를 잊을 수 없다.

여기에 出擊當時를 回顧해 몇 토막의 出擊記를 더듬어 본다.

◇ 첫 出擊前夜

낮선 잠자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실세 없는 出擊으로 곤히잠은 先輩들의 코고는 「드르렁」소리가 요란하다. 그들의 단꿈을 깨드릴까 두렵 위 숨을 죽이고 寢臺에서 몸을 일으켜 「콘셋트」마루바닥에 한발을 내려 디디니 「베그득」또 한발자욱 따라 「베그득」.....소리가 난다. 단잠을 깨치는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다. 누군가가 알아듣지 못할 잠꼬대를 하며 잠자리를 들끓는 모양이다. 木

本文中 階級은 모두 當時階級

寢臺가 「덜컹덜컹」 「덜컹덜컹」 事情도 두려움도 없이 소리를 낸다.

슬며시 寢臺밑을 어루만져 신발을 찾아 신고 밖으로 나와 깊은 밤하늘을 쳐다본다. 잠으로 아물다운 밤이다. 이슬이 축축한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四方을 돌아보니 모래밭위에 「콘셋트」 몇 채가 나란히 우뚝 서 있다.

바로 저 곳에서 해질무렵 出擊에 서 돌아온 操縱士가 땅에 흠뻑 젖은 채 疲勞도 있고 敵陣이야기를 신나게 하면 記憶이 떠오른다.

『이 자식들 一番機 공무니를 막을 리 쓰지 않아.....』였다. 모르겠다 하고 한방 던지고 울려대며 보니 直通이 저 뭐야 하며 한창 메리고 부시고 하는 시늉을 손발짓 써이 가며 武功談을 피우면 웃었다. 그러나 지금은 코요하기 짝이 없다.

별빛아래 포근히 잠든 「콘셋트」 수에는 崇高한 青春의 산품이 있다. 生死를 초월한 삶의 價值란 黑白의 對照보다도 더욱 뚜렷이 비할바없 는 「스릴」이 동반한다.

筆者는 民間操縱士出身으로 太平洋戰爭에 重爆擊機(呑龍)을 操縱, 解放後 興南工大서 物理學專攻, 51年 空軍에 入隊, 52年 敵陣出擊一〇〇回 記錄樹立, 55年 渡美, 美〇〇基地서 F86 「제트」 轉換教育修了, 57年 空軍大學修了 同年 作戰局 評價研究課長, 58年 「戰團操縱士 戰術評價敎範」編纂, 59年 第3戰術偵察大隊長, 60年 1 訓飛團作戰處長, 現情報局 航空目標課課長職에 있다.

綬章으로는 ▲乙支武功勳章 ▲美國殊勳飛行十字勳章 ▲美國飛行勳章(3回) ▲大統領綬章(3回) ▲空軍參謀總長個人表彰等을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飛行訓練에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 겪었으나 그들의活舞臺와는 너무도 判異하게 느껴진다.

웃구치는 더전인 敵의 上空이며 올라오는것이 砲火임에 탈간 마후라를 같은 파이롯트의 삼의 스틸은 너무나 多次元이다.

나의 머리에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른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歷史와 더불어 저나고 있는 生活哲理의 一面이기도 하다. 가진 絶望과 悲哀에 짓밟히고 호느끼면서도 악착같은 삼의 길을 追究해 나가려는 逆境에 對한 闘志와는 어떻게 比較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새롭고 神

기한 뿐이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電燈을 환하게 켜놓은 부리평室에서 발걸음이 다가온다.

『누구십니까?』

『아! 李少尉인가, 나 金少尉인데 왜 안자고 밖에 나와있지?』

『金少尉, 이리와 여기앉아 같이 얘기 하세요..... 그렇게 일이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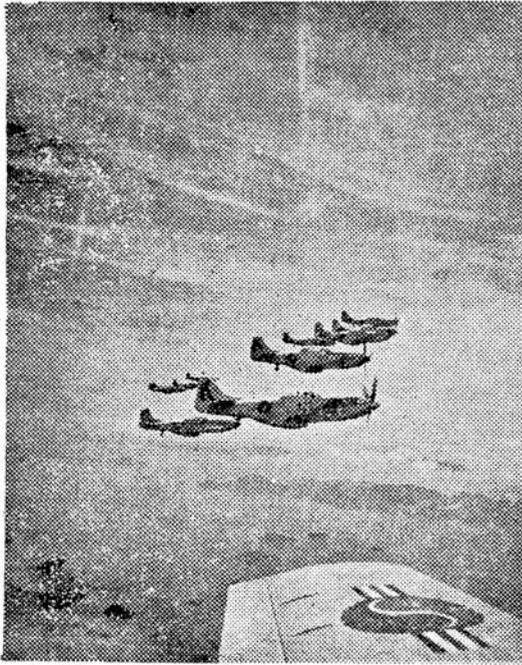
『응, 이제야 부리평準備를 끝마쳤어.』

『아무조목 몸操心하여 잘하게.』

『그건 그렇고 잠을 안자면 어떻게 하지? 더우기 來日是 突出擊인데..... 目標도 멀고 相當히 危險한 곳이야.』

『李少尉,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이것저것.....』



◇ 敵陣으로 向하는 「무스랑」 戰鬪機 編隊의 勇姿

『이것저것.....』

『金少尉, 一四後退吧 南下한 내 飛行機에 爆彈을 싣고 故郷땅을 처음으로 찾아가는 心情을 알겠나?』

나의 머리에 는 쓰러졌던 共產治下의 生活아닌 生活에 憤怒가 爆發한다.

『問題는 어떻게 싸워 내가 지닌 運命에 무게를 갖게하고 價値를 높이느냐하는 것 뿐이네.』

이 殺風景한 모래비에 느껴지지 못한 情緒가 잠겨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한 일이다.

金少尉가 말을 다시 잇는다.

『잠자는 할 수 있어. 나는 操縱士가 못되고 地上勤務를 하고 있지만 呼吸單은 操縱士속에서 하고있어 말로 만이라도 數個月을고 나니 무엇이 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같애 잘 모르긴 하지만 말의 結論이 生과 死의 距離만 거의 없었사피 되드곤 자! 벌써 두시간이네, 어서 들어가 자지.....』

제자리에 돌아와 잠을 請하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溫情을 품기는 戰隊長의 轉入申告에 한 뜻밖의 訓示.....

『貴官들은 戰鬪操縱士가 되었다. 戰友를 죽이지 말라, 先烈的 遺訓을 잊되게 하지 말라.』

몸서 락락하고 切迫한 訓示다.

『貴官들은 죽지 말고 잘 싸워서 功勳을 세워라.』하고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疑問을 나의 無知와 妥協시키면서..... 단잠을 請했다.

◇ 出擊 出擊

오늘도 敵陣을 向해 操縱桿을 잡는다. 敵陣을 數十回 오고 간 동안

擊에는 이전 自信이 생긴 것 같다.

검은 구름속에 먼동이 뜬다. 基地를 떠나 어느듯 한 시간이 지난 敵地 三,〇〇〇피트低空의 새벽이다.

밤에 짓고 焦燥感에 묶이었던 緊張이 自己도 모르게 크고 긴 한숨 속에 풀려나간다.

只今까지 必死的인 努力으로 구름을 헤쳐나와 目標上공에 到達한 喜悅의 瞬間이다.

左右로 짙은 구름을 避해가며 攻擊方向을 擇하던 編隊長의 機首가 크게 右로 돌더니 南西方向으로 定針한다.

氣象障害로 攻擊企圖를 斷念하고 第二目標로 向하는 約束動作이다.

多幸히도 하루의 壽命을 延長받은 赤狗는 살기위한 鬪爭의 砲門을 드디어 열었다. 가는길 앞뒤에 砲徑만이 뿜을 올라와 연선 바람결에 휘 없이 흩어진다. 나는 第三番機의 뒤를 따라 速度를 增加하며 定針로 定針하고 高度를 取하니 時間만이 默黙히 흘러간다. 機動을 하며 編隊隊形을 維持하는 손발은 間斷없는 反射의 操作에 실사익없고, 索敵에 疲勞한 눈동자는 나뉘도 모르게 四方을 돌아보며 무엇인가를 찾는다.

이것도 저것도 呼吸없는 寂寞뿐이다. 그러나 언제 어느때 敵의 對空砲火가 올라올지 모르는 危險속의 이 瞬間! 『나는 夢味에도 잊지 못할 怨恨에 사무친 北韓上공을 날리고 있구나!』

우리의 北韓同胞가 이 늑대한 編隊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할까. 아니 그보다도 人間의 尊

貴한 自由와 生命을 유린하고 우리同胞들을 奴隸의 生地獄으로 몰아넣은 共產赤狗들은 이 編隊를 바라볼 때 얼마나 떨고 두려워 할까? 彼我의 偶運에 따라 생각이 判異한 우리의 奮闘存在, 『나는 기어코 한놈의 怨讐를 도한 조각의 敵施設도 容恕하고 쳐부시고 말리라』하는 敵愾心에 불탄다.

어느듯 愛機의 배필을 홀러가는 地形에 놓이 골린다.

FUEL CHECK ! (연료량 점검)
GUN SWITCH ON ! (사격준비)

編隊長의 無電을 通한 攻擊準備의 口令이다. 目標上空에 왔다.

敵軍의 最前線 補給基地로서 中部 戰線全面을 支援하는 重要地點이니만큼 그들의 防衛도 相當히 頑強한은 勿論이다.

目標直上空 八,〇〇〇피트에서 目標物을 찾는다. 이곳 저곳에 山嶺되어 있는 補給物의 偽裝에 많은 努力을 잊을 수 있으나 그야말로 속이 썩하게 드러나 보인다. 나는 이놈 저놈 目標을 고르다가 愆心 많게 큰 것을 하나 골랐다. 『攻擊開始』하며 急反轉降下하는 編隊長의 뒤를 이어 二番機도 別個目標에 突入하고 三番機의 攻擊, 나도 急降下橫轉으로 한바퀴 돌며 두 트럭……. 쓰고 나서 『目標에 正對하니 前方機의 爆彈은 멋지게 命中한다. 左側方向에서 몇개의 불꽃이 올라오고 있다.』

降下하는 左側에서 銃알이 스친다. 우리를 노리는 敵砲陣地는 산기슭 丘陵의 큰 소나무 밑에 있음을 發見했다. 물러대어 攻擊하고 싶은 마음 잔뜩하다. 그들을 攻擊하기엔 爆彈이 아까웠다. 敵의 對空砲臺에 쌓인 나는若干

높은 高度에서 目標을 攻擊하고 機首를 돌려 對空砲陣地에 마주 댔다.

右側날개서 불덩어리가 번쩍한다. 座席에서 約「네」되는 곳에 구멍이 큼직하게 나고 몇어진 조각이 너털 거렸다.

愛機의 傷處를 지프린 눈으로 바라본 憤怒의 마음은 근세게 밤아침을 당겼다. 六門의 機關砲震動에 팔이 흔들린다. 擬視하니 敵陣地에서도 미칠 듯이 불을 댈한다.

오고가는 彈丸이 서로 마구쳐 空中에서 튀는다. 曳光彈이 제자라에서 흔들리는 듯하다가 새까만 내눈동자에 쓴살같이 날아온다. 어느덧 一,八〇〇피트까지 내려와 高度의 餘裕가 없다. 끌어올릴까? 아니 卑怯하게 避하다가는 배필을 얻어맞을 것이며 골까지 싸우다 生, 死을 決하리라!

高度는 容恕없이 내려간다. 繼續發射……. 一,三〇〇피트 九〇〇피트, 三디어 미친듯 타던 불꽃이 꺼졌다. 기여히 射手가 죽었는지, 砲陣地가 부풀어 오르듯 눈앞에 확 퍼져 온른다.

아! 이제는 高度가 없다. 밤아침을 놓으며 두손으로 操縱桿을 당기니 나의 軀體 붓고 있던 목이 자라 부처럼 기어들며 몸이 쏠아 든다.

뜻밖에 몇몇의 因緣있는 얼굴이 腦裡에 번개처럼 스쳐간다. 愛機와 더불어 敵陣에 自爆하게 되는가? 無意識中에 『웅!』 소리를 내며 最後의 힘을 다냈다. 눈이 어두어져 앞이 안 보인다. 飛行機는 機首를 든 채 降下하면 惰性으로 繼續적으로 밀으므로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어디! 『광』하고 부딪치거나 앞나하는 조바심, 뜬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안타

까움——時間이 흐르는 동안 飛行機의 安全姿勢만을 維持할 뿐이다.

잠시후 막혔던 숨이 터지고 몸이 空中에 뜨는 듯한 感覺을 느꼈을 때 軀體는 안개가 센바람에 사타져 없어져듯 눈앞을 가렸던 暗幕이 벗어쳐 視力을 回復하여 보니 神의 加護를 얻었음을 行操作의 反應은 古木の 나무잎을 飛行機날개로 스치고 나서 上昇하고 있었다.

高度計바늘이 急速도로 올라감을 보았을 때 크게 숨을 내쉬었다.

分隊長機의 位置를 찾아 보니 上昇하며 軀體는 傾斜를 지며 左右로 旋廻한다. 熾烈한 對空砲火網속에 있는 나의 安否를 憂慮한다.

『四番機 攻擊을 異常無』를 報告하며 날개를 뒤쳐 보니 目標은 壯嚴한 光景이다. 出力全開로서 三番機를 따라 隊形을 짓고 『적정시켜 미안합니다』



◇ 爆擊에 맞아 硝煙만이 자욱한 敵陣地

라고 말없이 머리를 끄며하니 窓門 넘어 分隊長의 빙긋 웃는 얼굴이 無限의 多情해 보이고 반갑다.

웃이 축축하고 눈앞이 맘에 쏠려 쓰리다. 기를 문은 장갑 끈 손으로는 을 비비누 다시 앉음을 보니 파리한 마리가 눈앞을 맴돈다. 유능의 파리 파라……. 나는 화가 났다. 유감계 飛行機안에까지 파리와 성화를 대다니——잠으며 손을 들다 문득 생각한다.

이 더럽고 귀찮은 파리가지만 나와 오늘의 運命을 같이한 唯一의 生命이구나! 나는 同情이 갔다.

나의 決死的이며 悲壯하고 아슬아슬한 모습을 날날이 본것은 오직 너 파리뿐—— 나도 모르게 微笑가 저절로 나오며 야릇한 心情이 생긴다. 거울을 본즉 눈에 빛물이 서고 얼굴은 제멋대로다. 어지러 웃어보니 웃는 지우는지 分間할 수 없는 皮상한 모양이기에 거울을 물려 놓았다.

어느덧 멀리 오락사리 草家집 문턱에서 아침밥짓는 煙氣가 나온다. 드디어 南韓방에 왔구나! 戰鬪氣分은 어느듯 살아지고 사물 愉快하여 유리창에 붙은 파리를 쳐다보니 怯에 질린듯 눈만 동글거리며 나를 마주 본다. 그도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 出擊決算의 날

오늘은 數 많은 民族의 悲哀를 간직한 休戰이 된다는 韓國戰亂의 마지막 날이다. 이른 아침부터 將兵 모두가 表現키 어려운 感想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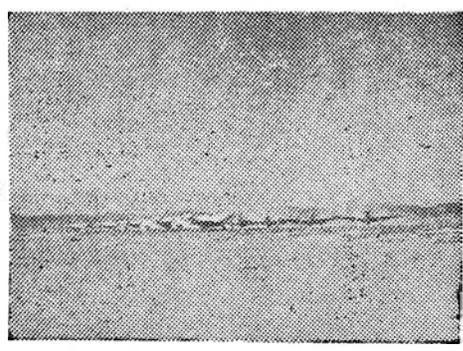
◇ 出動하는 우리 離隊機編隊

전투 緊張되어 있다. 前線에서 輸送機 便으로 後送되어오는 陸軍將兵의 負傷者가 어제 보다도 數가늘고 負傷程度도 慘酷하다. 몹시 아픈 模樣이다. 呻吟하다. 哭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낮게 떨리는 소리에는 보고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몸에 식은땀이 나게 하더는 시음을 뜨겁게 한다.

出擊의 첫編隊는 離陸하였다. 뒤따르는 各編隊는 제各己의 目標을 向하여 奔살같이 날아간다. 오늘의 出擊任務는 모두가 東部敵線 陸軍部隊에 對抗하는 敵의 陣地 或은 兵力을 攻擊하여 現戰線보다 南下하려는 敵을 沮止하는 近接支援作戰이다.

나는 東海岸을 따라 北上하여 目標로 가는 途中 여느때와 달리 彼我的砲火가 번져오는 火門을 興味있게 보았다. 소리가 커 들리던 더욱 친이 날때 『야』 오늘이야말로 첫날 대목장날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 戰線에는 砲煙과 먼지가 하늘을 덮어 視程이 흐려 있다. 戰線의 山봉우리는 爆彈洗禮를 받지않은 곳이 없으며 싸움터의 名目 그대로다. 韓國空軍은 東海岸基地에서 美空軍은 東海에 있는艦上에서 總力을 傾注하여 最後의 引南侵을 沮止하려 날아가는 것이다. 萬若 오늘날의 戰團에서 現戰線을 維持 못하면 지금까지의 數 많은 犧牲과 努力이 水泡化되며 休戰後에 미치는 軍事的影響이 莫大함은 明白하다.

나는 僚機를 한臺 살펴보고 모두 團志 있음을 認識했다. 『들이간다』 하고 攻擊開始를 編隊員에게 命하고 爆彈을 投下하기가 바쁘게 基地로 向하며 날개를 左右로 흔들며 集合을 信號했다. 全機의 모든 操作과 戰團行動은



完全히 洗練되어 마치 나 혼자 操作하여 編隊全體가 움직이는 感이 든다. 秩序整然하고 멧지게 바작 모여들어 손가락을 동글게 하여 O, K 信號을 한다. 全機 被彈도 없고 엔진의 異常도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말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푸르페라 回轉을 增加시키고 곧바로 飛行場을 向하여 降下한다.

물아오는 길에 보는 東海岸의 景致는 아름답고 잔잔한바다는 平和롭다. (元山爆擊時에 본 明沙十里의 海邊은 몹시 쓸쓸하였지만)

지금까지 數十回이 上空을 或은 똑같은 空間의 線上을 날았지만 오늘의 느낌은 어느때보다도 明確하다. 來日부터는 願하는 願치않는 다시 오기 힘든 길. 오늘 하루로 制限된 戰爭의 幕은 내린다. 지금 時刻는 벌써 十時四十分, 敵陣까지의 往復所要時間이 一

時間二十分이니 計算上으로는 最大限 四回의 出擊이 可能한 것이다. 揮發油와 爆彈彈 부지런히 실어다 오. 『操縱士』라는 좋은 이름보다 힘으로 끄는 牛馬車의 황소가 되어 爆彈로 케트를 날라보자 몸이 못견디면 약도 싸워라!

飛行場 가까이 왔다. 最短距離를 擇하여 빨리 着陸하려 急操作을 한다. 그러나 疲勞였기 萬無한 僚機들은 各己의 編隊에 固着된듯 하며 各自의 呼吸도 나의 『하나들』하는 口令에 맞추어 쉬는듯 하여 마음이 가벼웠다. 着陸을 爲하여 場周에 進入한즉 指揮塔에서 復行하라는 無電指示다. 妥當한 理由가 있을 것은 勿論이나 슬며시 화가 난다. 내뻐듯이 『알았다』는 對答을 하며 滑走路쪽을 내려다보니 輸送機 한대가 다리를 내고 무거운 듯이 北쪽에서 기어오고 있다.

가슴이 뭉클하다. 『또 負傷兵이구나』 輕率한 나의 感情을 自責하며 操心性있게 着陸하여 作戰室에 들어 왔다. 電話받는 소리가 요란하다. 整備室에서 알리는 飛行機現況을 받고 있다. 編組板(Mission schedule board)앞에 섰다. 먼저 着陸한 操縱士를 도 옆에 모여든다. 優先 이틀을 板上의 여가 지에 써나기며 積을 마추어 몇개의 編隊를 썼다. 『다음엔 始動時間十一時五十分, 十一時三十五分까지 集合現在時刻 十一時二十一分十五秒, 례했!』

急하면 急한대로 處하는 그들의 行動은 反射의 이다. 食堂으로 뛰어간다. 나는 檢續하여 各操縱士의 記錄을 慎重히 檢討하며 航空機를 配當했다.

戰團는 如前히 繼續되고 나는 海金剛, 內金剛을 날개로 덮어가며 계속할

격했다. 드디어 高城南方 四杆地 點의 三五一高地(이 高地는 戰亂中 아찔 처녀으로 主人이 갈리던 重要據點)를 攻擊하기 위해 休戰으로 因한 休戰의 틀거름을 감행했다.

午後부터 호리가기 始作한 날씨의 景은 구름은 目標을 덮으려한다. 雲中에서의 攻擊은 不可무하고 雲下에서는 高度의 餘裕가 너무나 없다. 地面에서 三,〇〇〇피트以上이 있어 한다. 여기까지 가지고는 爆彈을 마다에 먼저 無拓한 고기를 잡기는 쉽다. 어떻게 하든 지 敵을 때려야 한다. 目標上에서 구름을 避해 한바퀴 旋回하며 決心했다. 울려오는 鴉은 구름이 산위에 올때를 맞추어 구름 밑바닥을 스쳐 爆彈을 投下했다. 戰果를 確認하니 危險하고 不確實한 攻擊이었으나 큰 成功

하루終日 인어맞아 민머미리가 된 산봉오리는 구름에 완전히 덮히고 말았다. 앞으로 만드는 地圖에서는 三五一高地를 찾지 못하리라. 필경 三五〇高地)가 같은 자리에 그려질 것이다.....

비에 젖기며 基地에 돌아와 飛行機 엔진질을 끄고 날개에 올라선 整備士가 『手苦하였읍니다』하고 慰勞하며 飴메트를 받아 준다. 操縱席에서 나와 飛行機를 내리려는 나의 다리가 떨린다. 飛行記를 쓸려는 손가락은 感覺이 거의 없다. 하루 四回의 出擊에 身心이 지친 模樣인가. 總一四八回의 나의 夢을 醒 出擊의 보람도 없이 停戰이라는 悲哀의 울림에서인가? 길게 내뻐온 담배연기가 無限한 寂寞속으로 흩날린다.

나의 出擊 回顧

◇寫眞은 出擊當時의 筆者



나의出擊日記

玄 昌 健

<空軍大領>

筆者는 南滿州 태생으로 祖國光復과 더불어 歸國, 五二年 空軍에 入隊, 五三年一月 百回出擊記錄樹立, 休戰後 〇〇基地서 제트機種轉換教育修了, 五七年一〇戰飛團一 〇三飛行大隊長, 五八年 渡美하여 空地協同作戰學校서 三個月間教育, 五九年 空軍大學修了, 同年一〇戰飛團一〇一飛行大隊長, 六一年 監察業務視察次, 渡美, 現在 監察監室 檢閱課長職에 있다. 授章으로는 ▲乙支武功勳章 ▲忠武武功勳章(二回) ▲美殊勳飛行十字勳章 ▲美飛行勳章 ▲大統領授章(三回) 등을 받았다.

一九五〇年 六月 一日

北쪽하늘 멀리 智異山을 바라보며 철마다 파고지는 꽃송이와 계절을 알려주는 새소리가 실새없는 臥龍山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情은 땅 泗川을 뒤에 두고 山실고 물살은 他鄕 땅 一〇戰隊가 주둔하는 江陵으로 떠나게 되었다.

每日같이 내려다보는 泗川방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유달리多情스럽게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 泗川에서의 지난날의 數없는 追憶들이 되살아 올라오는 回想에 잠가는 동안 어느새 大領을 지나 無數한 山川을 내려다 보며 嶺南 山과 山이 얽히고설킨 眞인 大領嶺을 지나 靑靑은 강을 飛行場에 着陸한 것이 오후 一, 二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비행장에는 戰隊長 金信

一 敢히 出擊日記를 여러 戰友앞에 내놓는다. 거의 十 年前에 써두었던 日記帳 그대로다. 혹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理解해 주기 바란다. 本文中 階級은 當時階級

中領을 비롯하여 많은 將兵이 반가히 맞아 주었다. 오래전만에 만나는 戰隊長任, 그리고 여러 戰友將兵들을 對하니 감개 무량하였다. 모두들 『왕서방』 같았어, 비단치 팔아 오실 한잔 마시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上官들의 變함없는 농담은 부드럽고 반가웠다. 飛行場에서 느껴지는 첫 印象은 오직 軍人만이 맛볼수 있는 人間愛였다.

宿所로 案内를 받았다. 며칠 전 부터 陣, 〇營가 온다는 것을 알고 固定陣대가 짜여져 있었고, 內務班도 別途로 定하여져 있었어, 우리들은 各者 定해진 칸막인 자리에 들어갔다. 戰隊長任 以下 우리들까지 中宗사는 불과 二十명미만이다. 콘셋트 二棟에 各 十名씩 들어 野戰宿所로서는 손색이 없었다. 愛機의 始動소리와 함께, 날이 밝고 爆炸 소리가 그칠으로써 해가지는 泗川 飛行場에 비하면 조용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六月 二日

우리 一行은 GMC 한대에 타고 飛行場에서 北쪽으로 約十五分 달리 東海岸에선 보기 드문 空軍一色의 아름다운 고을에 다달았다. 이곳

이大關嶺 밑에 자리잡고 있는 江陵色이다. 앞뒤가 산과 바다로서 가로막힌 이곳도 位置的으로 보나, 交通上으로 보나 크게 發展할만한 곳은 아니라 하는 것이 내가 느낀 첫인상이다. 아직껏 시골 風景이 多情스러워 果實이 부러 부러 자라는 옥토와 無數히 많은 해삼과 전복 그리고 더욱이 珍貴한 개를 길러주는 바다와 情緒의인 이쁨 모를 樹木이 우거진 大關嶺은 누구에게나 매력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大關嶺에서 하루를 출졌다. 氣象觀測의 統計로 보나 地形으로 보아서 飛行場으로서 알맞지 않은 江陵은 오늘날 우리 一〇戰隊가 자리잡고 있는 市內는 더욱 活氣를 띄워 보잘 것 없는 草家窓門에는 아담한 카아텐이 걸려지고 거꾸러진 松板과 유리에는 새듯한 페인트로 단장되고 양조장의 막걸리가 前보다 質의으로나 量的으로 많이 生産된다는 것은 몹시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六月三日

初出擊을 며칠 앞둔 나의 日課는 教育과 Briefing으로서 하루를 보내며 그리고 日課가 끝나면 틈틈히 劇場을 出入하면서 悲劇배우들의 滋味나는 場面을 골갈 감상하였다. 江陵에서 출연되는 大部分의 劇이란 三流格에 處하는 劇이지만 熱心의 表現하는 俳優들의 웃음 場面에는 群衆들과 같이 웃어가며 하루를 즐기기도 하였다.

때로는 하늘을 憧憬하고 靑년이 飛行士를 좋아하는 江陵處女에게 울바른 空軍에 對한 認識과 때로는 유모

어로서 웃기도 하며 나도 제법 달려진 存在가 되었다. 特別이 部隊에 와서 느낀 것은 全將兵이 出擊時間이 다가오면 모두 宿所 周圍에 나와 出擊操縱士와 그의 愛機가 오늘의 任務를 마치고 無事히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잘다녀 오라는 뜻이 손을 흔드는 그들의 인사—漸次 멀어져 가는 飛行機를 바라보는 그들의 心情은 마치 어린 子息을 보내는 父母의 心情과도 같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將兵들을 볼때 나는 眞心으로 滿足과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六月七日

오늘은 내가平生 있을 수 없는 敵地 初出擊날이다. 公연히 아침 일찍부터 바빴다. 내가 初出擊할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編隊員은 作戰室에 모여 作戰課長으로부터 Briefing을 들었다. 特別 初出擊하는 1st Class는 爆彈裝을 생각보다, 長機 Miss를 하지 않도록 간곡히 注意와 아울러 強力한 對空砲火가 要所 要所에 있다는 Briefing이 있었다.

十二時三十分 장구準備를 갖추고 나의 愛機 三十三號機로 갔다. 오늘의 目標은 二個의 五百磅爆彈, 六門의 機關砲나 는 飛行機에 타기전에 愛機에 對하여 敬禮를 하는 습관의 學生時節부터 있어 탑승前에 敬禮를 하고 愛機에 올라, 手信號와 더불어 始動을 마치고 離陸前에 나는 最後 飛行點檢을 마친 다음 順序에 따라 離陸을 하였다. 鏡浦臺를 內側으로 보면서 飛行場을 한바퀴 돌아 편대는 짜여졌다. 어느새 東草 上空을 지나, 「杆城」

上空에 到達했다. 山頂승이 많다는 著名한 香爐峰이며 彼我間의 切열한 激戰地였던 珍富嶺 저 북쪽으로는 月飛山 海金剛 西쪽으로는 長安寺, 東海로 흘러 내리는 南江, 東海의 푸른바다가 南北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景致를 나는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編隊長은 敵地를 가르켜준다. 그만큼 公연히 긴장이 된다. 긴장이라야 비집이랴던가 恐怖는 아니다. 다만 이때까지 배운 戰法을 어떻게 해서 充分히 使用할 수 있는가에 對한 초조감과, 初出擊을 어떻게 하면 더 燦爛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서 오는 긴장인 것이다. 約 五分後에 三防里 目標上空에 到着하였다. 三日浦를 지나 若干後에 三防里 新高山을 環호으로 내려다 볼 수가 있었다.

멀리 北으로는 安邊元山의 連峰이 굽이쳐 있고 南으로는 平康鐵原等이 指呼之間에 眺望되고 南北으로 줄그어진 國道들이 내려다 보인다. 巨大한 山脈을 穿한 樹木 稀疎한 山頂 아담한 溪谷 無邊한 平原 그 아름다운 모습이란 마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았다. 海拔 千五百米의 이 地帶는 어디가 目標인지 알 수가 없었다.

編隊長으로부터 攻擊準備命令이 내려와 編隊長機는 急降下突入을 하여 리와 山사이에 深谷으로 降下하여 내려간다. 나도 長機 뒤만 하직 따라를 었다. 長機는 急上昇을 하며 目標을 內側으로 보면서 旋回를 계속하며 戰果를 確證한다.

約五分이 지나자 東海 푸른물과 岩石이 一目에 들어온다. 저것이 朝鮮八景의 하나인 바로 外金剛이다. 이

◇ 出擊의 激戰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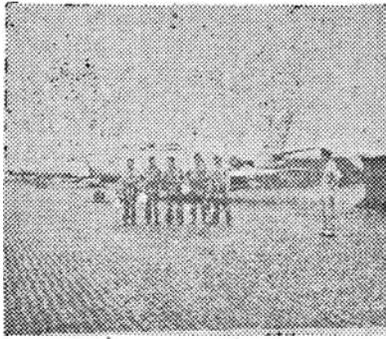


高地는 美軍과 中共軍이 對決하던 곳으로 낮과 밤을 따라서 주인이 몇십번이나 갈렸고 無數한 砲彈洗禮를 받은 곳으로 有名한 高地이다. 只今도 陵線에는 하얗게 벗겨버린 벌거숭이 그대로 있는 곳을 바라보고 海上에는 數많은 大小船들이 떠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東草를 지나 飛行場上空에 到着하였다.

初出擊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沈着하고 아무런 被害없이 歸還하였다는 事實에 對하여 나는 가망이 있고 있었다. 東海岸의 景致는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하다. 初出擊을 마친 우리를 爲하여 배부른 戰隊長任의 파리는 성대하였으며 우리는 여기서 自己生命을 걸고 싸우는 出擊에 對하여 自信과 더욱勇氣를 얻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歡迎의 祝盃를 올려 주었다.

初出擊을 마친 우리는繼續되는 出擊에相當히 바빴다. 저 有名한 내금강에 位置하는 長安寺가 攻擊目標이다. 그一帶에는 無數한 自動火器陣地가 있고 東部戰線에 敵의 補給集結地로서 有名한 天이기 때문에 오늘의 攻擊은 特殊爆彈 및 普通爆彈으로 攻擊하라는 命令을 받았다.

編隊長 진봉희 소령의에 三名은 普通爆彈을 달고 對地攻擊의 屈指의 猛將인 三番機 朴斗元中尉는 特殊爆彈(VT)을 달고 우렁찬 爆音소리와 함께 一番機 二番機... 繼續해서 三番機 四番機가 離陸하여 東쪽바다 上空에 陣대를 짓고 北쪽으로 向하였다. 氣象이 좋지 않아 指示된 高度를 維持 못하고 四、五〇〇피트로 날았다. 雲高는 約五、〇〇〇피트에 걸리고



愛飛와 나란이선 敵艦操縱士를

가량이 약간씩 내리는 惡天候이지만 出擊은 繼續되었다.

鏡浦臺와 注文津을 지나 東草上空 海上에 到達하였을 무렵이다. 바로 옆에서 飛行機가 없지면서 불덩어리가 번쩍 보이는 瞬間 特殊爆彈을 積載한 四九號機는 空中爆發을 하였다. 哀惜하게도 朴斗元中尉는 不歸의 客이 되고 말았다. 海上에는 數隻의 漁船이 떠 있는 것이 보인다. 落下傘이 퍼져자 漁船 數隻은 落下傘이 떨어지는 方向으로 船首가 돌리진다. 우리는 爆彈을 海上에 投下하고 操縱士 死를 確認하여 低空으로 내려갔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아 있지 않은 것이 確實하다. 내가 아는 朴中尉 生前의 性品은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人情이 많은 誠實한 靑年將校로서 恒常 明朗한 얼굴로 날선하게 날으면 모습이며, 집소한 人品에다多情하고 仁慈스러운 好男子 特히 泗川時節이나 江陵時節에 많은 將兵으로 부터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處女 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오던 朴中尉였다.

내가 蒙古 岫山부릉에 있을 當時한 蒙古人 親舊가 나에게 한 말이 記憶에 새롭다. 그것은 「人生은 끝이 없는 旅程이다. 自然에서 태어나서 自然을 헤매다가 다시 自然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짧은 人生의 航路이다. 生命이 아침이슬과도 같고, 저녁에 뜬 달과도 같은 存在이니 살아 生前에 뜻이 있고 싶게 살아야 된다」고 한 이야기가 그 當時는 허튼 소리랄라고 생각할 하였으나, 只今에 와서는 그 사람의 말이 至極히 當然하고도 名言이라고 느껴지며 그 녀석이 잉타리가 아니었다

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죽음과 삶의 差異한 正말 白紙한 장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침에 같이 出擊하면서 生天 웃는 健康하고 幸福하게 보이었던 朴中尉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러나 只今은 幽明이 다른 世界에서 幸福하고 明朗한 生活을 다시 營爲하겠지 이 世上에서는 나하고는 그다지 縁이 깊지 못하였던 親舊, 舊友들 한 마음 形言할 없었다.

故 朴斗元中尉는 조종사중에서도 가장 勇敢하고 대담하며 또 爆擊의 正確性에는 누구나 比할 바 없는 存在이었다. 朴斗元中尉의 記錄을 들춰봐도 상세히 記錄되어 있을 것으로 알지만 四二八五年六月一日 日目標 L T 六四四, 六四〇七 攻擊에서 敵의 彈藥集結所에 命中爆彈을 떨어뜨려서 二次爆發을 시켜 그 一帶를 불바다로 만든 韓國동란에서 일찌기 불수 없었던 戰果를 겨우는 事實이 美國防省에 알려져 美國防省으로부터 特別殊勳章을 받은 일도 있다. 나는 朴斗元中尉와 근 二十回를 같은 編隊 二番機로 出擊을 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八月三日

어느새 가을이 되었다. 朴斗元中尉가 戰死한 다음날인 오늘도 出擊은 繼續되었다. 目標가 內金剛 長安寺이다. 田鳳熙少領을 編隊長으로 하는 Abi. 陣대의 二番機이다. 海金剛 西南쪽 깊숙이 자리잡은 長安寺는 江原第一의 深山幽谷이라 할만큼 폭이 넓다. 長

安寺左右에는 大小 無數하고 雜大한 岩石이 急傾斜의 絕壁을 이루고 南北으로는 數百里를 굽이쳐 있는 길과 언덕선지 흘러내리는 물雄山과 山 사이에 벌설계 가을을 알려주는 各種 아름다운 樹木—— 하여튼 絶景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조종사 아니고는 맛볼 수 없는 壯觀, 새삼스럽게 形容할 수 없는 一種의 특쾌감을 意識하여 본다.

八月二十九日

平生에 잊지 못할 敵都平壤 폭격의 機會가 왔다.

八月二十九日 午前五時에 全員 起床命令이다. 戰隊長이 유달리 緊張한 Breifing을 마치고 作戰課長으로부터 오늘의 任務는 「平壤攻擊」이란 Breifing을 한다.

기쁨과 장쾌이 엄격 檢査를 수 없는 興奮상태였었다. 어느때나 赤都 爆擊의 命令이 내려나 무척 기다렸던 까닭이다. 身邊을 整理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僚機들의 犧牲이 數次나 平壤近方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첫 編隊群 操縱士는 裝具를 가지고 Line으로 나간다. 우리는 「잘 싸우시오」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그러나 平素 말이 많던 親舊들도 말 한마디 없었다. 그 묵묵한 表情이 때까지 操縱士 生活에서 처음 보는 光景이다. 離陸線에 나아가 最後 點檢을 마치고 出擊할 때 드기 始作하여 全機無事히 離陸을 마치고 우렁찬 爆音소리를 내면서 基地上空을 旋回한다. 西北쪽으로 機體가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이날 平壤攻擊에參加된 비행기대수는 一、二〇〇機 우리 一〇戰隊는三個編隊群이參加하게 되어 있다. 一個編隊群이 十二臺 나는 二編隊群 三編隊群 二回틀이 있다. 全員宿所로 돌아와 身邊을 再整理하고 있었다.

어느새 出擊時間이 다와와 裝具를 가져고 飛行機에 올랐다. 나는 三編隊 四번기다. 長機를 先頭로 飛行場을 中心으로 編隊를 지어 敵地로 向한다. 山과 들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며 山비탈에 옹기종기 모여사는 草家 집들 그리고 구도기도 침침이 쌓여있는 산과 골짜기다. 뿐이고 모여사는 마을에는 불타버린 흔적만 남기고 있는 집터에는 그대로 살쨍하고 흰옷을 입고 개미모양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黃土하나 없고 山만이 서있는 보잘것 없는 산골짜기에도 살아보겠다고 움직이는 모습이 불쌍히 여겨진다. 어느 사이에 華川上空에 到着하였다. 華川市街는 貯水池 西北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動亂때 불타고 다 깨어져 빈터만 남아 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쓰러져 있고 빈터에는 天幕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인다.

華川저수지는 지금까지 본것중에서 第一 큰規模를 가진 湖水이다. 山과 물이 서로 겨안고 自然과 人爲가 한데 어울린 仙景의 仙景이다. 湖水北쪽으로는 景 三千피트 높이의 山이 있어서 東北으로 편치고 南으로는 昭陽江支流에 합치는 原流가 흐르는 곳은 空中에서도 잠깐 보기에 너무나 가까운 곳이다. 또한 東北으로는 楊口와 며칠전 우리 海兵隊가 中共軍大

部隊를 한놈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다. 有名한 란치분 「盆地」가 보이며 險峻한 山岳과 溪谷으로 둘러싸이고 戰爭에서 名聲을 올리고 있는 有名한 山들이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다. 西쪽으로는 鮮于高地 크리스마스高地 M-1高地 斷腸의 陵線 金日成高地等等 頂上에서 나무 하나 없이 벌거숭이 되어 있는 나무 하나 없이 벌거숭이 陵線마다 彼我間의 치열한 激戰이 있었다는 것을 證明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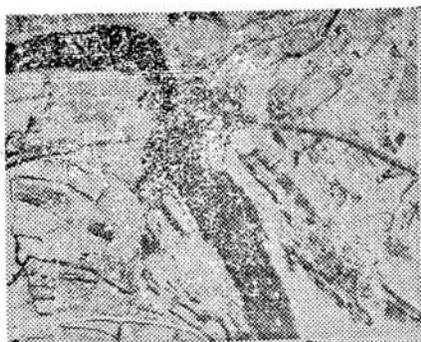
華川을 지나니 곧 鐵原平野가 보인다. 鐵原平野를 中心으로 北으로는 적이요 南으로는 我軍陣地가 있다. 저미줄처럼 新設된 我軍陣地에 道路에는 수없는 軍用車가 보인 언저리를 내면서 南으로 北으로 달리고 있다. 中東部戰線에서 가장 苦戰을 치루었다는 이름있는 高地들이 좌우로 내려다 보이며 길가에는 荒蕪한 들만인 데인적하나 없고 저 有名한 철의 三角地라고 부르는 激戰地帶를 바라볼 수가 있으나 金化上空에 오긴 왔지만 어디가 金化인지 알 수가 없고 다만 큰 것이 四方으로 나 있는 것이 보인다.

어느 사이에 沙里院과 黃州를 바라볼 수 있는 上空에 到達했다. 空中에는 各種型의 友軍飛行機가 제각기 待機地點에서 編隊를 지어 長機를 先頭로 T, O, T時間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마치 밤낮에 온 기분이 다. 우리 上下方으로는 不그었다. 美軍機 英國機 艦載機가 나르고 있다. 空中 중을 이라도 할까와 特別히 警戒을 하지 않으면 안될 程度이다. T, O, T時 三分前이다. 平壤을 向하고 알을 내려다 보니 첫 눈에 大同江이 띄고

兩岸의 新興地帶인 船橋里가 눈에 띄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어디가 우리의 目標인지 지나쳐 버릴만큼 몹시 파괴되어 있었다.

옛날 내가 보고 다니던 情은 市街와 山川이 지만 몹시 變하여 옛모습 라이곤 찾아볼 수 없었다. 空中에는 三層으로 구름이 덮여 있는데 이것은 구름이 아니고 高射砲가 터진 砲煙이 구름으로 변하여 버린 것이었다. 平

◇機上에서 본 爆破된 敵砲臺



壤市街地는 볼 수가 없을 程度로 爆炸를 받아 火煙으로 덮여 있었으나 우리 目標은 發見할 수 있었다. 그러나 前番機를 發見할 수가 없을 程度로 高射砲는 올라온다.

내가 詩人이나 文學家였었다면 더 平정하게 記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不幸이도 飛行機를 操縱하여 戰鬪場에 모르는 나로서는 더 이상 形言할 것이 없어 유감이다. 이 당시 實況은 直接參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서는 잘

理解가 아니라고 言語에 依한 表現方法으로서서는 도저히 表現키 어렵고 그저 平정하다 한다면 表現하는 수밖에 없다. 말할 수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황도 恐怖도 없었다.

단지 運命에 依存하는 것뿐이다. 그것도 어느 程度로 避하고 고를 쓰지만 무진장으로 올라오는 砲彈은 避할 道理가 없었다. 다만 無電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로 前番機가 異常했다는 것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나는 目標上空에 到達하여 急降下 突入을 敢行하였다. 우리 目標도 命中彈으로 因해서 瞬間에 불바다가 되었다. 他機는 兼二浦上空에 到達하여 各其 編隊長을 確認하는 다고 야단법석이다. 우리 操縱士는 美軍 砲臺에 비해 유난히도 無電을 많이 쓰는 便이다. 나는 특히 美軍이다. 三編隊長으로부터 四번기 Check인다. 異常없다고 報告와 兼해서 現在 位置로 報告하였다.

시어머니 연정에 개연구기 찬다는 格言과 같이 平壤에서 혼이난 나는 兼二浦上空에서 좌공기를 하게 되었다. 兼二浦工場地帶에 對하여 機銃掃射을 數回하는 동안 編隊群은 鐵原上空에 到達하여 十二번기를 찾고 있는데 나는 들고도 모르는 제 回信을 안했다. 워낙 거리가 멀어 제 있기 때문에 最大마력으로 編隊群의 뒤를 따랐다. 平素에 쓰아올리지 않던 地點에서도 혼자 날으는 나를 發見하여 四方에서 高射砲彈이 터진다. 東南等 方向에 十一臺의 五一형 飛行機가 보이므로 距離는 三、〇〇〇、四、〇〇〇피트 程度된다.

북괴 비행사들의

훈련과 생활

정낙현
△空軍大尉▽



북한 괴뢰 집단에서 자유대한에 온
지 벌써 二년이 지났다. 오늘까지 우
리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지내
온것에 대하여 정부와 친척 국민여러
분께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멸망하는 그
날까지 반공 전선에서 싸울것을 맹서
한만큼 나의 심력 배양과 군무 생활
에 보다 충실 함으로써 이에 보답하
려한다.

五. 一六 혁명으로 제반 시책의 결
과 중수 기일이 활발이 일어서고 있
고 퇴폐한 사대주의 사상과 국산품을
천대시하는 일부 국민들의 밝은 사상
관념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우리 민
족이 자립하여 남부럽지 않은 부강한
향토 건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을 볼 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나
二년간 북한에서의 생활을 회고하여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산술

적극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최
대한으로 존중하여 주는 원칙하에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共產治下에서는 전연 다른 것
이다. 북괴 공산당 三차 당대회에서
金日成이는 중공업과 우선적으로 발
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
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를 소위
당적 과업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이
것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현명한 생각
같다. 그러나 그 배후의 내막과 괴뢰
집단이 오랜 집권을 위해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 볼때
기막힌 이야기 가 아닐 수 없는 것
이다.

전쟁이 끝난 이후 최후과 강제징주
에 군수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면
서 金日成이는 말하기를 『전쟁은 끝
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다』라고 하면
서 최종적 통일을 위하여 제철공업과
군수 공업 등 병행하여 발전시키지 않
으면 안된다고 떠버리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또 말하기를 『공군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라면 방법과 수단을 가
리지 않을 것이며 공군력 강화에 필

急作히 나를 向하여 方向을 바꾸는
編隊群長機를 따라 全機方向을 轉換
하였다. 내러가면 氣合이나 받게 되
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모르는게 하
고 飛行을 繼續하였다. 編隊群長이
나의 옆에 바삭 붙어서 三三號機는 몇
번기인가 하기에 그때야 비로서 三編
隊 四番機라고 대답 하였다.

그 때 地形을 보니 新幕 東北方 伊
川과의 사이이다. 編隊群長이 編隊에
붙으라고 말한뿐아 무 다른 말이 없
다. 나는 제位置에 들어갔다. 이때의
너그러운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크게 感
銘을 주었다. 日常生活은 勿論 起居
와 個人身上까지도 恒常 念慮하여 주
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마음은 父母兄
弟 그 누구에게도 比할바가 아니다.

着陸을 했다. 戰隊長이하 全將兵
이 모이른다. 整備士는 整備를 한
다. 武裝士는 爆彈을 단다. 操縱士
는 宿所에 들어갈 時間의 餘裕가 없
었다.

이번 編隊群에는 같은 三三號에 編
隊群의 二番機였다. 編隊群長 吳春陸
少領任의 부리핀은 Line에서 簡單하
이 있었다. 攻擊方向, 離陸方向, 空中待
機地點 및 추락했을때의 구조節次등
마지막으로 戰隊長 및 編隊群長으로
부터 이번 攻擊이 오늘이 마지막이나
大韓民國의 名譽를 걸고 全機 命中彈
을 던지고 오라고 간단한 말씀이었다.
三〇分活에 다시 飛行機에 올랐다. 그
렇게 快活하고 浪漫的인 性格을 지닌
操縱士가 말한마디 없는 것을 보아서
도 알거나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戰鬥
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離陸後 全機
는 비행장 上空에서 完全히 編隊가 짜
여져서 華川 上空, 鐵原 上空, 伯川

上空을 지나 沙里院 上空에 도착하였
다. 이번 攻擊에 參加하는 臺數는 延
四〇〇臺이다. 우리 空軍이 時間的으
로 第一번저 攻擊할 차례이다. 平壤
을 向하여 定針을 하여 目標上空에 와
서도 高射砲는 올라오지 않아 大部分
의 對空火器가 파괴된 줄만 알고 있
었다. 攻擊 直前 一齊히 集中 射擊을
開始하여 周圍는 화염으로 前番
機 確認이 全然 不可能하고 目標侵入
도 大端히 困難한 程度로 초아올린다.
우리 目標物은 많은 命中彈이 떨어져
있고 平壤市街 到處에는 아지 煙氣가
나고 있다. 우리 目標 바로 옆에 海軍
의 (艦載機) 目標은 우리 만큼 命中을
못한 것이 보인다. 急降下 攻擊이 始
作되었다. 編隊群長은 確實히 攻擊을
끝마쳤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나는 地上에서 받은 briefing대로
左側으로 이탈을 하여 空中 待機地點
인 兼二浦 七〇〇〇피트에 도달하였
으나 編隊群長機를 確認할 수 없다. 나
는 계속 左側 旋回를 하면서 兼二浦工
場一帶에 對하여 繼續의 機銃掃射
를 하고 있었다. 나의 뒤에는 벌써 四
대가 붙어 나를 따라 攻擊을 한다. 다
음은 馬車를 發見하여 攻擊을 마치고
高度를 取하면서 나는 群長機가 나타
나기만 기다린다.

그러나 다른 飛行機들은 내가 編隊
群長機인줄 알고 아무말없이 내가 하
는대로 따라 行動한다. 나도 야단나
것이 나로 나대로 編隊에 붙어야 하
는데 뒤에 바삭 달라 붙은 飛行機를
내 재간으로는 도저히 떼어 버릴 수
가 없었다. 뒤에 붙은 飛行機를 떼어
버리기 위하여 急旋回를 하였다. 입
순력 중위가 編隊群長인 全部 왔습니다.

요하다면 자기의 바지라도 벗을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군의 주력인 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예기 반입에 바빴던 것이다. 북비 공군은 조종사 대량 양성을 위하여 一九五四年부터는 고등학교 三년생이거나 졸업자들 중에서 엄격한 선발 심사를 거쳐 조종사 후보생을 공군관판학교 비행과에 다수 입학시켰다. 이들은 비행과에 입학한 이후 약 一년반 아니면 二년간 이론교육을 간단히 마치고 비행 대대에 배치하여 약 一十八과정을 六개월 가량 받게 하였다. 그들은 비행술에 관계없이 사상 제일주의를 내걸고 비행 훈련을 끝마친 후에는 각종 작전과 정치 학습의 등을 조직한다. 이 부문에서 정적이 나쁘면 이유여하를 따르고 학생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간신이 붙어 남은 학생들은 AK

一 一 대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 비행 대대에서 약 一十八과정을 약간만 부하고 원프식 비행기로 할 수 있는 전투적응 훈련의 일종으로 기동편대와 공중 사적 훈련, 제기항법, 비행 등 초보적인 과정을 六개월간 마치고 미그 一五비스 전투기 대대로 넘어간다. 제트기 대대에 배속되면 본인 신원에 대하여 재화정을 받고 비행 훈련에 들어간다. 본대에서는 초보적인 이착륙 비행부터 시작하여 원대비행기 동원대비행, 공중사적 대지사적, 공중전투 항법 비행 등 초보적인 전투조종사로써 밑천을 다련해 준다. 이들 이 훈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졸업할 때는 상기 조종사 경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정이 도며 비행 시간은 二二〇—二三〇시간 밖에 안 된다. 북비 공군은 전

투조종사로써 一년 七〇시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원비 공군관판학교 교육 과정이 五년으로 되어 있으나 대량 양성을 위하여 二년반 三년 동안에 졸업시킨 예가 허다한 것이다. 일단 졸업을 하게 되면 예하 작전부사단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게 되는 바 기본적 인 훈련부터 시작한다. 이들이 훈련 과정을 보면 대부분 一년간은 전투 임무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훈련시키며 대대, 편대 정도를 끝낸다. 그 다음에부터는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진입한다. 주로 미지목표 탐색 공격 훈련, 해상 함정에 대한 공격, 레이다에 의한 공중전, 타비행장의 불의 습격 훈련, 폭격기에 대한 공격 훈련, 임호발는 비행기에 대한 공격, 쌍기나 중대 동시적 대지 공격 목적 등을 연마하게 된다. 이런 범위에서 훈련이 끝나면 三급 비행사의 자격을 가하게 된다. 일단 시험에 합격해야만 三급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三년째 접어들면서 복잡한 기상 조건 하에서의 주간 훈련이 시작된다. 수많은 제기 비행과 운중비행에 중점을 두고 운중항법, 운중편대, 운상에서 공중전, 운상 운하 면에서 공중전 연마와 레이다에 의한 훈련이 어느 때보다 심해진다. 또 운하 면에 있는 목표 탐색법 등을 연마하게 된다. 이것이 일단 끝나면 본격적인 야간 비행에 들어가게 된다. 상기와 같이 주간의 복잡한 기상 조건과 야간 비행에서 어떤 전투 임무라도 수행할 능력이나 편대행동을 마스터하고 완수할 능력을 가졌을 때 二급 비행사의 자격을 주게 된다. 一급 비행사가 될려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어떤 기상 조건을 막론하고 주저함이 없이 임무를 성

정철을 하여 물이 잠시다. 라고 한다 (한 달이 數일이 많지만 省略). 編隊는 沙里院을 지나 馬山里에 도달 하였다. 馬山里洞內는 彼我間의 치열한 戰鬪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렸지만 지난날 내가 월남 당시 하루를 지나면 끝까지 이기에 한번 바라 보았다. 거로에 오른 編隊는 全機異常였다. 空中에서 무전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戰果 이야기도 하고 한참 신들이 戰鬪에서 좋은 戰果를 얻은 飛다가 한 사람의 機性도 없이 全機는 無事하니 이 이상 더 痛快한 일은 없었다. 어떤 친구는 가거라 三八선을 부른다.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통쾌하고 感慨無量한 事實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투 조종사만이 맛볼 수 있는 일이다. 編隊를 짓고 歸路에 오르는 것이 마지막 선 장군처럼 偉大해 진것 같고 感慨無量하였다. 어느새 洗浦里 上空에 왔다. 洗浦里에서 東北으로 二防里까지는 空中에서 보아서 約 一〇里 되는 溪谷이 보인다. 물은 흐르고 길은 있는데 움직이는 動物이란 하나 볼 수 없다. 金化鐵原을 지나 王臺山의 險峻한 山岳과 溪谷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山과 山으로 둘러쌓인 山間僻村에도 人家가 근데 근데 보기도 한다. 사람은 등네보다 戰爭하는 高地와 險峻이 더 많은 이런 곳에 살아 보겠다고 애를 쓰지는 農民들의 초라한 모습을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어느새 東海의 푸른 물이, 一目에 들어오고 新作路가 五불 꼬불 보이는 大關嶺 上空에 到嶺

하여 着陸準備에 들어 갔다. 飛行場에는 많은 사람들이 歡迎 나와 있었다. 着陸하여 記念攝影을 마치고 제각기 命 中했다고 입문을 여는 것이었다. 生死의 境地를 彷徨하다 돌아온 우리들이 었지만 着陸直後의 心情이란 그 누구에게도 比할 바 없는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十一月十日

어느새 저울을 알려주는 서리가 내렸다. 泗川에 比하면 近한 날이나 일 저나라는 감이 든다. 大關嶺은 음력十一月末이면 눈이 내리고 쌓이는 눈은 陽曆四月이나 되어야 녹기 始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사 이 없이 계속되는 出擊에 재미를 붙이게 되어 하루 三회를 다녀 왔다. 오늘날서 七十八回の 出擊記錄을 세웠다. 오늘날은 저 中共軍들이 人海戰術로서 戰史上 稀有의 激戰地였었다는 狙擊線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東北方 x x 을 攻讎하였고, 다음은 東海岸에서 가장 熱戰地였던 陸軍第一軍團十五師團 正面에 位置하는 月飛山의 近接支援 攻擊이었다. 저 有名한 月飛山은 처음에는 우리가 掌握하고 있던 陣地였는데 人民軍의 最後의 發惡으로 每日 五·六千發의 砲彈을 퍼부어 우리 陣地를 먼저와 火煙속에 집어 넣고 마저 막에 수류탄으로 白兵戰까지 敢行하였다는 것이다. 月飛山은 敵側高地로서는 東海岸에서 가장 戰術적으로 重要하고 또 第一 높은 산으로 重要한 要塞이다.

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자에게 자 격을 주게 된다.

이와같은 급수를 얻기 위하여서는 첫째, 소정의 과정을 다치고, 전후련 과장을 통해 사고나 사고전제가 없는 과라야 한다. 둘째, 비행체통에 필요한 이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된다. 셋째, 1분간 무전 통신을 40조 이상 받아야 한다. 넷째, 기계부분 취급에서 정비사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즉 일일의 시간에 단독정비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상 그들이 훈련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실제 조종사들의 생활은 더 고되고 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 이라고는 거의 없는 것이다. 보통 부대에서 1주일에 훈련을 2~3회 조직 하는 바 조요일은 군관 학습회시간으로 4시간을 배당한다. 보통 하루훈련준비를 위해 2주일간의 시간을 허비하여야만 비행허가를 받는다. 하루 명운 출발전 시간이 6시간 정도도 된다. 일단 하루훈련이 끝나면 비행후 강령을 2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세로운과 연습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과제 연구보다 민청사업, 당사업에 참가 하여야 하며 1주 회의는 거의 매일 이다. 그의 개인이 맡은 선전 사업을 하여야 하며 그밖의 부대 부업정리를 위해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아니라 1주에 2회정도 의 예비작업과 1호 직임을 한번 정도 서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라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판이며 있다면 11시 이후에 잠 공간이 나기는 하나 군의판에게 들기

면 다음날 비행중지를 당하게 된다. 아마 매일같이 뛰우는 것이 그들의 습성과 되어 버린 것도 우연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라 군에게 야채등 부식 조달을 민간에서 조달치 못하게 되므로 부대 자체로 채소와 육류 등을 절할 방침을 세우고 채소가꾸기가 훈련하기보다 더 힘든 과업의 하나이다. 수량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 주변에서 퇴비를 구한다는 문제는 여간 힘든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장교 사병 할것없이 퇴비용처기 선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그곳에 쌍보 조까지 세우는 회귀이 한두번 벌어 지는게 아니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꾼을 양성하는 나고 정치부에 항의 하자 정치적 불순분자라는 누명을 써 위 조종사에서 제명하는 일처부 일대 장이란 자가 나인들이 이때저 참배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들은 당의 임의 당이 부를 때는 인제든지 동원될 준비가 완비되는 것은 물론, 당은 나 이들의 기술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자들은 인간을 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하기를 힘 을 원하고 기계와 같이 소리를 위해서 조종사들을 키운다. 이렇하면 무식한 자들이 짓는 소리이니 스쳐지내 보내 곤 하는 일도 많기는 하나 적양된 증 오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가정 생활은 어떤가. 조종사 들이 결혼을 할려면 정처부 사단장의 결제를 받아야 하며 여자의 자서전이 러서, 신원보증서 등과 해당 도당위원 장이 승낙을 얻어야 결혼을 하게 되

며 그나마 명조종사는 결혼할 권한 조 차 주지 않는다. 즉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결혼 자격을 얻을려면 중대장 이상의 직위를 받아야 하며 2급 비행사의 수준에 도달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그나마 결혼하게 되면 사택구역에서 집단적으로 살피 1주일 수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부대에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자유 마저 뺏기고 만다.

죽 아침 5시에 출근하고 저녁 10시에 집에 들어간다. 잠만자고 나오는 하 숙질이 말까? 하숙집에서는 삼시 식 사나 하는 재미가 있을터, 그러기 때 문에 조종사들의 집을 가리켜 어떤이 생산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참으 로 유치한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 가 아니다. 나는 우리 조종사들의 생활을 볼때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 하루 일과만 끝나면 무엇이 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그러한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것과 국가에 저축되지 않는 한 「행동」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행복, 그런 생활이 부한 조종사들에게도 오늘날이 있을런지 막연한 일 이다. 그들은 항상 불만 불평일 수 밖에 없으며 기회를 노리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도 자유를 찾기위해 제 트기를 타고 원남하며 미수에 5차 총살된 사람만 2명이며, 징역이 1명 원프식 비행기에서 제트기에 추적을 받아 강제 착륙한 것이 한건이나 된 다. 월남에 성공한 자와 미수에 5차 총살된 자로 10여명이 넘는 사람이 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조종사 들이 얼마인지는 모르다. 이것만 보더라도 능히 짐작하리라고 믿는다.

그런 가정 생활은 어떤가. 조종사 들이 결혼을 할려면 정처부 사단장의 결제를 받아야 하며 여자의 자서전이 러서, 신원보증서 등과 해당 도당위원 장이 승낙을 얻어야 결혼을 하게 되

一月十六日

머칠채 내리던 눈도 어느덧 덮고 구름한점 없는 快晴한 날씨는 하나 내衣를 뚫고 들어오는 찬 바람은 살 을 오리는 듯하다. 며일된 보이는 大關嶺에는 흰 눈으로 덮여 地表와의 差異를測定 수 없을 만큼 쌓여있고 땅과 山의 구별도 정확치 않다. 날씨는 대단히 좋다. 오늘 十四時에 張屋 太 大尉, 朴善坤中尉와 나는 百回出擊 記錄을 樹立하는 重要한 날이다. 擊 記錄을 먹고 作戰室에 모여 目標에 對한 부리평을 들었다. 目標은 三日浦와 新高山 中間에서 北쪽에 있는 道路遮斷이다.

우리집 드나듯한 敵地라 별로 이상한 感은 없지만 그래도 百回記錄을 樹立하는 날이고 보니 무언가 마음의 안정이 안간다.

三個月대는 제각기 離陸을 마치고 航海隊形으로 北쪽을 向하여 날아가는 僚機에는 민음직한 G.U.S.E 조종들이다. 目標에서 攻擊을 마치고 또다 쪽으로 나왔다. 橋梁이 파괴되고 道路가 數個處나 命中된 것을 確認하였다. 많은 市民들과 親知들이 우리를 祝賀하기 위하여 추운 날인데도 나와 있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였다.

一月十八日

情들 이 벌이라는 말과같이 저우 정이 들게되자 泗川으로 내려가게 되어 우리 3名은 後方勤務를 命令받았다. 泗川에 도착하니 全將兵이 환영 나와 있다.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하늘은 우리의 일터



박 회 규

△공군대학·총령△

이와같은 금일의 항공을 개척하기 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친 수 많은 선구자들의 피땀의 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四五〇년전에「이태리」의 유명한 예술가요 과학자인「레오나르도」다 빈치는 새 날개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날렸다고 합니다. 약 一六〇년 전인 一七八三年에 「프랑스」의 「몽골피아」형제가 기구(氣球)를 발명하여 세계 최초로 인류를 공중에 상승시켰으며 一九〇〇년에 독일의 「젠티」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비행선을 발명하여 제 一차 세계대전시에는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七〇년 전인 一八九〇년에 독일의 「리덴타르」라는 사람은 새 날개와 같은「클라이더」활공기를 만들어서 높은 언덕위에서 뛰어 내려 상승 기류를 타고 활공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때부터 금일의 항공기의 기술적인 기초가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인류가 새와 같이 하늘을 날

아름답고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한번 마음껏 날아 보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제가 공군에 입대하게 된 것도 바로 이것이 큰 동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오고저 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클라이더」의 활공 원리를 이용하여 지금으로부터 六〇년 전인 一九〇三年에 미국에서「라이트」형제가 세계 최초로 동력 항공기를 만들어 비행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라이트」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겨우 二六〇M의 거리와 五九초간의 비행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구미(歐美) 각국에서는 연구를 거듭하여 一九一四年 세계 제 一차대전이 발발하던 당시에는 시속 二〇〇Km, 거리 一,〇〇〇Km를 날을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군용기(軍用機)로서 전쟁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一차대전 四년간에 비행기는 눈부신 발달을 하여 그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一차대전후에 각국에서는 전쟁중에 많이 제작했던 군용기의 처리 방법으로서는 이를 개조하여 민용(民用) 수송기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차차 수송기관으로서 항공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제 一차대전후부터 제 二차대전 전에 이르기 까지 약 二〇년 동안 항공기는 더욱더 발달을 거듭하여 드디어 제 二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는 항공기는 결정적인 무기로서 등장하였고 항공력의 우월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二차대전 말(末)까지만 해도 가장 속도가 빠른 비행기가 겨우 七〇〇Km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마는 二차대전 후에 Jet Engine

이 항공기에 사용되고 부터 항공사상에 일대 혁명을 가져 왔읍니다.

一九四五年 九월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Jet항공기를 만들었으며 一九五〇년에 한국동란이 일어나자 미국공군은 처음으로 Jet전투기를 전쟁에 사용했읍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F-180 Jet전투기는 음속(音速)을 돌파하지 못했읍니다마는 그후 F-186「제이버」(Jet기)가 출현하면서 부터 드디어 음속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현재 최신 Jet전투기인 F-100은 음속을 훨씬 넘는 시속 1,000마일의 속도와 고도 50,000피트의 상승율과 1,000마일의 항속거리(航續距離)를 가지고 있으며 F-104는 음속의 약 2배가 되는 1,400마일의 시속과 91,000피트의 고도 1,000마일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년전만 해도「로켓」나 인공위성은 항공기라고 할 수 없었읍니다마는 지금은 사람이 타고 날으는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一九五七年十月에 세계 최초로 소련의「스푸트닉」호가 발사 되면서 부터 미 소 양국은 우주 개척의 선봉을 다투고 있습니다. 소련의「가가린」을 시초로 하여 미국의「제퍼드」,「그림슨」,「글렌」중령,「카펠타」소령 등, 우주여행에 성공한 二十세기의 영웅이 속속(續續) 나오고 있으며 얼마전 七月十七일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로버트」·「하이트」소령이 소형(小型)「로켓

트」실용용 비행기인 X-15를 타고 우주권(宇宙圈)내에 五八마일이나 깊숙히 진입(進入)하므로써 달개 달린 항공기를 조종하여 우주여행에 성공한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었읍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백배이 높은 달아』 하고 노래 하든 저달도 이제는 꿈나라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힘으로 정복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는 저 달나라로 여행할 꿈을 실현 시키고 저하고 있습니다. 금일의 항공은 우주를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하늘을 정복한 우리는 이제 우주를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항공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와같이 이야기 하고 보면 내 자신이 마치 우주항공을 개척하고 있는 선구자와 같이 빠기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우주항공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꾸고 하늘을 동경하는 시를 읊고 글을 지었습니다마는 하늘을 날아 보지는 못했읍니다. 지금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남이 만들어 준 비행기를 타보기는 했읍니다마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지는 못했읍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우리를 평하기를「우리 할아버지들은 남의 비행기를 타보기만 했지 제 손으로 만들어 보지는 못했다」하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와 같이 남이 하늘을 날고자 애쓰고 있을때 잠만 자고, 남이 하

늘을 날때 우리는 꿈만 꾸고, 남이 우주비행을 할때 우리는 구경만 하고 손뼉만 치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나라는 五·一六군사혁명(五·一六軍事革命)으로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과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부신 공업의 발달이 기대되고 있는 경제 5개년 계획과 보조(步調)를 맞추어서 우리의 항공도 뛰 높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범(汎)국민적 운동으로서 국민의 항공사상을 고양하고 항공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이 분야의 연구와 이나라 항공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도 우주를 날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 각국이 오늘의 눈부신 우주항공과학을 이룩하기 까지는 오면 세월에 걸친 노력과 수많은 선구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나라 국민의 항공사상과 항공에 관한 지식 수준이 높았고 항공에 대한 열렬한 개척 정신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선진 각국은 지금도 모형 항공기 및「글라이더」등 항공「스포츠」를 통하여 전(全)국민에게 항공사상과 지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항공과학의 선진국인 미국, 소련, 영국, 독일, 불란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전(全)국민이 항공「스포츠」를 대단히 즐기고 널리 장려되고 있으며 모형(模型)항공기 및「글라이더」경기는 국제적「스포츠」

종류로 되어 있으며 이번 동경 올림픽 대회 경기종류로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스포츠를 널리 장려하여 국제 무대에 진출하여 좋은 기록을 올리므로 국제위를 세계에 떨치고 나아가서 전(全)국민이 항공과학 발달과 우리의 항공 개척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는 공군의 비약적인 발달을 보아 최신 항공기로서 무장되어 북한 파괴의 침략 마수를 방위하고 있으나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모두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한 것이며 우리의 국력으로서는 아직 경비행기 한대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군사적으로 국방에 여하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론을 요하지 않으며 민간용으로도 일국(一國)의 경제를 부강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각국의 민간 항공회사는 저대한 자본과 인력(人力)으로 자국내(自國內)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국제민간항공에 진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작업용(作業用) 항공기로서 어군(魚群) 탐색에 협조하여 어업(漁業)을 발전시키고 농업용으로 종자(種子), 비료 구충제(驅虫劑), 살포(撒布) 등, 작업에 사용되어 농업을 진흥케 하며 해상감시 인명구조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국가 경제를 부강케 하고 있을 뿐만아

△ 대통령의 어머니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보웬은 이 세계적 영웅을 낳는 데 이음리는 원부였다. 트와노(트)로 갖을 때였다. 어머니인 메리는 평소와 같은 짐소한 옷차림으로 문앞을 타라까지 마중을 나와 반가워하며, 『조지, 정말 잘 왔다. 나는 너에게 주려고 지금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던 참이란다.』 하고 말하자 방가루 투성이의 손을 댄으며, 분주하게 다시 부엌 쪽으로 가버렸다. 워싱턴을 따라온 사람들은 이것이 대통령 자하의 모친인가 하고 놀랐으며, 그러나 장본인인 워싱턴은 더없이 기쁜듯이 일동들 돌아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려분, 나의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 주신답

나라 이와 같은 민간항공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군사적으로도 공군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항공은 아직 황무지와 같으며 우리의 공업력은 아직도 항공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 5개년 계획의 진전에 따라 발달하는 공업력의 뒷받침을 받아 항공공업의 발달을 기(期)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민간항공도 활발히 개척되어 선진 각국과 어깨를 겨누어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우리의 국가소득을 증진시키므로서 우리나라도 부강하여지고 우리 국민도 잘살게 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같은 공업력의 발달과 민간항공력의 힘을 뒷받침 하여 군사적으로도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자를 만드는 솜씨가 좋았지요. 자, 사양 말고 안에 들어가 같이 잡수어 주시요』 이윽고 일동이 자리에 앉았을 때, 워싱턴은 『모는 하인을 불러서 어머니는 그저 그것을 갈복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들자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나 대통령이나는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이 나를 위해 폐를 입어서는 하나님께 편육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인한 수입 중에서 돈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작정이다. 만약 끝내 내게 나에게 인하기를 그만두라 하겠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가 위는 언제나 도와주려고 했다. 나는 대통령 어머니가 일동은 이 말을 듣고 누누나 다 그 기쁨 높은 정신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등 각종 군용(軍用) 항공기로서 우리 공군을 무장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줄 수 있을 그날에 우리 민족의 수원인 통일성업도 쉽사리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나라는 약하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다』라고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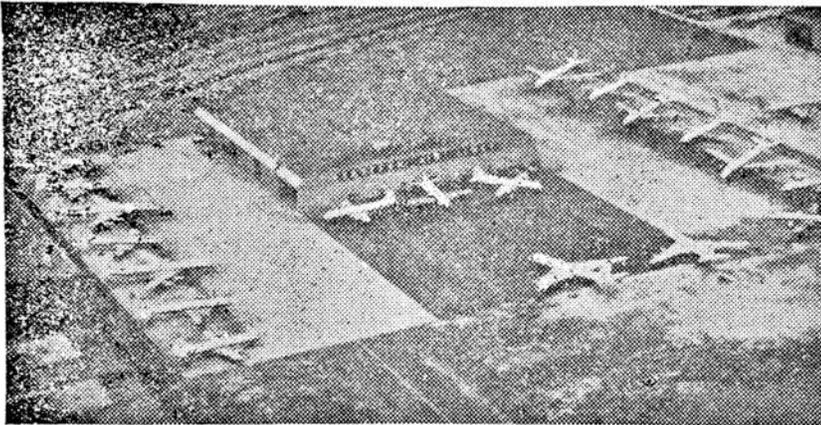
발 밑만 내리다 보지 말고 머리를 쳐들어져 넓고 푸른 하늘을 바라 봅시다. 우리의 땅덩어리는 작지마는 우리의 하늘은 광대(廣大)합니다. 넓고 무한대의 저 하늘은 주인(主人)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개척하는 자의 것입니다. 20세기의 하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저 하늘로 나아 갑시다. 무한대의 저 하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 끝 —

西歐의 防衛勢力

自由世界는 그 自身の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전연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聯은 虛勢를 부릴수 있고, 공갈 협박도 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大量攻擊力을 概觀해 본 다음의 글을 읽고나면 누구든지 두가지 事實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로, 敵은 核戰爭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西方은 힘에 근거를 두고 協商을 전개할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리이머스·다이제스트>에서—

봄 콘시던



우리들은 여하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를 견뎌와야 「후르시프」와 그의 전帝國을 매장시킬수 있다.

美國과 그 友邦이 갖추고 있는 核戰爭 준비에 관한 이와같은 지적인 報告의 발표를 주저할필요가 없다.

오늘날 西方側은 수시간안으로, 蘇聯의 全面戰爭 수행 能力을 파피시킬수 있는 것이다.

西方側이 갖고있는 武器를 실제로 살피기 위해서 筆者는 「켈리포니아」州에 있는 「반덴버그」空軍基地의 軍事施設과, 「네브라스카」州의 「오마하」에 있는 戰略空軍司令部本部, 「컨네티컷」州의 「그릿튼」에 있는 「폴라리스」潛水艦造船所, 그리고 英國空軍의 유도탄基地, 「이태리」의 유도탄戰術司令部, 佛蘭西의 「베르사이유」에 있는 歐洲聯合軍 최고사령부, NATO 防衛軍의 心臟部들을 두루 답사한 바 있다. 이 巨大한 集體的 힘을 筆舌로 이루어 表現할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르시프」의 虛勢와 위협도 이 體力으로 볼때 한갓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

英國만 하더라도, 「모스코바」나 그 보다 더 멀리 도달할수 있는 「쏘어」中距離彈道誘導彈의 尖端에 六十個의 水素彈을 갖고 있다.

「이태리」는 一旦有事時에 쓸수 있도록 單발의 준비가 갖추어진 「메가톤」級 폭탄을 三十個 이상이나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잘 훈련된 이태리인에 의해 주피터中距離誘導彈으로 發射될 것이다.

약 三十메가톤의 파괴력을 가진 六隻의 「폴라리스」潛水艦은, 海底를 누비면서, 北極에서 「페르시아」灣에 이르는 水中位置로부터 蘇聯의 모든 核心部分을 공격할 수 있다.

戰術原子武器로 장비되어 있으며, 또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장비될수 있는 NATO軍 약 三十個 師團은 「노르웨이」에서 土耳其에 이르는 강력한 防禦線을 형성하고 있다.

今月(七月)말까지 美國은 곳곳에 九十九個의 大陸間誘導彈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中 약 반은 防

禦된 음모에 물린 것이지만, 거의 전부가 敵의 攻擊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誘導 彈에는 일정한 地域에 도달할 수 있는 熱核彈頭 를 장비할 것이다.

地中海를 배회하면서 깊이 구석구석까지 精査 하고 있는 美第七艦隊는, 非常警報만 나면 순식 간에 航空母艦으로부터 飛出하는 超音速 航空機 에다 原子爆彈 機雷 및 로켓 彈을 積載하고 있 다.

끝으로 가장 마음 든든한 일로서, 우리들은 美 國의 戰略空軍司令部의 有人爆擊機를 갖고 있는 데, 이 爆擊機는 十五年前 冷戰이 시작될 때를 蘇聯의 領土膨脹을 沮止하는 主力으로서 활약 하여 왔다. 空中發射用 「스카이볼트」 彈誘導 彈의 一聯의 操作으로서, 단 一臺의 B-52는 目標 地點에서 一千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四個의 水素爆彈을 떨어뜨릴 수 있다.

美空軍은 六百三十臺의 B-52, 五十五臺의 超 音速 B-58, 그리고 百臺의 B-47을 保有하고 있다. 이 모든것은 警報가 發한지 十五分以內에 空中에 墜 수가 있는 것이다.

西方側은 또한 英國空軍의 強力한 有人爆擊機 와 번개처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NATO軍의 戰術機雷 戰術爆擊機를 갖고 있다.

NATO 地上軍은 가까운 장래에 오늘날 보다 二十五퍼센트나 強化될 것이며, 空軍力은 그보다 도 훨씬 더 增強될 것이다. 「타이탄」 二號 大陸間 誘導 彈은 貯藏用 燃料를 갖게 되어서, 十六層길 이의 음파소로부터 發射될 것이다.

技術的인 向上의 덕분에 그동안 誘導 彈製造 廠의 능력은 현저하게 향상되어 왔다. 原子潛水 艦 「에탄 알렌」 號는 최근의 처녀순항시에 水中에 서 아무 장해없이 改良된 六個의 「플라티스」 誘導 彈을 發射할 수 있다.

固體燃料를 使用하는 「미뉴트맨」 大陸間 彈道 誘 導 彈은 단추 하나를 늘들어서 發射臺로부터 飛 出하는 彈은 그의 能力을 과시하였다. 수많은 이 러한 新型誘導 彈이 곧 또 발사될 것이다.

最強의 武器

그러나 西方兵器廠의 最強의 武器는 西方人 그 自身이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十層이나 높 이 솟은 「타이탄」 유도탄과 씨름하고 있는 西方人 을 보았다. 나는 歐洲聯合軍最高司令部에서 十 五종류나 되는 다른 軍服을 입고 있는 西方人들을 보았으며 또 「링컨사이어」의 英國空軍 少將 誘導 彈基地에서 휘몰아치는 진논개비에 범벅이 되어 西方人을 보았다.

나는 「마드리드」 근처의 將校俱樂部에서 自動 防 衛 機를 둘러고 있는 飛行服차림의 西方人을 보았 다. 나는 「베로나」에서 傭사 「이베리」인 같은데 英語강습을 받고 있는 西方人을 보았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강한 힘을 손에 갖고, 가슴에는 情 熱이 넘치는 이러한 西方人은 어느 곳에서든지 있다. 그는 平和를 갈망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 게서 平和를 빼앗아간다면 筆舌로 이루어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大屠殺이 초래될 一大反擊의 手段과 用意가 그들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歐洲聯合軍最高司令部

(베르사이유)

오르페우스는 콘공(蘇聯을 말함 譯者註)으로 부 러 수천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美國이, 最近에 核 避難所에 관하여 論爭을 벌이고 있는 사실에 대 하여 史上最強의 軍事同盟體인 歐洲聯合軍司令部 는 驚愕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들(美國人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때문 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避難所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들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든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하기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되죠」라고 한 美軍大領은 나에 게 설명하였다.

北大西洋防衛軍은 북으로는 「오슬로」, 中央으 로는 「몬타네블로우」, 남으로는 「네키틀」(나포 리) 그리고 동쪽으로는 「말타」와 「테키에」 이르 기까지 陣을 치고 있다. 同防衛軍師團들은 二차 대전 당시의 全軍隊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火 力을 보유하고 있다. 同防衛軍의 M-108 M-109 및 M-110 機들은 十五分이내에 모두 出動할 수 있으며 超音速으로 鐵의 帳幕넘어로 全敵的인 메 가튼級 폭탄을 퍼 부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同防 衛軍의 第六艦隊는 그의 바다인 地中海로부터 巨 大한 砲門을 열 수가 있다.

十年前만 하더라도 西歐의 防衛는 二十個의 陸 軍 및 空軍基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은 二百個의 基地로 增加되었다. 同防衛軍은 또한 「놀웨이」에서 土耳其까지 五千二百마일의 送油管을 설치하였으며, 油槽船이 들어가서 送油 管에 給油할 수 있는 港口가 二十五個, 그리고 揚 油所가 二百五十個나 된다. 지난 十년 동안에 同 防衛軍의 電話回線數는 四十에서 一千六百으로, 그리고 電氣回線數는 二十五에서 一千五百으로 激增하였다. 이것은 一억五千만발짜리 電子頭腦 로 운영되고 있다.

歐洲聯合軍最高司令部의 美國人, 英國人, 벨기 어, 캐나다인, 덴마크인, 佛蘭西人, 獨逸人, 希 臘人, 아이스랜드인, 伊太利人, 露塞버크인, 노 르웨이인, 和蘭人, 포르투갈인, 土耳其人들은 十 個國語를 말하지만 사무적으로는 英語와 佛語 二 個國語를 使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든 산하 의 司令部도 一致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의 어떠한 十字軍도 NATO만큼 그 任務 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戰爭을 防止하며, 또한 NATO가 攻擊을 받았을 때 이를 防衛한다」

만일 同防衛軍이 敵의 侵略을 받는다면, 그가 保有하고 있는 武器와 兵力을 총동원해서 猛反擊 을 加할 준비태세는 완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물이 歐州防衛의 일부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조준되어 있다」라고 最高司令官인 「로리스」놀스타드(將軍은 나에게 말하였다.

歐州聯合軍最高司令部에 대한 말없는 信賴가 두터워 가고 있다.

「저자(蘇聯)들이 우리들의 防衛線을 따라 공격하자면 모든 補給을 衛星國을 통해 이동해야 하며 도로나 수송, 통신 기타 전쟁수행에 따르는 모든 것도 衛星國의 국민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파괴와 태만이 심각하게 일어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NATO로 단결되어 있어나 저자들은 「와르소」條約이라 불리우는 한창의 중이 조각으로 묶여있을 뿐이다」라고 한 高位關係者는 말하였다.

聯合軍防衛線은 西歐, 英國의 諸島, 폴라리스 및 核艦隊로 방위되고 있는 大西洋을 거쳐 北美洲의 中心部 깊숙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防衛線이 斷切되거나 目的意識의 必要에 따라 腐蝕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美國은 여기에 攻擊力이 있다. 그것은 英國과 歐州으로부리의 長距離攻擊이다. 이것은 戰爭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급격한 消滅을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브리핑」장교는 설명하였다. 이 장교는 「브리핑」을 넘기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들은 防衛와 攻擊에 관한 이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第三의 결정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어놓은 「페이지」를 지적하였다.

攻衛防衛力을 유지하며, 또 社會 NATO 社會의 防衛上的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하려는 NATO國民들의 個人的 集團的 意志와 決意. 이러한 決意는 歐州聯合軍最高司令部의 「警戒」自由의 代價이다」라고 「로리스」가운데 直接히 표현되어 있다.

英國의 「하이 위컴」

「당신이 西方側의 二大誘導彈軍中 그 하나에 대해 하던 지금이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기뻐할 것이다. 거의 당신보다도 수천마일이나 더 가까이 데세는 더욱 완비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敵과의 거리는 당신보다 수천마일이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第一次報復의 最大成果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英國의 航空當局者는 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다.

이것은 만일 核戰爭이 西歐를 휩쓸었을 경우, 英國이 직접 참여할 能力과 決意를 보여주는 印象의 始初였다.

「우리들을 완전히 격퇴시킨다는 것은 軍事上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航空當局者는 말들이었다. 「核戰爭이 발발해서 우리에게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 시간에 우리들은 全國에 散在해 있는 二十個의 「싸이트」로부터 〇數의 「쏘어」誘導彈을 待避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은 압도적으로 強합니다. 저자들도 이것을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심각하게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들의 有人爆擊機의 任務은 美國의 戰略空軍司令部의 그것과는 相異합니다. 要는 地理上의 문제이죠. 우리의 爆擊機들은 美國의 基準에서 볼 때 모두 中型이지만, 재빨리 離陸해서 急角度로上昇할 수 있도록 考察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보다도 더 빠른 시간내에 空中에 떠야 하며 재빨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저자들의 空中防衛는 우리에게 너무 접근 확장되었기 때문에 인접합니다. 우리들은秒를 다룹니다. 우리들에게 허용된 四分의내에 各種核武器를 積載한 全戰略爆擊機를 動員할 수가 있습니다.」

重武裝된 어느 地下室에 갇히니 거기에서는 다른 장교가 歐羅巴地圖을 가리키면서 「第一次 攻擊의 妙案이」 「쏘어」유도탄입니다. 二

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발전을 본이 조직은 이곳에 있는 우리 友邦軍을 크게 感銘시켰습니다.」 그는 소련을 칭하면서 말하였다. 「우리들의 基地로부터 離陸한지 十六分이내에 「쏘어」는 核戰爭의 勝負를 잘 가려낼 것입니다.」

英空軍 쏘어基地

(링컨셔셔어)

이 基地와 「이스트 앵글리아」에 있는 이와 비슷한 十九個의 基地에는 英國人이 建造하고 그들이 들어있는 建物에 各各 三個의 「쏘어」中距離誘導彈이 세워져 있거나 누어있다. 이 믿음직한 총六十個의 誘導彈은 모두 「메가톤」級의 熱核彈頭를 가지고 있는바, 이것들은 基地에 附近된 小數의 美空軍에 의해서 支援, 維持되고 있는 것이다. 各「쏘어」誘導彈에는 誘導裝置가 되어 있어서, 소련의 北部에 있는 「무르만스크」나 精油所로 유명한 南部의 「바쿠」에 까지 멀리 目標物을 찾아 날아 갈 수가 있다.

英空軍의 한 고급장교는 雨中을 무뎠고 우리들을, 「簡」스필화이어」 및 「허리케인」基地를 거쳐 十六名의 男子와 두마리의 獨일」세파드가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그가 부드럽게 「쉬어」하고 말하자 그들은 긴장을 풀었다. 개들은 앉았으나 그들의 눈은 연상 우리들이 상한 손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團司令部는 「미사일」時代에 맞는 묘한 用語와 등급별로 一同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칭호와 책임을 지닌 사람들은 呼名될 때 마다 차렷 자세를 하였다. 「發射管制將校!」

英空軍의 한 操縱士中尉가 차렷하였다. 그의 목에는 한개의 고리와 세개의 열쇠가 달린 끈이 가느다란 쇠줄이 걸려 있었다.

「確認將校!」 한 美軍少尉가 몸을 세웠다. 그도 역시 고리와

열의가 달린 바숫한 쇠줄을 걸고 있었다.

그러자 三名の 「誘導彈(施設準備人)」, 三名の 「動力生産人」, 四名의 憲兵, 二名の 「軍犬管理人」(軍犬과 사람들은 이基地를 徹夜 巡察한다) 그리고 一名的 料理士가 왔다.

우리들은 作戰指揮所의 中心部에 안내되었다.

그 内部의 대부분은 요란한 光線과 단추, 스위치 마터등으로 가득 채워진 채로 마치 밤같은 것이었다. 同電話線은 北쪽, 南쪽으로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그리고 太平洋을 건너 美國으로 들어가는 「오마하」에 있는 地下戰略空軍司令部에까지 뻗어 있다. 「戰爭勃發」의 信號는 실로 이 예쁜 器具電話器(譯者註)를 통해서 傳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작은 房에는 美空軍將校인 「루터 M. 호킨즈」가 있었는데 약속할 때, 當直確認將校임을 나타내는데 그의 열의가 맹그렁거리며 부딪혔다.

우리들은 假想報復攻擊이 전개되고 할 때 「콘소울」로 자리를 옮겼다. 「호킨즈」大尉의 英空軍 相對方은 이미 풍금처럼 생긴 管制기구에 一列로 떨어져 돌린 열쇠구멍에다 세계의 열쇠를 넣었다.

이제 일은 벌어지는 것이다. 強風과 찬비가 휘몰아 치는 밖에서는 큰 倉庫만한 크기의 格納庫가 鐵路用 바퀴를 굴리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三個의 「쏘어」彈을 벨어 내 놓았다. 그러자 巨大하고 긴 鋼鐵손들이 이 誘導彈들을 조심스레 垂直으로 세워 놓았다. 그것들은 최고 말쑥하고 그리고 六層建物만큼 높아서 있었다. 그러자 반침대가 기울어 쓸어지고 「쏘어」彈만 發射臺에 당그러나 남아있게 되었다. 이 모든것은 假想戰爭 信號가 울린지 十五分 이내엔 진행된 것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당신네들(美國을 말함) 譯者註들이 點火를 해야 합니다」라고 同 將校는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 「호킨즈」大尉가 열쇠를 들고 「콘소

울」二號에 갔다. 英國側 열쇠구멍 위에 나타난 돌린 열쇠구멍에다 열쇠를 넣어서, 「쏘어」彈에 장치된 十五萬二千「파운드」推進力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뿐인 것이었다. 그의 열쇠는 英國의 구멍에는 맞지 않으며, 英國의 열쇠는 美國의 것에 맞지 않는다. 한나라만으로는 이基地에서 戰爭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니 誘導彈의 發射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美國의 열쇠는 無用之物이요, 또 美國인이 點火를 하지 않으면 英國人の 發射준비는 無意味한 것이기 때문이다. 「호킨즈」大尉는 그의 열쇠를 다시 軍服주머니에 넣어 넣었다. 練習은 끝난 것이다.

南歐特別混成軍 本部

(伊太利 「베로나」)

西方側 核防禦에 대한 伊太利의 至대한 寄與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伊太利政府는 자기들의 核保有力 및 美陸空軍과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公表하지 않는 것이 最上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伊太利 共產黨員은 一百七十萬으로 西歐에서 제일 많으며 戰爭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怠業의 위험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도는 記述할 수 있을 것이다. 伊太利는 현재 熱核彈頭로 장비된 三個의 精銳「슈피더」中距離 彈道 誘導彈大隊을 保有하고 있다. 三十個의 이 誘導彈은 射程거리 一千七百二十마일로서 「나폴리」南方의 곳곳에 잘 보호되어 있다. 이나라는, 또한 流線型이며 맹렬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空軍을 갖고 있다. 伊太利陸軍은, 美陸軍이 「어네스트 존」 로켓」로 제일 먼저 訓練시킨 外國軍中の 하나이다.

美國과 伊太利를 「슈피더」誘導彈 作戰으로 연결시키는 協約은 英國에 있어서의 英美「쏘어」誘導彈의 그것과 비슷하다. 美空軍將校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派遣隊가 伊太利의 誘導彈基地마다 주둔하고 있다. 美空軍의 確認將校들은, 戰爭이 일

어날 경우 「슈피더」유도탄을 目標을 향해 발사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伊太利 將兵들은 「슈피더」유도탄發射준비를 가동케 하는 열쇠를 갖고 있다. 美軍의 제 一군 유도탄 權威者의 一人인 「유진 F. 카드렌」少將이 이 특별한 南歐特別混成軍을 指揮하고 있다. 이 混成軍은 六年前, 美軍이 「오스트리아」로 부터 철수한 뒤에 창설되었다. 이 「카드렌」少將의 本部에는 十二名の 伊太利 將校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十一名은 二次大戰時엔 協군과 대항하여 싸운 경력이 있다.

「어느곳의 軍隊치고 이 곳만큼 友好的인네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카드렌」將軍은 말하였다.

南歐特別混成軍(SETAF)은 共產主義侵略에 대항해서 共同鬪爭을 벌이고 있는 自由世界의 協助에 대한 도하나의 좋은 例가 되고 있다. 이 混成軍의 軍人間에는 한때 서로 戰鬪場에서 싸운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戰友로서의 그들은 그들을 노예화 하려는 敵과 싸울 때에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다.

廣大하고 防禦하기 힘든 索聯防內에는 사실상 聯合軍의 核 공격력으로 명확히 照準爆擊될 수 없는, 第一 혹은 第二의 目標은 없다. 全面戰爭이 勃發하면, 우리들의 대부분이 거의 理解할 수 없는 主攻 目標에 적이 밝혀진 것이다. 各核武器는 사실상 하나의 특별한 任務가 지정되어 있다. 그것은 「八十一」마일을 飛翔한 뒤 外氣圈에서 急射하는 巨大한 熱核彈頭로부터 砲射手が 내오는 短거리 原子砲彈에 이르는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混亂이나 당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最少限의 努力으로 最大의 成果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敵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核武器를 손안에 쥐고만 있는 것이다.

(김기태 譯)

中共軍의 派爭과 矛盾

紅軍—八路軍—人民解放軍으로 成長한 脆弱性

中共軍이라고 하면 人海戰術과 괴라소리를 聯想하게 된다. 이러한 舊時代의 侵略軍을 完全打倒하지 못한 지난 六·二五를 想起하면 새로운 憤激의 主역이 쥐어지기도 한다. 이 中共軍이 最近에 와서는 어떻게 變貌되고 있는가를 그들이 對外的으로(黨外部) 發表한 資料를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中

國人民解放軍 總政治部는 昨年度(十月에서十一月까지)에 있어 北京에서 全軍政治工作會議를 가진 바 있었다. 會議에는 毛澤東을 爲始한 劉·周·朱의 四公子가 參席였으며 그 밖에 各軍區·方面軍의 政治部主任 同委員 一部 師團의 政治主任이 參集되었고 林彪國防部長 羅瑞卿總參謀長, 蕭華總政治部員等 現役軍首腦가 主宰하여 指示·報告等 發言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 모임에서 가장 力說된 것은 林彪發言의 「連(中)隊建設과 改進方法을 強化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發表되지 않았고 다만 蕭華의 「四好連(中)隊創設에 對하여」라는 것이 人民日報에 掲載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軍事訓練보다는 全軍의 政治思想教育에 있어 最下單位인 中隊에 中心을 두고 四好中隊創設을 提唱한 것을 엿볼 수 있다.

中共發表에 依하면 「四好」란 ① 政治思想이 좋고 ② 三八作風이 좋고, ③ 軍事訓練이 좋고, ④ 生活管理가 좋은 것을 말하는데 그중 「三八」이란 말은 三大紀律과 八項의 注意事項을 意味하며 三大紀律은, ① 모든 行動은 指揮命令에 따른다. ② 바느질한 個體한 物品도 民衆에서 奪取아닌한다. ③ 戰利品은 一切上司에게 바쳐 公有로 한다. 로 되어 있고, 八個注意事項은, ① 言語는 부드럽게, ② 買賣은 公正히, ③ 借物은 平 返還하고, ④ 破壞物은 辨償하고, ⑤ 사람을 때리지 말고, ⑥ 農作物에 손대지 말고, ⑦ 婦人에게 戲弄하고, ⑧ 捕虜를 虐待하지 말라는 것인데 中共軍이 過去 얼마만큼 非人道的인 野蠻的 行動을 主로 하였는가를 單의으로 말해주는 三 八이란 語句이다.

太平洋地域の空軍力

T·S 무어 단

△美太平洋空軍 副司令官 V



全共産陣營 空軍力의 삼
 분지일이 東 大陸을 基對
 地로 極東 및 東南亞에
 한 侵略의 機會를 伺시
 탐 노리고 있다. 이에 對
 敵하고 있는 太平洋地域 自由陣營 諸國의 空軍力
 은 果然 어뎠는가? 여기 美空軍 月刊 Airman
 誌 7月號에 실린 美太平洋 空軍 副司令官 T.S.
 무어 단中將의 演說을 옮겨 보기로 한다. (민철웅譯).

九月二日 空軍本部
 長 張總長을 禮訪한
 「무」中將

(東)

南亞에 對한 共産主義者들의 侵略은
 世界의 耳目을 極東으로 集中시켰
 다. 第二次 世界大戰이 끝난후 最
 近 十年間 共産主義者들은 中國大陸, 北韓, 티
 베트 및 北베트남을 共産化 했으며 自由陣營에
 서는 베트남의 分割을 계기로 東南亞 條約機構
 를 結成했다.

昔은 大陸의 주위로, 泰國, 라오스, 캄보디
 아, 越南等 인도차나 半島諸國은 이른바 「亞
 細亞의 第三戰線」을 이루고 있으며 韓國과 自
 由中國은 淸통같이 방위되는 休戰線과 대안해

협을 사이에 두고 共産主義者들과 對敵하고 있
 다.

太平洋地域에서 自由陣營 各國의 空軍들은 全
 共産陣營 空軍力의 三分之一에 해당하는 共産軍
 의 空軍力과 對敵하고 있다. 蘇聯, 中共 및 北
 韓의 共産陣營 空軍力은 지구상에서 가장 廣大
 한 大陸을 基地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東
 南亞, 極東, 美國 等 地까지 불과 몇 時間이 經
 도달되는 地點에 基地를 갖는 他 共産國家 空軍
 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自由陣營의 自由와 獨立에 對한 끊임없는 위
 험에 대치하여 H·D·필드 제독이 지휘하는 太
 平洋地區司令부는 全自由世界의 權益을 침해하
 는 어떠한 침략도 처부실 수 있는 單반의 태
 세를 갖추고 있다.

太平洋地區司令部 예하에는 陸軍, 海軍, 海兵
 隊와 함께 太平洋空軍이 있다. 太平洋空軍은
 太平洋地域에서 共産主義者들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부실 수
 있을 것이다.

이토록 廣範圍한 太平洋空軍을 指揮하는 E.
 오도널 대將은 第二次大戰과 韓國戰爭을 通해 戰
 術을 연마한 歴戰의 장군인 것이다. 太平洋地域
 自由陣營 空軍力의 핵심을 指揮하고 있는 것이
 다. 太平洋空軍의 一線部隊들은 亞細亞의 여러
 前哨基地에 주둔하고 自由陣營 各國의 空軍과

最近 香港에 밀려드는 難民들은 三年來의 凶作으
 로 飢餓線上을 헤매이게 된 것도 重要한 原因이겠
 지만 이들 軍人들의 惡意에 對한 對民抑壓에 못견디
 어 脫出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므로 軍首腦의 口號에도 不拘하고 軍隊의 非
 行은 날로 늘어가고 六·二五以後 軍近代化 工作 過
 程에서 生인 黨의 軍支配에 對한 懷疑思想과 軍事
 訓練 때문에 本質的인 障害가 되는 生産·建設支援
 運動에 對한 反對意識의 激化로 軍內部는 矛盾이 이
 만저만이 아닌것을 偽裝하기 爲하여 整軍이란 이름
 아래 林彪는 長文의 論文을 發表하고 彭德懷를 去
 勢시켜 놓고 本格的 活動을 始作한 것은 一九五六年
 九月以後인데 그 主要骨子는 軍隊近代化의 過程에
 있어 가장 重大한 것은 ① 政治·思想工作의 地位
 ② 軍의 將兵이 經濟建設과 大衆運動에 어떻게 對
 處한 것인가 ③ 軍隊內部的 關係黨의 軍에 對한 指
 導強化를 들고 있으며,

또 軍內부에 「푸로메타리아트」와 「불조아」思想의
 鬭爭이 存在해 있으며 舊社會制度의 改造가 未完成
 으로 있으니 「불조아」思想을 滅亡시키는데는 恒時
 軍隊가 重要한 役割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強力한 政策에도 不拘하고 中共의 內部는
 恒時粉糾가 連달아 일어나고 民衆의 反共思想은 날
 로 激化하여 武裝軍의 抗拒는 到處에서 蹶起되고 있
 는 것이다.

여기에 對備해서 中共首腦들은 昨年 一年間에 以
 어서의 動向을 보면,

첫째, 全軍的으로 「儆苦思甜」教育이란 것을 強制
 注入시키고 있는데 儆苦는 舊社會의 封建性의 壓迫
 을 想起시키는 것이며 思甜은 革命後 新生活은 幸福
 하다고 하는 뜻이나, 이러한 말만으로 教育이 되거
 않을 것은 現實生活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中隊管理教育 工作條例을 公布하여 幹部와
 士兵의 融和 隊內生活의 管理 等을 들이고 있으나
 「基點運動」이라고 해서 高級將校가 中隊指導에 있
 어서 形式的인 巡視 訓示로는 到底히 軍隊의 紀律
 을 바로잡지 못하니 一定期間 中隊에 駐在하면서 指
 導해야 될 만큼 惡의 癩疾이 甚한 것이 事實이다.

진밀한 유대를 맺고 있으며 亞細亞의 同盟國들과의 相互防衛 同盟을 축음으로써 지권 決意를 굳게 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戰術機、爆擊機、미사일은 韓國、日本、비올빈、自由中國、泰國、호주 등 自由陣營 各國空軍들과 함께 진밀한 協同態勢를 갖추고 있다.

太平洋空軍의 代表的인 空軍基地는 오키나와인 것이다. 오키나와에는 가미나와 나하의 두 개의 空軍基地가 있으며 이것은 지구표면의 四할을 방위하는 二十個 太平洋空軍基地의 典形인 것이다. 中共의 上海에서 四四〇마일 떨어진 것은 오키나와 基地에는 F-1〇〇 및 其他의 戰術部隊들이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키나와의 F-1〇〇戰術機는 전투태세의 강화를 위하여 今年內에 F-1〇五로 代替될 것이다. 새로운 戰術機 F-1〇五는 超音速으로 비행하고 在來式과 核武器를 모두 장비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日本、비올빈 및 오키나와 基地의 太平洋空軍은 命令이 發하여지면 몇 時間內에 太平洋地域의 어느 紛爭地點에라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太平洋空軍은 一九五八年에 있었던 대만해협의 위기를 통해서 그 신속성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오키나와 基地의 出發命令을 받은 후 불과 일곱시간도 못되어 이미 대만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동공군을 포함하는 太平洋空軍의 강력한 戰術部隊들은 종전보다 더욱 신속하게 作戰할 수 있다. 日本基地의 F-1〇〇도 代替될 예정이다. F-1〇五 戰術機는 F-1〇〇에 비해 항속 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른뿐 아니라 무장도 원동 강력한 것이다.

太平洋空軍이 계속하여 保有하는 F-1〇〇은 현재 使用되고 있는 空中給油機 KB-1五〇 외에도 「僚機에 의한 空中給油로서 공격을 위한 항속거리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길어지

고 있다. 僚機에 의한 空中給油를 위하여 戰術機를 給油機로 改造한 것이다. 이 동공군에는 저전용의 F-1〇一과 B-1五七爆擊機 및 장거리 無人兵器인 地對地의 미스 B 미사일 등이 있다.

兵力과 장비는 강력한 전력의 요체인 것이므로 신속성 및 기동성은 전대로 요청되는 것이며 太平洋空軍에는 이에 필요한 機構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太平洋空軍에 하에는 C-1三〇機로서 장비한 三一五비행사단이 있으며 同師團의 作戰部隊는 오키나와 및 日本에 基地를 두고 있다. 三一五비행사단의 기동성은 太平洋地域의 어느 地點에서라도 自由에 對한 위협이 있을 경우 몇 時間內에 이에 對處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특히 同師團에서 保有하는 C-1三〇은 상승율이 높고 離陸時의 소음거리가 짧으므로 太平洋地域에서 作戰하기에 알맞는 것이다. 施設이 빈약한 일부 東南亞地域의 基地는 이러한 항공기의 使用를 요구하는 것이다.

太平洋空軍은 攻擊力만을 유지한 뿐 아니라 방공인부도 담당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太平洋地域의 防空網은 國家單位의 獨自的組織 運用을 한다면 그 효능을 충분히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事實上 極東의 防空組織은 自由陣營諸國의 共同努力인 것이다. 協同하는 國際 警報網은 自動報告 및 示現機構에 의하여 지원되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종합되어 능률적인 항공기 및 무기의 운용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방위를 위한 협동의 좋은 예로서는 全日本에 걸쳐 美日空軍이 운용하는 잠시 및 요격조직이 있다. 이러한 努力을 통해서 美日兩國의 空軍將兵은 日本領空의 방위를 위하여 어깨를 나란히 근무하는 것이다.

日本의 가장 높은 사도시마의 레이다 基地로부터 중간관제소, 그리고 일선요격부대에 이르기까지 美日空軍의 관제사, 지휘관 및 전투기

이 외에도 「五多現象」의 減少等 各方面으로 四好中隊의 建設에 힘썼지만 軍隊內의 思想動向은 언제나 不安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機會있는 대로 整軍을 예치고, 毛澤東의 著作物로 士兵들을 教育시키려 했지만 現實情勢는 동떨어진 空(共產主義)이고 보니 이것은 口頭禪에 지나지 못하여 드디어 全軍政治工作會議란 名目으로 決議된 것이 中隊工作四條例이다.

即 中隊政治指導員工作條例,
同 黨支部工作條例,
同 共產主義青年團支部工作條例,
同 革命軍人委員會工作條例,
同 四條例로서 中隊政治指導員이 中隊指揮官(中隊長)에 屬해 있던 것을 이 條例로서 併立存在로 만들어 政治力의 強化에만 熱中하였던 黨支部委員은 中隊의 重大問題를 決定하되 熱中하였던 共產黨青年團支部는 黨支部의 助手로서 團員 또는 一兵의 教育을 擔當하게 하고 革命軍人委員會는 黨支部·中隊長·政治指導員의 三者의 集中領導下에 두어 活動의 組織化를 꾀했지만 中隊의 思想工作強化는 이들의 支配體系를 비웃는 듯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事實은 中共의 人民日報가 가장 잘 發表하고 있다. 그 社說에(今年 二月三日) 「眞情으로 工作方法(政治思想)을 研究 또는 改進하라」는 것이다.

黨의 指導力을 強化할 수록 그것이 軍隊內에서는 그대로 實効를 거두지 못하는 데 唐突하고 있는 首腦側은 그것이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理由가 共產主義 그 自體의 虛構性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黨委가 軍을 統一指導하기 爲한 가진 工作도 中共의 弱點인 當面한 農業問題의 失政과 더불어 이미 共產主義에 지친 民衆들이 中共政治를 不信하는 데서 오는 錯雜한 問題의 解決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에서 더 深刻하다.

共產政權으로서 軍의 思想動向에 不安을 가져고 있다는 것은 中共의 드나기 軍隊로서는 어찌할 수

조종사들은 協同을 통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며 共同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서도 實情은 같은 것이다. 韓美空軍은 共同같은 방공태세를 갖추고 있다. 韓美兩國軍이 保有하는 地對空미사일, 로켓트와 미사일을 장비하는 音速 및 超音速의 제트유격기, 對空砲 등은 만일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런 모든兵器가 종합적으로 사용되고 韓美兩國의 空軍將兵은 不斷한 전투를 통하여 最後의 勝利를 차지할 것이다.

비올빈의 녹색명원에서는 정다운 두마리의 새처럼 나란히 하늘로 솟구치는 두 종류의 제트 전투기가 있다.

이들 제트기가 바로 비올빈 空軍의 F-1A6 전투기와 美空軍의 F-102 戰術機들인 것이다. 두나라의 空軍機들은 기습에 대비하여 地上의 무수한 레이다기지와 및 클라크 공군기지의 관제소에서 美比空軍將兵들이 비올빈 區域의 空中活動을 監視하여 監視하고 있는 것이다. 「西部美國의 방위는 極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오도넬將軍의 말이다.

太平洋을 횡단하여 美本土를 공격코자 하는 적기는 韓國, 일본, 비올빈 및 오키나와의 방공망을 돌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들 地域을 없애는 것이다. 軍隊內의 政治部制度는 所謂 二元統帥制로서 指揮官과 對立하는 政治委員은 指揮官의 上位에 있을 程度이다.

黨政權維持를 위해서는 軍隊가 支柱이니 純軍事的으로는 不利하지만 이러한 併立制度를 써서 重要命令은 兩者의 連署가 있어야 發効케 되는 것으로 軍隊內에서는 自然이 制度에 反撥하는 思想이 不絶히 軍人들 사이에 存在하고 있다.

이 不滿에 찬 軍人들을 中共은 어찌하지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쓰고 있고 있는데 그 根本原因

을 파악하기 전에 經濟적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며 이들 일선방공망을 돌파한 적기는 하와이방공군(HANG)에 포착될 것이다.

하와이는 美國방위에 중요한 뿐 아니라, 太平洋방위상의 요체인 것이다. 진주만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경제태세를 갖추고 있는 하와이방공군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部隊인 것이다.

오늘날 하와이방공군의 F-102로 장비된 제199 전투유격대대와 두개의 항공기 관제정보대대는 美本土의 방위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뿐 아니라 하와이와 本土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서 필요할 경우에는 空中戰도 展開할 것이다. 防空任務를 통해서 하와이방공군은 하와이 방공사단의 방공관제소와 긴밀한 협동을 유지한다.

戰術或은 防衛의 어느 것을 莫論하고 太平洋空軍의 戰力은 太平洋地域에서 發生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처함에 있어서 절대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太平洋空軍은 어떠한 침략이라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강력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空軍將兵의 任務는 自由世界의 安全을 위협하는 共產主義 侵略에 對備하여 戰力을 強化하고 분담하여야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카이들이 가자면 中共軍이란 實態에 있어서 하나의 正規軍이 아니고 烏合之卒이기 때문이다. 中共은 建軍以後 名色으로는 三十餘년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뿌리를 캐어보면 中共軍은 紅軍에서 八路軍 그리고 人民解放軍으로 漸次 近代의 軍隊비슷이 되긴 했지만 本質的으로는 依然 黨軍의 性格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 그것의 脆弱性은 말할 것도 없다. 紅軍으로 또는 八路軍으로서 戰爭經驗이란 주로 「계릴라」戰으로 始終했으니 軍隊로서의 訓練이란

있을 수도 없었다.

中國國民政府軍이 漸次腐敗해 갔을 때, 비로소 人民解放軍이라 하여(裝備도 가카스로 軍隊비슷이 그것도 掠奪物을 主로해서) 國共의 內戰에서 勝利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事實에 있어서 人民解放軍의 實力이 增大되어서 겨우 勝利가 아니고 政治情勢의 變과 國民政府軍의 自壞作用에 依한 듯밖의 所得이었다는 것이 當時情勢의 正確한 判斷이다.

이러한 事實은 臺灣의 蔣介石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며, 그 때문에 本土再進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希望을 상기도 잃지 않고 있는 主要한原因이며 中共軍內에는 許多한 反共軍人이 形勢의 不利로 그 假面를 벗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呼應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六·二五動亂의 뼈저린 記憶을 다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아무런 訓練없는 軍隊를 全滅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다. 近代戰이란 것의 經驗이 거의 없는 烏合之卒들이 다만 長技인 人海戰術로 對抗했을 뿐인 것을 호되게 지적 못한 것이 遺憾이 아닐 수 없다.

그때의 實情이 國際的 制約과 特殊한 環境 도하나는 國聯軍이란 「해럴드」가 없었더라면 피리부는 前世代的 中共軍을 그냥 물러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弱點을 알아차린 中共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軍隊組織이 보장되었는 것을 痛感의 建設이냐고 물었지만 그들이 내어준 「近代國軍의 建設」이란 것은 純軍事的 見地에서 中堅壯派와 紅軍의 傳統에 戀戀하는 老壯派의 派爭으로 爛口號에만 그치고 나날이 이 對立은 激化一路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矛盾에 던지기로서 中共은 그들의 宗主로 된 있던 蘇聯과 政策, 思想 兩面으로 深刻한 反目을 하게 이르렀으니 中共의 發惡은 漸次 高潮를 띠고 豫測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위에 近年에 이르러 暴露된 中共內 經濟的 總破綻은 中共政權의 危機라고 보아져서 이러한 面에서 昨今의 情勢는 微妙한 面이 많은데 以上 中共의 人民解放軍의 正體를 우리는 無心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을 結言으로 한다. (金史東역)



THE LONGEST DAY

<노르만디이 上陸作戰>



이 영화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최후의 큰 전투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다룬다. 이 영화는 1954년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의 최첨단 촬영 기법과 특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는 구상부터 촬영까지 10여 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영화는 구상부터 촬영까지 10여 년이 걸렸다고 한다.

五十年前으로 되서 약 二十년간分이다. 문자 그대로 「정상회담의 대작」. 지금까지 「노르만디이」 상륙작전을 취급한 영화는 몇개 있었다. 프랑스의 「노르만디이」, 미국의 「그날」, 그 때 「북서쪽의 四騎士」(등). 그러나 「그날」은 미국장교와 영국여성의 비연의 주제가 되고 그 크라이마스를 「노르만디이」 상륙작전으로 끌고 간 것이고, 「북서쪽의 四騎士」는 「노르만디이」 상륙작전 전선, 연합군측이 독일 기갑부대 본부를 공격하는 정도였는데, 정면으로 노르만디이 상륙의 전모를 그려낸 것이 「The longest day」이다.

상륙작전의 물문 요격까지 위험이 수반된다. 一萬척이나 되는 배소의 함선이 바닷가에 운집하고 병선, 기뢰, 전차등을 내린다. 철호의 폭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위험한 공격을 높고 상륙하려는 상륙용 함정은 연안포기 관총에 발거되고 나선 사담과 같다. 그 위에 해안의 도달한 병사에게는 몸을 감출만한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카튼은 한 꼬두 보물 판을 캐까지는 상륙군의 운명은 흥건화와 다름이 없다. 이 영화는 이러한 노르만디이 상륙작전의 실상을 그대로 재연해 보인다. 또 지극히 지극히 나뭇대 노르만디이 상륙작전은 연합군측에서 보든 면면을 보든 때 어떤 것이 양관측의 동향물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연합군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몇이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구상이므로 중요한 전투장면마다 한 사람씩

의 감독이 담당했고 연합군측을 담당 한 것은 「벤·허의 전차정적 장면」로 유명한 안톤·마아튼. 독일군측의 전투감독을 담당 한 것은 켈트·오스왈드. 이 영화는 전기물(戰記物)이고 전기물에는 대개 전투장면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 이 영화의 전투선은 三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상영시간의 四分의 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화에는 기계적인 전투보다 인간다움의 한계에 접점을 두는 인간 드라마이며 전체적인 연출에 있어서도 연합군측을 영국의 켈·아나킨 독일군측을 명작 「다미」를 만든 벤슨하르트·벤틀리가 담당하고 있다. 의지(意志)나 준비에 있어서는 독일군이 더 우수했다고한 노르만디이 상륙작전이 어떻게 해서 연합군이 그처럼 성공하였는가? 이 영화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전투의 일진일퇴를 기적으로 추궁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 정신력 등의 증점을 두어 그것을 그려내려한 데에 이 작품의 가치가 있다. 줄거리의 흥미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독일군 수뇌부는 연합군이 카페이 지방에 상륙할 것이라 믿고 있다. 영불해협에서 가장 좁은 곳이 도바카페이 사이의 20마일. 독일의 루트슈트트원수(元帥)는 완전무결한 방어지대를 이 곳에 구축한다. 연합군측의 상륙군은 베르린이 그 전적의 목표일 것이므로 저기가 먼 노르만디이

애상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믿는 데 이것이 독일식의 이론이었다. 독일군은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되어 수일이 지나서 동안에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려져 있다. 그것은 양동(陽動)작전이다. 그들의 상륙지는 카레이다. 이렇게 독일군은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BBC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부대의 보편상륙에 관한 정보를 정확한 집안에는 데도 룬트슈넬트 원수는 전군에 대해 정계배치를 명령하지 않았다.



20th Century-fox Release

독일군으로 하여금 이만치 밀려까지 하는 연합군의 작전은 면밀하고도 조밀성있게 꾸며졌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밀(機密)이 잘 지켜졌기 때문이다. 카레이에 상륙하는 것으로 역(逆)스파이에 정보를 주었다. 연합군은 카레이 지구에 떠밀린 작전 비행술을 계속하면서 지상 스파이와 파견하여 그곳에 상륙하려는 듯 정보를 흘렸다. 한편으로는 겐트, 사섹스 지방 등 영국 본토 동남부 지방(카레이의 맞은편)에 대 부대를 집결시키기도 하고 함대를 모아 상륙작전의 연습을 해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카레이 전면에 있어서의 양동작전(陽動作戰)은 실제 노르만디의 상륙부대가 노르만디를 향해 떠나고 난 뒤에 더욱 그럴사하게 계속되고 많은 선박(錫箔)을 뿌렸기 때문에 독일군의 레이더에는 마치 연합군의 대 부대가 카레이 지구에 움직이고 있는 양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보로써 독일군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 만일, 연합군처럼 독일군도 영국 본토를 정찰 비행했다면 연합군의 이 같은 양동작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군은 벌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군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연합군은 이 지구에 11,00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독일군은 전 공군이 400대밖에 없었었다. 그것도 연일 계속되는 연합군 공군부대의 비행장 폭격을 피해서 국경지구의 깊숙한 곳에 갖추어 두었다. 그 위에 공군 사령관인 게 1령 원수 조차도 연합군의 그와 같은 허위작전에 걸려들고 만다. 그는 작전본부에서 「그것은 양동작전이다. 우리가 그 작전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 비행기는 그들이 카레이에 상륙할 때 중요하게 써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독일군의 연합군의 노르만디에 상륙을 결정적으로 용이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준다. 노르만디에 상륙의 제 1보가 총통(總統)의 총 작전본부에 날라들었을 때 윌틀러는 아직 잠자리에 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윌틀러 직속의 정예 전차사단 3개사단을 빨리 출동시켜달라는 작전본부의 요구가 있는데도 윌틀러의 부관은 총통을 잠에서 깨우기를 거부한다.

그러한 양동작전에서 떠들적 할 필요는 없다는 논치다. 윌틀러가 일어난 것은 점심때 였는데 이로써 연합군이 가장 치명적인 강타를 가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전차사단이 출동한 것은 하루가 늦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상륙군은 위기를 면해서 거의 완전한 전투태세의 전부가 갖추어진다. 다음, 독일의 전차사단의 공격이 전개된다. 그러나 상륙군에 의해서 피멸되고 만다. 그런데 이 영화의 초점은 이런 것, 즉 모략작전에 의해서 상륙이 성공되었다고 하는데 있지 않다. 가장 중대한 것은 1944년 6월 6日,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단언하였을 때 연합군은 어떻게 해서 이 날을 태해서 용감하게 작전을 단행했는가? 이 차점(差点)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극적인 차(差)라기 보다는 오히려 운명적인 차로 크로즈업 된다. 즉 양군의 천기예보(天氣豫報)가 6월 6일의 아침의 기상을 세 가지 다르게 판단한 데에 있다. 독일군은 지 금 계속되고 있는 폭풍우가 당분간 제



實物과 똑같은 아이젠하워 將軍



마루잔의 본넬元帥



로버트·카파



베이비안



로버트·와그너



포울·안카

속한다고 보아왔고 연합군은五日 하
오부터 개어서 六日 아침에 일단 회
부되었다가 七일부터 다시 폭풍우가
계속된다는 예보였다. 독일은 그린
랜드, 북해에 추우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규모의 상륙작전이 폭풍우 속에
서는 감행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룬
트슈베트 원수도 게-링도 그리고
히틀러의 부관도 노르만디의 상륙작
전을 양동작전으로 보고 대부대는 카
레이에 상륙한다는 생각에서 카레이
지구의 방어의만 주력하였고 노르만
디의 지구의 사령관인 롬멜 원수도 부
인의 생일잔치를 치를겸 히틀러를 만
나기 위해서 베르린에 들어가 있는 참
이다. 또 영국 불해협을 수색하던 정
찰기와 고속정도 폭풍우를 피해서 늘
고 있는 판이다.

양군의 장병 二百七十萬一의 운명
나가서는 연합군과 독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병사의
우월이나 군대의 준비, 기술, 무기가
아니었고 조그마한 한개의 친기 메
타에 있었다고 부단히 하는 사실을
보여 주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종
래의 전쟁영화와는 관점을 달리해 본
래에 이 영화의 주제가 들어 있기도
하다.

원작(原作)은 그 당시의 중군기자
코넬리우스·라이안이 저술한 베스트
셀러 「몽게스트·메이」, 롬멜 원수
가 「최초의二十四시간은 어느편이 이
기겠는지 전연 짐작이 가지 않았다.
외젠가 전투에 참가한 사람치고 이 처
럼 침착무는 없었다」고 탄식한 말을
따서 책 이름을 삼았는데 영화 타이

틀도 책 이름 그대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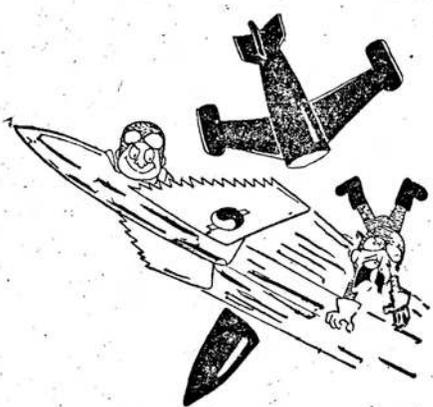
간단히 해설한다면 이 영화는 영구
프랑스, 미국, 독일 정부의 전면적 협
력을 얻어서 사실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들었다.

전투장면에서 가장 불만한 점은 오
마하·비이치의 주력부대의 상륙, 나
하산부대의 전투, 해인자부대, 오르
느강 교량의 그라이다·부대, 그리고
쁘르프·안·베산의 자유프랑스·헤
리스탕스 부대의 전투 등이다.
출연배우는 모두가 세계적인 톱스
타·급이며 주연급 배우 二十七명.
미국- 존·웨인, 헨리·폰다, 윌리엄
홀먼, 로버트·메이러, 제프리·한타
물비트해서 해인자 부대원으로 보
와그너, 포울·안카, 페비안, 토미
산즈 등 젊은층이 등장하였고 오르
전투에는 피·타아·로오포·드·리
차아드·롯트, 프랑스·크리스찬·마르
칸, 폴스·리베일, 존·루이스·로바,
아르베티이, 후란소와즈·로제. 크루
트·올젠스·독일배우.

一九四四年, 六月 六日, 뜻밖에 도
날짜가 좋아 독일군들은 놀란다. 작
자가 노르만디의 해상에 연합군 함
대가 침입하기 시작한다. 연안 포대
에서 발포가 시작한다. 그러나 작대
하다. 연합군의 상륙은 성공, 진격만
순조롭다. 미국 제五군단이 진격할 오
마하·비이치에서만이 격전이 계속되
어 이틀날 七일, 이 부대도 진격이 계속
된다. 보급은 개소에 만든 인공
항구(人工港口)와 아발을 통해서 순조
롭다. 독일군은 하나도 선수를 침략을
이 없다. 융천하고 완강한 저항을 제
속했으나 전선은 후퇴한 연합군은 시
시각적으로 독일 국경에 가까워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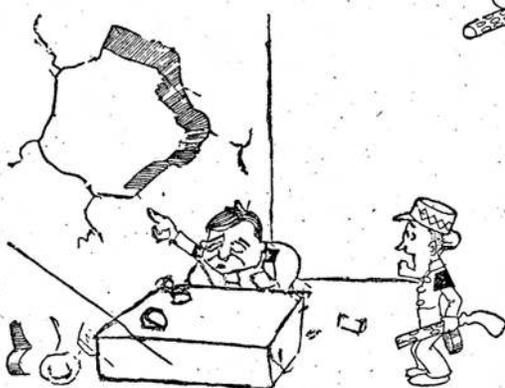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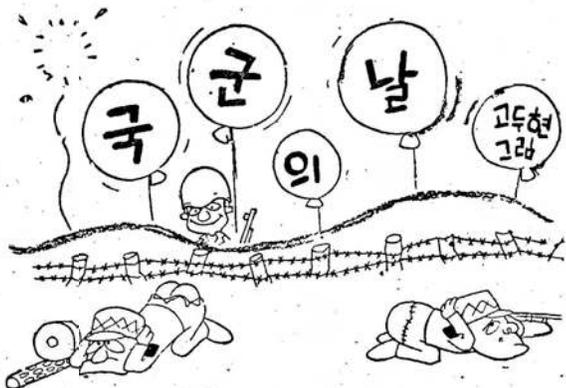
세계文學基礎書目
十八세기 이전(以前)
머 「일리아드」 「오딧시」
구약(舊約)
신약(新約)
시경(詩經)
당시선(唐詩選)
웨익스피어 회곡 「한렛」 「오셀로」
「막베스」 「리어왕」 기타
넷.
셰르반테스 「돈·키호테」
괴테 「파우스트」
몰리에르 「수전노」 「인간증오자」
볼테르 「캉디드」
十九세기 이후(以後)
소설
스탈달 「죄와罚」 「파르마의 승원」
발작 「고리오영감님」 「후손」 「우
게니」 「그랑피」
푸르베르 「보바리부인」 「감정교육」
졸라 「제르미나르」
볼스토의 「부활」 「안나카레이나」
또는 「전쟁과 평화」
도스토예프스키 「죄와罚」 「후손」 「카
라마조프형제」 또는 「악령」
푸루게네프 「처녀지」
프리카 「어머니」
토마스 「마(魔)의 산」
푸루우스트 「영이전 때를 찾아서」
제임스·조이스 「율리제즈」
지드 「전원교향악」 「파루우드」
생블레아·부이스 「큰거리」
드라이저 「아메리카의 비극」

헤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에칭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소르호프 「고요한 돈河」	소르호프 「고요한 돈河」
도스·패스수 「U·S·A」	도스·패스수 「U·S·A」
카롯사 「전쟁일기」	카롯사 「전쟁일기」
노신 「阿Q正傳」	노신 「阿Q正傳」
시(詩)	시(詩)
보들레르 「악의꽃」	보들레르 「악의꽃」
베를레르 「시집(詩集)」	베를레르 「시집(詩集)」
말라르메 「시집」	말라르메 「시집」
히트르멘 「풀묘」	히트르멘 「풀묘」
칼·셴트버 「전집」	칼·셴트버 「전집」
에츠 「전집」	에츠 「전집」
타골 「기탄자리」	타골 「기탄자리」
발레리 「해변의 묘지」	발레리 「해변의 묘지」
릴케 「시집」	릴케 「시집」
파운드 「시집」	파운드 「시집」
엘리우드 「황부지」	엘리우드 「황부지」
오든 「시집」	오든 「시집」
홉스 「유딧」	홉스 「유딧」
입센 「인형의 집」 「바다의 부인」	입센 「인형의 집」 「바다의 부인」
체호프 「영화현」 「삼인의 자매」	체호프 「영화현」 「삼인의 자매」
호프만스탈 「엘페트라」	호프만스탈 「엘페트라」
하임트랜 「일출전(日出前)」	하임트랜 「일출전(日出前)」
「성바다로가는 기수(騎手)」	「성바다로가는 기수(騎手)」
프리카 「반주막」	프리카 「반주막」
볼스토이 「어둠의 힘」	볼스토이 「어둠의 힘」
쇼 「무기와 인간」	쇼 「무기와 인간」
골츠워드 「은상자(銀箱子)」	골츠워드 「은상자(銀箱子)」
유진·오닐 「동쪽카디프르」	유진·오닐 「동쪽카디프르」
「황제 존」	「황제 존」
엘마·라이스 「저리의 풍경」	엘마·라이스 「저리의 풍경」
(金峯東著 「무엇을 어떻게 읽을가」에서)	(金峯東著 「무엇을 어떻게 읽을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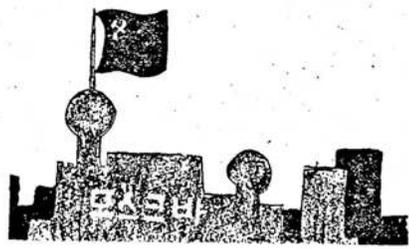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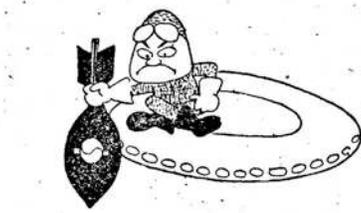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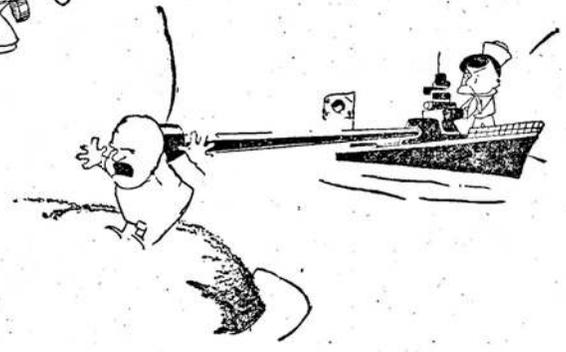
「헤헤헤 MIG고 나팔이고 없다」

「이크! 국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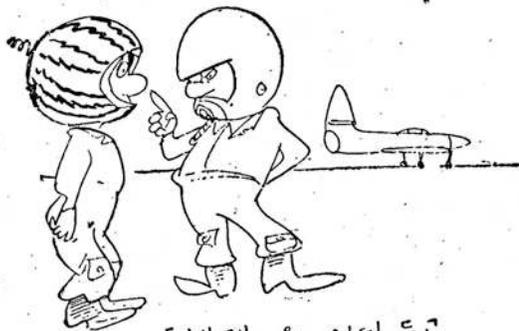
「후르시쵸프! 이놈 손들었!」

↑ 金日成 「말마라!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가 훑고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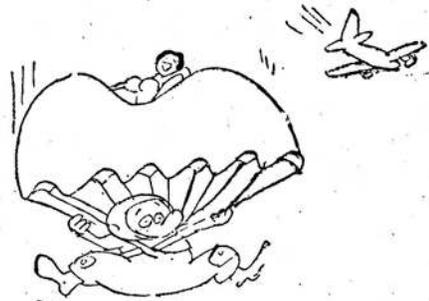


「나는 아주 여기서 살아야겠다」

소모탄彈 (申東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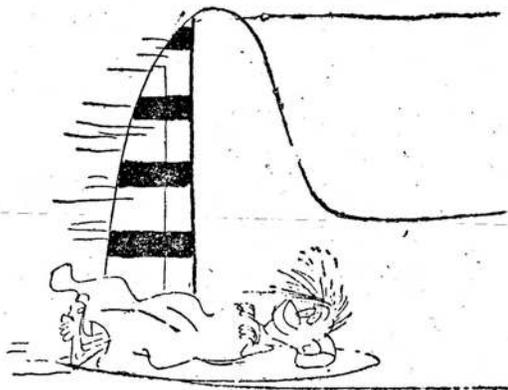
자넨 또 「헬멧」을 어따 두고 수박을 쓰고 왔나?



어느 난봉꾼(?)의 낙하산



「푸라리스·미사일」의 첫 희생자



뭐나 뭐나 해도 여기가 제일 시원하거든!



무중력 쟁 자리만 빠져 나갔단 말야

그 후의 生活



「아리랑」誌의

朴 喜 柱 編輯長

(閏載翼記)

英國에서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시작된 産業革命을 거친 世界는 오늘 날 人間이 만는 機械로 충만되고 있다. 巨大한 機械文明的의 進展됨은 人間의 潛意識을 支配키 爲한 라디오, 신문, 텔레비, 잡지 등은 갖「메스 메디아」가 우리의 精神生活을 支配하는 範圍는 날로 擴大되고 있다.

이러한「메스 메디아」중에서 雜誌는 다른「메스 메디아」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特性을 尙실한 것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發行의 時間的인 간격과 이로 인한 傳達內容의 差異로 繼續의 傳達하는 라디오, 텔레비, 신문 등과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雜誌란 文字, 寫眞, 漫畫等의 素材를 使用하여 娛樂, 政治, 兒童等 限定된 主題를 讀者에게 傳達하는 것이다. 世界最初의 本格的인 雜誌는 一六六五年歐洲에서 創刊된 Journal des sça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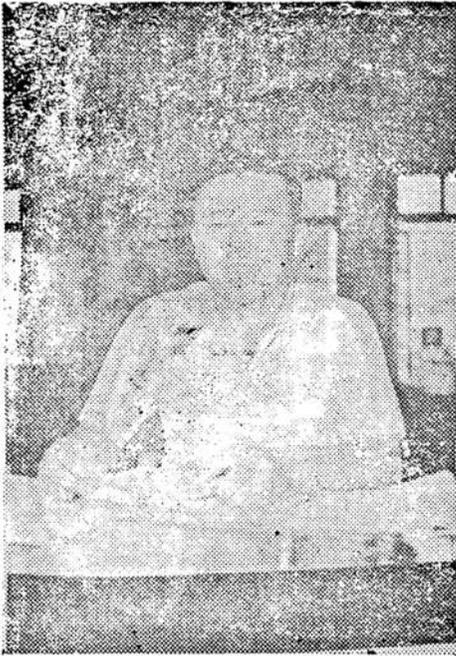
ans이며 우리나라에서 雜誌가 처음으로 創刊된 것은 一八九八年의 朝陽報, 數理報, 夜雷, 西友等이다. 그후 一九〇八年에 崔南善氏가 少年을 創刊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發刊되는 大衆誌, 高級誌, 專門誌等의 數十個가 數十個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중 大衆娛樂誌로서는 아리랑, 사랑, 野談과 實話, 小說界, 明朗等이 있다. 미사일에 連載되고 있는 「그후의 生活」의 이번호는 空軍에서 轉役後 아리랑誌의 編輯을 擔當하고 있는 三中堂의 朴喜柱編輯長을 찾기로 하였다. 아리랑誌는 一九五四年 創刊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漫성체제의 韓國出版界에서 八年의 生長課程을 거쳐 獨步의 基盤을 닦아 왔으며 오늘날 大衆娛樂誌中에서 最高의 發行部數를 자랑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朴編輯長의 지난날을 더듬어 엮은 것이다.

韓半島와 滿州 北端, 鴨綠江 岸의 滿浦鎮에 이르는 滿浦線에 몸을 실고 平壤에서 順川, 軍隅里, 熙川을 거쳐 山間을 越은 鐵路를 따라 가노라면 江界에 이른다. 江界는 滿浦線의 重要驛인 아니라 長津湖에 닿는 鐵路가 始作되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大陸氣候의 影響으로 氣溫의 寒暑의 差가 甚하거나 東部에 南西部로 轉은 江南산맥에서 南西部로 轉은 江南산맥을 안은 江界는 山川이 秀麗하고 風光이 明媚하다. 그곳에서 내가 태어난 것은 民族自主獨立의 부르짖음인 三·一獨立運動이 있은지 卅七年 되던 해인 一九三七年의 三月一日이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낮이면 秀麗한 山川을 背景으로 마음껏 뛰놀고 밤이면 화롯가에서 山蔘 캐던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幼年時節을 보냈다. 江界는 自古로 山蔘의 產地로 有石한 곳이며 現存하는 續大典「이나 「牧民心書」等에도 明白한 바와같이 예전에는 江界 山蔘이 政府收入에 相當한 影響을 미쳤던 模樣이다.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蔘을 캐기 위해 入山할 때 三, 四人 或은 六, 七人이 團體가 되며 그러한 團體에는 계급이 있고 規律는 軍隊

以上으로 嚴하였다. 以上의 예도 江界에는 밤이 많 「祈果」, 農事의 豐年을 비는 「祈農」, 그리고 新房옛보기等 특이한 風習이 많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新房옛보기는 南韓에도 있는 風習이기는 하지만 그곳의 風習에는 여러가지 特異한 點이 있다. 그곳에서 살 짝 옛보는 것이 아니라 門장지를 짓고 新房을 거진 한데와 같이 만든 후에 긴장대로서 이를 헤치고 베개를 흔들기도 한다. 그러면 新郎新婦(물론 新婦야 그렇지 않지만)가 고추가루와 물로 應戰하며 幼少한 新郎은 對抗하다가 울기도 한다. 그곳에서 國民學校를 다니던 나는 우리나라가 日本帝國主義壓制의 굴레를 벗던 해인 一九四五年도 저물어가던 十一月, 醫科學徒이시던 아버님을 따라 家族과 함께, 단풍으로 붉게 물든 정자는 故鄉을 등지고 야만적인 「로스키」들의 약탈광경을 뒤로하며 三八線을 넘었던 것이다. 붉은 탱크의 육중한 소리가 서울거리에 울려 퍼지던 一九五〇年 六月, 나는 京畿中學二學年에 在學中이었다. 赤治下 三個月을 통해서 越南避難民으로 차일을 지친 우리 家族은 여러 차례의 박해를 받았으며 不安

과 恐怖는 家族의 精神生活을 위축시켰다. 不安과 恐怖의 重壓感에서 解放될 수 있는 길은 冊과 親하는 것이었다. 그 저 단지는 데로 집안에 있는 책들은 집어들었다. 그때 읽은 것으로서 印象적이었던 것으로는 李光洙氏의 「흙」, 李無影氏의 「흙의 노래」, 沈蕙氏의 「常綠樹」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朴榮濬 崔仁旭諸氏의 主로 農村을 舞臺로한 農村계몽 或은 反都市的인 農民文學作品等 田園的인 것을 즐겨 읽었다. 그러한 作品들은 아마도 내가 幼年時節을 보면 故郷에 對한 애뜻한 鄉愁를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도 내 가 심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 朴 喜



그 후 高校時節에는 孤獨한 默想의 生活을 하면서 人生의 黑暗面을 銳利하게 觀察하고 深切하게 心理를 解部하는 「나타나일 호소론」의 「The scarlet letter」 「The house of seven gables」 이태리戰線에서 負傷을 당하고 스메인 內亂에 從軍하는 等 豊富한 生活경험을 가진 「이네스트 헤밍웨이」의 「A Farwell to arms」 「For whom the bell tolls」 「The oldman and the sea」 그리고 自由主義的인 思想으로 有色人種의 政治 經濟의 平等을 부르짖는 「윌·셔」의 「The good earth」, 「The mother」 「The sons」等 主로 美國의 文學作品

柱 池

等を 답독했다. 學校를 쉬는 날 이년의 別히 冊을 들고 산으로 가곤 했다. 산은 高요하며 冊을 읽기에 좋을뿐 아니라 孤獨에 대한 나의 慾望을 채워주는 곳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一九五五年에 京畿高等學校를 卒業하자 醫學博士이신 아버님의 醫學을 택하라는 말씀을 무릅쓰고 延世大學校의 英文學科에 들어갔다. 大學에서 情熱的인 詩人 「Byron」 「Browning」 自然愛護의 田園詩人 「Wordsworth」 英國詩人들의 作品講義를 기다리며 들은 했다. 그러던중 一九五五年八月 馬山結核療養所의 所長으로 在職하시던 아버님이 交通事故로 돌아가셨다. 文學作品을 감상하고 화려한 孤獨만을 찾던 나에게 아버님의 別世는 커다란 속크를 주었다. 그때까지는 莫然하게 밖에 느껴지지 아니하던 人生이, 삶이, 죽음이, 가까이, 절박하게 느껴졌고, 왜사느냐 애축느냐 하는等 哲學的인 命題를 가지고 苦惱하게 되었다. 그러한 生活은 얼마동안 계속되었다. 大學二學年을 마치던 해인 一九五七年에는 드디어 決心을 하고 學校를 中退한 다음 生活人으로서의 經驗을 찾아 軍門을 두드렸다. 空軍航空兵學校에 入隊했던 것이다. 航空兵

學校에서의 新兵訓練課程 三個月은 지금도 나를 追憶에 젖게 한다. 그만큼 그 당시의 나에게 는 새롭고 有益한 經驗이었던 것이다. 每日每日, 고단한 하루의 訓練日課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가 무섭게 잠들곤 했다. 暇차여진 日課는 부질없는 雜念에 잠길 수 있는 時間을 조금도 許하지 않았으며 訓練課程이 절반쯤 지나면서 부러는 나는 어느새 주저와 회의에 앞서 行動하는 行動的인 生活人이 되었다. 밝으면 내무반에서 불침번도 썼고 燈판에서 의과선步哨도 썼다. 夜間에 불침번이 나 보초를 서는 時間이 唯一한 思索의 時間이었다. 이때에는

지난날의 追憶을 더듬고 향수에 젖기도 하며 다쳐올 군대生活이라고 하는 未知의 世界에 對한 好奇心에 마음조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물론 처음 入校하면서는 급작스러운 變化된 환경에 適應하기에 苦心하기도 했지만 날이감에 따라 차츰차츰 命令과 規定을 至上的인 生活規範으로 하는 軍隊生活에도 익숙해졌으며 처음 各樣各色의 性格을 지녔던 候補生들이 訓練을 通해 점차적으로 軍隊라는 團體의 構成員으로 劃一化되면서는 共通的인 感情을 갖고 呼吸을 같이하는 集團으로 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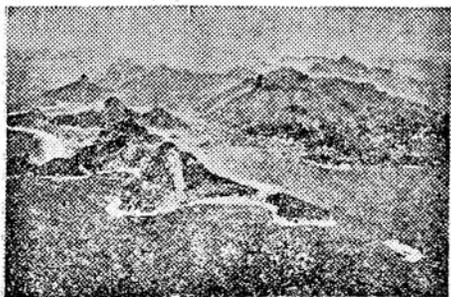
(P 71 로)

<世界驚異巡禮>

— 부라질의 首都 —

리오데 자네이로

리카르도·하기튼



만약 세계의 도시(都市)가 미(美)의 경연(競演)을 한다고 하면 어디가 여왕으로 뽑힐 것으로 여겨지는가? 하는가?

아마도 파리(巴里)는 축적에서 다른 많은 도시들을 비웃는 눈초리로 여왕에 뽑힐 것을 요구할 것이며,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등 도시는 미국인의 표를 많이 얻을 것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원음, 헝가리 사람들은 부다페스트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시드니를 이태리 사람들은 나폴리나 베네치아를 지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도시를 방문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여왕으로 부라질의 수도(首都) 리오데자네이로를 꼽을 것이 틀림없다.

그들의 의견——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의 의견——으로는 리오아말로 아름다운 절에 있어서 잡히 다른 도시가 비교가 안 될만한 도시이다. 이 지구상에서 리오데자네이로만큼 깨끗한 항구, 아름다운 거리와 건물, 그리고 산과 바다가 풍광명미(風光明麗)한 곳은 없을 것이다.

만약 리오데자네이로가 들어있지 않다면 세계의 어떠한 경이(驚異)를 다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도시는 「정월의 강」이라는 묘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폴류질의 항해가(航海家) 콘사로·코에로가 一五三一年一月一日 이곳에 정박(碇泊)하였을 때 큰 강의 하구(河口)로 오인(誤認)하여 「리오·데·자네이로」 즉 「정월(正月)의 강」이라고 이름을 부쳤던 것이다. 이 도시의 멋 있는 풍광(風光)은 이

내구라파 전역(全域)에 알려져서 一六二〇년에는 그 해안(海岸)에 도시가 건설되고 스페인이나 폴류질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一六六〇년에는 부유(富裕)를 자랑하는 항구가 되었으며 부라질의 수도(首都)가 되었다. 더우기 그 당시 뉴욕은 二百명 가량의 화랑(和蘭)사람들이 수 십호쯤 되는 통나무집에서 살고 있는 데 불과하였다.

우리들은 이구아스의 폭포로부터 리오·데자네이로를 가기 위해서 파라나강(江)을 알렌친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내려가 거기서 대양(大洋)을 항해하는 기선을 타고 부라질의 남쪽 연안(沿岸)을 거슬러 올라가면 새벽녘에는 폭이 몇키로나 되는 리오만(灣) 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거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가 잘 보인다.

마제란의 인솔하는 소함대(小艦隊)가 최초의 세계일주 항행(航行)을 시도(試圖)하였을 때 이 항구에 이주일 동안 정박하였었다. 마제란은 二주일 동안 광경에 눈이 부실정도였는데 우리도 또한 같은 눈이 부실정도였는데 우삼방은 밀림(密林)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들로 둘러 쌓여있고 그 정상(頂上)은 수면(水面)에서 一·六키로의 높이로 솟아 있다.

물은 깊을대로 깊고, 맑고, 푸르르며 배후(背後)의 절벽을 이룬 산부대기의 산림(山林)은 자색(紫色) 빛깔이고 폴류질의 집들이 울긋불긋 언덕 경사면(傾斜面)에 점재(點在)해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위에 파란 하늘이 펼쳐져서 전광경은 내려 비치는

열대(熱帶)의 태양으로 희게 빛나고 있다.

나는 처음에 리오·데·자네이로를 거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방법(方法)으로 보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원숭이를 물리는 광대생활을 한참 할 때였다.

이것은 거짓말 아닌 참말이다. 나는 한달동안 손뚱뚱을 썼으며 원숭이의 이름은 니노라고 불렀다.

니노와 나는 잔뜩놀을 찾아 슈로라고 불리우는 곳의 가로수(街路樹)우거진 길을 아코디온을 키면서 라·파로마라다가 바렌치아 같은 알렌친·맹고를 볼으면서 방랑생활(放浪生活)을 하고 있었다. 아를담고 깨끗한 해수욕장(海水浴場)을 왔다 갔다 하다가 먼 해수욕을 입은 어린이들이 풍무니를 슬슬 따라 나왔다. 니노는 부라질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도 또한 니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동전을 던져 주었다. 그러던 원숭이는 그것을 캐게 갔다. 카르항구(港口)에 보초병(步哨兵)처럼 솟아 있는 四百미터 가량의 암산(岩山) 폰·데·아숫칼——사람 동굴이라는 뜻을 올라갔다. 이것은 요세미트의 반원봉(半圓峰)만큼이나 험준하여 미곤미곤하며 몇해전만 해도 절대로 정상(頂上)을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아침이 산봉오리에 영국의 국기가 아침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내게 누가 이런 엉뚱한 것을 한 것이며 어떻게 그곳에 깃대를 세울 수가 있는는지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한 석적인 젊은 영국사람이 한 것
이었다. 그는 리오(부라질에서)는 혼
히 이렇게 부른다.)의 천시민들이 노
여움을 차서 온갖 수단을 다하여 이
외국기를 끄집어 내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감시중인 자위를 감추었다.
저짜아 세운듯한 산을 올라갔다.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것이라
고는 생가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산
꼭대기의 영국기를 올라다 보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흥
분이 극(極)에 달하였을 때 깃발은 들
연은 매잔때 없어졌다. 아무도 모르
는 사이에 그 영국사람이 다시 올라
가 그것을 끄집어 내버린 것이다.

한번 정복된 폰·데·아츨칼은 얼
마안가 아주 좋은 유원지(遊園地)가
되었다.
오늘날 산꼭대기까지는 공중 케이블
·카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는 흙
사히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항구, 무성한 푸
른 산봉(山峰)三百이 넘는 보석을
잡아 놓은 듯한 섬들, 그리고 망망한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그러나 더 한층 경이적인 것은 꼭
추상이라고 불리우는 코루코바드산의
서의 전망이다. 이 산은 해발(海拔)
六百六十미터로서 정상에서부터 좌우
세운듯한 단애(斷崖)가 바다속에 까
지 잠겨 세게 되고 산마루에는 삼키미터
나 되는 세제 피고(最高)의 쿵크리트
제(製) 크리스트상(像)이 세워져서 그
가 벌린 양쪽 손은 눈아래 항복한 이
도시를 감싸주시고 있는 것 같다. 아
동상은 시가(市街)나 항구 어느 장소
에서도 바라다 볼 수가 있을 뿐 아니
라 밤이 되면 각방면에서 새이치라이

트를 함박 받아 서로 영진 별세계 사
이에 떠올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들은 폰·데·아츨칼(사탕홍동
이의 산)이나 만내(灣內)의 섬들로 가
서 가로수(街路樹) 우거진 큰 길을 건
고 해안(海岸)에서 수영(水泳)을 하던
지 한 다음 코루코바드 산을 올라가 보
기로 하였다.
급경사(急傾斜)의 길을 아프트식
(式) 케이블·카를 타고 들쭉이나 너
물들로 빛나는 정원(庭園)이나 별장
(別莊) 사이를 빠져 나가 산마루를 찾
아 올라갔다.
눈앞에는 크리스트의 상(像)이 탑
(塔)처럼 서 있다. 우리들은 대석(臺
石)주위를 거닐고 그 번두리에 서서
하계(上界)를 내려다 본다.
그랜드·캐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
들은 이 웅대한 전망(展望)에 완전히
압도(壓倒)되어 말 한마디 나오지 않
는 가운데 멍하니 정신 빠진 사람 처
럼 서 있게 마련이다.
날카롭게 보옥한 산이나 봉우리가
꾸불꾸불한 해안을 둘러싸서 고층건
물과 나무들이 들어차 있는 시가지들
장식하고 있다. 짙은 푸른 해변(海
面)에는 돛대배가 여기저기 한가로히
떠 있고 세제 여러나라에서 출입하는
몇십척이나 되는 기선은 것빛갈의 항
(航)을 이곳저곳에 남기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펼쳐져 있고
저 먼 물과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이 가물 거린다.
일몰(日沒)과 더불어 새로운 아침
다음이나 타난다. 눈부시게 빛나는 만
내(灣內)는 타는 듯 한 저 너도
잠시 동안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

두어저 폰·데·아츨칼산의 산정 반
원봉(半圓峰)만이 태양의 마지막 빛
을 반영(反映)하고 있다.

대양 광선이 하늘에서 아주 사라져
버린 순간이야말로 가장 매혹적(魅
惑的)이다. 거의 멧만인지도 헤아릴
수 없는 불은八百미터 직하(直下)에
흙추터 빛나 흠사하 비추는 것도 별
하기 시작한다. 항구를 둘러친 산보림
(叢步)길주위를 비추는 것도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산마루에
한 덩어리가 되어 번쩍이는 것도 있다.
또한 극장이나 카페장은 유흥장(遊
興場)이 있는 곳에는 유난히 불빛이
찬란하여 대서양 연안(沿岸)에 걸쳐
들러쳐진 불빛은 수만대의 자동차가
일시에 헛트·라이트를 비추는 것 같
다.
그리고 이들 모든 흔들리는 불빛이
드미운 바다를 내려다 보는 우리들 머
리 위에는 희게 빛나는 크리스트의 거
상(巨像)이 양손을 벌려 만(灣)과 산
과 자연과 사람들이 잘 융합(融合)이
되어 있는, 어 미(美)의 천국 리오에
자네이로 거리에 축복을 주시고 끊임
없이 지켜주시는 것같이 생각된다.
△譯者註—南아메리카에는 리오에
자네이로의 巨像以外에도 알메스山脈
의 치리, 알렌치國境, 海拔四千미터
地點에 兩國의 平和를 記念하는 十字
架를 손에는 크리스트의 巨像이 서
있다.
리오메자네이로는 人口二百五十萬
부다질의 首都인데 나토리, 시드니와
더불어 世界三大美港으로 꼽히고 있
다.

X X X
△길영주 역

(P. 69에서)

되어 왔다. 各個人이 갖는 社
會的條件의 制約을 받음이 없
이 그야말로 平等한 人間本然의
姿勢로 돌아가는 것이 候補生
生活인 것이다.
新兵訓練을 받고 처음으로 配
屬된 곳이 一六憲兵大隊 警備中
隊였다. 그곳에서는 步哨를 서
는 것이 나의 日課였다. 때로
는 市内巡察도 나갔다. 그후 나
는 國防部 兵務局에 派견되었
으며 그곳에서 一九六〇年七月
轉役하기 一箇月前, 空軍本部
에 原隊復歸될 때까지 勤務했던
것이다.
一九六〇年 八月에 滿三年의
軍隊生活를 마치고 空軍兵長으
로 轉役했다. 轉役後 나는 學
窓으로 돌아 가느니 보다는 社
會人으로서의 生活를 擇했으며
三中堂에 入社하여 雜誌編輯에
從事해 왔다.
X X X
現在 아리랑誌의 編輯을 擔當하
고 있는 朴編輯長은 韓美財團에 勤
務하는 女醫師이신 누님과 함께 출
어님을 모시고 바쁜 著述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登山과 명상을 즐긴
다는 氏는 轉役後 일과안되는 期間
에 펴낸 女史의 「모란꽃」과 케네디
大統領의 「勇敢한 사람들」을 번역
출판한 精力家로서 抱負를 묻는 記
者 질문에 앞으로는 繼續 文化事業
에 従事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P. 6)

全體主義 國家觀의 誤謬

<民主主義 原理考 미나>

김 낙 봉



우리들은 전체주의 국
가관(國家觀)의 진위(眞
僞)를 가리기 전에 또한
이 국가로 불리워도 민주
주의 국가와 전체주의적

또는 독재적(獨裁的) 국가와는 국민
의 국가에 대한 관계가 전혀 틀리는
사실을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서는 국민이
그들에 대신해서 국가를 실제로 통
치하는 사람을 자유로 임면(任免)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민주적
으로 지배하는 것은 국민들 자신 또
는 그 과반수(過半數)다. 이러한의
미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 자신의 것
이다. 국가의 의지(意志)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다. 국가의 강제
는 본질적으로 국민이 자기들 스스
로 부과(賦課)한 강제(強制)이며 이
것의의 부종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자율행위(自律行爲)인 것이다.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
가 또는 전체라는 것은 국민 자신
의 것이 아니고 흔히 국가권력을 장
악(掌握)하여 일체의 비판의 가능
적 중심세력을 가차(假借)없이 파
괴하는 것으로서 자기 권력의 영속
(永續)을 꾀하는 어느 특수층 사람
들의 것이다. 나치스·독일은 히틀
러와 그 일당(一黨)의 것이었으며
소련은 오늘날 후르시츠프와 그 일
당의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있어
서 국가 또는 전체의 의지라는 것
은 국민일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들만의 의지이며 국가의 강제라는

것은 그 실에 있어서 그들의 지령
(指令)이다. 국민은 오직 여기에 복
종하는 노예(奴隸)의 자유가 있을
뿐으로 국가를 좌우(左右)할 아무
런 힘도 없다.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론의 근거
를 이루는 것은 국가(또는 사회)
유기체설(有機體說)이다. 전체주의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는 하나
의 유기체 — 생물 — 이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그 어떠한 부분에도 또
는 부분의 단순한 총화(總和)가 온
데서도 찾아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으며 유기체(有機體)는 인체(人
體) 그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로서는 그것을 구성(構成)하는
여러 기관(機關)의 단순한 총화(總
和)가 아니고 각부분 또는 자기관
에 침투하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 전체적 생명은 유
기체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도
부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
기체가 아주 일체(一體)로서 갖는
다는 것이며 그리고 부분은 전체에
서 잘라져 나간다고 하면 그 존재
의의물 상실한다. 부분의 상실되어
도 전체의 생명은 변함없이 모든
단 전체의 생명이 상실된다면 모든
부분의 생명은 사멸(死滅)한다. 따
라서 그 가치에 있어서 전체적 생
명은 필연적으로 부분적 생명에 우
선(優先)하며 부분은 전체에 봉사
(奉仕)하고 전체적 생명은 유자하
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회 또는 그
일종인 국가도 바로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서 각개인은 전체에 봉사하
는 수단으로서만 그 존재의의를 갖
는다고 전체주의자들은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論議)의 진위(眞僞)
를 확실히 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
두고자 하는 점은 사회는 유기체적
일체 모르지만 유기체 그 자체는 결
코 아니라는 것이다. 스펜서나 그
밖의 사람들이 주장한 사회 유기체
설은 인간의 사회관계는 유기체의
부분간의 관계에 유사(類似)한 것
이 있다고 하는 일종의 비유(比喩)
이다. 의제론(擬制論)에 불과한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類似)를
지적하는 것은 구단의 개인주의적
주장을 억제하고 사회의 공동적 상
호부조적(相互扶助的)인 면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
었던 것이다. 사회유기체설(社會有
機體說)은 일종의 비유이요 그점에
있어서는 옳지만 사회를 가지고 문
자 그대로 유기체 그 자체라고 주
장하는 논자(論者)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찌구비 없는 년센스다.

유기체라면 생물(生物)이다. 그리
고 생물이란 동식물(動植物)이
다. 사회는 여러가지 점에서 동물
과도 시를하는 여러 본질적이며 절대적으
로 틀리는 것은 여기서 구차 입증
(立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회 또는 국가가 생물이 아니라
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첫째
로 사회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떠한
의미에서 유기체적인가? 둘째로 어
떠한 의미에서 유기체적이라 하며
라도 그러한 사실로 해서 바로 전
체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는
전체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
의 그것보다도 다른 독자(獨自)의 무
적용 갖는다고 하는 결론(結論)을

추출(抽出)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로 가령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제로서 파악할 수 있는가? 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사실로서 개인은 자기 목적을 이루지 않고 전체 사회가 목적이 되고 개인은 전혀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궁극적 결론이 생겨날 것인가? 다음에 이와 같은 점을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회가 유기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가 유기체인 부분—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가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를 가리켜 유기체적 관계라고 말하는 것인가? 사물의 관계에는 내재(內在)의 혹은 본질적 관계(마우로 불리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기적(非有機的)의 외적(外的)의 관계적 또는 우연적(偶然的)의 관계 같은 것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비유기적 관계라고 하면 예컨대 기와 지붕의 하나하나의 기와장이나 돌담의 하나하나의 돌아 올리기나 간에 개개의 기와장이며 돌이라는 본질이나 기둥의 하등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기적 관계란 전체에서 부분 또는 부분 상호간의 관계를 절단(切斷)하면 떼어낸 부분의 변질(變質)을 일으켜 보일와는 다른 물체로 화(化)하는 것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가령 커피를 인체(人體)에서 절단하면 그것은 이미 커피로서의 기능을 상

실한다. 이런 따위의 관계는 가장 현저하게 유기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불르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사회관계가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의 미가 아니고 정신적 인격적 의미에서다.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은 사회인으로서만 즉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사회하고 성장하여 항상 어떠한 사회하고 성장하여 항상 그러하다. 그러므로 출생 이래 일체의 인간적 자극에 접촉시켜서 않고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서 성장한 인간을 상상(想定)할 수가 있다.

가령 지금 그와 같은 인간을 고독인(孤獨人)이라고 불른다면 고독인은 생리적(生理的)으로나 생물학적(生物學的)으로는 식욕(食欲)이나 성욕(性欲)과 같은 순연(純然)한 동물적 욕망에 있어서의 일반 사회인파와 다른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능력에 있어서서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는 다른 같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음을 들림없다. 우선 그는 말을 절대로 해득(解得)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의 언어(言語)의 능력은 전혀 사회적 환경에서 획득된다. 언어는 이성(理性)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가 없는 그의 이성은 거의 모든 진리와 발달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순한 이성이 없을뿐 아니라 아들이고, 형제고, 남편이요, 아버지고, 친구고, 동포이며, 적과 같은 따위의 사회감정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격의 정수(精髓)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형체는 인간이라 할찌라도 실질적으로는 인격이 없는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들은 안전하게 다음과 같이 결론(結論)을 내릴 수가 있다. 즉 사람은 육체적 구성에 있어서는 개별적 존재지만 인격적으로서는 다른 개인과의 사회관계를 통해서 성장발전하는 것이요 사회관계에서 인격은 발전하지 않을뿐 아니라 그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사회관계가 크거나 작거나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의(定義)에 따라 인간의 사회관계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관계는 다만 이상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만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에 와서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의(異議)없이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유기적 관계라는 사실로서 사회는 전체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목적의 총화(總和)와 다르며 더우기 총화보다도 더한층 훌륭한 독자(獨自)의 사치를 갖는다고 하는 결론이 생겨날 것인가? 민주주의는 앞에서 말한 의미의 사회 유기체설을 충분히 승인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이론은 민주주의의 이론과 아주 일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설(說)에서 전체주의자의 결론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나의 인격은 남편이며 아버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나의 아내의 인격은 나의 아내이며 또한 같은 아버

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다시 아이들의 그것은 우리들의 자식이며 형제라는 것은 사실에 의해서, 제각각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가족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나의 가족의 복지(福祉)나 목적이 라고 하면 가족 각원(各員)의 복지나 목적의 총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이밖에 가족체로서 한층 중한 가치를 갖는 독자(獨自)의 복지나 목적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아무 증명할 요하지 않는 자명(自明)의 문제이며 직관(直觀)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별개(別個)의 전체적 생명이나 목적이 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를 위한 정당(正當)의(牽強附會)의 설(說)이라고 할 바에 없다. 예를 최소단위(最低單位)의 사회인 가족을 들었지만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말에 달한 진리는 이 단위가 국가 또는 민족으로 확대 되어도 하등본질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체주의자의 결론은 다만 국가 또는 민족을 가지고 유기체 그 자체라고 하는 아주 그릇된 전체(前提)에 실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치즘적 전체주의의 국가관은 어떠한 관점(觀點)에서 보더라도 아무 근거가 없는 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전체주의자들의 주장은 순전히 국가 또는 민족의 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희생(犧牲)을 강요하기 위한 주장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의 국가 또는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

와 같은 권력을 잡은 지도자 자신의 야심 또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서 전체주의자들의 국가관이 아주 오류(誤謬)라는 것은 명백히 되었다. 전체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개인주의적 국가관을 개인이 사회 또는 국가의 부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도 좋은 이기주의적(利己主義的) 국가관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맞지 않는 것은 개인주의를 가지고 이기주의라고 말한妄斷하는 것과 같다. 참된 민주주의의 정신이 이성과 동정성(同情性)에 입각(立脚)하는 이상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국가 또는 사회의 부지를 위해서 필요한다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서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윤리(倫理)와 완전히 일치한다. 모를지기 이기주의(利己主義)만큼 민주주의의 정신에 아주 배척(背馳)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의미하는 국가라는 것은 다른 개인이나 단체 또는 다수이지 그의 의의의 전체 또는 어떠한 개인의 부지도 함부로 희생하지 않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그러나 소수의 부지보다도 다수의 부지가 더한중요시(重要視)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理致)이다. 따라서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그것과 충돌할 경우에는 소수의 이익은 합리적으로 전까지 희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은 다른 개인을 위해서

전체주의자들이 국가 또는 전체라고 불리는 가공적(架空的)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할 것도 없다. 끝으로 국가를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도구로 보는 공산주의의 국가관에 관해서 한마디 해두 고자 한다.

공산주의의 국가관(國家觀)의 오류(誤謬)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국가관이 보편타당적(普遍妥當的)인 진리가 아님을 무엇보다도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 그 자체가 사실로서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론(所論)으로서 대략 명백해졌기 때문에 중언(重言)이 필요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국가는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머물러는 한 무계급사회(無階級社會)로 진전할 수명(宿命)에 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가 일부 사람들에게 한정(限定) 되었었던 부르주아 사회를 경과한지 얼마 안되는 현대(現段階)에 있어서는 계급(階級)이것도 정의(定義)를 요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라는 것이 존속(存續)하고 따라서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계급이 다른 어떠한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이것을 자기의 도구화(道具化)하고 있는 것일지 공산주의자는 그들의 계급 국가론(階級國家論)의 공시에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 이외의 모든 국가를 부르주아 계급이 부르타타리를 억압

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것이 틀림없다. 정치적 명분이 실현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항상 국민(政黨)이 부르주아거나 부르타타리이거나 그런것에 구애됨이 없이 정권(政權)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점에서만 말하며라도 위에서 말한 공식론(公式論)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 현대의 각 민주주의 국가들은 부르주아와 부르타타리 아트와의 이대계급(二大階級)으로 확실하고도 고정적으로 분리(分離) 대립(對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다수 존재하며 사회는 보 다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계급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個人主義의 再認識

개인 존엄의 실재(實在)를 무시하는 전체주의 국가관의 오류(誤謬)는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이기시대(機械時代)에 있어서 현대 산업사회의 하나의 현저한 사실에 입각한 강한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저(顯著)한 사실이란 앞에서 지적한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산업화(産業化)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 점점 사회화되고 개인 그 자체는 사회 전체에 점점 흡수 통합 되어 후자(後者)는 전자(前者)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른바 것이다. 그 결과 산업화됨 오늘날 사회에서는 결정적으로 개인의 부지는

전체의 부지에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전체의 변영이나 부지를 통해서만 개인의 변영이나 부지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공동의 부지를 무시하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라 할지라도 금방 사회 전체에 크거나 작거나 악영향(惡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통제(統制)하고 지배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는 전체에 대한 책임면(責任面)을 등한(等閑)히 한 자유주의 시대의 남은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자기파괴적이며 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사회적 통합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개인주의는 전체사회에 대한 명백한 책임에 의해서 한정(限定)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은 먼저 민주주의 사회 그 자체의 성격을 잘 자각(自覺)하여 그 도덕법(道德法)에 자율적으로 복종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사회 존속(存續)의 절대 요건(絕對要件)은 기본적 자유권을 도덕법으로서 보지(保持)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도덕법을 자율적으로 준수(遵守)함과 동시에 이 도덕법을 깨뜨릴려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반역자에 대하여 과감히 싸우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에 부하(負荷)된 우리들의 첫째 의무가 아니며서는 안된다. (끝)

貨幣의 形態와 그 制度

生活經濟 A·B·C ⑥

崔 虎 鎮

<經濟學博士>



여기서는 貨幣의 諸形態와 近代的 貨幣制度에 關하여 살펴보고 그와 關連된 『그레샴의 법칙』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불완전

하나마 貨幣理論을 끝맺기로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화폐는 일종의 특수상품이다. 그러나 화폐는 그 기능이 서로 다름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 많은 화폐의 종류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화폐가 자각 그 기능을 담당하고 서로 보완하여서 화폐의 전 기능을 발휘하자면 그것이 상호 관계를 맺고 한개의 확실한 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본바 화폐제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中世封建時代に 있어서의 화폐 제도는 당시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었던 領主에 의하여 각각 정하여졌으며 또 화폐주조가 행하여졌다. 그러나 近代社會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제가 확립됨에 따라 그것은 국가의 임무로서 독립 또는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통화의 통일, 신용의 유지, 수량의 제한, 기타 정치상의 필요와 편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음에 화폐의 형태와 그 제도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一, 金屬貨幣

① 本位貨幣 — 첫째의 화폐종류는 금속화폐다. 처음에는 地金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주조 받을 때

마다 일어나는 기술적 곤란을 없애기 위하여 점차 주조 화폐로 발전되었다. 즉 국가가 地金에 일정한 형태로 刻印을 하여 그 품위와 量目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一國家的 貨幣制度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금속화폐를 本位貨幣라고 한다.

즉 본위화폐라는 것은 화폐의 본위 혹은 가치의 단위인 금속을 소재로 하는 화폐이며 여기에는 자유주조제와 자유차분제가 인정되어 있어서 地金은 언제든지 본위화폐가 되며 또는 본위화폐는 언제든지 地金이 될수 있는 관계로, 본위화폐는 地金과 그 가치를 서로 같이 하는 화폐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제한의 法貨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리하여 모든 종류의 화폐는 국가에 가서는 이와같은 본위화폐에 귀일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조제라는 것은 누구든지 본위화폐의 지금을 조폐국에 수납하면 수수로 없이 또는 근소한 수수료로써 이것을 본위화폐로 주조하여 주는 제도이며 자유차분제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유로 본위화폐를 용해하여 지금으로 하거나 또는 본위화폐나 지금을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본위화폐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와 서로 보전될뿐만 아니라 화폐의 수량을 자연적으로 사회의 수요에 적합시키며, 다시 화폐의 대외가치 즉 환시세를 안정시킬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본위화폐 또는 화폐의 본위 혹은 가치의 단위인 금속의 선정에 의하여 본위제도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본위제도에

는 여러 종류의 제도가 있다. 그것은 單體位制度和 複本位制度로 나뉘어진다. 단본위제도는 본위화폐 또는 화폐의 본위인 금속을 한 종류의 금속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것에는 金本位와 銀本位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본위가

금본위라는 것은 유통화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金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으로 金에 연결되는 것이 金本位이고 간접으로 金에 연결되는 것이 金核本位이며 또 유통화폐가 금지금으로 兌換되는 나 혹은 金塊本位와 金換本位로 분된다. 그런데 실지로 유통하는 화폐를 보면 금본위는 반드시 金화의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핵본위인 때에는 金화는 조금도 유통하지 않는다.

금본위는 종래 대개는 금화본위였으나 그 후 금괴본위 또는 금환본위로 옮겨갔다. 금괴본위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지금을 매일 시키고, 또 통화의 태환은 금지금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 一九二五年으로 부터 三一年까지 英蘭銀行이 채용한 것이다. 금환본위는 국내에 있어서는 은화 또는 지폐만이 유통하여 金을 在外正貨로서 보유하고, 정부는 금화환의 환율에 따라하여 대외지불을 하는 상인의 수요에 응하여서 외국에 있어서 금화본위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최초로 이 제도를 채용한 나라는 인도다. 즉 인도는 一八九三年 은화

금본위라는 것은 유통화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金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으로 金에 연결되는 것이 金本位이고 간접으로 金에 연결되는 것이 金核本位이며 또 유통화폐가 금지금으로 兌換되는 나 혹은 金塊本位와 金換本位로 분된다. 그런데 실지로 유통하는 화폐를 보면 금본위는 반드시 金화의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핵본위인 때에는 金화는 조금도 유통하지 않는다.

의 자유주조를 정치하고 주요한 재권국인 영국과의 지불관계상이 금환본위제를 시행하여 一九二〇년에 이르렀다.

본위제는 두 종류 이상의 금속 대개는 금과 은을 동시에 본위화로 하는 제도다. 금과 은을 본위화로 하는 양본위 제도에 있어서는 한편의 본위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한편의 본위화폐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화폐가치의 변동이 항상 적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때 많은 국가에서 채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一九세기 후반 銀의 가치저락이 심하게 되어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은화의 자유주조를 금치하고 금화의 자유주조만 허용하였다. 이와같은 것을 銀行本位制라고 한다.

구미 각국에 있어서의 화폐제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一八一六년에 영국이 금본위제를 채용하였고 다음에는 一八七五年 보불전쟁 이후의 독일이 이것을 모방하여 국제무역의 편의상 다른 나라에도 채택되게 되었다. 프랑스는 一八五二년에 금은양본위제를 채용하였으나 얼마 안가서 銀까지의 저락으로 말미암아 파행본위제를 시행함에 이르렀다. 그리고 북미합중국은 一七九二년에 양본위제를 채용하였으나 一九〇〇년에 이르러 금본위제로 옮겨졌다. 이러한의 제인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구미의 주요국가가 거의 모두 금본위제를 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1차 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금본위제는 정치되었다. 그리하여 제1차 대

전 후 영국은 一九二五년에 금과 본위제의 형태대로 금본위제에다 다시 돌아갔다. 그 후 세계공황으로 말미암아 一九三二년에 이르러 다시 본위제도를 정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화폐는 직접으로 금과 관련을 갖지 않게 되고 이른바 판리 통화제도를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판리 통화제도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그와 같은 통화제도가 있다는 것만을 소개한다.)

② 補助貨幣—제이의 금속화폐에는 보조 화폐라는 것이 있다. 즉 보조화폐라는 것은 본위화폐의 유통을 보조하는 뜻에서 출현한 화폐이다. 보조화폐는 원래 소액의 거래를 하는 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소액화폐이며 따라서 그 법화인 금액에도 제한이 있고, 또 수출과 용해할 자기 위하여 명목가치를 실질 가치보다도 훨씬 크게 하여 둔다. 따라서 자유주조도 허용되지 않는다. 통화개혁(六·十통화개혁)전의 十환차리 동전은 보조화폐의 일종이다.

二、不換紙幣

제2의 화폐종류는 불환지폐이다. 이 불환지폐에는 정부가 처음부터 불환지폐로서 발행하는 것과 태환지폐의 태환을 정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지폐는 모두 본위화폐와 같이 교환수단이다. 그러나 지폐는 국가 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불환지폐가 무제한 유통로서 강제통용력이 부여되는 소이다. 불환지폐는 보통의 국무역의 부진,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正貨가 유통하거나 혹은 전쟁 및 사변 등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자금을 필요로 하여 본위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행하는 것이며, 각국의 역사상 물가등위, 대외환의 폭락, 정화의 사장 등 여러가지의 폐해를 가져온 예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폐해는 결코 지폐자신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발행유동수량의 과다로 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 당시의 프랑스, 남북전쟁 당시의 북방정부 제1차대전 후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은 금속화폐와 같이 자연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치적으로서 이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한 재정곤란과 더불어 남발에 빠지기 쉬우며 따라서 여러가지의 해독을 가져 온다.

그러므로 불환지폐는 그 남발을 구역방지하고 동시에 그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정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정리방법에는 대개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즉 하나는 신화폐제도를 수립하여 종래의 지폐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소련 혁명정부가 채용한 것이다. 또 하나는 태환을 재개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는 一九二五년 영국이 채용한 것과 구화폐본위 또는 가계단위로 태환을 재개하는 소위 舊平價還歸方法이 있다. 이같이 하기 위하여는 중세금융을 단행하는 한편, 통화수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불환지폐는 산입제를 혼란케 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와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화폐본위 또는 가계단위를 切下시켜 그 태환의 재개를 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벨기와 프랑스 등에서 채용한 것으로 이른바 平價切下의 방법이다.

三、兌換紙幣—銀行券

태환지폐는 信用貨幣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발행자가 그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언제나 저본위화폐로 바꿔줄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그 발행자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환상으로는 불환지폐와 같으나 실질상으로는 그것과 매우 다르다. 태환지폐에는 정부발행의 것도 있으나 정부지폐는 예외이고 보통은 은행권이다. 정부지폐는 정부가 여러 종류의 지불을 하기 위하여 발행하면 그 소유자가 특히 태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조세지불 공채의 용도 등에 사용하는 이외에는 회수될 수 없다. 그러나 은행권은 은행의 보통업무인 割引貸付의 하나인 행되므로 대부금의 返了, 할인이 받의 만기와 더불어 스스로 은행에 회수되는 것이다. 또 은행권은 경제계에 있어서 자금수요—투자가 증가하면 대부할인의 요구가 감소하여 그 발행액도 감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권을 발행할 때에는 상당한 상품 또는 증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곳에는 교환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이와같이 은행권은 정부지폐에 비교하여 불행 경제계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은행권의 발행에는 상당한 통제와 제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나라의 실정을 보면 법률로써 은행권의 발행을 제한하고 우선 이것을 중앙은행이 집중하는 제도를 취하고 적당한 금리정책에 의하여 발행량을 조절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각국은 모두 제한준비 제도를 정하였다. 그것을 대별하여 보면 保證準備限法과 比例準備限法이 있다. 전자는 정화준비와 같은 액까지는 무제한으로 은행권의 발행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경제제도의 사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까지 償證書상입의 비율을 보증으로 하고 은행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제일차 제과전전의 영단은행과 같이 보증준비의 한도 이상은 전대로 은행권의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直接限法과, 一八七五년에 제정된 독일의 제도와 같이 경제제의 사정에 따라 한도 이상의 발행을 허용하는 소위 屈伸限法의 두 종류가 있다. 다음에 후자 즉 비례준비 제한법이라 하는 것은 은행권의 발행총액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의 정화준비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단 그 비율은 국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며 독일은 삼할, 부르는 이랄도 프랑스는 은행권과 당좌예금의 삼할五分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비례준비 제도와 그것에 기인하는 통화는 세계공황의 의한 제국가의 금본위 정지,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었다.

행한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탈이라도 발견준비에 관한 규정을 정지하였던 것이다. 일본도 中·日전쟁때까지 중신제한법을 채용하였으나 그 후 限外發行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 2차대전 직전에 있어서 소위 최고액제한법을 채용하였다. 그 결과 제 2차 대전이 끝날때까지 전술한바 있는 관리통화제를 취하게 되었다. 즉 금과 통화와의 필연적 관계를 정식으로 부정하는 관리통화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四, 預金貨幣

信用貨幣의 일종으로 예금화폐가 있다. 예금화폐라는 것은 지불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의 當座預金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은행에 예금한 것 혹은 대부할인의 의하여 얻은 것을 예금계정의 代替한 것이 다. 이러한 당좌예금은 그것을 처분하는 사람이 발행한 수표에 의하여 지불수단인 기능을 하지만 은행이 갖는 지불준비액 이외에는 그것에 상당한 금액이 없다. 이것은 마치 은행권이 대환준비액을 넘어서 발행유용하는 것과 같다.

五, 그레샴법칙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화폐가 교환수단 및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자, 정상적인 경제제의 한 화폐는 그것이 완전한 가치를 지니는 부위화폐이거나 혹은 그것이 마소화폐에 불과한 것이거나 또는 나물 막은 화폐이고 모두 동일한 가치로

서 통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란 등에 있어서 가치를 저장하며 器具 및 기타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용해하거나 혹은 地金으로서 수출하려는 것과 같은 화폐의 실질가치가 중요시될 때는 누누이 통용가치는 같아 하여도 실질가치가 우수한 것을 선택하여 이것에 상당하려고 한다. 그 결과 실질가치가 우수한 것은 유통계에서 자태를 감추고 일정한 것만이 유통계에 남게 된다. 이것이 '악화'는 양화를 구수한다. 이 것이 '그레샴법칙(Gresham's Law)'이다. 이것은 제 16세기에 영구 사람 토마스·그레샴(Thomas Gresham)이 비로소 주장한 것이라 하여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여기서 악화·악화라는 것은 명목가치에서 서로 같아도 실질가치가 뛰어난 단 것을 양화라 하고 낮은 것을 악화라 한다. 그리하여 악화는 양화를 구수한다기보다 오히려 양화 스스로가 그 자태를 감추어 버리는 것이다.

이와같은 그레샴법칙은 통화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나타나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레샴법칙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용어로서 통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화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그레샴법칙이 적용될 때, 그 경제제의 전진한 발전이 방해되는 것과 같이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곳에 그레샴법칙이 작용한다면 그 사회의 전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필)

웃음의 종류(種類)

- 우리는 한 말로 웃는다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웃음의 종류는 꽤나 많다. 「상문」 「빙천」 「빙천」 「결전」 「결전」 「해해」 「허허」 「아이크의 百萬兩」의 웃음,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 등은 세상이다 아는 유명한 웃음이지만 과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웃음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 ① 눈웃음, 함소(含笑) 미소(微笑) 빙그레 웃는 웃음, 살며시나 웃는 웃음.
 - ② 사랑스러운 웃음.
 - ③ 미소(媚笑), 교소(嬌笑).
 - ④ 환소(歡笑), 기쁜 웃음, 신랄한 웃음.
 - ⑤ 쾌활한 웃음, 호젓스러운 웃음.
 - ⑥ 미안스런 웃음, 부끄러운 웃음.
 - ⑦ 서글픈 웃음, 어이없는 웃음, 쓴웃음.
 - ⑧ 코웃음, 실소(失笑), 하시는 웃음, 멸시하는 웃음, 대소(罵笑) 냉소(冷笑), 가소(可笑), 조롱하는 웃음, 조소(嘲笑), 치소(嗤笑).
 - ⑨ 자조(自嘲)하는 웃음, 헛웃음, 허파에 바람은 웃음, 망소(忘笑) 추중(追中) 웃음, 작소(作笑) 강소(強笑) 억지 웃음, 침소(瞋笑).
 - ⑩ 회심(會心)의 웃음.
 - ⑪ 공소(哄笑), 대소(大笑), 가대소, 양천대소, 폭소(暴笑), 정구죽천(丁口竹天), 요절할 웃음, 떠들어대는 웃음, 너털웃음.

共産主義와 間接侵略

<共産主義 썬미나>

李 東 賢



(1)

오늘날 自由世界는 어느 때보다 환발히 전개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간접침략의 위험을 받고 있다.

세계적화의 필연성을 맹신(盲信)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二차례 제대전이후 동구의 공산화와 중국 대륙의 석권등으로 그들의 계급주의 적침략근성이 전세계에 여지없이 폭로되고 이로 말미암아 단결된 자유 세계의 반격을 받게되자 무력적 직접침략의 수단으로는 그들의 야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단계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들이 멸망하기는 커녕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본 공산주의자들은 초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에 직면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최후수단이며 장기인 간접침략에 의한 공산화라는 방향으로 그들의 적화정책을 전 환하게 되었다.

간접침략에 의한 적화공작은 오늘날에 이르러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교실에는 어디나 적의 자기네들보다 강할 때는 반드시 전략적인 후퇴를 강행함으로써 가장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불위기 속에서 내로는 군비확장에 의한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외로는 선전, 음모, 모략 등의 수단으로 적 내부의 단결을 파괴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간접침략의 수단은 적의 전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내부의 전력증강에 못지않은 비중을 갖게 된다.

더구나 「사상전」 「총력전」이라고 하는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은 한나라의 힘의 크기가 국민 전체의 정신적 사상적 무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간접침략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적대 계급들의 역량이 충분히 혼란하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총분히 파괴되었고 그들이 힘에 넘치는 상호 투쟁으로 인하여 충분히 무력하게 되었다면…… 혁명은 성숙된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정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간접침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11)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적어도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진영에 대한 간접침략에서 노리고 있는 당면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자유진영과의 대결에서 균형을 얻을 수 있는 동조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中東 및 中南美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교묘한 침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아아(亞阿)를 비롯하여 중실한 중립진영이 현대정치에서 그 비중을 더해가게 되자 이들을 유혹

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둘째는 자유진영 내부의 불화를 조장함으로써 자유진영의 힘을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자유국가 상호간에 있을 수 있는 이해와 방법론의 차이를 과장 선전하여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적대국가(敵對國家)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화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끊임없는 위기의 조성과 혼란상태의 연속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사회에서 아직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한 역사가 없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접침략의 구체적 전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정치적 조직과 선전선동
합법적으로 공산당이 활약할 수 없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곳이라도 공산당의 핵심분자는 언제나 배후에 숨어 활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은 「노동조합」이나 「사회계몽단체」 같은 것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배후조종술은 시대의 변천과 그때 그때의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공작을 그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음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유언비어들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바
- ① 여당의 실정(失政)을 최대한으로 과장하여 대정부 불신감을 극대화한다.
- ② 정부와 여당내의 분열을 부채

질하고 정당간의 상호 협조를 방해하고 국내의 통일된 질서를 파괴한다.

② 권력만능과 금권만능의 기풍을 조장하여 정부의 부패를 촉진하고, 그 기풍의 효율적 수행을 방해한다.

③ 진실한 인물의 의회진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대표(買票) 근성을 조성하며 선거자금을 조작하고 경제지후련을 일으킨다.

④ 그리하여 의회를 무렵하고 부자계관으로서만들며 국민들의게 의회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킨다.

⑤ 의회에서 군사 예산을 감축하기 위하여 병화주의자들을 성동하여 압력을 가한다. 이는 물론 수습 이하로 저파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⑥ 의회내의 공산주의자들을 투입시켜 국가기밀을 탐지한다. 이러한 진술은 주로 대상 국가의 정국이 비교적 안정되었을 때 이용되는 것으로 그들의 본격적인 조직과 진술은 이를보다 후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① 제 3세력을 등장시켜 파격한 선동 구호를 슬로건으로 한 정당을 만든다.

② 많은 공중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비난하고 불평을 확대시켜 노동자 또는 일반서민 계급의 인기를 얻으려 한다.

③ 의회내의 의원들을 포수하고 반공 정적의 수렴을 방해한다.

④ 극단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통일선선」이나 「연합선선」이

하는 응용세력까지 동조 세력을 만듦이 정부와 여당을 고립시킨다.

二. 경제적 조직과 선전선동, 경제지후련의 전개, 선전선동은 정치적인 것인 권력의 재탈환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임의 비대한층을 성취시켜야 할 것이다.

① 자본주의와 노동자간의 대립을 파장 선전하여, 계급의식과 적대관념을 조장한다.

②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등을 선동하여 고의적인 파업을 일삼게 한다.

③ 선의의 외국원조를 경제적 침략이라 선전하여 이의 효과적인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다.

④ 모조상품이나 외국상품의 밀수를 장려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을 위태롭게 하려 한다.

⑤ 자본주의 국가간의 판로 경쟁을 경제적 식민지 발달전이라 의곡 선전한다.

이러한 의곡 술책들은 모두 사회생활의 기저(基底)를 이루고 있는 경제계를 혼란케하고 이의 발전을 저지하고 민심을 동요케하고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지적 투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三. 사회의 불안에 의한 책략, 이와같은 정치적 경제적 간접침략 행위 이외의 그들은 안으로 사회심리적인 교묘한 술책으로

① 세력적 반목을 조장하여 준경파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세대간의 정신적 유대를 단절시켜 사회의 불안을 증진시킨다.

② 어느 젊은 세대의 투정으로 되고 있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이용하여 현실사회의 모순성을 파장 선전함으로써 마연하나나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후진사회에서 더욱 후심한 것으로서 급속한 근대화에서의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四. 문화적 선전 및 선동, 공산주의자들은 문화활동까지도 그들의 목표를 달성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산국가에서 파견되는 예술, 문화사절단은 단순히 예술이나 문화의 교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선 중상대국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산주의 선전을 감행한다.

그리고 적성국가 내부에 침투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감상주의적 기풍을 일으키면서 퇴색주의의 호르케하여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한 대중을 만든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五. 군사적 책동,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국가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약화하기 위한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즉

① 국민간의 지나친 열전사상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케 하고

② 패전의식을 만연시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③ 군의 고압지휘관의 비행을 단조내지 확대선전하여 상명하복(上

命下服)의 군기율을 문란케 하려 하고

④ 국민간의 유대를 파괴하여 그 결속을 와해시키려 한다. 이러한 일련의 책동은 모두 군대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오는 것이다.

(三) 이와같은 기본적 진술로 우리들 침략해 오는 공산주의자들의 간접침략은 五·一六 혁명 이후 대략 다음과 같은 몇개의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五·一六 혁명으로 그들의 이용물까지 조종물이었던 응용세력이 일소되고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국가재건과 영예를 내건하고 있는 정세에 당면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침략행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

① 유공 및 반혁명 세력을 규합하여 장차 혁명 세력에 대항할 실력을 기르며,

② 혁명정부의 무위 무능을 조작 선전함으로써 국민으로 부터 혁명 정부를 고립시킨다.

③ 혁명 지도부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혁명세력의 분열을 도모한다.

④ 군내부의 갈등을 조성하여 군의 위신을 실추시킨다.

⑤ 군정에의 협조를 방해하고 혁명 파업을 방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선전한다.

⑥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⑦ 부한 실정의 대한 허위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반공대세를 약화시킨다.

⑧ 경제계를 교란함으로써 5개년 계획 완수를 방해하고 사회적 불안 증진시킨다. 등등이다. 이상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간접침략은 우리의 허(虛)를 찌르기 위해 이 순간에도 암암하고 있다.

김치와 비타민

<生活科學>

崔 榮 福
<文敎部 編修官>



여름철이나 겨울
철 할것없이 一年
내 우리 식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즐거먹는 것은 김
치일 것이다. 그
러니 만치 김치를
잘 담고 못담고, 또 榮養價를 높히
維持시키며 오래 먹는 것은 一家庭
의 問題일 뿐 아니라 우리 社會의
큰 關心事라 할 것이다.

經濟的으로 넘쳐치 못한 사람은
하루의 活動 에네르지를 供給하기
爲하여 食欲을 돋우어 밥 한사발을
먹는데 김치가 必要하며, 經濟的으
로 넘쳐난 사람도 불고기를 먹는데
은갖 양념을 配合한 김치를 즐겨 먹
는다. 우리들이 貧富를 가리지 않
고도 老幼할것없이 즐겨먹는 것
이 김치다.

김치의 고마움은 外國에 가서 비
지리게 느낀다. 지난 겨울 美國에
觀察갔을때의 일인데, 채 보름도 못
되어, 一行이 모두 食卓에 앉을 때
마다 김치 타령이었다. 韓國에서의
食事に 비하면, 每日 肉類를 주로
하여 잘 먹는 便이 있지만 食事한氣
분이 나지 않았다. 그들의 同胞의
招待를 받을때에는 우리들의 이러
한 心情을 알아서인지 으레 김치를
맛있게 해주며, 또 우리도 그하
意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와싱턴 市內의 제니(Jenny rest-
aurant)라는 飲食店이 있는데, 안
主人이 韓國人이고, 西洋料理는 勿
論 日本料理, 韓國料理 어느 것이
나 다 갖추어져 있다기에 旅行의 심
심률이 兼, 韓國사람을 맞아 美國

生活이야기나 들자는 好奇心에 들
렸었다. 김치며 두부찌개며 注文하
는 대로 갖다주어서 모처럼 배불리
먹었는데 韓國에서는 밥에 그냥 탄
아오는 김치도 그곳에서는 相當한
價格을 支拂하였었다.

東京에서는 요즘도 그렇다고 하
지만, 지난 겨울 韓國飲食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銀座 한복판에서 韓國飲食店이 盛
況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
이 찾아와 불고기를 먹는다는 이야
기였다. 東京의 韓國飲食店은 서울
의 그것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김
치며, 국박이며, 동태국까지 제대
로 갖추어져 있었다. 韓國에서 살
다 돌아온 日本人까지도 해마다 김
장을 담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치는 이와 같이 우리 社會에
가장 普遍的이고, 이것은 國民性
이 가꾸어져서 通할 수 있으며
맛이 獨特하여 外國人들까지도 그
長點을 認定하여 맛을 잊지 않고 있
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김치로써 民
族體質을 形成해왔으며 科學的으로
榮養價値가 究明되지 않았던 時代
에도 經驗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
맞게 만들고 健康에 必要한 榮養素
를 補給해왔다. 그러나 複雜해진 現
代文明은 보다 強化된 食品을 要求
하며 또 잘살고 오래 살기 위하여
는 食品의 改良을 必要로 한다. 이
러한 見地에서 김치를 考察하고 우
리들의 食品改良에 對하여 살펴 보
고자 한다.

一, 김치란?

김치는 普通한 음식에 있으며,

무우, 배추, 오이 등을 소금에 절
인 뒤, 또는 그대로 고추, 파, 마
늘, 생강 등의 고명을 한데 버무리
서 담근 반찬이다. 그리고 담그는
菜蔬와 양념의 種類, 그時期에 따
라 열무김치, 미나리김치, 자갈치,
나물김치, 오이김치, 호박김치, 가
지김치, 토마토김치, 박김치, 보쌈
김치, 절구지, 석박지, 비늘김치,
짜두기, 통김치, 동치미, 잔치 등
여러 가지 種類가 있으며 風味라는
저 榮養價가 각기 다르다. 大體로
물에서 여름철에 담그는 통김치(옛
김치)와 越冬用으로 담그는 김장김
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
리나라에서는 副食物로서 없어서는
아니될 傳統的인 一種의 保存食品
이다.

二, 김치가 되는 過程

식성에 따라 생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치는 익어야만 제
대로 맛이 난다. 勿論 너무 익어
서 시어맛인 것은 榮養分도 消失의
어 좋지 않다.

菜蔬는 다른 植物과 마찬가지로
많은 細胞의 集合中이다. 細胞는 外
部에 細胞膜이 있고, 그 속에 原形
質이 있고 原形質의 周圍에는 原形
質膜이 있다. 細胞膜은 透過性을 가
지고 있지만, 原形質膜은 半透明하
여 물은 通過되나, 鹽類, 糖類, 其
他는 通過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
物細胞를 물에 담가도 內容物이 누
어나오지 않는다. 생강해 보면, 이
것은 生物에게는 매우 便利한 現象
이다. 萬一 죽은 細胞처럼 內容物
이 마음대로 原形質膜을 出入할 수

있다면 면발에 있는 녹차나 녹차類가 비단 한번 맛으면, 內容物이 모두 녹차나와 가을철의 收穫을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茶蔬는 뽑아 다듬은 채로는 아직 細胞가 살아있으므로 여러 가지 양념이 滲透하지 못한다. 鹽類, 有機酸, 乾燥, 加熱 等에 依하여 細胞가 죽으면, 各成分의 出入이 自由하게 되고 소금이나 其他 양념 成分이 滲透한다. 김치국물이 浸하면, 細胞內에서 물이 스며나와 細胞內의 水分이 減少된다. 그래서 細胞形質 分離라는 現象이 일어나서 細胞가 죽게 되어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한다. 따라서 各種成分이 細胞內外를 自由로 出入하여 김치저리 속 에 양념이 들어가 맛이 들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김치가 익었다 또는 김치가 맛이 들었다고 한다. 김치가 빨리 익고 늦게 익고 소금의 濃度, 그때의 溫度等에 關係한다. 細胞內外의 濃度差가 클수록 김치는 빨리 익는다.

여름에는 겨울보다 김치가 빨리 익는다. 하루 밤 사이에 넉넉히 잘 익는다. 여름에는 溫度가 높고, 또 細菌類의 繁殖이 빨라 국물 속의 酸이 速히 增加되기 때문에 植物細胞가 빨리 죽는 까닭이다.

김치가 익는 過程은 徹底하게 究明되지는 않았지만 大體로 ① 單純히 위에서 說明한 成分의 交換作用 即 茶蔬의 成分의 一部分이 浸出하고, ② 대신 양념 成分이 滲透作用에 依하여 茶蔬의 內부에 滲入하는 作用과 ③ 茶蔬內의 酵素作用 또는 微生物의 酸酵作用에 依하여 茶蔬

細胞 內外에 香氣와 맛을 이루는 成分이 생기는 作用이 있는데 우리 김치에는 이 두 作用이 모두 일어난다.

김치를 담은 初期에는 交換作用만이 일어나겠지만 며칠 지나서 동안에 乳酸菌 其他의 微生物의 作用에 依하여 分解, 合成, 酸化, 還元 等의 複雜한 化學變化가 일어난다. 그리고 植物纖維도 軟化된다.

김치로 말하면, 이때가 가장 맛있는 때이고 榮養分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다. 이때를 지나면 乳酸, 其他의 酸이 많아져, 乳酸菌 外의 다른 菌이 繁殖하게 되어 맛도 減少되고 榮養分으로서 가장 價値있는 비타민 등도 消失되기 시작한다.

김치는 겨울철과 같이 茶蔬가 不足할 때, 保存했다가 먹는 때에도 意義가 있지만 위에서 說明한 여러 가지 化學作用을 가장 榮養價値가 많은 때에 中止시켜 作用途中에 있는 植物을 利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치는 적은 分量의 소금과 양념으로 맛있게 담고, 또 榮養素를 消失함이 없이 오래 貯藏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큰 研究 課題다.

三、김치의 榮養價値

國立 化學研究所에서 몇 가지 김치類와 茶蔬를 分析한 結果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김치類 分析表 (1959年)

종류	영양소 수분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열량	무기질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 ₁	비타민 B ₂	비타민 C	나이아신
	(g)	(g)	(g)	(g)	(cal)	(g)	(mg)	(iu)	(r)	(r)	(mg)	(mg)
통김치	87.8	1.7	0.7	1.3	18	0.5	28.2	569	26.4	56.4	12.9	2.1
짜두기	86.2	2.3	0.7	2.9	27	0.7	2.9	1,075	30.2	71.1	9.4	5.3
동치미	93.9	0.6	0.2	1.0	8	0.2	1.2	0	7.8	23.0	8.2	0.9
무청김치	87.7	2.8	0.8	2.0	26	0.5	2.1	1,505	30.7	67.1	15.8	2.6

채소류의 分析表 (1960年)

종류	영양소 수분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열량	무기질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 ₁	비타민 B ₂	비타민 C	나이아신
	(g)	(g)	(g)	(g)	(cal)	(g)	(mg)	(iu)	(mg)	(mg)	(mg)	(mg)
무우(부리)	90.3	2.3	0.1	6.5	31	0.6	62	0	0.01	0.03	44	3.9
무우(청)	83.7	3.0	0.5	10.6	55	1.3	22.9	8,710	0.06	0.30	50	10.0
배추	94.9	1.3	0.2	3.4	17	0.5	70	255	0.06	0.09	28	0.4
양배추	94.3	1.5	0.6	5.1	29	0.5	18	43	0.12	0.43	27	0.2
시금치	93.7	2.6	0.7	4.9	34	1.1	36	8,320	0.12	0.38	64	0.7
마늘	60.4	3.0	0.5	32.8	145	1.3	32	0	0.33	0.53	7	0.1
고추	83.2	2.4	0.5	14.1	20	0.8	15.3	13,500	0.20	0.34	0	1.2

위의 分析表는, 材料, 品種의 差異, 產地 및 時期的인 差異, 貯藏方法 및 其他 條件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表만으로는 김치에는 칼로리가 적고 特別한 榮養分도 없

는 것 같다. 그러나 人體生理에 不可缺한 소금을 비롯하여, 消化酵素 無機質, 乳酸菌, 비타민 等의 有益한 成分을 많이 가지고 있고, 其外에 獨特한 風味로써 食欲을 增進시

키는 등의 効能이 顯著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김치가 있는데는 微生物, 關與하기 때문에 그 材料, 담그는法, 양념, 장무리法 등에 따라 榮養價가 몹시 달라진다. 우리들은 菜蔬나 양념의 榮養分을 消失함이 없이 그리고 김치의 効能을 十分 發揮할 수 있도록 研究해야겠다. 特別 最近 고추 마늘, 파, 양파 等에는 위의 榮養素 외에 우리들의 몸에 大端히 利로운 무엇인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그것을 되도록 破壞함이 없이 먹으면 乃로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金槍이라는 좋은 長무리法을 더욱 科學적으로 研究改良하여 世界에 자랑할만한 食品을 만들어야겠다.

四. 비타민과 食品改良

요즘 우리들은 美蘇의 宇宙競爭을 보고서 急速한 科學의 發達에 놀라고 있으며 列強國이 하나씩 하나씩 將來를 갖게 됨을 보고 人類의 發達은 이 두分野뿐 아니라 모든部分에서 눈부신 程度로 競爭하며 發達되고 있다.

비타민도 그 어느 科學에 못지않게 發達되고 있는 分野다.

一九二〇年 Drummord 에 依하여 Vitamin 이라고 命名된 以來 不過 四十年 동안에 多數의 비타민이 大部分 結晶狀態로 抽出되어, 構造式까지 決定되었을뿐 아니라 그 多數는 이미 合成品으로서 市場에 나와 있다. 우리들은 發病하여야 비로소 비타민을 찾지만 先進國家에

서는 本素의 榮養不足을 이것으로 補充하고 있으며, 日本만 하더라도 알이나 그 밖의 食品에 비타민을 補充하여 強化米 또는 強化食品이라고 하여 一般國民에게 勸奨하고 있다. 비타민이 健康生活에 絕對必要함은 再言을 要치 않거니와, 最近 알려진 바에 依하면 비타민類가 腦의 健全한 作用에 重大한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비타민하더라도 일찍부터 알려진 A, B, B₁, C, D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비타민 B類의 一定量이 腦의 健全한 活動에 絕對必要하다고 한다. 그리고 腦의 興奮 制止作用에 이것이 關與하는 機構까지 알려져 있다. 따라서 社會生活이 複雜해져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이것들이 더욱 必要하다고 한다. 牛乳나 버터를 잘 먹지 않는 普通 우리 家庭에서는 비타민과 無機鹽類를 大部分 菜蔬類에서 供給받고 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김치가 이것들의 供給源이다. 그런데 成人의 一日에 必要로하는 비타민 B의 量은 普通 1.2mg 정도라고 하는데, 김치만으로 이것을 供給한다면 하루에 김치 1.7kg을 必要로 한다. 鴨卵 金槍이 맛있다. 하여도 하루에 이렇게 먹지는 않으므로 다른 食品으로서 비타민을 補充할 必要가 있다. 쌀은 비타민 B類가 많이 들어 있지만 白米로 만들때 大部分이 빠져 달아난다. 그래서 七分搗米, 玄米等을 獎勵하는 것이다. 보리에도 비타민 B類가 많이 있어서 混食을 獎勵하고 있다. 또 밀은 胚芽가 内部에 있어서 外部를 搗碎하여도 内部의 비타민類는 消失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타민類를 包含한 밀가루로 빵을 구면, 特別 비타민 B類는 熱에 強함으로 充分히 비타민 B類를 갖고 있는 食事を 할 수 있는 것이다. 複雜해가는 社會環境은 不得不 食

先見之明

세조(世祖) 때에 윤필상(尹弼常)이 형방승지(刑房承旨)로 임직(入直)하였을 때의 일이다.

그날 밤은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방에 앉아 있어도 한기가 살살 에는 듯 하였다.

△날씨가 갑자기 이토록 추우니 필시 임금님께서 죄수들을 볼 보라는 분부가 계시겠다.

그 때 임금의 물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외(京外) 죄수들의 죄의 중경을 살피서 소책자에 적어 두었다.

밤이 이슬하자 과연 내관(內官)이 나와서 전하(臣)를 임금께서 부르시니 곧 입시(入侍)하라는 것이었다. 필상은 황급히 의관을 갖추어 죄수의 일용 기록한 소책자를 곁에 넣고 들어 갔다.

내관은 필상을 인도하여 침전(寢殿) 밖 마루에 이르렀다. 그러자 임금의 창안에서 말하기를

『오늘 밤은 날씨가 유달리 차가운 방에다 얼음으로도 전디기 어렵거늘 하물며 옥중에든 죄수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이 심한 추위에 후시 열어서 죽는 자가 생길 염려가 없지 않으니 민폐는 자는 수 없거나와 경외의 죄수만이라도 돌아 보아야겠

다. 경외에 지금 갇힌 죄수들의 죄의 경중과 수효를 속히 기록하여 들이

라.』

이에 필상은 즉시 대답하기를

生活의 改善를 要求하고 있다. 오랜 慣習을 그대로 답습하여 榮養失調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의 食生活을 科學적으로 究明하여 食生活을 改善할 때는 왔다.

『신은 지금 형방 일을 맡아보고 있어도 형옥에 관한 일이란 다신 의 직분이오라 항상 유념하고 있어 그 수효를 날날이 적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즉시 소매에 넣어 두었던 소책자를 꺼내 보면서 일일이 아뢰었다.

임금은 크게 놀랐다. 필상이 채 말도 마치기 전에 창을 열고 침전 안으로 필상을 불러 들었다.

필상은 황급하여 등에 밤이 호를 지었다. 그야 죄수들에 관한 것을 미리 적어 가지고 들어왔으니 임금한테서 칭찬을 받으리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으나 침전안에 들어오라는 말까지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상은 고개를 숙이고 기는 듯이 침전안으로 들어 갔다. 임금은 술잔을 주고 손수 따라 주시며 안을 향해,

『이 사람은 내 보배로운 신하(臣下)요.』

하고 말을 전한다. 보니 아주 가까운 곳에 왕우가 있었던 것이다.

필상은 그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바가 없었다. 괜찮다는 임금의 말을 뿌리치듯 하며 밖으로 나와 버렸다.

이로부터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된 필상은 판적이 나날이 올라 나중에는 영의정(領議政)까지 지냈다.

흘러간 「蒼空」의 落穂들

蒼空俱樂部回想

馬海松

<兒童文學家>



솔하에 자그마치 十六 남매를 둔 七十三세의 할아버지와 七十一세의 할머니가 이혼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一九六二, 七, 二七) 자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고 장안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다.

이혼할 이유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내린 모양이니 七十二세의 할머니는 위자로 十五만원은 받게 되겠지만 五十年을 同苦同樂해 온 歷史는 지울 수 없을 것이요 비우기 열여섯명이나 되는 아들 딸과 그들에서 난 손주들까지 치면 저지 않은 子孫들과의 因緣이 끊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를 蒼空俱樂部 열여섯명이 空軍의 깃발 아래 지낸 前後三年의 因緣을 그에 비견하는 것이 아니라 解散한 지 벌써 十年이 가지만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괴롭던 일조차 즐겁게만 回想되고 鄉愁와 같은 아련한 달가움이 떠오르는 것이다.

解散은 했지만 그 후에도 每週水요일마다 모이기를 一年以上 했었고 모이지 않고 불붙이 모든가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어찌다 만나게 되면 蒼空俱樂部로 해서 이루어졌던 情이 새로워지며 話題 또한 空軍에 미치는 수가 많은 것이다.

在家僧 절에 있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佛法을 닦는 사람을 재가승이라고 한다니 우리들은 軍에 服務하지 않고 집에 있는 空軍——在家 空軍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空軍에 榮光이 있으면 집에서 기뻐했고 만나서 祝盃를 들었고 不詳事가 생기면 우울한 時間을 보냈던 것이다. 文壇 친구들도 練習機 墜落事故라든지 不時着事故같은 일이 報道된 경우면 의례한마디의 인사를 우리들에게 주었고 그러면 또 罪나 지은 것같이 민망해 하며 의적이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도록 길어진 因緣의 실마리는 一·四後退 大邱에서였다.

當時 總參謀長 金貞烈將軍, 補佐官 金昌圭將軍의 創案이었는데 政訓監 金基完當時中領이었던가의 企業을 두분이 맡아 들었음이 있는지는 소상치 않으나 三月九日 政訓監의 案內로 總參謀長室에 들어섰을 때는 두 金將軍이 크게 歡迎하며 從軍文人團의 必要性을 力說해 주었던 것이다.

더우기 總參謀長은 『從軍文人團이란 딱딱한 이름보다 좀더 부드럽고 親近感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말까지 해서 『蒼空俱樂部』라는 이름을 짜내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날 六月九일이 空軍從軍文人團 蒼空俱樂部 發足の 날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金基完 政訓監의 極盡한 好意와 斡旋으로 團員十六名한 걸 같이 兄弟와 같은 友誼를 持續하며 空軍과 더불어 呼吸을 같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 本團의 足跡

三月九日에 結成된 空軍從軍文人

人團(蒼空俱樂部)은 一般民衆의 航空思想을 鼓舞振作하고 潤滑하기 위함은 軍將兵의 精神生活를 涵養하는 데 活動을 展開하여 온 바 있기나와 아직도 우리 空軍發展을 위해 우리들의 일이 許多하므로 本團의 性格을 昭明히 하는 同時에 以下 結成 二年有餘의 活動을 概略 소개하는 것이다.

一、設立 趣旨
 · 從軍 殆無狀態인 航空思想 普及와 아울러 軍民融和를 文學를 通하여 遂行한다는 趣旨아래서 詩人、小說家、文筆人 等이 이를 構成하였다.

二、活動狀況
 · 結成以來 從軍을 通하여 얻은 資料로써 詩、小說、歌詞、從軍記 및 新聞雜誌에의 記事提供、翻譯紹介、演劇、講演會、作品、朗讀會等으로 傳單、標語 等이고 軍、民에 對한 文藝作品 募集等의 方法으로 軍內部的로는 士氣昂揚、情緒 涵養을 圖謀하고 對外로는 航空思想을 廣範하게 普及시키고 있다.

三、名稱과 團員
 · 正式名稱은 空軍 從軍文人團이라 對內外 通常名稱으로는 「蒼空俱樂部」라 呼稱하고 있으며 現在 十六名으로 構成되고 있다.

- 團長 馬海松
 副團長 金東星
 團員 崔仁旭 趙芝薰 李相魯
 方基煥 柳周鉉 崔眞熙
 朴木月 黃順元 李漢稷
 郭夏信 金潤成 田淑禱
 朴薰山

- 四、活動概要
 1、航空思想 普及 演劇大會 「날개春香傳」(崔仁旭作) 於大邱文化劇場 (一九五二·六·六·三日間)
 2、航空機獻納運動展開(企圖)(自一

九五一·七·一五 至一九五一·八·三一)

3、操縱士對文人合席座談會 於汝矣島(一九五一·五·二九)趙芝薰、崔仁旭
 於 江陵基地(一九五二·五·一七)馬海松
 於 大邱(一九五二·五·二七)馬海松外

4、文化人時局講演大會 於大邱文化劇場(一九五一·一一·一五) 演士馬海松 趙芝薰
 5、作品朗讀會(三回) 於大邱常綠茶房(一九五一·一二·九、一九五二·二·二〇)

6、航空思想 鼓吹에 관한 作文、그림 등懸賞募集、應募作品 九八五點(一九五一·八)
 7、建軍記念藝術祭 贊助出演(於大邱自由劇場 一九五二·一·一五、三日間)
 劇出演에 崔眞熙、崔仁旭、郭夏信、柳周鉉、田淑禱、李相魯、朴薰山、方基煥

詩朗讀에 朴木月、李相魯、李漢稷、朴斗鎮、趙芝薰
 空軍講演 馬海松
 8、三·一節記念藝術祭(於釜山劇場 一九五二·三·一、二日間) 出演者前同

9、機關誌 「蒼空」發行
 10、空軍機關誌 「空軍旬報」編輯(後에 5월 15日 改題) 擔當 李相魯、方基煥
 11、國防部 機關誌 「國防」編輯 郭夏信、朴斗鎮、柳周鉉

五、團員의 基地從軍
 1、汝矣島基地 趙芝薰、崔仁旭(一九五一·五·二九)

2、釜山經由濟州基地 馬海松、趙芝薰、崔仁旭、李漢稷(一九五一·五·二九)

3、泗川基地 朴斗鎮、柳周鉉(一九五一·八)
 4、江陵基地 馬海松(一九五二·五·五)
 5、鎮海泗川基地 柳周鉉(一九五二·五)

6、航空機獻納講演演次 釜山出張途中 交通事故로 馬海松、金基完 負傷(一九五一·八·七)
 7、泗川基地 李相魯(一九五二·一〇·一)
 8、大田基地 馬海松(一九五二·一〇·一七)
 9、江陵基地 崔仁旭(一九五三·三·六)

六、報道宣傳
 1、航空思想強調(新聞社誌)總八回
 2、航空思想強調(新聞記事)總五千回
 3、空軍從軍記(新聞·雜誌)總二千回
 4、外國記事翻譯(雜誌)總六回
 七、航空에 關聯性을 둔 作品活動
 1、小說 二篇(新聞發表 八、雜誌 二、詩 二、三篇(新聞發表 二、雜誌 二))

3、歌詞 九篇(空軍에 提供)
 4、戲曲一篇 「날개春香傳」 大邱、大田等地에서 公演)
 5、隨筆 二篇(新聞 八、雜誌 四)
 6、航空人人物紹介 六篇
 7、航空空軍人追悼記 五篇
 8、航空에 對하여 發行 一篇
 9、航空思想強調標語 六種
 10、航空思想強調傳單 二種
 11、陸軍從軍作家團主催 「文學의 밤」에 贊助出演(全員)하였음.

以上은 一九五三年 三月 二十一 大邱 國立劇場에서 行려던 「蒼空文學의 밤」 푸로 그 려에 실려있는 것을轉載한 것이다. 實로 豪華한 푸로그램에는 그 밤에 朗讀한 詩作品이 全文 그대로 실려 있고 團員 十六名의 사진과 略歷까지 있었다.

活動의 片貌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해 가을 還都를 앞두고는 情은 大邱와 大邱의 人士들에게 惜別의 座席을 마련했었으니 그 講談은 아래와 같다.

삼가 아뢰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귀하신 몸 안녕하십니까 비읍니다. 우리들 空軍 從軍文人團(蒼空俱樂部)은 近三年 동안 大邱를 本據地로 하여 各界人士의 多大한 援助와 鞭撻을 힘입어 왔지만 이제 還都의 날을 앞에 두음에 새삼 惜別의 情을 禁치 못하옵니다. 일일이 나아가 되옵지 못함이恨스럽기에 오는 十七日은 貴下를 모시고一夕의 歡談을 함께 즐기고자 하오니 多忙하신 中이라도 枉臨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日時 八月十七日 下午六時→九時
 (隨時)
 場所 空軍將校集會所(鳳山洞)
 簡單한 酒肴의 準備가 있습니다.
 禮紀 四二八六年八月 日
 蒼空俱樂部
 (十六名 連名)

陸軍의 李鍾贊將軍도 參席한 麥酒와 마실리의 파아리는 호호하고도 깨끗한 座席이었다.
 이만큼 깨끗이 戰塵을 씻고 還都했으니 歲月이 그리워듯이 우리들의 所

任도 끝나지는 않았고 더우기 作品生活에 있어서는 그 후에 오히려 불만 한 것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一九五三年十月二十八日には 서울 市公館에서 다시 한번 「蒼空文學의 밤이 있었으니 軍의 要請으로 戰鬪操縱士들을 市民으로 하여금 歡迎하게 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趙芝薰, 崔仁旭 司會로 全團員의 作品이 朗讀되었다.

그 후에도 團員은 서로 連絡을 갖기 위해서 每週 水요일 저녁에 모이기를 즐겼고 一九五五年 四月一日에는 갑자기 召集이 있었으니 「蒼空俱樂部」에게 새삼스레 表彰狀을 授與한다는 것이었다.

南山洞 分室에서 張德昌次長(당시)으로부터 授與 받았다.

이것으로 空軍 從軍 文人團 蒼空俱樂部는 有終의 美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事實은 해마다 五月五日 「어린이 날」에 蒼空俱樂部의 足蹟에는 記錄되어 있지 않은 이事實은 자칫하면 잊어버리기까지 할 뻔했던 우리나라의 자랑인 「어린이 날」을 잊지 않게 했고 지켜내려 오는데 단 하나의 큰 힘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一九五六年 五月五日 第三十一回 어린이 날에는 徐王壽政訓監의 盡力으로 大邱, 釜山 等地에 비를 뿌려주었다.

一九五五年에는 李鍾勝政訓監이 더욱 大膽한 計畫을 實踐해 주었다.

五月五日 어린이 날에 飛行機로 비를

를 뿌려는데 비가 賞타가 問題(航空機기를 알아 맞추기)를 내걸어 알아맞춘 어린이를 飛行機에 태워준다는 것이었다.

五月二十五日 汝矣島는 알아맞추고 뽑힌 男女 어린이들과 그 父兄들과 國民學校長, 先生들로부터 勸을 이루었고 어린이의 三十五名을 數次에 걸쳐 비행기에 태워 주었던 것이다.

張德昌少將(당시)이 施實하고 金信准將(당시)은 손수 操縱하여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一九五七年 「어린이 날」은 第三十五回 어린이 날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어린이 「憲章」이 公佈되는 날이었다.

李鍾勝政訓監은 李鍾煥印刷所長과 協力해서 「어린이 날」 全文을 製作用 約束해 주었고 金信將軍, 張盛煥將軍은 서울, 大邱, 釜山에 飛行機를 움직일 것을 承諾해 주었다.

五月五日이 마침 日曜日이기 때문이었다.

五月五日 付夕刊(四日 저녁 發賣)에 비로소 四部長官 名義로 公佈된 「어린이 날」 全文을 印刷한 비를 空軍機는 五月五日 이른 아침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서 全國에 뿌려 주었던 것이다.

地方 新聞은 空軍 비를 비로소 「어린이의 憲章」 全文을 알게 된 곳도 있었다고 했다.

모든 報에는 空軍의 標識와 더불어 蒼空俱樂部 結成當時 朴斗鎮詩人의 考案으로 되어 空軍本部의 承認을 받은 團의 標識 마아크가 언제나 뚜렷이 印刷되어 있었다.

一九五三年 어린이 날에 大韓空軍의 標識와 蒼空俱樂部의 마아크가 뚜렷한 어린이 날 報를 읽고 반긴 어린이가 國民學校 學生이었다면 오늘 一九六二年에는 벌써 大學生이 되어 있을 것이요. 혹은 卒業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行사가 그 후 해마다 있으니 國家社會에의 끼침도 적지 않았으리라

◇시간은 금이다

피뢰침을 발명한 과학자로서 또 외교관으로서 유명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쇄소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신사 한 사람이 상점에 들어와 책 한 권을 골라 들더니 「이것은 얼마지요?」 「팔라입니다.」 「얼마 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一팔라 二십五센트로 하지요.」 「뭐라구요? 그런 농담은 말고 정말 얼마에 팔겠습니까?」 「그럼 一팔라 五십센트에 드리지요.」 「이 친구 사람을 놀릴 작정이야 시간마다 비자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회동도 작작하게!」 「그신사는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돈

니와 다음 世代가 空軍에 느끼는 情感도 만만치 않은 것이 있으리라 믿는다.

團員 十六名이 空軍從軍 文人이 되었다면 것은 極히 우연한 일이었으나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回想은 즐겁기만 하고 空軍에 대한 情은 깊어만 가는 것 같다.

◇推理小說과 解雇

에드거. 월레스는 유명한 추리 소설의 작가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호소하였다. 「월레스씨, 나는 얼마 전에 당신의 최근 소설을 읽었습니다. 어찌도 재미있는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달 나는 사무실에 나가 있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덕분에 나는 해고된 것입니다. 이 리니까 어쩌면 나는 좋겠습니까?」 「그진 참 안된 것입니다. 아! 참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것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해고된 것조차 잊고 말 것입니다.」

戰來將 人工衛星

池大高 領軍空



人間衛星에 對한 意見은 千구하다. 或者는 이것을 人間의 科學技術이 偉大한 成功으로 보고 人間의 宇宙旅行에 無限의 可能性이 열렸다고 보며 또 或者는 「스프트니크」에 뒤따른 소聯科學의 큰 勝利로서 美·소의 「스페이스·랩」 심지어는 「미사일·랩」이 더욱 버려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各樣의 意見中에서도 한 가지 意見만은 一致되고 있으며 그것은 原子力의 解放에서부터 人工衛星, 人間衛星에 對한 進歩가 戰爭에 直結되는 일이 없기를……하는 願望일 것이다.

그러나 人間衛星的 成功을 둘러싼 소聯의 움직임은 이 願望에 조금도 反應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最少 限 冷戰의 有力한 武器로서 利用한 意圖가 充分히 느껴진다. 「가가린」少領을 환영하는 「모스크바」의 祝賀會에서 「푸르시초프」는 이제 「소聯」의 軍事力은 世界最強이다. 라고 壯談하고 있으며 또한 「보스트르크」三·四號의 成功을 背景으로 「푸르시초프」는 九月中旬에 있을 第七次 「유엔」總會에 나타나 어떠한 政治「싸커스」를 부릴지 모를 일

이다. 그러나 最近의 重量이나 正確度로서 本 人工衛星的 急進의 發達은 그러한 冷戰의 武器로서 의 役割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直接的인 攻擊武器로서 登場될 可能性이 充分히 커졌다는 點을 우리들은 銘心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一九六〇年代初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攻擊武器는 有人爆擊機에서부터 ICBM으로 變했다. ICBM은 數千Fe 떨어져 있는 目標物에 對해서 正確하고 強力한 破壞力을 發揮할 수 있는 性能을 가진 무서운 攻擊武器이다. 이것을 誘導하고 擊破하는 데는 最大三〇分 以上의 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 ICBM은 여러가지의 外氣圈 및 再突入 誘引裝置를 갖고 있어 그 彈頭는 比較的 破壞하기 어려운 目標가 되고 있다.

現在로서는 ICBM이 가장 強力한 武器이며 이를 効果의 防禦하는 問題가 實로 時急한 果題이 기는 하지만 앞으로 一〇年 동안 이 ICBM만이 唯一의 強力한 武器體制는 아닐 것이다.

廣範한 衛星計劃에 依한 것 같은 人工衛星 自體에 水爆彈頭를 裝備하고 이러한 時期에 目標地點을 向하여 衛星自體가 降下 攻擊할 수 있는 攻擊用衛星이 는가 或은 再突入武器(一種의 空對地 미사일 같은 것)로 裝備된 宇宙對地 基地衛星이 誕生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點에서 큰 誤着없이 着陸한 最近의 有人衛星的 例를 보드라도 이러한 宇宙基地衛星에서 發射되는 再突入武器를 目標物에 正確하게 命中시킨다는 것은 實際로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今日까지의 測定結果에 依하면 人工衛星的 軌道는 正確하며 人工衛星을 起點으로 함으로서 命中率이 낮아질 理由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나머지 問題는 再突入武器의 技術이다. 그 正確度를 左右할 뿐이다. 假令 宇宙에서 一基地衛星의 높이가 一〇〇Km 이하로 하고 「미사일」의 正確度를 全射程의 千分の一이라고 본다면 噴射終了까지 正確한 誘導을 함으로써 미사일의 誤差를 全射程의 千分の一以內로 充分히 維持할 수 있다. (二〇〇Km의 千分の一은 二〇〇m가 된다. 即, ICBM이나 IRBM은 地上에서 發射하여 地上目標에 命中시킴으로 全射程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 射程의 千分の一이라는 것은 射程이 五,〇〇〇Km에 비하면 五,〇〇m가 된다. 二〇〇m에 비하면 一〇〇배 以上이나 命中精度가 나쁘다. 五Km範圍의 誤差란 작은 目標物은 ICBM의 目標로서 不適當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二〇〇m로 그 誤차가 줄어 진다. 攻擊目標는 大幅 增加할 수 있다.

空間 二〇〇Km의 높이에서부터 攻擊이 可能하다는 것을 即 基地를 目標에 對해서 二〇〇Km의 距離까지 가깝게 前進시켰다는 것 과 같은 結果가 된다. 攻擊用武器가 存在하는 場所와 그 目標가 될 수 있는 地點과의 距離는 戰略·戰法上의 큰 要素가 된다. 여기에 基地問題等이 생기는 原因이 있는 것이 미 人工衛星이 地球上

의 如何한地點의 上空에도 通過할 수 있다는 것을 戰略·戰法上 매우 큰 意義를 갖는다.

再突入武器를 目標地點에 降下시키기 爲하여서는 그 速度(宇宙基地衛星의 速度와 相同)를 減速시키면 됨으로 一段미사일의 尾翼이다. 原爆材料 10kg, 「탐바」의 무게 6kg, 外殼其他의 무게를 14kg라고 보고 空氣層에서의 加熱을 防止하기 爲하여 50kg의 重量이 必要하다고 하던 彈頭는 모두 80kg가 되며 一段로켓틀을 포함한 再突入武器의 總重量은 約 四噸이 된 것이다. 即現在의 「노미날」原爆程度의 彈頭를 가진 再突入武器는 무게 約 四噸이 된다는 것이다. 소聯이 一九六一年 二月四日에 發射한 「이스포린」衛星의 重量이 約 六·五톤이 었으며 또 美國이 앞

一 一九六四年까지 完成豫定인 C-11型 「세탄」로켓트가 무게 二〇·二五톤의 衛星을 軌道에 進入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무게 約 四噸의 再突入武器와 이를 發射하기 爲한 電子裝置를 실은 宇宙미사일基地衛星을 軌道에 올린다는 것은 큰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宇宙방비方法에 依해서 數次에 걸쳐 發射된 이후 再突入武器와 電子發射裝置를 宇宙에서 組立한 巨大한 宇宙미사일基地가 誕生할 수 있으며 이는 六二年 八月一日과 二二日에 連續發射된 「보스토크」三·四號의 宇宙방비 부와 美國의 宇宙給油方法에 依하여 月世界를 征服한 「세탄」計劃 등이 더욱이 可能性을 確證해 주고 있다.

原子科學者들은 最近의 核融合反應의 技術進歩에 따라 가장 작은 水爆의 크기가 現在の 「노미날」原爆程度로 된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이것은 水爆의 威力가 「노미날」原爆의 一〇〇배라고 하면 原爆으로서의 그 威力가 半徑은 「노미날」原爆의 四·五배가 된다. 「노미날」原爆의 爆壓孔의 半徑이 一五〇m임으로 이 水爆의 爆壓孔의 半徑은 約 七〇〇m가 되며 七〇〇m의 爆壓孔이 된다는 것은 二〇〇m의 命中精度를 가진 再突入武器는 九〇%의 破壞率을 갖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註: 「노미날」原爆 爆壓效果: 六五% 空中爆發: 六〇〇m 高空에 半徑 450m 內가 最少 2kg/m² 以上(人間이 耐할 수 있는 限界壓力)

地上爆發: 一七m 上空에 爆發孔의 半徑은 一五〇m 이며 이 範圍內에 있는 모든 것은 破壞공크리트(包含) 熱效果: 三〇% 放射線: 一五%

宇宙미사일基地衛星은 또한 軍事目標을 地上에서부터 宇宙空間으로 轉開시킨다는 意味에서도 그 價値는 매우 큰 것이다. 앞으로 對敵狀況에 있어서의 最大의 危險은 敵의 軍事力과 武器이다. 美空軍少將 아서 C 에어간三世는 말하기를 「第二次大戰 때와는 事情이 달라졌다. 그때에는 戰爭技術의 狀態로 보아 敵의 生産 및 補給의 根源을 粉碎하는 戰略을 쓰게끔 되어 있었다. 그 당시의 高性能爆彈이라도 破壞力이 制限되어 있어서 軍事力을 大規模의 으로 即時에 破壞하기에는 不充分하였다. 그때 可能했던 일

은 戰鬪에 關하여 있는 敵으로 하여금 戰鬪遂行上 必要한 軍需支援를 못 하게끔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原子彈이 出現하여 軍事力을 大規模의 으로 破壞할 수 있는 手段이 講究되자 戰鬪部隊에 戰爭物資를 補給하고 그 物資를 生産하는 過程이란 核戰爭 勃發初期부터의 攻擊目標로는 意味가 없게 되었다. 侵略者에게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그의 軍事力이다. 따라서 敵이 무리를 侵略할 경우 우리가 破壞하고無力化 시키야 할 것은 그의 軍事力과 武器이다. 라고 하고 있다. 即 敵의 第一次의 攻擊目標을 地上에서부터 宇宙空間으로 移動시킨다는 것은 攻擊을 받았을 때 地上의 被害를 減少시키기 爲한 效果의 인 한 가지 方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은 宇宙基地는 또한 가장 擊破하기 어려운 目標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固定된 如何한 基地라도 超高速으로 움직이는 이 宇宙基地에 比較하면 確實히 攻擊하기 쉬운 目標임에 틀림없다. 소聯의 「보스토크」三·四號의 宇宙방비부가 美國의 「스파이」衛星 「마이하저」가 스스로를 擊墜하기 爲한 한가지 手段으로서 試驗된 것이라고 假定한다면 그 는 또한 앞으로 誕生할 宇宙미사일基地衛星攻擊을 前提로 한 試驗이 었을 可能性을 充分히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宇宙「방비부」에 있어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두 衛星의 軌道의 赤道에 對한 傾斜角이 同一해야 하며 또한 그 軌道는 位相差가 없는 같은 軌道라야 한다는 것이며 各各 相違한 地點에서 發射된 두 衛星의 「방비부」란

技術의 으로 매우 힘든 것이다. 萬若

이러한 「방비부」를 解決했다고 하더라도 相對方衛星의 基地로서의 能力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距離까지 接近시키기 爲하여서는 攻擊用衛星은 約 一m日 以內까지 다가야 하며 둘 사이의 速度差가 每秒 一m日 以內라는 條件에 이르러야 成功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며 무거운 彈頭를 防止하기 爲하여 宇宙基地는 豫備로켓틀을 準備하고 있을 것이며 萬若 擊墜用 衛星이 接近하는 것을 探知하면 이 豫備로켓틀을 噴射시켜 그 軌道를 바꿈으로써 墜擊用 衛星을 避할 수 있을 것이다.

我方에 큰 위협을 주는 敵의 基地를 宇宙空間에 남겨둔 채로 相對方의 地上目標을 攻擊한다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이다.

宇宙미사일基地衛星은 目標을 正確히 攻擊할 수 있게끔 目標·基地間의 距離를 短縮시켜 줄 뿐만 아니라 相對方으로 하여금 基地攻擊을 困難케 하고 나아가서는 地上의 被害를 最少限으로 해 줄 것이다.

앞으로 攻擊基地는 漸次 宇宙空間으로 옮겨질 것이며 移動된 宇宙미사일基地는 開戰初의 第一次의 軍事目標로서 그 擊破方法이 時急한 課題로 擡頭됨과 同時에 한 번 이러한 宇宙基地 攻擊用衛星으로 부터의 基地保護問題도 併行講究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戰場은 地上에서 宇宙로 옮겨지고 이러한 宇宙基地의 決定的인 全面戰爭은 생략할 수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끝)

X X X

의 獨 東 와 共 産 黨

機 危 糧 食

中共의 重大한 食糧危機를 背景으로 하여 「푸르시호프」는 國民의 理解를 바라면서도 그 深刻한 不滿을 覺悟하고 食肉 「파타아」等 高級食糧의 大幅價格引上의 窮地에 빠진 것을 軸心으로 하여 共産圈全體의 農業困難은 最近 國際的 脚光을 받는다.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의 移行期 即 共産主義政權 治下에 있어서 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의 決定的 要因이 農業인 것 같이 社會主義 建設期의 「아카데미」健도 農業이다. 農業은 共産圈國民에의 食糧供給源일뿐 아니라 輕工業生産에의 原料供給源이며 化工業部門의 發展이 뒤떨어진 共産圈에서 農業의 不振은 決定的 打撃이 아닐 수 없다.

共産圈全體의 食糧事情 惡化는 必



▲「소스타린」 「울부리히트」와 「코블카」

然의 經濟工業消費財의 生産과 消費의 不振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 實例를 「체코」의 實態에서 보기로 한다.

△「체코」의 그림자△

「체코」政權에서 高九士「피이트」重量 一萬八千톤의 巨大한 「스타아린」像을 撤去할 것을 昨年十月 蘇聯共産黨第二十二次大會에서 決定했지만 이 決定이 있은지 七個月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야 嚴然한 恣態로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코」國民의 退嬰의이며 無事主義 回避主義와 通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체코」國民이 진하자면 一九五三年 五月一日부터 六일까지 다른 共産圈國家보다 먼저 「反」스타린主義 暴動을 일으킨 歷史가 있다.

또 今年 五月一日 「푸라그」大學生들은 「메이메이」의 「파레이드」를 利用해서 「노보트루이」現政府에 反對하는 「레모」를 敢行하기도 했다.

이것은 波蘭을 除外한 東歐蘇聯衛

星國의 最初의 反政權示威運動이었다. 그뿐 아니라 今年에 들어서서는 數年以來 「체코」에서 처음으로 食糧의 行列購買가 各都市에서 보게된 實相이다.

이것은 마치 街頭의 政治討論會같은 것으로 現政權에 對한 批判聲이 높아지고 五月末에는 最少限 三個都市에서 食糧購買行列이 小規模의 食糧暴動으로 轉化했다고 한다. 「노보트루이」政權의 保安警察은 「체코」의 騷動을 假借없이 彈壓한 것이나 食糧行列購買에 있어서의 政

權批判의 「世論」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彈壓한다면 暴動을 誘發할 危險性이 있다는 것이다.

「체코」에서는 아직 重大하지는 않지만 徐徐히 波動이 높아져 國民間에 「스타린」主義政權에 對해 不滿과 動搖가 擴大되고 있다. 이 政治的 不穩狀態가 爆發되어 「체코」와 蘇聯의 戰車에 依한 流血의 鎮壓을 必要로 하는 事態로 高調될 것인가는 豫測不許狀態이다. 그러나 파도 소리가 驟然한 空氣를 조성하고 있다는 事實만은 疑問한 것이 아니다.

△겨우 1%의 農業成長率△

「체코」의 食糧不足은 高級食糧 中에도 食肉의 不足이 莫甚하다. 一九六一年의 農業生産計劃成長率은 七%였으나 政府公表의 總計數字(「푸우메우·라우오」紙 二月二日字)에 依하면 實績은 一%였다. 이것은 六〇年을 下廻하는 것이며 戰前水準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評價되고 있다.

이 原因은 一九六〇年以來 農業의 共營化에 最後의 「드라이브」를 進시켰다고 본다. 「체코」의 耕作面積으로는 農業共營化率은 一九四八年 六·三% 五五年 四·二% 五八年 七·五% 五九年 八四·四% 一九六一年 九〇·四% 인데 農業成長率이 一%였다는 對해 「노보트루이」政權은 冬界가 異常하게 길었다고 解明하고 있다. 그러나 共營化의 推進으로 飼料作物增産과 家畜增産의 刺戟이 減退했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으며 이것은 「체코」政權도 十分是認하고 있다.

△남중에도 長蛇陣▽

「체코」에서 豚肉의 不足은 深刻하
며 牛肉도 不足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것도 「체코」의 名物 長蛇陣으로
行列은 발흥부터 始作되는 것이 普通
이다. 이것을 解決할 方途는 체코의
現政權으로서는 不可能으로 보고 있
다.

今年 第一·四半期 農業生産에 對
한 公式報告에 依하면 屠殺用家畜 牛
乳 鷄卵의 政府調達は 計劃을 大幅
下廻시키고 있다.

「체코」는 東獨과 같이 食糧生産의
絶對量으로서는 國民消費需要를 充足
시킬 수 없다. 今年에 들어서 特히 高
級食糧의 供給不足은 他食糧不足과 連
鎖反應을 일으키고 있다. 端的으로 말
하자면 共產圈全體의 食糧危機는 東
獨과 나란히 深刻化하여 「체코」의 食
糧難은 西方諸國과 共產圈諸國에 依
存하고 있으나 東歐羅巴農業諸國의 食
糧輸出 能力은 顯著히 低下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체코」의 食糧輸入은 目
標量이 激増되고 있으며 貿易赤字로
外資는 不足하여 前途가 暗澹하다는
것이다. 이 위에 青年男女의 離農傾向
이 漸増하여 「뉴욕 타임즈」六月八
日字報道에 依하면 「체코」의 農民平
均年令이 一九五五年에 四十歲 였는
데 現在는 五十歲이고 「스르바키아」
는 五十五歲이다. 「체코」의 五名의 農
夫中 三名은 四十五歲以上이라고 한
다.

또 하나의 理由는 農業生産이 重勞
動인 反面報酬가 적은 때문에 離農者
가 續出하여 「체코」政府에서는 學生
의 強制農業動員으로 二十萬名을 農

村에 放出시켰다고 한다. (푸라아
그) 六月十七日字)

이 밖에 鐵鋼生産도 低落되고 있으
며 機械輸出도 貿易의 約半을 차지하
고 있던 것이 激減狀態이라 한다.

反面 軍事費는 六一年以來 急速히
増大의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은 「伯
林危機」等に 刺戟된 것으로 보인다.

△홀름리는 小스르리 政權▽

東獨社會主義統一(共產)黨機關紙
「노이에스 도이취란트」六月十三
日獨逸人으로서 多를 보는 率直한 報
道로 「홀름리히트」政權이 東獨의 食
糧不足을 告白하고 있다.

東獨政權이 從來部分的 食糧割當配
給에 있어 全面割當配給으로 轉換하
고 切迫한 實情이라는 것에 대해 「홀
름리히트」機關紙도 이것을 是認하여
「今年五月以來 食肉 牛乳 酪農
品 「소세지」 鷄卵의 供給不足,
一、支拂을 爲한 輸出物資不足으로
食糧輸入再開不能

一、農民은 家畜増産에 힘쓸것
一、一般市民도 菜園을 만들고 家
畜을 飼育하여 食糧難克服에 協力하
라 呼訴하고 있다.

△五三年 以來 最惡의 危機▽

英國의 「월트 투데이」誌가 一九六
一年度의 東獨 農業生産은 五三年以
來 最惡의 記錄을 示顯했다고 指摘했
는데 이것은 決코 誇張이 아니다.

「홀름리히트」政權도 最近農業生産
에 관한 數字는 勿論 거의 모든 情報
를 간추리고 있다.

그러나 홀름리나 斷片的 報道는 詳
다. 三月九일부터 十一일까지의 마구
메블그의 第九回 農民大會報告에 依

採食主義者 버나드 쇼

버나드 쇼는 一八八一年부터 단연코 肉食주의자였다. 「그렇게 고기
를 안 먹으면 그 원인으로 말리 죽게 될 것일세.
그의 친구들이 충고하자 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좋거. 죽으면 관 뒤 행렬에 내가 잠아 먹지 않은 동물들을 전
부 참가시키지. 사람들이 따라서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일세.」

하면 六一年의 東獨穀物 및 蔬菜의 生
産은 六〇年의 一五% 下廻를 示顯
하고 있으며 播種面積도 減少되었다.
甘藷는 六〇年 千四百八十二톤인데 六
一年은 四萬톤에도 未及이라고 보고
있다. 穀物도 六百萬톤 生産으로 總
生産量은 二百萬톤이 不足으로 東獨
의 穀物不足은 六一年에 倍増했으니
이것은 重大한 危機라 아니할 수 없
다. (「노이에스 도이취란트」紙 四月
一日字) 또한 飼料農物生産도 低下되
어 家畜의 早期屠殺이 盛行되고 있으
니 東獨의 危機는 「체코」의 類가 아
니라고 보는 것이 正當하다.

△飢饉과 怠業續出▽
東獨의 食糧危機는 지금 始作된 事
實이 아니다. 이것은 五九年부터 「홀
름리히트」政權이 農業共營化의 強行
에 依하여 農民이 土地를 拋棄하고 都
會로 流出하거나 樂園으로 보이는 西
獨으로 脫出하기 때문에 農業生産勞
動力이 激減된 것과 農業生産協組의
生産性이 低下된 것이다.

參考로 한다면 東獨의 全國農地中
에서 農業生産協組가 占하는 比重은
一九五二年에 三·三% 五五年에 一
九·七% 五七年 二五·二% 五八年
三七·〇% 五九年 四五·一% 六〇

年 八四·一%이며 協同組合과 國營
農場의 兩者를 合한 農地全體에 있어
서 社會主義化의 比重은 一九五〇
年 六·〇% 五九年 四八·一% 六〇
年 九二·〇%로 東獨에 있어서 農業
生産協組의 第三型(最高度)로 共產化
된 것의 數는 六千三百五十八個 處로
「홀름리히트」第一書記는 第七回 農民
大會에서의 演說에 以上の 것에서 採
算이 맞지 않는 것이 半數以上을 占
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으며 赤字의
共同經營에 對한 政府의 助成金을 削
減하겠다고 威脅하여 増産을 命令했
지만 農民의 共營化에 對한 反感은 怠
業으로 抵抗하고 있다.

東獨에 있어서 青年의 離農傾向은
顯著하여 一九五五年度 農林業 및 漁
業者總數 百七十四萬名이 五九年에
는 百四十五萬 六〇年에는 百三十六
萬이었는데 그以後는 數字發表조차
하지 못하는 實情이며 西獨誌에 依하
면 東獨 農業生産協組의 農民의 年令
은 四十歲以上이 五六·七五% 五十歲
에서 六十歲까지가 四〇·七%線이라 한다

△工業生産과 借款▽
以上の 農業生産과 비슷하게 工業
生産도 低下一路이니 一九五九年 一
三% 六〇年 八% 六一年 六%(計劃
目標 七%) 이렇게 總計數字가 提示
하고 있다.

以上의 農業生産과 工業
生産도 低下一路이니 一九五九年 一
三% 六〇年 八% 六一年 六%(計劃
目標 七%) 이렇게 總計數字가 提示
하고 있다.

共同的 祭典이 없어지자— 대신 端午節이 登場하여 古代의 祭名과 遺俗이 여기에 합쳐진 것 같다. 「수릿」은 흔히 漢字로 車衣(수리) 혹은 戌衣(수리)라고 書稱하나 이는 모두 「수리」의 音訓譯에 不過함으로 (漢字自體는) 邦語의 原義와는 아무런 相關이 없는 것이다. 「수리」란 말은 우리 古語에 上·高·山·神등을 意味하는 말로 그 語源을 캐어보면 「矣」 모두 「소슬」에서 派生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十月을 「上달」 혹은 「上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수릿달」의 義譯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그러면 五月祭日(端午)을 「수릿날」이라고 하면서 十月祭日만은 왜 하필 「上달」이라고 하였는가의 의심이 생긴다. 이것은 결국 兩者名稱의 混同을 避하기 위한 방편에 不過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要 今대 여기의 「수리」는 天神·上神(高登神)의 뜻으로 그를 맞이하여 祭典을 거행하는 것임으로 해서 「수릿날」(神日), 「上(수릿)달」(神月)이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解釋된다.

高麗時代에 盛行하던 燃燈大會와 八關大會도 古代社會의 春秋二期의 共同祭에 淵源을 가진 것으로 특히 우리의 注意를 이끄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燃燈·八關의 二會는 高麗一代를 通하여 기리 행한 國家의 重要한 祭典이요 年中行事이었는데; 燃燈은 春期(正月) 혹은 二月에 거행하는 것으로 佛事에 關한것, 八關은 仲冬(十一月)에 거행하는 것으로 土俗神(天靈·五岳·名山·大川·龍神 등)에 關한 祭典이라고 區別하였으나 兩者의 儀式을 通하여 보면 그다지 다름이 없고 어느 것이나 다 燈불을 찬란히하고 술과 茶果를 베풀고 音樂과 舞蹈와 其他 온갖 百戲를 아뢰며 君臣이 함께 同樂하는 同時에 所謂天地神明을 즐겼

게 하여 國家와 王室의 太平幸福을 祈願하는데 意義를 가졌던 것이다. 그중에도 八關會는 燃燈會보다도 더 重視한 듯하여 그 儀式도 一層複雜하였으니 이때에는 特別 各地方長官이 글월을 울리어 賀禮(祝賀)하고 宋商·倭商·東蕃(東女眞) 西蕃(西女眞) 및 耽羅(濟州島)의 使節이 와서 土產物을 바치고 賀禮를 올리었다. 이 두 國家의 大祭典은 確實히 古代社會의 共同大祭인 五月祭·十月祭의 一變形으로 보아야하며 民間의 「수릿날」과 「상달」의 行事는 역시 五月祭·十月祭의 遺風殘俗으로 보아야 하겠다.

近朝鮮 즉 李氏朝鮮時代에 이르러는 儒敎立國의 精神의 支柱에 依하여 高麗時代의 燃燈八關과 같은 土俗神에 對한 國家的 大祭典은 그자취를 잃고 오직 民間의 遺俗인 「수릿날」 「상달」의 行事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다가 最近世 甲午更張 以後로 民族意識 民族精神이 昂揚됨에 따라 大敎敎라는 檀君崇拜의 宗教가 새로 생기고 거기서 特別 十月節의 古俗을 更生시키어 이로써 檀君立國의 開天節을 삼은 것은 오랜 傳統에 基因한 歷史意義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既述한 바와 같이 民間에서는 흔히 陰曆十月 초생에 神에게 고사를 지내는 風俗이 있으므로, 大敎敎에서는 十月(陰)三日로써 開天節을 삼게 되었던 것이다.

日帝의 壓을 벗고 解放이 되자 그해로부터 大敎敎에서 시작한 開天節을 우리의 全民族의 國慶日로 삼아 大대의인 紀念行事를 행하여 오다가 政府樹立後에는 陽十月三日로써 定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十月「상달」祭의 國家的 意義는 이에 이르러 完全히 회복되었다 하겠다.

한편 資本建設成長率도 年年 低下하고 있으나 五九年(實績) 一六%인데 六〇年 八%이다. 計劃이 九%인데 實績은 三%이다. 이밖에 小賣商業의 成長率을 본다면 五九年 一〇·一% 六〇年 七·〇% 六一一年 六·〇%로 計劃數字에 未達하는 數字이다. 그리고 貿易面을 보면 五九年 一五% 六〇年 六% 六一一年 六%이다. 脫藩되어 있는 東獨의 實情을 보다 못해 蘇聯은 短期債務가 十億弗 그밖에 昨年五月 「크레디트」 五億弗等 東獨을 카바하고 있지만 이것은 紅露點雪格으로 危機는 時時刻刻 深化하고 있다.

무엇때문에 東獨은 이러한 危機에 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그것은 生産의 低下란 根本原因은 단 아니고 伯林情勢에 依한 政治的 緊迫狀態가 軍事費增加를 하지 않을 수 없게하여 政治危機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이 軍事費의 大幅增加는 國民消費에 壓力을 加하고 있으며 昨年度부터의 徵兵制實施 및 東獨駐在 二〇個師團의 蘇聯軍은 東獨의 뿌리부터 파먹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 말한것 같이 「체코」와 東獨을 共産圈의 한 例로 提示했을뿐언제나 爆發의 憂慮가 있고 또 部分的으로 爆發하고 있는 共産圈의 經濟的 混亂은 그것이 政治的 不安으로 反撥되고 있다.

「체코」나 東獨에는 政治的 危機가 明確히 存在하고 있다.

問題는 危機라는 말의 意味의 深度이다.

말하자면 이 危機의 뜻은 共産政權

十月「상달」의 今昔

李 丙 燾

<文學博士>

季

節(Season)과 農業과의 關係가 密接한 까닭에 古代 農耕社會에서는 자연 季節을 重要視하게 되었다. 그래서 季節을 따라 部落共同體의 宗教的 大祭禮가 行하여 神人共樂의 樂을 하는 것이 通例이었다. 이것을 季節祭(Seasonfestival)라고 하는데, 季節中에도 가장 重要視 하는 것이 落種(下種)期와 秋收期로서 이 兩期의 祭祝이 盛大하였던 것이다. 대개 落種期는 농사가 시작되는 때임으로 이때의 祭禮는 神에게 年事의 豐登을 祈願하는 것이고 秋收期는 百穀을 건어들일 때임으로 神에게 感謝의 뜻을 표하고 薦新(新穀을 神에게 바치는 것)의 儀를 행하기 위한 祭祝인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 兩期祭典中에도 秋收期의 祭典의 儀式은 더 盛大하였으니, 그것은 이때 新穀이 건우어져서 먹을 것이 豊富하고 또 一年中의 모든 勞苦를 이때에 풀고 쉬고 할 수 있는 까닭이다. 歐美 各國에서 秋收感謝祭(Thanksgiving)라 하는 것도 이러한 類의 祭典인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中國古典(魏志 등)에 依하면, 옛날 우리 三韓의 하나인 馬韓에서는 落種期의 祭典을 五月에, 秋收期의 그것은 十月에 행하였는데, 群衆이 한데 모이어(部落共同으로) 鬼神(農神)에게 제사하고 歌舞와 飲酒로써 晝夜를 쉬지 않고 즐겁게 놀았다 한다. 그리고 그춤의 方式은 數十人이 함께 일어나 서로 뒤를 따르던

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손과 발이 서로 맞는 등, 그 節奏方式이 마치 中國의 鐸舞와 같았다 한다. 오늘날 全羅道地方에서 행하는 「강강수월래」와 같은 것이 그 舞蹈의 遺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落種期祭와 秋收祭는 實상 馬韓에서 뿐만 아니라 三韓 全體, 또는 北方諸社會(扶餘·高句麗·沃沮·濊貊)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但 北方社會에서는 落種期祭典보다 秋收期祭典의 儀式이 더 盛大하였던 모양으로 中國古典에는 특히 거기에 關한 記事만을 보이고 있다. 즉 扶餘에서는 秋收期祭典을 「迎鼓」라하여 殷歷正月(舊歷十二月)에 國인이 大會(共同)하여 天神에게 제사하고 즐겁게 놀았다 하니, 迎鼓는 神을 맞이하는 「마지굿」(迎神祭)의 譯語로 보아야 할 것이다. 高句麗의 秋收期祭典은 十月에 행하였는데, 이를 「東盟」이라 하고 東濊에서도 十月에 행하였는데 이를 「舞天」이라하였다 한다. 東盟은 즉 高句麗의 始祖인 東明(朱蒙)을 指稱한 것임으로, 특히 이때에는 天神化하였다고 하는 始祖神을 祭祀하였던 모양이며 舞天은 天神을 맞이하여 그 앞에서 歌舞를 演奏하였던 까닭으로 그와 같이 이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러나 落種期의 祭典이고 秋收期의 祭典을 莫論하고 이러한 祭祝의 原對象者의 邦名은 「수리」라고 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後世에 五月端午節을 「수릿날」이라하여 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 祖上에게 茶禮를 올리고 기타 여러 가지 놀이(鞞鞠·씨름·石戰 등)를 하며 十月을 「上달」(上月)이라하여 초생에 집집이 神에게 고사하고 先祖 무덤에 時祭를 지내는 風俗이 있으니 이야말로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五月祭(下種期祭) 十月祭(秋收祭)의 遺風殘俗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端午는 본래 中國의 名節이요 우리의 그것이 아니었으므로 우리 古代社會의 五月祭는 반드시 이날과 一致하였으리 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後世에 이 部落

의 倒壞로 連結되는 것은 아니다. 東歐羅巴衛星國中에서 國民에게 가장 憎惡의 對象은 東獨의 「올부리히트」(第一書記이며 그 다음이 「제코」의 노부트루이) 第一書記와 그 「黨」이라고 보겠으니 一黨의 政權維持는 不可能하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자면 「랑가리」의 「마치아스·라코시」나 「에레베·제리」가 追放당하고 「야노시·카달」이 交替하는데 노부트루이 「올부리히트」가 追放되고 相對的으로 緩和化되거나 自由化된 政策을 쓰는 共產政策이 登場하여 黨을 가하는 것이 現段階 東歐共產圈의 政治危機 批判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宗主國인 蘇聯에 食糧危機로 인한 暴動이 惹起되고 있으며 그들은 統帥의 彈壓으로 強壓政策만을 能事라고 하고 있으나 이들 衛星國에서 건다 못하면 어떠한 事態의 反撥이 惹起될 것인가는 豫測이 不許되는 것이다.

人間으로서의 自由가 許諾되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 食糧마저 窮乏의 極地에 이르렀으니 앞으로의 情勢를 注視해 보기로 하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데 入電된 通信에 依하면 東獨에서는 食糧難이 極度に 達하여 참다 못한 東獨軍人 五百餘名이 暴動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共產東獨이 國民에게 加하는 暴壓政策에도 不拘하고 軍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끊어서 죽으나 暴政에 依한 刑罰을 받는 것이나 같으니 最後를 覺悟하고 일어나겠다는 것은 蘇聯內의 食糧難은 더욱 切迫한 危機에 突入할 것을 疑心할 사람은 없다.

「소비에트」聯邦의 「매스·메디아」

〈新聞·放送·映畫〉



金基漸
〈空本公報課長·空軍中領〉

「매스·컴퓨터·케이·순」이 大衆社會生活에 미치는 影響이란, 그 構造와 機能이 차지하고 있는 歷史的 社會的인 諸條件과 至極히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露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西歐民主主義諸國과 그 樣相을 달리 하고 있는 소聯의 「매스·컴퓨터·케이·순」은 소聯社會를 構成한 複雜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諸條件에 適合되도록 組織과 機能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소聯에 있어서 모든 權力과 政治活動의 根源은 政府가 아니고 「소비에트」(Soviet) 共產黨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매스·컴퓨터·케이·순」에 關해서도 그 例外는 아닐 것이다. 소聯의 新聞, 雜誌, 라디오, 映畫, 텔레비전 등 모든 「매스·컴퓨터·케이·순」의 媒體인 各種의 「매스·메디아」(Mass media)가 어떻게 計畫運營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組織으로서 그 機能을 다 하고 있는가에 關하여 考察코자 한다.

1. 「소비에트」聯邦의 新聞

于先 新聞의 發行部數를 보전해 소聯邦에서는 그 數字를 公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特記할만한 事實이다.

그러면 國際聯合 統計에 依하면 一九五四年 「소비에트」聯邦에는 約八、〇〇〇種의 新聞이 있어 總發行部數는 四、四〇〇萬部에 達하며 人口一、〇〇〇名當 發行部數는 二〇五部로 推算되고 있는 것이다. 個個 新聞의 發行部數는 確實한 數字를 알 수 없고 있는 形便이고 소聯에서 가장 發否는 言及을 避하고 소聯에서 가장 發行部數가 많다는 「푸라우다」紙는 소비에트 共產黨中央委員會의 機關紙로서 確實치는 않으나 約六〇〇萬部の 發行部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公用語인 露西亞語以外에 約八〇個語의 新聞이 發行되고 있으며 一九四七年의 集計를 보면 約一、九〇〇紙가 있다.

이러한 狀況을 보아 西歐民主主義諸國과 比較할 수 없으니 만큼 소聯의 新聞은 顯著한 發達을 보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나 革命前에 比한다면 그나마 共產黨과 소聯政府의 二重三重的 統制監視와 檢閱을 받으며 發行되고 있다고 하는 하지만 많은 種類와 發行部數가 그들의 手段으로서 發達해 온 것도 默過할 수 없는 것 같다.

高度로 計畫의이며 組織化된 소聯新聞은 소聯의 社會體制와 對應하여 計畫의 發展해 온 基本的 特徵으로 보아 新聞의 私企業으로서의 運營이 禁止하고 있으며 이 모든 運營은 共產黨組織과 政府機關, 勞動團體, 學術, 婦女, 青年團體와 軍隊組織等 所謂 勤勞者의 組織體에 依해 그 機關紙로서만이 運營發行되고 있는 것이다.

과 權威가 集中되고, 統制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如何한 소聯의 新聞은 特定한 讀者를 對象으로서 機能을 갖도록 高度로 巧妙한 構造로서 專門化되고 分化된 樣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소聯의 新聞은 水平的 構造로는 黨과 政府의 行政의 「체달키」에 對應해서 三段階로 區分되어 있으며, 그 頂點에 位置한 「푸라우다」, 「이즈베스티아」, 「트루드」 등의 全聯邦紙가 있으며 그 밑에 共和國와 各州를 對象으로 한 地域紙가 있고 地域紙 다음에 地方, 都市, 工場, 農場等을 單位로 하는 地方紙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特記할만한 것은 이와같은 通常的인 新聞의 下部에는 全構造에 걸친 一種의 基礎라고도 볼 수 있는 數十萬에 達하는 「壁新聞」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그리고 水平的 構造와 區分을 比等하게 重要視되고 있는 것은 소聯의 新聞이 垂直的으로 專門化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即, 黨, 政府, 勞動團體, 軍隊 등의 機關紙나 農工紙, 青年紙, 婦女紙와 같은 職業別, 年齡別, 性別 등에 根據해서 特殊한 讀者를 對象으로 發行되는 新聞이 있으며, 이 즉 亦是 水平的 區分으로서 段階的인 機能이 細分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聯의 新聞이란 一般紙는 存在하지 않으며 다만 機關紙로서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은 特殊한 範圍의 讀者를 對象으로서 計畫의 對象으로 一般大衆의 眞正한 輿論如何를 始拾하고 黨과 政府의 統制와 監督下에 國有化된 企業으로서 運營되고 있다는 것을 充分

히 잊을 수 있다.

代表的인機關紙를 든다면 共產黨中
央委員會의 「푸라우나」紙 小聯邦政府
의 「이즈베스치야」紙 勞動組合中央評
議會의 「트르드」紙 같은 것이 있고
이밖에 모든 소聯의新聞은 黨과 政
府, 그리고 外廓, 傘下機關과 團體等
에 從屬되어 機關紙로서만이 存在할
뿐이다.

이기에 소聯의 이러한新聞에 關係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特徵으로서 앞
에 말한 壁新聞에 關係 잠상 考察한
다면 一般의 西歐의 그것과 判異
한 樣相으로 顯著한 發展을 거듭하지
못하고 있는 反面이 壁新聞은 大端
한 發達을 해 온 것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이 壁新聞이라는 것은 소聯邦의 各
工場, 農場, 事務所, 學校, 軍隊의 單
位로서 發行되고 있는 通常의 新聞
印刷의 延長으로서 打字(Typewriting
paper) 壁紙와 같은 것으로서 新聞役
制에 代行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그 機能上으로는 新聞보다도 더욱 黨
의 統制가 浸透되어 있어 「볼셰비키」
(Volshebi)의 煽動者와 같이 그 影
響範圍로서는 大端한 浸透力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壁新聞은
縮密한 計畫下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聯의新聞은 他的 「메스
메디아」의 경우와 같이 共產黨方針에
因한 宣傳者로서 또한 煽動者로서 組
織者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西歐諸國의 新聞內容과는 달
리 소聯의 新聞內容을 보더라도 政界動
向其他 政治活動 記事가 殆無하며
間或黨이나 政府의 重要會議決議事

項을 詳報한다든가 할뿐 「스포츠」
娛樂記事가 적은 便이고 보면 소聯의
新聞의 存在가 어느 程度인가는, 想像
키 困難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소聯의新聞은 共產黨에 依
해 強力히 統制되고 있으며 그 中心
은 宣傳煽動局이 되어 있다는 것은 具
體的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다음 세가지
方法으로 이루어져 있다. 卽

첫째, 編輯者들의 選擇과 訓練教育
둘째, 모든新聞에 對해 或은 特定
한新聞의 集團에 對해서 內容과 運
營을 統制하는 廣汎한 指令을 내리
는 것.
셋째, 正規 監督機關을 利用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보면 소聯에도 新聞은 있으
나 소聯에 輿論이란 것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모든 소聯의新聞은 그 縮
密하고도 強力한 計畫的 構造를 가지
고 있으며 그 機能은 共產黨의 完全
統制下 監視와 督勵의 메두리 안에
서 存在할 뿐이고 한낱 國家機關에 依
해 指名되고 撰任된 編輯者 그리고 檢
閱官과 監督官과 指示官은 紙面構
成만이 있을 따름이다.

II. 「소비에트」聯邦의

간디와 T.V

「소비에트」聯邦의 「라디오」放送은
縮密한 計畫下에 共產黨의 嚴重한 統
制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新
聞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소聯의 「라디오」放送의 발자취를 잠
간 더듬어 보면 一九二二年 처음으로
十二KW의 放送을 開始하였으므

로 世界 大戰終戰 以後의 비로소 많은
放送局의 設立을 보았고, 第五次五

個年計畫에 依해 一九五〇年 以後에는
一〇〇個局을 남긴 放送局이 세워졌
다고 하며 一九五五年에는 소聯의 受
信器總數는 約二,五二〇萬臺에 達하
고 있으나, 人口對 普及率은 一二.
八二%이고 보면 西歐諸國과 比해서 決
코 發達의 進度가 神速치 못할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케레스」(Zukales, Alex)
氏가 소聯의新聞을 그 機能에 비추
어 宣傳者이고 煽動者이며, 또한 組
織者로서 規定되고 있다싶이 이 點
은 소聯邦의 放送에 對하여 適用한 다
하여도 失言은 아닌 상 싶다.

소聯의 라디오放送의 構造를 보면
大體로 新聞의 경우와 같이 三階段으
로 區分할 수 있다.

그 第一段階는 莫府의 中央放送이
며, 第二段階는 各 共和國이나 州單
位의 地方放送 그리고 第三段階로 下
級放送이라고 불리우는 有線中繼組織
인 有線中繼放送所가 있다.

소聯 共產黨의 라디오放送에 對한 思
考方式은 그 構造나 組織에서만이 아
니라 運營과 푸로 編成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方針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點을 라디오放送責
任者에게 民衆을 點과 政府의 모든
政策의 支持獲得에 結果시키고 大衆
에게 政治情報과 政治知識의 誇張增
大 強引, 經濟的 文化的 社會主義建
設 惡慾鼓舞의 手段을 들 수 있는 方向
으로 나갈 것을 賦課된 使命으로 삼고
있다는 點은 이것 亦是 西歐民主主義
諸國과 아주 對照的인 傾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라디오」放送의 計畫, 組織
그리고 運營上의 指導의 責任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 一九三三年 共產政府
機關으로서 設立을 본 「소비에트」全
聯邦 「라디오」放送委員會이다.

이 中央放送委員會는 關係會議員에
있어 莫府의 中央放送의 運營을 맡고
있는 한 便 地方放送의 運營機關으로
서 設立되어 있는 「라디오」委員會를
下部組織으로서 이를 統制 監督하고
있다.

勿論 下級放送에 對해서도 全聯邦
「라디오」放送委員會는 統制를 加하고
있으며 「라디오」에 關한 限이 「라디
오」委員會에 그 權限과 責任이 集中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別個로 新聞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라디오」放送에 對해서도 黨
의 宣傳煽動局이 各 段階에 對應하
여 統制를 加하고 監督에 任하고 있
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을 것이다.

莫府의 中央放送의 內容을 본다면
政治放送이 二〇%, 音樂 六〇%, 文
藝 卅%, 兒童 卅%, 其他
四%의 比率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
이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音
樂放送이고 다음은 政治關係 푸로의 放
送이 主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地方放送에 있어서 는 各其 「라디오」
委員會에 依해서 運營되고 있기는 하
나 그 放送內容의 大部分은 莫府中
央放送의 中繼放送이며 다만 極히 窄
은 時間範圍內에서 地方의 特殊한 問
題만이 自主 푸로서 放送이 許容되
고 있는 것에 不過하다.

그런데 소聯의 「라디오」放送에 있
어서 注目할만한 것은 亦是 下級放
送인 것이다.
卽 下部構造의 有線放送中繼網은 소

聯의 獨自의인 放送組織이라고 하여
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中繼所를 運營하고 있는
것은 「라디오」委員會가 아니고 「소비
에트」聯邦通信省을 爲始한 其他 各種
機關이며, 一九四七年의 狀況을 보면
全有線受信機의 八〇%以上을 占하는
五、七〇〇의 中繼所가 聯邦通信省에
依히 運營되고 있고 全聯邦勞動組合
中央評議會도 많은 中繼所를 占하고
는 形便이며 其他 農省이나 國營農
場省等도 그 重要한 運營機關인 것
이다.

이러한 中繼所에는 大都市에 있는
큰規模의 것으로는 몇個의 副中繼所
를 占하고 있다하며 普通 中繼所는 數
千臺의 受信機가 있으며 작은 것으로
는 一〇〇臺程度를 占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소聯의 「라디오」放送이
나 「라디오」受信機의 數多를 보드라
도 西歐諸國과 比한때 貧弱한 位置에
놓여 있으나 下級放送의 有線中繼網
은 大端한 發達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모든 有線放送은 殆半의
平壤가 中央放送이나 地方放送의 單
純한 中繼로 自主的인 放送平壤의
許容은 極히 制限되어 있어 亦是不自
由한 것이며 特히 聽取者의 平壤選擇
의 自由가 制限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은 소聯의 「라디오」放送이 다른 「패
스·메디아」와 같이 무엇을 企圖하고
있는가가 쉬히 짐작 된다.

要約한즉, 이러한 有線中繼網을
主體로 하는 소聯의 「라디오」放送은
그受信이 集團聽取體系인 것은 勿論
聽取의 時間과 場所까지도 制約을 하
여 聽取者의 平壤選擇을 考慮하지 않고
있어 共產黨이나, 政府機關의 宣傳統

制의 適當性을 이룩하도록 特殊放送
平壤로서 窮局의 「소비에트」體制 그
自體에 適合한 一面을 占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다음은 「라디오」放送과 關聯해서 소
聯의 「텔레비죤」放送에 關하여 附言코
지 한다.
于先 소聯의 「텔레비죤」放送局의 數
字을 보면 一九六一年度에 七五局인
것을 五年後인 一九六六年代에는 中
繼局 三〇〇까지 合해서 四〇〇局餘
의 擴張年次計劃을 하고 있는 點은
소聯이 다른 「패스·메디아」에 못지
않게 重要視하고 있다는 事情을 充分
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即 「텔레비죤」이 「라디오」보다 七
倍의 影響力을 가지고 있다는 點으로
보아 大端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事
實과 一九六一年度의 受信機數는 四〇
〇萬臺인 것을 五年後인 一九六六에
는 二、五〇〇萬臺로 計畫하고 있다
는 點도 注目할 만 하다.

그리고 이것은 「모스코」 「레닌그라
드」 「기예프」 「해리코프」 「가리
닌」을 中心해서 많이 視聽되고 있다
고 하며 續續 施設擴張網을 넓이고 있
는 形便인 것 같다.
「텔레비죤」放送局의 規模는 大體로
日本大阪의 各「텔레비」局과 恰似하
다고 보겠으며 다만 國土가 넓고 人
口의 編在, 時差, 言語의 相違가 甚
한 「소비에트」聯邦의 諸條件으로 볼
때 日本같은 나라와는 달리 그리 簡
單히 못하며 美國보다 많은 難條件에
놓여 있다는 것도 말해 두어야 한다.
소聯의 「텔레비죤」放送亦是 國家의
統制를 받고 있어 莫府의 中央放
送委員會가 있어 이 委員會가 最高機

關으로서 「라디오」放送의 組織과 마
찬가지로 段階의인 機構와 結構으로
運營되고 있음을 「소비에트」體制下에
있어 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
이 合當한 것이다.

莫府의 中央放送委員會에는 「라디
오」의 國內國外放送과 「텔레비죤」放
送의 各中央編成局이 있으며 이 「텔
레비죤」中央編成局은 平壤編成과 政
治平壤을 爲始해서 各種音樂演藝平壤
까지 全히 七個部門의 平壤編成製作
과 放送實施를 擔當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이런 黑白 「텔레비죤」放送
에 뒤이어 소聯의 「칼라·텔레비죤」
은 一九五五年 그 實驗의 成功을 보
아 放送을 開始하였으나 一九五七年
에는 一旦 中斷되었다가 再開되기는
하였으나 이 「칼라·텔레비죤」放送은
本格化되지 못하고 있는 現今의 實情
이고 보던 그나마 實驗放送領域을 完
全히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며, 勿論
一般家庭에는 없고 公衆集合場所外街
頭用施設로서 나타난 程度인 極히 저
은 「칼라」受信機가 있을 뿐이라 한다.

그러므로 「텔레비죤」放送 亦是 嚴
格한 中央의 國家統制로서 運營되고
있으며 美國을 爲始한 西歐民主主義
諸國에 比한다면 그의 發達을 하지도
하고 있는 소聯의 「텔레비죤」放送도
한날 黨이나 政府의 政治道具나 手
段으로서만이 存在할 수 있다는 것
을 말해둔다.

三、「소비에트」聯邦의 映畫
映畫도 極히 重要한 「패스·컴유니
케이션」의 媒體의 하나이며 커다란 影
響力을 갖는 存在인 以上 「소비에트」
聯邦에 있어서 他的 「패스·메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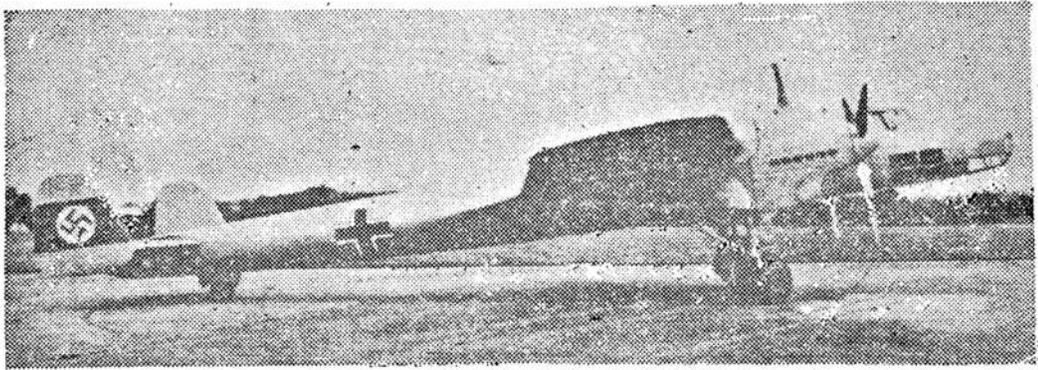
와 同等한 比重을 갖고 있음은 勿論
宣傳煽動局을 中心해서 共產黨의 嚴
한 統制 밑에 놓여 있다는 것들은 쉬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映畫에 限해서 그 藝術的 性
格과 製作 및 上映施設의 發達이 不充
分한 關係인 저新聞이나 放送같은 「메
디아」와 特異한 狀態에 있다고 하겠다.
소聯에서의 映畫製作 및 上映을 全
部 聯邦映畫省과 그 下部組織인 各共
和國 映畫省管轄下에 있으며, 映畫省
에 放置되어 있는 特別藝術委員會의
檢閱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他的 「메
디아」와 달리 完全한 國有化가 아니
고 어느 程度 私企業의 範圍에서 許
容되고 있다는 것도 注目해야 할 것
이며 이런 點은 소聯이 一九一九年 映
畫產業의 國有化로서 強한 反抗의 結果
를 가져오게 되어 몇해後 國有外協
同製作組織의 設備에 얼마간의 私的
資本에 依한 「스타디오」(Studio)가 許
可되어 어느 程度 映畫產業의 恢復과
發展을 보게 된 것이라 하지만 反面
黨과 政府에 依한 統制에는 금이 갔
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소聯의 映
畫製作 및 上映에 對한 國家의 充分
하고도 強力한 規制와 檢閱은 亦是 벗
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聯의 映畫上映施設을 보
면 一般市中的 映畫劇場은 그리 發達
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며 다만 이의
補正策으로 各種 「크리부」의 上映施
設과 移動設備即, 巡廻映畫班 組織이
많이 發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小規模의 「필름」製作(主로
B/m)의 大部分이 이 映畫 필름

(98로 계속)



나치스·독일의 「돌니에」 폭격기

第二次大戦과 航空機

K·나이트

〈航空發達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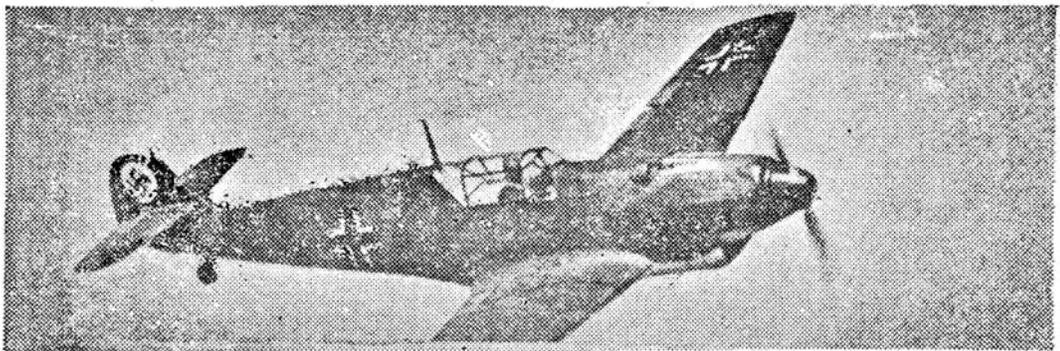
一九三〇년대 말경부터 수년동안에 일반 사람들이나 학자들의 사고방식(思考方式)에 적어도 두개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 첫째는一九三九년경서부터 항공기가 제제를 좁히고 있음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사실이다. 그것은 여객기가 대륙횡단(大陸橫斷)의 소요시간(所要時間)이 五일이나 걸렸던것을 二十四시간 미만으로 단축해서 뉴욕에서 런던이나 파리까지 하루에 비행하게 되어 지구상 어디거나 六시간 이내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항공의 발달이 지리적 조건을 사실상 일변(一變)시킨 것이다. 그때까지 항해용(航海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간편한 벨카볼식 투영지도(投影地圖)가 일반적으로 세계지도의 표준으로 되어 있었다. 선박이나 육상교통기관으로 남북양극(南北兩極)을 횡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극지를 횡단하였을 경우의 대륙간의 지리는

그다지 관계가 없고 이련따위의 지도로도 불편을 느끼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거기에서 항공기에는 장애(障害)가 될만한 것이 거의 없다. 일단 공중으로 올라가면 산악(山岳)이나 해양(海洋)이나 극지(極地)의 황원(荒原)에 관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날아간다. 이와같은 요소(要素) 때문에 남북양극을 중심으로한 세계항공도(世界航空圖)가 새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형(地形)이나 해양은 이제까지의 지도와 상당히 다른 관계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벨카볼식 지도는 지도가 구상(球狀)임에도 평면지표(平面地表)로서 표시하여 거기서는 실제로는 한점에 불과한 양극(兩極)이 적도(赤道)와 같은 길이의 직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이 지도는 이렇게 무리한 표현 때문에 반대축의 반구(半球)에 있는 지점과의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다. 극지 중심의 투영지도는 지구의 본모습인 원형(圓形)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볼것 같으면 지구 반대쪽의 두개의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리는 극지를 횡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가



나치스 독일이 자랑하던 「겟스스미트」

부국지대의 횡단을 간단히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측정법(測定法)의 가치가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과 저간의 거리가 지도로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소련의 영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북아메리카에 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소련의 M·부르도프대령이 一九三七년에 극지대(極地帶) 상공을 경유하여 모스크바에서 캘리포니아주 산·자신트까지 무착륙(無着陸)으로 비행한 것은 그 좋은 예다. 이 비행에서 실제로 날은 것은 미국 동서간의 거리의 약 二배였던 것이다.

이 항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리적인 개념은 삼시각에 근대 군사작전 상에도 적합한 것이 되어 상식으로 되어 버렸다. 드디어 전란(戰亂)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미국의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들은 미국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을 생각해서 장거리 폭격기의 필요를 느꼈다. 폭격기는 탑재중량(搭載重量)이 크고, 긴 항속거리를 필요로 하여 여기에 수반해서 호위전투기(護衛戰機)도 같은 장거리 성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다대한 물자나 인원을 지구상 각지에 수송하는 것도 중요한 작전의 하나로 되었다.

八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보다 더 제 작비(製作費)가 싸고 거리가 중(中距離)형(中型) 폭격기로 충분히 작전(作戰)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그 당시 상당히 세계 세론(世論)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기왕에 바링 六발 폭격기가 장거리 작전용으로 설계되어서 하르드·하리스 중위가 시험비행을 하였는데 고가(高價)한 실패작(失敗作)임을 다음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말살이 되어 언제면지 예산삭감(豫算削減)의 구실에 이용되었다.

판·아메리칸 항공회사와 영국의 임페리얼 항공회사는 一九三九년 봄부터 대서양 횡단의 여객수송사업을 개시하였다. 그 당시 판·아메리칸이 쓰고 있던 여객기는 四발 시콜스키제(製)였는데 항속거리(航續距離)가 이보다 길고 보다 대형(大型)이고 큰 엔진(引擎)을 여섯개 탑재(發注)하고 있었다. 제 二차대전중(徵用)되어 미국과 그밖에 연합국 고관(高官) 수송에 사용되었다. 그중에는 무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차로(政府閣僚)의 여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해군은 최초의 항공모함 랑그 레이호르 열마간의 성공을 거둔 다음 전투기나 폭격기의 항속거리를 연장하여 필요하다면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항공모함 건조(建造)를 서두르고 있었다.

영국은 자국의 본토방위가 가능한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처럼 전쟁이전에는 장거리 폭격기를 발전시키는 데 그다지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一九三九년에 들어서기 전에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독일이 공군력을 과도(過度)히 증강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독일공군은 급속히 강화되어 여러가지 종류의 군용기가 대량생산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내란(內亂)이 일어났다. 독일은 구원(救援)한다는 구실



항공기의 발달로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로서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옛사유미트 ME-109(九)기기를 비롯하여 약간의 폭격기가 실전(實戰)에 나타나 그 우수함을 과시(誇示)하였기 때문에 여러나라가 잠깐 놀랐다. 이와같은 전후(前奏)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연합군의 항공장교들은 독일공군이 독일군의 포레드 진격과 더불어 인간의 재주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리 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한 것을 보고 아연실색(噤然失色)하였다.

독일공군의 급강하 폭격기는 피난민(避難民)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도로 상공에 규칙적으로 나타나 급강하(急降下)를 해서 모든 교통기관(交通機關)에 공격을 가하였고 또한 무소 지구에 소위 유단폭격(絨毯爆擊)을 강행하였다. 이와같이 철저한 공격을 받고 포렌드 공군은 거의 무파되었으며 단 남아지 항공기도 연료부족 때문에 작전불능(作戰不能)상태에 빠져 포렌드는 한달도 못가서 항복하였다.

불란서도 항공기 준비가 충분치 못 한채 참전(參戰)하였다. 포렌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을 자랑한 마저노선(線)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계엄령을 내리지 독일공군의 위협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해 일은 볼레벤(抹)에 독일군이 침입하였는데 이와 거의 패를 같이해서 여객기를 개조한 독일의 JU-52 수송기의 대편대가 볼레벤에 세도(殺到)해서 다수의 무장부대를 강하(降下)시켰다.

승물인 사이도 없이 화란(和蘭)에도 독일군이 공중에서 강하하여 포렌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습전(奇襲戰)을 되풀이함으로써 총폭격(統爆擊)으로 룩셈부르크(市)는 잿더미가 되었다. 영국은 불리한 전황(戰況)에 놀라면서도 불란서군 원조를 위해서 파견할 수 있는 것은 하리케인 전투기로

판상된 몇몇 중대 밖에 없었다. 불
관서로부터 많은 원군(援軍)을 파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영구군은 영
구본토 상공의 방위와 영구연안(沿岸)
지역에 방비하면 몰래 날라와서 기뢰(機
雷)를 투하(投下)하는 독일공군기를
막기에도 곤란할 아니라 연제자기를 본
토에 독일군이 상륙할찌 묻는 위급
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관서의 원군(援
軍)을 보낸만한 이유는 조금도 없었
던 것이다.

一九四〇년五月十四일 히틀러와 문
렌의담에서 교섭을 타결(妥結)시킨 체
발렌의 사임(辭任)하고 윈스턴. 처칠
이 새로 영구수상에 취임하였다. 취임
한지 불과 이틀째 되는날 처칠수상은
독일군의 전차부대(戰車部隊)가 불관
서 국내로 침입을 개시한다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이제까지의 침공
의 수법과 마찬가지로 노드(怒濤)
와 같이 밀려오는 탱크대들 그리고 그
상공에서는 독일공군기의 대편대가 차
페차페로 강하(降下)해서 좁은 길에
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피난민
들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독일군 자
신의 이 가공(可恐)한 진격을 전격전
(電擊戰)이라는 새로운 술의(述語)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불관서 부단(北端)의 당켄크로 쾅
저가 있던 영구군 부대는 영불해협
(英佛海峽)으로 끌려버린지 이전에
이서 본토으로 탈출하는 것이 거의 무
망상태(無望狀態)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영구공군은 약세(弱勢)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이 천수(撤收)를 엄
호(擁護)하여 이를 인양부대(引揚部
隊)와 주정(舟艇)에 공격을 가할라는
독일군 전투기를 구축(驅逐)하였다.

잔존부대(殘存部隊)는 참담한 형편에
있어 불관서군 병사들과 더부의 영구
으로 상륙하였다.

전국(戰局)은 거의 절망적이었다.
구라파의 전 해안지대는 거의 독일군
의 제압하(制壓下)에 들어가 영구군은
북부 노퍽에서 스페인 국경에 이르
는 선까지 포위되어 공군과 그리고
의 상처를 입지 않은 유해군을 보유하
는 독일과 그 동맹국(同盟國)의 위협
(威脅)을 직접 받게 된 것이다.

一九四〇년 완전히 코립되어 버린
영구는 유군병력의 재편성(再編成)에
노간힘을 기울였는데 이것이 이루어
지기까지 본토 방위는 해군과 공군의
의존(依存)할 수밖에 없었다. 八月
八일 대낮에 독일공군의 폭격기와 전
투기의 대편대는 영구본토를 파상적
(波狀的)으로 공격하여 앞으로 있을
영구 상륙작전에 대한 반격태세를 미
리 파괴하는 작전으로 나왔다. 히틀러
와 헤루만. 케링 공군상(空軍相)은
독일공군 부대가 최종적인 타격을 주
어 전쟁을 일거(一擧)에 종결(終結)
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여 점령해에 있
는 불관서 해안의 서서 영불해협의 피
안(彼岸)을 응시(凝視)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적(數的)으로는 열세(劣
勢)한 영구공군의 독일공군으로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어떠한 투
발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영구의 공군원수(空軍元帥) 유.도
우딩 경(鄧)은 맹장하(猛將)라고 조용
한 인물로서 전투기부대의 사령관이
있는데 스피드와 이아 및 하리케인의
두 전투기와 비밀리에 처놓은 메이다
경계망(警戒網)이나 지상감시소(地上
監視哨) 등으로 오래동안에 걸쳐 영구

본토의 방위태세를 견고(堅固)히 하
고 있었다. 그는 또한 완전한 후련을
받은 젊은 조종사들의 비할대없는 용
기를 신뢰(信賴)하고 있었다. 실제 이
청년 조종사들은 구불부불한 구름(丘
陵)이나 도파해협 단애(斷崖)상공(三
五〇〇피트로부터 四〇〇〇피트
고도에서) 수천장 동안 우세한 독일
공군과 장엄(莊嚴)한 공중전을 해치
워서 그러한 신뢰(信賴)에 부응(副應)하였
던 것이다.

일마후 독일공군은 너무나도 손해
가 크기 때문에 주간공격을 단념(斷
念)하고 저녁에 이후의 야간공습(夜
間)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레이더망(網)
의 경계와 영구공군의 대환양(大換
揚) 구하고 나치스. 독일은 영구본토를 철
저하게 파괴하였다. 처음에는 영불해
협의 피호위선단(被護衛船團)이나 남
해안(南海岸)의 전투기 기지를 치열
하게 공격하고 이어서 코벤트리, 푸
리마스, 포즈마스, 그밖에 중요한 군
수공업지대(軍需工業地帶)의 도시나
해군기지에 대하여 폭탄 세례(洗禮)
를 퍼부었다. 一九四一年五月 독일
군은 전력을 기울여 런던에 집중공격
(集中攻擊)을 개시하여 동월十一일 런
던은 소이탄(燒夷彈)공격을 받고 도
시의 대부분이 타버린 최악(最惡)의
한 밤을 세웠다. 그 밤에 연속 파상공
격(波狀攻擊)이 날이 밤을 무렵까
지 계속되어 一, 四三六번이나 폭
다. 十二月二十九일 두번 제 공습(二
로성(聖)을 대사원(大寺院)은 대파
(大破)되고 시내의 허다한 지역이 화
염(火焰)에 쌓였다.

이 「영국 방위선」은 연(延) 八十四
일간이나 지속되었고 그동안 합계(二

三七五기에 달하는 독일공군기가 격
파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초기(初期)
의 주간공습 때 격추(擊墜)되었다. 영
구공군의 손해도 七三三대나 있었던
데 조종사들 대부분은 나하산으로 무
사히 장사하였다.

케링원수는 영구의 항공세력을 전
멸(絶滅)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이나
포랜드그라프 구라파 공군을 처럼 일
이 제대로 들이맞지 않았던 것이다.
공중의 손해가 심대(甚大)하였기 때
문에 독일군은 용감한 영구공군이 본
토 제공권(制空權)을 잡고있는 동안
은 구대일이 환호를 하지 않았다.

독일공군이 구라파에서 그처럼 성
공을 거두었음에도 영구본토 상공에
서 참담한 패배(敗北)를 맞은 것은 무
슨 까닭이 있었을까. 그 원인은 크게
보아서 두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는
포랜드.스칸디나비아 제국(瑞典, 노르웨
이, 핀란드)이나 네덜란드(和蘭) 白
耳義(는 내분(內紛)때문에 호파적인
방위태세를 펼치기를 능히 못하고 불관서
도 내정(內政)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
과 케링의 전격작전(電擊作戰)에 꼭
짜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
는 독일공군이 영구를 공격하려 들때
비로소 스피드와 이아나 하리케인 같
은 영구전투기가 훌륭한 무장(裝)을 갖추
고 탑승원(搭乘員)의 방위(防禦)가 천
통잡을 깨달았던 것이다. 영구군 전
투기는 날개 전연(前線)에 발사속도
(發射速度)가기가 막히게 우수한 기
관중(八정(艇)을 장비하고 조종관(操
縱桿)앞에 있는 스위치 하나로 한꺼
번에 발사되는 것이었다. 또한 영구
항공기는 좌석(座席)하부(下部)와 배
후(背後)를 장갑판(裝甲板)으로 방비

(防備) 하였으며 두께가 1인치나 되는 방탄(防彈)유리가 풍방(風防)에 쓰여지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對照的)인 것은 독일 항공기인 대장裝甲이나 공격력을 희생해서 속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싸이렌을 불면서 급강하(急降下) 목적의 위력(威力)을 과시(誇示)해서 것처럼 구라파를 공포(恐怖)의 두아니속으로 몰아넣은 JU-87 급강하 폭격기도 무척이라고는 전방(前方)에 2정, 후부좌석에 1정, 이렇게 불과 합계 3정의 기관총 밖에는 장비하고 있지 않았으니 8정이나 장비한 스피드화이나나 하리케인에 대하여 무력(無力)할 수 밖에 없었다. 독일군의 4인승 쌍발기(雙發機)JU-88도 비슷한 무장으로서 기총(機銃) 3정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 폭격기에 사용되고 있는 3정이나 도무니나 7형의 두 폭격기는 고속(高速)을 자랑하였지만 폭탄 적재량(積載量)이나 무장이 불충분하여 방어력(防禦力)이 결여(缺如)되어 있었다. 항공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영국이 1939년까지 자국(自國)의 방위에 충분한 비행기나 조종사를 양성하여 왔던 것만 방공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확실한 실책(失策)이었다. 영국군은 다행이도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공군 자체는 물론 일반사람을 까지도 커다란 희생술 지를 하였던 것이다.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자기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대로 군비(軍備)가 필요한 것이라고는 믿을려고도 하지 않는 국민, 그것은 영국사람을 뿐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때도 일관 전

쟁이 일어나자 전투병기를 이처럼 효과적으로 사용한 몇몇은 국민은 달리 없었다.

공군중에서도 그 위대한 공헌은 거의 다 끝났을 때 못하였으니 다음 두개의 부문은 특히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특수한 기지에서 활약한 항공관제장교(航空管制將校)들이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독일공군의 내습(來襲)을 탐지(探知)하여 레이더·스크린을 긴장된 눈조리로 추적(追跡)한 끝에 스피드화이나나 하리케인에 게 요격(邀擊)을 위한다. 이류(離陸)를 명령하고 시시자카(時時刻刻) 무선(無線)으로 적기의 상황을 전하여 요격(邀擊)에 적합한 곳까지 유군기(友軍機)를 유도(誘導)하고 있었다. 이 장교를 가운데는 왕왕 광범한 전투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제1차대전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공군의 정찰부대가 가져온 항공사진을 상세히 조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복잡한 사진 가운데서 영국 폭격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은폐(隱蔽)하고 있는 군사목표(軍事目標)를 발견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 사진해독(寫眞解讀)하는 일은 공군의 여간(女軍)부대원들이 맡아서 기적(奇蹟)에 가까운 정도로 판독(判讀)을 해치워 그 녀들의 노력으로 가장 두려워할 하던 페넬로페의 독일군 유도탄 제조의 비밀공장이나 시설장은 이내 공습으로 파괴되었다. 영국군부의 자랑하는 가정이나 역사적 교토, 기념비(記念碑)나 건물들도 차례차례로 사정없이 파괴되고 그 위에다 막대한 인명의 손실을 받으면

서도 영국국민들은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갔다. 공장노동자들은 군수자재(軍需資材)나 비행기 생산을 위해서 방공소(防空壕)에 퇴피(退避)하는 것도 한창(空想)이 심할 때 뿐이고 경보(警報)삭제(消除)사이렌과 더불어 뛰어들어 기계로 돌아와 국가방위를 위해서 힘을 다 하였다.

(미국은 이동한 멀리 바다를 격(隔)해서 긴장된 가운데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나 하나밖에 없는 유물(遺物)이 위기(危機)에 빠져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영감들이 있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릇된 선명으로 해서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랑그레이크가 세계최초의 항공기로

(P 54에서)

이 많이 복되고 있는傾向을 보면製作能力的의 不足과 貧弱함을 勿論아직도 外國映畫나 케케묵은 映畫 필림이 많이 上映되고 있다는 것이 眞實이다. 如何間에 이러한 一般의 通常的인 映畫館以外에 集設設備나 巡回映畫班이 極히 發達하고 있다는 現實은 亦是 소聯의 「메스·켄유니케인」의 共通의 特色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에 말한 壁新聞이나 有線中繼放送網의 顯著한 發達과 같이 貧弱한 資源으로서 黨活動에 適應化시키려고 畫策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映畫에 對해서 共產黨과 政府의 強力한 統制는 勿論 黨은 宣傳 煽動局의 映畫部의 緻密한 組織과 巧妙한 黨要員의 配置로서 이를 中心하여 여러가지 指示를 내리고 있음은 映畫勞動者會議召集等을 가지므로서 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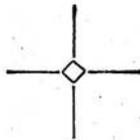
해를 받고 있는 것에 골치가 아팠던 오닐·라이트가 1903년에 켄터·호크에서 남은 실물(實物) 라이트기어 1925년 켄터의 영국과 라발판에다 기증(寄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전쟁중 안전장소에 옮겨져서 보존되었다. 그리고 후일 무사히 워싱턴의 유서(由緒) 깊은 장소로 도로 가져왔다.

영국 본토 폭격의 위협은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 공포의 유도탄 V-1호와 V-2호가 런던과 그 주변 지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라왔던 것인데 독일의 공격력은 현저히 감퇴(減退)되어 갔다.

畫의 共產主義思想과 理念의 正確性을 確保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製作되는 映畫의 內容에서 黨의 基本方針에 適合한 것이 아니라 存在할 수 있을 따름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巧妙하고도 計畫的인 組織으로 黨政策에 忠實토록 그 機能이 이루어져 있는 「소비에트」聯邦의 「메스·페다아」는 놀랄만한 口頭宣傳과 煽動의 組織과 더불어 黨의 目的에 따라 大衆說得의 強制로서 運動할 수 있도록 徹底한 統制로서 運營되고 있다는 人間思想의 自由로운 交換을 爲해 存在하는 것이 아님은 勿論 다만 「타스」, 「웨이」 「主義思想을 前提하고 그 源泉」으로 한 「소비에트」 社會體制의 태두리 안에서만이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을 否定하지는 못 할 것이다. (끝)

나를 움직인 책 들

- 4. 崔 台 鎬
- 5. 朴 月 鉉
- 6. 白 大 廷
- 7. 徐 柱 鉉



안델센의 동화집
春園의 作品도

崔 台 鎬

△國立圖書館長▽



나는 대수롭지 않은 讀書生活과 꽤 오랜 敎職生活을 通한 經驗에서 하나의 持論을 가지고 있다. 곧 사람에게서는 學生에게나 成人에게나 一生을 通한 讀書指導 乃至 適切한 案內가 平必要하다는 것이다.

現代의 印刷文化는 날로 發展하고 言論의 自由는 오히려 讀者의 選擇眼을 어지럽히고 있다. 汗牛充棟으로 表現하면 書籍의 數量은 벌써 옛날이요, 博覽強記가 되고는 到底히 出版書籍에 對한 解決方法가 되지 않는다.

書籍이란 元來 生活의 必要에 依해서 自身과 社會의 問題를 解決할 때 先人의 經驗을 攝取하는 一種의 倉庫이다. 예전처럼 萬人이 認定하는 經書와 名文만이 書寫나 版本으로 極少數參考로 供與되던 時代는 모르지만 現在와 같이 國內著作物과 外國原作 翻譯이 續出하고 거기에 出版이 商行爲가 되어서 宣傳으로 販賣되는 때에

는 어느 倉庫에서 무엇을 꺼내서 問題를 解決할 것인가, 그 自體가 하나의 敎育問題가 되고 만 것이다.

題目에 對해서 亞當한 이야기를 緒頭에 꺼낸 것은 다름 아니다. 나自身이 그러한 讀書指導를 받지 못하고 實로 濫讀에 그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勿論 濫讀이 그릇된 일이 아니므로 그 처음에는 試行錯誤의 自己를 探求하는 意味에서 한번은 겪어야 할 過程이며, 書籍 自體가 決코 萬人에게 共通한 影響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眞實이 없으면 一生을 濫讀으로 그치는 것은 人生의 浪費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나의 讀書生活은 僻地普通學校에서 간신이 얻은 雜誌(어린이)나 新小說 古談種類부터 시작되었으나 역시 이제 記憶에 남는 책은 中學時節에 읽은 것들이다. 이제 <나를 움직인 책들>을 回顧해 볼 때 이렇다 하게 것이 아닐만한 책을 선뜻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것도 漠然한 濫讀의 탓이라. 언젠가 나는 <밤새워 읽은 책>이란 題目으로 글을 쓴 記憶이 있지만 밤새워 읽은 책과 나를 움직인 책과는 반드시 같지 않다. 밤새워 읽을만한 책은 무엇보다도 興味와 欲求充足의 快感이 先行하지 마는 나를 움직인 책이라 하면 오랜 時日을 두고 나를 潛在的으로 引導할 만한 影響의 結果를 가져다 준 책일 것이다.

나는 同年輩의 분들은 짐작하겠지만 내가 中學一年때가 바로 倭政 昭和二年인데 그 즈음 日本은 自由主義와 新時代之 對한 憧憬이 出版文化에 相當한 刺戟을 주었을 때이다. 所謂 普通選舉가 처음 施行되고 따라서

軍國主義에 對한 反撥과 封建社會打破의 思想이 여러모로 나타나서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까지도 陽性化하여 活動하던 時代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環境에서 나의 지금의 人生 觀이랄까 어느 固着된 思想을 形成시킨 책을 살펴본다면 먼저 나는 鶴見 雄輔의 華麗한 所論이 생각난다. 그의 所謂英雄待望論은 洛陽의 紙價를 올리던 판이라 나는 그 德澤에 平素에 즐겨서 耽讀하던 小說類를 집어치우고 偉人傳記를 손에 다치는대로 읽고 雄辯集을 뒤졌다. 그러나 賀川 豊彦의 死線을 넘어서라는 自傳 비슷한 小說을 읽고는 내가 찾은 바로 그것이라고 기뻐하였다. 그것은 三部作으로서 大學을 中退한 主人公이 貧民窟에 들어가서 基督教思想을 社會奉仕에 行動化하는 것인데 人間으로서의 苦惱와 喜悅과 社會의 矛盾 등이 相當히 感銘 깊게 描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이미 日帝의 植民政策에 대한 懷疑가 싹트고 있었던 民族과 社會의 不安이 어느 모습으로나 救濟되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근색하지 않은 人道主義에 心醉할 수가 있었다.

되어서 베벨 著 婦人論을 읽었는데 正直하게 말해서 베벨이 무엇을 썼는 지 그의 唯物史觀의 人 所論에 도무지 共感할 수가 없었다.

人道主義思想 自由思想에의 禁斷果實을 맛본 나는 春園의 小說이란 모조리 읽고, 톨스토이의 作品도 意識적으로 讀破하려 하였다. 그때는 日本에서도 잔디의 無抵抗主義에 相當한 關心이 잔디의 紹介가 여럿 나왔던 것이지만 아직 그렇다 할 印象이 아닌 것은 나에게 그를 理解할 만한 能力이 없었던 것 같다. 나의 讀書生涯에서 春園을 잊을 수 없다. 나에게 가장 큰 衝擊을 준 것은 新聞에 連載되었던 端宗哀史와 李舜臣이었다. 그것은 우리 國史에 實在한 이야기라 있을뿐만 아니라 人間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民族意識의 入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批評眼이 생기자 春園의 思想은 어딘가 얇고 옹골찬 티가 눈에 띄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流麗한 文章에는 魅惑되면서도 어딘가 假飾된 聖者와 같은 態度가 不滿이었으며 그것은 小說 人 所論에서 決定的으로 되고 말았다. 그러한 생각은 同系의 思想이라고 보면서 톨스토이의 作品과 比較 되었던 것이다. 톨스토이의 作品은 거창한 戰爭과 平和 人 所論 카레나나 또는 戯曲 人 所論 같은 巨作보다도 그의 短篇 人 所論 같은 罪囚나 民話의 人 所論에 더 많은 力이 필요할까? 人 所論의 力은 民話가 가장 印象 깊다. 더우기 그가 晩년에 쓴 어린이 相對의

이야기 童話뿐 아니라 科學이야기 등은 나의 敎職生活의 姿勢에 있어서도 미친 影響이 크다고 생각한다. 童話이야기가 나와 機會에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生涯에 있어서 童話가 끼친 마음의 波動처럼 깊은 것은 없다. 그 童話의 文學的 價値가 어떠나 보다도 어딘 感受性의 質이한 衝擊은 좀체로 가져지지 않았다. 그러나 童話를 일부러 읽고 싶어서 意識적으로 뒤져 본 것은 톨스토이의 童話에 感銘된 後이었는데 안벨센의 珠玉 같은 作品들과 아미치이스의 스쿠오레는 教師가 될 무렵의 나에게 어떤 意志까지도 賦與하여 주었다.

昭和七年(一九三〇年) 봄은 國內에서 所謂 無産階級을 爲한 文學的 胎動이 活潑하였을 때인데 나는 그들의 作品이나 批評에서 幼稚와 粗雜을 느꼈고 思想의 反日과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었으며 民族의 이라거나 沉人間的인 點의 共感을 갖지 못하였다. 이것은 톨스토이와 같은 峻烈한 人道主義思想에 물들어서서인지 모르나 如何한 안벨센의 淸純한 人間性 童心을 探求하는 態度가 훨씬 口味에 당겼던 것 같다. 안벨센은 가난한 貧民窟에서 태어나 판자집 二層 같은 데서 살았지만 언제나 꽃과 蝶의 妖精이 함께 살아가는 人 所論을 作品과 生涯에 담았지 階級文學者들처럼 옹골지게 收奪과 擄取와 憎惡와 葛藤을 剔出하여 怒號하지 않았다. 그의 人 所論은 오리지널 人 所論이 아닌 人 所論이 아니라 希望을 주어서 日帝時代에 어떻게 처할 것인가 하는 啓示까지도 준 느낌 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國內 兒童誌

에 어느 失名氏의 作品중에 繼母가 的 不fast을 德待하여 즐거운 소풍도 시라에 더러운 것을 담아 주었다는 것을 읽고 이것이 이른바 階級文學인가 義價를 느낀 일도 있다.

解放以前에 나는 國史를 權憲圭先生의 敎科書用 外에 읽을 수가 없었고, 野談이나 歷史小說에 나타난 史實로만 짐작할 程度이었는데 德富蘇峯의 日本國民史에서 忠武公에 關한 史實——그것은 日本文獻에 나타난 것을 集成한 가운데서 發見하고 熟讀한 일이다. 靑柳南雲의 書에 는 自我獨尊流의 粗雜한 記述이 있는데 亦是 日本 歷史의 大家인 저라 綿密한 記錄이 忠武公의 片貌를 나타내어서 痛快하였다. 解放이 되자 國史를 마음대로 읽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驚山이나 小悟의 忠武公에 關한 著書를 읽고서도 二前에 德富가 쓴 책을 되풀이 생각해 본 것이었다. 나는 牙山 龍巖 顯忠祠를 倭政때 찾은 일이 있고 解放이 되자 다시 찾았는데 이도 讀書의 餘德이 아닌가 한다. 解放이 되자 韓國의 出版界는 一變하였다. 우선 國語가 解放이 되고 한글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國語와 한글에 關해서는 倭政때 눈여겨 익혀왔으나 本格的인 研究를 할 必要가 있어서 기본의 研究로 崔鉉銘 先生의 人 所論의 그 두꺼운 책을 再讀하여야 했고 國語에 關한 書籍은 나오는데도 座右에 두었는데 이런 專門의 人 所論 以外에 지금까지 가장 印象 깊은 것은 臨政選國과 함께 돌아오신 白凡 金九先生의 白凡逸志이었다. 自稱 리베라리즘을 信奉하던 나는 解

放後 급작히 돌아져나온 愛國者들의 非理性的인 行動을 冷笑하는 便에 있어서 政治와는 짐짓 다른 方向에 눈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白凡逸志에 나타난 先生의 素朴하고도 信念에 가득한 人間에 對하여 反해 버렸다.

그리고 그는 決코 政治人이 아니라, 教育人이라고 獨斷을 내리서 그와 같은 人物이 되고 싶었다. 先生이 兎彈에 몰아가서서 그의 遺骸가 거리를 지날 때는 一生에 처음 많은 눈물을 흘렸다. 생각해 보면 白凡의 偉力은 대단한 것이다. 白凡先生을 회오리는 없지만 著書를 통한 나의 感銘은 아직도 生생하다. 죽기前에 社會와 國家에 큰 功을 세울 野心보다도 그와 같은 純直한 信念 만이라도 본받고 싶다.

예로부터 讀書는 勸獎할만한 美德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讀書가 단지 知識의 充足手段으로서 勸獎되어야 한다면 이를 否定하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讀書百遍意自通이라고 하지만 書籍은 그 책이 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는 사람의 精神이 貴한 것이요, 또 아무리 책을 만는 사람이 貴하다 할지라도 읽는 사람이 그만큼 貴한 精神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값어치는 零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讀書의 要諦는 讀書와 함께 經驗하고 그것을 實踐에 옮기는 일과 思索批判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안다. 그래서 책을 모두 믿는다면 책을 안 읽는다면 못하라는 말이 나왔겠고 그러므로 讀書指導의 過程이 靑少年時代에는 반드시 必要하다고 確信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 아무런 意圖없이 濫讀에서 濫讀으로 始終한 나머지

이제 人들을 움직인 책들을 回顧하고 보니 낫뜨거운 것이 이만 저만 아니다.

알라딘의 램프
릴케의 편지
朴木月
△詩人△



나를 움직인 책 — 그것은 許多하다. 어느 意味에서는 내가 읽은 모든 책이다. 내게 影響力을 끼친 것이며, 그중에서 決定的인 影響을 준 것이란 選擇하기가 주저될 뿐만 아니라, 容易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決定的인 影響이라는 것이 깊은 感銘을 준 것을 意味한다면 그것은 한 두 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책의 影響力을 測量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우리가 한 권의 小說을 읽었다 하자. 읽는 당시에는 別한 큰 感銘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것은 나도 모르는 體驗으로서 意識下에 潛在했다가, 어느 경우에 갑자기 고개를 들고 眞面目을 나타내어 우리를 가슴에 印정한 眞理를 속삭여 주는 것이

다. 그러므로 그것이 眞面目을 나타낼 때까지, 무엇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는지 우리 자신도 짐작조차 못하는 것이다.

혹은 그것과 反對의 경우도 있다. 읽는 당시에는 무척 큰 感銘을 받은 책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人生에 대한 體驗을 쌓게 되고, 우리의 눈이 머가는 동안에 修正되어져, 끝내는 시시한 內容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 그 幻像을 상망히 생각한 것으로도 귀한 寶物을 잃어버린 서운한 느낌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이야기는 약간 엇걸로 나가지만, 所謂 良書라는 것도, 실로 마연한 概念이다. 누구에게나 합당한 좋은 책이란 좀처럼 있을 수 없다. 실사 있다면 치더라도 그것이 내게 感銘을 베풀지 못하면 無用之物이다.

참된 뜻에서 자기에게 절실한 좋은 책이란 자기가 發見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電信柱에 이마를 부딪치는 우연한 事故 비슷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길마다 적당할 間隔을 두고, 電信柱가 並列되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마를 부딪치게 되면 비로소 電信柱에 대한 認識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事實에 비추어 나는 讀書에 대하여 두 가지 見解를 가졌다.

자기의 專攻部門이 확실하게 잡히고 책을 選擇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規準이 될 때까지 濫讀은 不可避한 것이며, 그것이 또한 無益한 것이 아니라 는 사실. 文學靑年時節에 나는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책을 自

由롭게 選擇하여 購讀할만큼 經濟的인 餘裕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眼目도 없었다. 그러므로, 文學書籍外에도 무엇이든 入手되는 대로 마구 읽었다.

나는 이런 濫讀癖을 내가 專攻하려는 詩와는 距離가 먼 一種의 時間浪費라고 스스로反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大學講壇에 서게 되니 그때의 時間浪費라고 여진 濫讀의 知識이 詩論을 講授함에 요긴하게 採用될 뿐만 아니라, 人生을 體得하고 詩의 世界的 深化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完全히 無益한 책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우리에게 決定的인 影響을 주는 책은, 우리 自身이 發見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 이것은 극히 平凡한 사실이면서 흔히 많은 讀書家가 錯覺하기 쉬운 일이다. 책이란 우리가 渴求하고 模索하는 問題에 대한 解答으로 우리에게 決定的인 影響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內容을 담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放心的 狀態일 때는 좀처럼 決定的인 感動을 베풀기 어려운 것이다.

求하라 주실 것이요 — 聖人의 말씀이지만, 책도 求하면 주는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決定的인 影響을 주는 책을 發見했을 때의 그 감동은 誠實히 讀書하는 者라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感銘일 것이다. 그런 책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모든 事物이 새로운 光彩를 받게 되고, 內面에서

원천으로는 눈부신 光明속에 스스로 향
출해질 것이다.

나를 크게 움직인 책 중에서 무엇이
보다 <아라비안 나이트>(Arabian
nights)를 들어야 할 것이다. 內容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것. 세헤라자드
왕비(王妃)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왕
의 사심(邪心)을 풀게 했을 뿐만 아니
라 어린 우리에게도 모든 사물의 참
된 존재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배울
여주었으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世界
에서 한량없이 <살아있는> 상상된 世
계(世界)를 열리게 한 것이다. 아라딘
(Aladdin)의 魔力을 가진 램프의 이
상한 빛은 그 魔力으로 말미암아 모
든 事物의 참된 존재를 비추어 보였
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나는 이 초
自然的인 魔力世界의 휘황찬란한 幻
想을 읽음으로 <나무>는 <나무>가
니오,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말하는 나무>로 變化한 것이
다. <나무>라는 것의 영혼을 발견하
고 그의 言語를 들을 수 있으며, 나
는 굳어버린 모든 事物에서 그들의 생
생한 生命을 發見할 수 있는 世界를
마련해 준 것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影響력이 있다.

나를 움직인 책들

十人の 도둑이나, <신드바드의 航海>
같은 童話의 世界인 것이다.

어떻게 아무런 選擇한 現實속에서
도 그것을 脫出하고 自由로운 世界로
飛翔할 수 있는 꿈의 날개를 붙여준
것이 <아라비안 나이트>요, 그 후로
<안데르센>의 童話이다. 어릴 때,
童話를 탐독하고, 그것에 감명을 받
은 저는 自由로운 자기의 領土를 가
진, 幸福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十八·九세 때, 내가 감명을 받은 책
은 新潮社 世界文學全集에 나오는 <北
歐三人集>이다. 그중에서도 <외른손>
(Bjornson)의 <아르네>, <신노베
송바겐>에 심취(心醉)했었다. 一八三
二년에 태어나, 一三〇년에 세상을 떠
난, 스칸디나비아半島의 서반부를 차
지한 노르웨이의 국민작가로서 <외른
손>의 作品은 <青春과 戀愛의 描寫는
世界文學中에서도 가장 特異한 創造
요, 비론손만큼 순결한 처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者는 없다>.

노르웨이의 산골짜기에는, 이
른 아침부터 저녁녘까지 해별이 짙어
는, 사방으로 되어 있는 언덕을 간후
보게 된다. 웅장한 산, 해별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런 땅을 <솔바겐>
(양지언덕)이라 불렀다. 지금 여기 이
야기하려는 처녀도 그런 <솔바겐>에
사는, 농장도 자연히 그대로 부르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가을에는 가장
늦게 눈이 내렸고, 봄에는 가장 빠르
게 눈이 녹았다.

이것은 <신노베 송바겐>의 첫머리
대목이지만, <해별이 짙어지는 언덕>
간후 볼 수 있는 <우아한 山嶽地方>

을 舞臺로 하고, 노르웨이 農民들의 寡
黙한 性質을 그대로 이어받은 — 골엣
이 純直한 少年과 해미처럼 순결한 少
女의 사랑을 浮刻시켜 놓은 것이다.

即, 그들의 單純하고 強固하고 純
潔한 사랑은 <渾沌한 青春感情>으로
번민하던 내게, 하나의 具體的인 사
랑의 理想型을 보여 주었으며, 그것
으로 내 感情을 淨化시킬 수 있는
깊은 感化力을 베풀었던 것이다.

二十代 初期 — <지이드>의 말을 빌
리려는 <人生的 約束期>에 들어서자
나는 <신노베 송바겐>같은 少年少
女들의 <정결한 꿈>으로서서는 막아낼
수 없는 懷疑病에 걸렸던 것이다.
그 무렵에 몇 개의 哲學書籍을 읽
고 그것대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러나 哲學書籍은 내가 더 취할 것이 아
니다. 그 무렵에 릴케(R. M. Rilke)의
편지를 받았다. <라는 것은, 릴케가勿
論내게 편지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릴케의 忠告같았
다>.

당신은 지금 外部만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지금 하셔
서는 안 될 일입니다. 深思熟考하시시
요. 詩를 꼭 써야 할 것은 목소리의 根
據를 追求하시시오. 깊은 밤 조용한
時間에 내가 쓰지 않고는 못 배길 것
인가. 自問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을 캐보아, 깊은 對答을 찾도
못 하십시오. 그래서 과연 마음 속에
서 일어나는 대답이 그것을 肯定하고
(나는 쓰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라는 強
하고 간단한 對答을 할 수 있다면는,
당신은 비로소 자기 生活을 이 必然性
에 따라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生活

을 舞臺로 하고, 노르웨이 農民들의 寡
黙한 性質을 그대로 이어받은 — 골엣
이 純直한 少年과 해미처럼 순결한 少
女의 사랑을 浮刻시켜 놓은 것이다.

이야 말로 아무런 허탈없이 些少한
瞬間일지라도 그 참을 수 없는 마음
의 表示가 되고 證言이 되어야 합니
다.

이것이 릴케의 말이다. 詩에 뜻을
둔 내게 너무나 엄정한 誠實을 要求
하는 — 文學하는 態度에 대한 嚴嚴
한 戒律이었다.

— 時間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몇
해쯤 問題가 아닙니다. 十年쯤은 아
무것도 아닙니다. 樹木처럼 成熟시키
시키는요. 樹木이란 無理하게 樹液을 밀
어내는 일이 없이 泰然自若하게 봄에
물아치는 暴風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찌나, 그런 쓸
데없는 근심에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러나 여름은 흡사 永遠을 눈 앞에 바
라보고 있듯이 아무런 懸念도 없이 넘
들하고 조용하게 기다리는 忍耐力이
강한 者에게만 옵니다. 나는 날마다
그것을 배웁니다. 피로워 하면서 배
우고 그 피로움에 감사합니다. 即 忍
耐가 全部입니다.

이와같이 릴케는 타이르면서, 그것
을 다른 詩篇에서는 <쉬면서 成熟하
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였다. 이
것은 이상한 功名과 虛榮에 들떠, 삶
의 本質을 놓쳐버리고 허영에만 내
게는 릴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도
리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깊
은 感動을 주는 말을 어설피게 理致
를 따져라 하기 때문에 그 純粹한 感
動을 망쳐버리기가 일수이다. <말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그것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唯一한 길이다.
또한 우리는 感動을 주는 偉大한 말

을 舞臺로 하고, 노르웨이 農民들의 寡
黙한 性質을 그대로 이어받은 — 골엣
이 純直한 少年과 해미처럼 순결한 少
女의 사랑을 浮刻시켜 놓은 것이다.

을 우리에게 소화되어지는 면에서 나머지營業을攝取하면 된다. 理論的體系를 세워 그것을研究하는 것은學者들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우리는生動하는 삶의 맥박을 우리 안에 느끼면서 讀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나의 생각이었다.

—自然 가운데 모든것은 自己流로 生長하고 自己를 지켜서 그것만의 特殊한 것들입니다. 자기만의 特殊한 것들이 몸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抵抗을 물리치고 特殊한 것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困難한 것들이 되어야 함은 確實한 일로서 우리가 自

己만의 特殊한 것이 되려면 困難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孤獨은 참 좋은 것입니다. 孤獨은 困難한 것이기 때 문입니다. 무엇이 困難하다 함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또 하나의 理由가 서게 됩니다.

릴케의 말이다. <젊은 시인에게>라 는 어느 軍人에게 준 릴케의 몇장의 편지를 모은 이 책만큼, 젊은 날에 <決定的인 影響>을 내게 준 책은 없다. <쉬면서 成熟하자>함은, 이 책에서 얻은 感動을 한마디로 表現한 나의 生活信條였다.

奈翁傳記

白大鉉

〈柳韓洋行社長〉



感發과興奮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時節은 이제 나에게서 永遠히 가버렸다. 틀나는대로 책을 읽기는 하나 그것은 거의 習慣의 이거나 하나의 鄉愁로서 動作을 하는 것에 不過하고 책 그것보다 책을 읽어야 하는 머릿속(用) 事業과 世上事가 더 많이 占하

고 있으니 眞正한 意味의 讀書가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누가 나에게 가장 좋았던 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옛날 少年 時節에 읽었던 感銘깊었던 책의 일들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나의 少年期도 多感하였었다. 때문에 아직도 그때의 感發스러웠던 일들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내가 점차로 커가면서 具體的으로 著述의 어떤 事項대로 行動하였던지 그대로 重大한 判斷과 나의 人生의 岐路에서 책의 主人公들이 가졌던 態度며 思考方式에 影響 받은 것이 많았던 것은 不認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러한 判斷과 決心의 瞬間은 지금의 孤獨하게 마련이며 그때는 나의 마음이 弱한 때여서 이때 나는 불현듯 책에서 읽은 不死身의 인 그런 主

人公들의 意志와 勇氣 그리고 견디기 힘은 努力을 想起하고 나의 일에서 後退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런 모든 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多感한 時節 讀書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덕택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아직도 記憶에 그대로 남아있는 책들이 있다. 요즘은 읽을 책도 많고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求할 수 있으니 그 때만 하여도 그렇지는 못하여 대개 좋다는 책을 들 때 읽게 마련이었다.

「암골왕」(原名 몬테 크리스트伯爵)도 그때의 읽은 책들의 하나이다. 요즘 애들의 책장에도 이 책이 꽂혀 있어서 옛날의 感懷에 사로잡히곤 하지만 여하튼 이 책의 재미는 거의 無限하였다.

「에드문·탄테스」……이 젊은 主人公인 船員의 어군함과 非運이 푸나의 그때의 感情과 結付되었던 것. 그리고 그가 무서운 고비를 이겨 넘어서 감옥을 뛰쳐나와 痛快하게 敵을 復讐하고 幸福하게 된 것…… 이렇게 나이를 먹은 오늘날에도 그때 少年時節의 책을 읽던 興奮과 義俠心같은 것은 그대로 되살아온다. 말하자면 그 후나의 生活의 理想이 머리는 「몬테크리스트伯爵」型和 같은 浪漫的인 것을 되게 되었다면 이 때문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보는 때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天性 浪漫的인 面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英雄하게 이룬 것이 꿈 꾀지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이 요즘 어떻게 評價되고 어떤 部類의 책에 屬하는지 그 文學的 價値는 내가 알바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젊은 船

員의 굳은 意志, 빈틈없는 計算된 知慧, 그리고 넓은 人間性,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나에게 크게 作用하였을 것 같다.

나는 결코 特出한 才質을 갖고 태어나지 못해서 한 平生 努力만을 唯一의 資產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인 까닭에 내가 읽은 많은 偉人傳記, 立志出世傳記가 읽히지 못하여 금「努力하라!」고 일러주었던 것 같은 記憶뿐이다.

특히 재미있고 後日 나의 人生態度에 크게 影響을 준 것은 「카비키」의 傳記나 「에디슨」의 이야기기는 하지만 「나폴레옹 傳記」도 또한 잊을 수 없는 책의 하나이다. 그것은 機會와 幸運과 時代가 젊은 天才를 後世의 名人 偉人으로서 모셔 올리는 하였으나 그때 當時 歐羅巴 貴族들의 야유처럼 當代 갑작스럽게 이른 名譽나 權勢는 오래 누릴 수 없다는 豫言——그래서 사실 그들의 말 그대로 그는 그렇게 힘들어 얻은 權勢를 얼마 누리지 못하고 「센트·헤레나」孤島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말았다. 解放後 하룻밤 사이에 偉大해진 巨物 財人等에 내가가 尊敬의 念을 갖지 않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젊어서 책에서 얻은 이러한 것은 敎訓의 힘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것은 나폴레옹 傳記속에 원줄 거리는 아니다. 「워털루」戰場에서 패한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英國國 艦隊속에서 背信의 人 待遇를 받으면서 며칠 지내다가 그 軍艦이 런던 뱃스江에 寄港했을 때 바람을 쐬기 위해서 甲板 위에 나왔다. 이때 런던 市民들은 잡혀온 나폴레옹을 구경하기 위하여 港口에 파차 있었다. 그런데 나

플레온이 甲板위에 나서자 그 많은 시민들이 一齊히 無意識의으로 그에게 默禮를 하였다. 대목이 있다. 이것은 첫째 런던 시민의 教養의 높이를 말해주는 것이면서 나플레온의 威嚴을 말해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捕虜로 잡은 敵將 앞에 瞬間 그 많은 시민이 숨을 죽이고 敬意를 나타낼 줄 아는 힘. 그것이 곧 大英帝國의 底力이다. 내가 英國의 힘에 對한 첫 認識같은 것은 이런데서 엮을 것이다.

그보다도 이제는 한갓 奈落한 보잘것 없는 人生이라고 하여도 어느 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尊敬을 받을 光彩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진정코 바라고 원하는 人生目的은 여기에 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요 權勢를 누리는 것도 물론 아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 내가 좋다고 信念을 갖고 한 일에 있어서 실패 후 그것이 結果의으로 찬란한 빛을 나타내지 못했을 지라도 後日의 그 누가 그것이 후진구는 나의 자식이든 간에 높고 깊은 慧眼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發覺돼 주면 그것에 대한 나의 幸福은 없는 것이다. 熱誠을 내어 한 일은 실사 눈으로 보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聖書에 그려져 있는 聖人들의 後光처럼 어떤 形態로라도 그 人生위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이런것을 일일히 따지자면 모두 내가 讀書에서 얻은 資本일 것이다.

나는 다른 책보다 비교적 傳記같은 것을 많이 讀하였던 것 같다. 여기서 내가 結論의으로 얻은 知識은 아무리

偉대한 政治家, 探險家, 思想家라고 하여도 지극히 적은 일을 等閑視하지 않는 爲人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慣習으로는 사내가 적은 일까지 간섭하면 丈夫나 氣節에 걸맞지 아니하는 이상한 一種의 大國風의 反動心理가 있으나 傳記에 나타나는 偉人豪傑은 偉大해진 후에도 바늘과 실을 거지고 다니면서 의부의 壽辰 구멍을 꿰뚫어 주는 그런 細心性의 爲人들이 있다는 事實들이다.

피에테의

「빌헬름·마이스터」

徐廷柱

詩人



내가 過去에 읽은 小說冊 中에서 아직도 제일로 感銘깊은 것은 피에테의 「빌헬름·마이스터」이다. 특히 그 中에서도 그 遍歷時代이다.

이 經典에 가까운 小說은 西洋小說의 여러 風土에 있어 王이라면 王이요, 理解라하면 第一의 理解일 것이다. 同時에 피에테精神의 모양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도 바로 이 冊이다.

로망·플랑이 쓴 베트벤傳을 보면 過激兒 베트벤은 피에테의 圓滿에 對해 理解를 잘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피에테로 만든 사람들은 이 「빌헬름·마이스터」를 精讀함으로써 能히 그 見解를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冊을 읽으면 西洋文學史上의 詩人 作家中 피에테는 不可不 人生의 最高의 理解者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二十世紀詩人 가운데서 우리는 라이너·마리아·릴케를 人生을 가장 잘 理解한 詩人으로 말하고 또 그의 「말테의 手記」를 例로 들지만, 이 「말테의 手記」는 「빌헬름·마이스터」와 많은 共通點을 가지면서도, 첫째 그 廣幅에 있어 「빌헬름·마이스터」를 따르지 못한다. 릴케를 좋아하는 우리로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느낌이다. 「빌헬름·마이스터」는 獨立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主人이 「빌헬름·마이스터」의 修業과 遍歷의 領域 안에 담은 長篇小說이다.

그럼 이제부터 이 冊을 部分的으로 略정 맛보기 위해 거기 담긴 몇개의 안 잊히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다.

「마카리에 할머니는 머리가 원통하
이얏고, 흰은 한이어도 너너하고 짜

줄을 내는 일이 통 없고, 누구의 속 사정이면 누구 보담도 잘 이해하는 할머니로서, 그 빙그레 웃는 웃음 앞에 오면 누구나 다 안심되며, 무슨 속사정이나 숨기지 않고 해도 편할 것 다 생각된다.

그래이 할머니를 존경해 사는 많은 男女들은 이분을 그들의 모든 人生問題의 마지막 解決者로서 우러르고 推戴하고 지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무튼 問題나 가지고 이분한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을 에워싸고 살고 있는 集團엔 한 規則이 있었다. 「마카리에」 할머니 아래에는 몇 段階의 小中의 解答者들이 또 所屬되어 있어 「마카리에」 할머니한테까지 안 가지고 와도 解決될 수 있는 問題는 이 小中의 解答者들을 通해 解決을 보고, 이 할머니를 배롱고 영 아무도 解決할 수 없는 問題만, 이 할머니한테 가지고 오는 規則이 그것이었다.

어린 少年少女들의 일로부터, 老壯年들의 모든 問題에 이르러까지 이렇게 해 이 集團은 解決해 갔는데, 어느 問題전 마지막 「마카리에」 할머니에게 오면 빛을 안 보는 問題라곤 없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 정말로 섭섭하게도 이 할머니는 한 몫의 몫을 다 하고 이승을 떠서, 뒤에 남은 사람들에겐 그 있던 때를 무척 그리게 한다.

그래이 할머니를 무척 그리면 青年 하나, 그 그리면 남자에게 어느 밤 「마카리에」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살아 있을 때, 이 青年의 難問題들이

머니가 옷에 대리미질을 해주시듯 말
칙이 퍼주며, 늘 앉아있던 그椅子上에
앉은채로「마카리에」할머니는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더니 찬란히
빛나는 문 벌들의 한가운데가 자리잡
고, 땅에 肉身 있을 때 가졌던—地位
그대로 된 星座의 女王이 되는 꿈이
었다.

꿈에서 본 感動 때문에 青年은 꿈에
서 바로 깨어나자, 그 꿈의 感動을 그
대로 이어, 유리窓가로 달려가 하늘
의 星座들속에「마카리에」의 별의 있
는 곳을 찾았다.

이 青年이 前이라고 無心결에 밤하
늘의 별들을 우러러 본적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마카리에昇天」과 그 星
群속의 王座獲得에 感動한 눈에 비쳐
는 星座들보담은 그 前에 본 것은 어
느때의 것도 無意味에 가까운 것이었
다.

이렇게 해 비로소, 青年의 「마카리
에」에 對한 敬愛는 星座의 意味를 새
로히 發見한다.

또한 이 얘기는 아마도 모든 小說
冊中에서 제일 그리운 女子가 아
닐수 없다고 생각되는 저「巡禮의 處
女」의 이야기다. 이 참으로 그리운 바
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處女
는 永遠을 그리움에 하는 힘을 가지
고 있다. 별로 길것도 없는 文章으로
도 이만큼 큰 典型을 만들수 있
구나—感嘆되는 이야기이다.

姓名未詳의 이 處女는 처음, 한낱
이 커운 뒤에 어느 地方土豪의 莊園
의 수물수의 어느 큰 나무그늘에서,
머언 徒步의 路程을 거쳐 온 듯한 신발
끝의 흙먼지를 보이며 누어 쉬고 있

다.

莊園의 主人이 散策을 나갔다가 發
見한 이 女人은 일어나는걸 보니, 奇
異하게도 세상에선 처음 보는 것 같은
貴한 얼굴, 貴한 모습이었다.

主人은 女人에게 말을 걸어, 그가
定處였어 호르는 巡禮者인걸 알고 그
의 집으로 招待를 한다.

이 富裕한 主人으로 말하면 흠에 비
로써 이 넓은 莊園에 그의 누이 하
나와 아직 結婚前의 아들 하나를 家
族으로 해 살고 있었는데, 이 巡禮의
女人을 招待해 들이곤 點心을 待接한
다.

女人은 한끼니의 點心待接을 유쾌
하게 맛있게 받는다. 그러고선 그의
獨特한 規律를 말하고, 待接에 報答
할수 있는 무슨 일을 시켜주기를 懇
請한다. 친일, 마른일, 家庭에서 혼
히 하는 일의 가짓수를 주서 세며,
女人은「배운것은 별로 없지만, 대강
할수는 있어요」한다.

그러나 主人으로서, 자박하게 밥
값의 치를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이 異常하게는 貴히 이른 巡禮者
를 두고 好奇心을 滿足시키는 것만으
로도 못한 일이었으므로,「별 말씀
을 다 하신다. 그만 두고 쉬시오 쉬
시오」한다.

그렇지만, 이 女人에게는 그냥 그
값없이 남의 밥을 먹은 일은 없어,
刺繡나 뭐 그런 것도 없다면,「피아
노」라도 한 곡 쳐서 이 家族의 餘興이
라도 되게 해 달라 해서, 不可不主
人의 承諾을 얻는다.

女人은 自己의 身勢와는 아주 反對
로 輕快하고도 高品한 유모어 調 섞인
曲調를 쳐서 이 家族들에게 밝고도 아

름다운 情緒를 불러 이른다. 서러
움도 웃음으로도 다 시 밝혀내는 曲調를
이 家族의 누구도 흉내도 못낼만큼
하디 能한 솜씨로 쳐서...

그때 家族들은 다시 한집 그의 魅
力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 家族들을
위해 며칠만 가서 달라고 졸라대,
女人의 承諾을 마침내 얻는다. 女人

은 이렇게 해 연마 동안 이 莊園에 있
게 됐던 것인데, 그는 어찌도 일들을
시원스럽게 잘 하고, 또 言語行動을
시원스럽게 하는지, 이 집안은 이 女
人이 온 뒤 前例없이 잘 다스려지고 빛
났다.

그런데 여기 이 집안으로선 큰 問
題 하나가 얼크러지고 만다. 이 집을
애비 主人과 總角의 아들이 둘다 이
손님을 두고 길은 작사랑에 빠져고 만
것이다.

父子는 마침내는 醜하게까지 對立
하게 되었다.

巡禮의 女人은 가웃동 머리를 기울
여 생각해 봤다. 그때 한 괴물생각
해냈다.

그때서, 그 집 主人이 그 다음에 와
도 結婚을 종갓을면 그 自身의 배를
손가락질 해 가르치며 머리를 가르쳐
으면서 빙그레 微笑해 보였다.

이 行動은 勿論「이 뱃속엔 이미 당
신의 것이 아닌 당신 아들의 씨가 들
어 있습니다」하는 뜻으로서, 아들과
熾烈히 對立해 있는 아버지에겐 보던
공안 수 있는 것이었다.

어, 이 자리를 영원히 비껴야 갔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演劇의 거짓짓
인 것이 오래잖아 알려졌다. 왜냐면,
이 微笑의 演劇을 이 家族한테 보내

는 마지막 선물로 하고, 여인은 이를
날날이 함아보니 자취도 없이 살아
져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마주 대해서 물어보고,
비로소 女人이 그의 친「피아노」의 유
모어 調와 같은 演劇을 한 것을 아버
지와 아들은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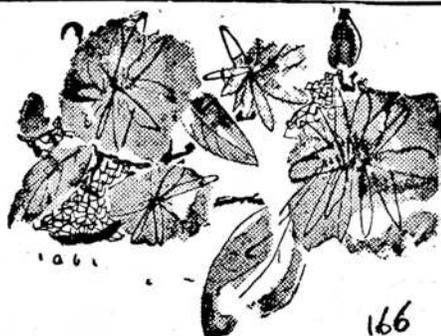
그때 그들의 悲劇은 瞬息間에 解消
되고, 옛을래야 옛을 수 없는 이 天
使와 이 天使의 領域에 對한 鄉愁만이
우리 讀者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이 두 父子의 周圍에 번진다.

筆者 이야기, 주변도 없는데다가 또
이런 글은 梗概만은 안되는 것이고
해서 그 眞意의 一部分도 傳하지 못
한건, 유감이어니와, 참, 그리움기야
그리운 女人은 이 女人이다.

피에테의 「빌헬름·마이스터」를 생
각하니,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야
기가 이것을이어서, 두개생각나는 때
로 적어지니와 그의 이冊은, 우리 나
生의 萬端詞說을 두고 혼자 물물대 없
이 외로운 이들에게는 제일의 친구가
될수 있는 冊中의 하나다.
부디 아직 안 보신 이는 읽어보시
기 바란다.

방에 책이 없는 것은 몸에 정
신이 없는 것과 같다.

— 키케로 —



비행기와 나

병장 김기용

△부대정비대대V

나는 올해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지금 동촌 비행장에 살고 있는 매퍼입니다. 우리들의 수명은 그저 여미철에 불과함으로 짧은 시간을 최대한도로 인조(Biotin)해 보자는 것이 신조 때부터 내려오는 생활관이었기 때문에 그저 마음껏 먹고 놀고 그리고 노래 부르곤 하여 다른 추수들이 부러워 하면서도 실한 눈총을 받아들이고 우리 신세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동족뿐 아니라 또는 다른 추수들 보다는 그야말로 보기도 못한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의 조상들이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고 또 여기서 일생을 받쳐 스티라라 오들이 바로 말부이고 보면 벌써 나의 생명도 반세기를 지나게 될에 한탄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비행기와 가까이 있는 어느 나무 가지에 숨겨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예상했던바 그곳에는 자출인 분마다 『표금 제한구역』이라는 잔판이 크게 붙어 있는가 하면 어깨에 총을 멘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각종 비행기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으며 수많은 정비사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비행안전의 성업에 여념이 없는 바 매일 안락만을 즐기는 우리들과는 달리 때를 무를 쓰고 자자 말은 비행기를 타고 기를주는 그들의 고귀한 모습을 볼 때 순간 자신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선 울려퍼지는 가슴을 안정시킨 다음에 먼저 나는 그들을 위하여 달콤한 노래 한곡을 배웠습니다. 보통 사람같은데 우리들 노래 소리만 들으면 불현듯이 뛰어나고 우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일이 허다한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래 소리를 듣는 동맹자들은 자기들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기에 이의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디서 다가왔는지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과 같은 뛰어난 복장을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내 가슴은 비행기위에 올라 앉드니 피상한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리는 모양이다. 어쩌나 피상한 일인지 나는 발광증이 나서 한자리에만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몸을 움켜져 비행기 주위로 빙빙 돌아 보았습니다. 먼저 비행기 뒤로 돌아오니 뜨거운 불길의 광경을 내면서 길게 뿜어내고 있으며 다시 앞으로 돌아오니 마치 고래 아궁이와 같은 큰구멍에 손살같은 바람을 집어 담기고 있었습니다. 다. 순간 나는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구멍속으로 말려들어 갈려는 찰라야 정비사가 불현듯 나를 잡아 주었습니다. 어쩌나 불의의 아찔하게 정신을 잃었으며 허마드면 오늘날로써 내 생명을 다할 뻔 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몇 사람의 정비사들이 둘러앉은 한 가운데 나를 두고 여러가지 말이 오고 갔습니다. 잠이다 자기방에 두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프오디(E.O.D)로 간주하여 죽여 내버려자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아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이 나서 드니 비록 E.O.D.의 위험하나 이때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날라 와서 노래까지 불러 주지 않았던가?

비록 말은 없으나 생의 애착심은 우리들과 똑 같으므로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제제로 날려 보내 주자는 사람의 의견에 모두들 공감한 나머지 나를 잠시 어루 만진 뒤 여들의 푸른 하늘 위로 날려 보내 주었습니다. 이것도 한갓 안전이 아닐런지

窓

병장 배찬한

△군수처V

반란 열린 창문에 기대어 밖을 내다 보는 것을 하루에 몇번이나 되풀이 하는지 모른다. 그때 투명되는 창으로 내 앞에 전개되는 경지에서 이 세상 한가닥 사연을 풀기도 하고 비스듬히 기대어 한가한 일요일을 즐긴다.

오늘도 창가에 기대어 높은 하늘에 흰 구름이 몽게 몽게 이는 것을 바라 보며 고독한 명상에 잠긴다.

窓은 神의 눈동자.
窓은 神의 눈.
작년에 심어둔 무궁화, 구화...
연꽃을 더한 화초들이 반쯤 열려진

창으로 호루라기 넘겨주는 화원의 향기
에 도쳐된다.

불이 면사뿐이 나려 앉았던 저울의
사자 백설들이 녹아나며 추풍에 못이
기는듯 깨나리 가지에는 얇은 정련을
이르키고 달처럼 창을 열때 뭉그래김
이 오르는데 창들을 열어보며 한줄기 내
리운 불의 서정을 볼수 있었고 비가
내리고 여름의 푸연의 숨막히면 때
시원한 바람을 안겨주는 창.

가을이면 황혼이 어슬피 내리는 불
은 노을을 중시 이 창에서 바라 보았
던 것이다. 더구나 백설이 창지를 덮
고 건곤이 일설일때 찬바람의 흰솔린
정련들이 창에 부딪칠때 이불 밑에 누
웠던 나 온종일 그대로 있고 싶지 않
았는가.

진정 창은 내 마음의 집이다.
나 같이 가난한 삶에 한가다 여백
의 경지를 누는것이 이 창이며 내 마
음 공경 따라 잘못도 이 투명한 창이
다.

밤적공장의 집은 연기가 나르고 우
령산의 行進曲을 울리며 한결음한
걸음 나아가는 젊은이의 대관.....
함의 합성기 울리고 오색기를 단생
의 거친은 자유한 먼지들이 르키며 전
투하는 소녀의 앙상한 독사의 소리
가 들리고 하늘은 백은이 흐르는 곳
여기가 창외의 세계인 것이다.

가을이면 코스모스 한잎을 꺾어 창
물의 맑은 여인의 미소는 仙鏡(선경)
의 그리움을 실체 하라리. 겨울이면 창
외 서린 일운을 바라보며
「오늘은 좀 추웠어요」라는 다정스
러운 아침의 이야기도 이 창변에 흐
르는 정인 것이다.

연분홍 커민을 내리우고 숨결도 들

라자 앉게 들어가서 「신문부부의 원
앙쯤을 지켜주는 이 고마운 창.
창은 집의 눈은」

창이 놓여진 집. 이집은 풍만한 집
동경을 가득실은 人生의 편주 불계
물들여져가는 창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서를 가득 실은 詩나 읽었으면.....
내실,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港口의 追憶

병장 박 용

△부대정비대대△

별새 떠난저 오랜 항구——. 그러
나 후가 떠날 때 서서며서며한 새집보
다 나의 소년시절의 꿈이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는 이 항구를 찾는 것이 슬
관처럼 되었다.

「자——파리미, 파리미, 막 판나.
다섯마리실원!」

이름도 모름고기를 몇마리 저꾸로
치켜들고 흔들어대는 나이 많은 할머
니 고기장수.
이제면 그 세생애의 약한 몸부림
인 줄 알면서도 그 아우성이 그림고보
고 싶었던 건 불철주야 끊이지 않는 바
다의 철원임 미키한 잔 내음, 그리고
내 콧속으로 배어드는 찬 비말이 흥전
하게도 정이 들어 그런가 보다.

「오시느라 수고 했읍니디.」
「별요, 좋아 오는 건데!」
「바다 구경은 했읍니께?」
「이제 가야죠.」
「타라치 않은 도전(挑戰)조의 함적
한 소녀의 말이지만 그래도 그속에 또
사린 포근한 동향(同鄉)의 정취가 있

어, 그저 그렇게 무던 연어와 불일성
없는 표정이지만 통하는 때가 있다.
(송도)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x x

항의 야경은 삼년전의 포구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다른 국채항으로 단장
변도 되었는지는 저절로 허가 내들려
진다. 가파른 절벽 아래로 뱃처럼 기
인 방파제가 끼어들게 바다속을 기어
가듯 놓여있었다.

「미칠전에 Shinoo 한테서 편지가 왔
어요!」
「미워서 고생이 심할테데——.」
「그래도 여태가 되었던 자신이 저주
스리워 두하게 일한대요!」
「.....」

연젠가 영남 자대학 국문학회가 「대
구」에 있는 생선 처음 와 본다는 「대
구」라면서 연구에서 멀진히 그러면서
도 초조히 서있는 젊은이, 해변 소녀
가 그때처럼 반가운게 없었다.
△부산 처이! 말도 마이소, 우리
대구 여자들은 앙그릴쿠때△
저독한 애항(가)가 반박하던 말
이다. △남자나 여자나 다처럼 전강
미가 있어야 돼, 먼저만 조금 일어도
손수건을 코에 갖다대는 그런 사람들
은 난 질색이니까, 저봐 치마를 동동
진어 울리고 일하는 저 여자들!—
들기에 거부했던 말이나마 꼭 참고
있다가 언젠가 모내기를 도우려 나갔
을 때, 햇볕이 고은 얼굴이며 부처
쟁이처럼 새까맣게 타고 햇빛한 다
리를 그나마 무슨에 버리고 언디어 열
심의 도를 심고있던 어떤 아주머니를
가리키며 귀를 해준 말이다.

밤이 짙어 수한 「송도」는 새로 지은
빛을 따리 절개진물들로 인해 불야성

을 이루고 있었으나 어찌까지 비가 왔
던 마다 개인 일기라 찾아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철색, 파르르
철색 파르르△하는 파도 소리만 드물
이 들렸다.

모름이 물 들어가려는데 길어래에서
누가 소리를 친다. 물아보니 길아래
로 바삭 붙여놓은 사공이다. 배에는
수십추 전광 못지않은 카스등이 켜있
아래로 넘치란 듯자리가 깔려있다.
「안정? 이란 영화 보셨어요?」
「안 봤습니디!」

그렇다면 애기가 별로 통할것 같진
않았지만 「론도라를 본 기분이었
다. 어둡하고 시커먼 바다위에는 몇
개의 카스등이 가를대고 있는걸 보아
누군가 흥얼흥계 노닥거리는 모양이
었다. 여름한철 이렇게 밤이 오길 기
다려 배를 띄우고 자기 배를 타출 손
님을 알리기 다리는 그들 사공에게
는 수세 말 못할(스릴)도 무비해야하
는 재미 있는 비린도 있었었다.

파르르 밀려든 물이 발꿈을 잔질머
스레 잔다. 그 점봉이 해변 소녀는 암
말없이 모래바다에 의미없는 선들을
긋고 있었다. Shinoo 이 휴가라도 오
질 바래는 저지..... 나는 아무렇게
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총총한 별과 꿈
실거리는 바다의 밤새. 그리고 철령
이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항구의 정
파 그 소녀의 말없는 호호에 동조되
어 가슴이 뻐개질것만 같았다.

「어디서 환한 소리가 들리는것 같
지 않아요? 인어의 합창 같은!」
나는 소녀의 손을 잡아 나무꾼이다.

隨

筆

라 디 오

成慶麟

△國立國樂院長▽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방송과는 인연이 깊다.

전날 아악부는 떠날 한 회 정례방송을 가졌는데 그것도 방송국에 나가게 아니요 아악부에 앉아서 직접 중계를 하던 체제였다.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를 40년으로 잡는대도 나도 비교적 그 초창기에 여기 참예한 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야 아악방송의 일익을 담당하는 때 불과하고 그것도 몇달에 한번 차례가 오는 것이지만—

그래 아악부에서 방송연주에 참여하던 사 때중에서 50전직을 내주었다.

방송에 끼어서 좋은 성과를 올리겠다는 가무한 마음보다는 50전직의 용돈이 생기는 재미가 더 끌리던 당시를 회상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의 비하면 선생 선배들이 조락한 뒤 우리들이 제법 아악부를 유지하게

만은 일제 말기, 나는 방송연주를 책임 맡고 아악 지휘자로 등장한 것이니 큰 출세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1941년 여름 아악부의 부서가 개편되는 기회에 나는 방송 그밖에 제 여러 가지 임무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비록 창씨명인지 모르지만 달(月)에 한 번 나가는 아악방송은 이왕직아악부원연주의 나의 지휘인 것을 배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엾은 지휘자는 집에 타디오가 없었다. 그러니 방송은 언이 듣는 것보다 못들어 보는 방송이 더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부위의 일을 해방후에 방송국으로 한 편 주민게 있었으나. 자서전같은 출거 리트 주인공이 남의 집 관복 뒤에서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아악방송을 엿듣는 태부가 있다.

그 방송국의 수고하신 복혜숙 여사는 그 뒤에 되려 지금도 관복 뒤에서 방송을 엿듣는 나고 웃음말을 하였다. 八·一五 해방되고 타디오 한대를 손에 넣었다.

일론 사다리, 물리고 간 허술한 것이었으나 좋은 전기 사정에 낮이나 밤, 타디오가 불태우니 초라한 집이 언만 불워기만은 부자처럼 형으로 되었다. 나는 또 나대로 아악해설자로 타디오에 서는 기회가 많게 되었다.

성 아무개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때 방송의 해택이었다. 대답하다면 대답한 것이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나와 같은 소심한 위인이 그런 방송한 임무를 성실히 맡을 수 있었던가의 아하고 있다.

주(週)에 두 차례니 비차기도 하였다. 지금과 같이 빈말한 일과였다면 감히 말지도 못했기 나와 이렇처럼 꾸러나갔대도 첫째 세평이 어떠한 일을 까 두려워지는 것이었다. 그때는 그 점은 조건이 부처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은 되었다고 하나 아악부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양성하던 아악생 255명이 모두가 버렸고 친행으로 아악부를 사수 하던 동로들도 구왕궁의 소극적인 경영에 회의를 품고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그런 아악부청사에 가 구라야 고작 스물 내외였으니 얼마나 한산하였는가를 짐작할 만 하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한 차례 무슨 소식이 없나 구급해 내왕하는 정도요 지리나 게 군부라는 시절의 본연한 것이 못되었으니 더욱 한심하다.

이런 곤고한 시기에 나는 은종일 아악부를 지키는 의로운 수위이었다. 아악해설 뒤에 가사요 시조 민요요 관소리 등은 또 몰라도 아악의 이야기관은 그것의 처음이요 나노도 그중 으뜸에 배인 이 것이의 처음이요 나노도 그중 으뜸이었던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해설원고를 올면서 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과거는 과거대로 신산하고 현재는 현재대로 암담한 당시의 선율을 나는 그 해설에서 올면서 호소하였던 것이 다.

이런 이야기를 쓰자는 게 이 글의 주안이 아니었는데 편견을 피웠다. 一·四 후퇴 때 누구나 그 말들이 유리도 적신으로 부산에 피난하였다.

타디오가 없기로 불편한 경황도 아니었는데 인연에 집에 남기고 온 타디오가 부산에 당도하였다.

내가 부이 아서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무슨 목걸이는 나의 고품 타디오는 국악원에 옮겨지고 나는 그 몇가로 얼마의 돈을 가용에 보낸 것만을 알고 있다.

환도가 되었다. 타디오를 장만할 처지가 아니다. 이주환원장이 부산에서 매상한 나의 타디오를 나에게 무상으로 돌려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로 부족한 고타운 마음.

그뒤이 타디오는 이내 고장이 생겨 들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이 글 모두에 적재이 적재인만큼 방송과는 인연이 깊다고 하였다.

아악부장인 나의 직책은 타디오를 아 니 들고는 올바른 직부수행이 어떠한 정도로 방송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꼭 국악원연주의 방송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국악방송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양악까지도 들이 서 비교하고 분석하므로 국악발전의 크게 자외하여야 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타디오없이 몇해를 지냈으니 충실한 직무는 아니었대도 나는 대답이 없다.

이런에도 이주환원장이 트란지스타한대를 특별히 구입하여 악사장전용으로 할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 국악판계의 제법 방송을 들으라는 특별한 배려에 의한 것이다.

지금 나는 공보부에서 제창하고 있

는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참
으로 뜻깊은 국민운동의 일환이라고
나대로 감심하고 있다.

가난을 일시에 극복할 수는 도저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난한 농, 어민에게 내일
의 희망과 용기를 부여주는 일은 시급
하고도 중요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게 바로 이
라디오인 것이다.

라디오 한대가 설마 무엇이라고 웃
는 사람은 라디오의 위력을 아직 모
르는 사람이다.

국민 모두가 즐겁고 명량한 삶을 위
하여 라디오의 혜택을 가져야겠다.

無限의 挑戰

— 宇宙人의 對話 —

林 仁 洙

〈兒童文學家〉



하늘과 땅이 맞부딪는 자리에 무엇이
인가를 位置시켜 놓고 보면 우리의
視野가 머무르는 건 아마도 宇宙의
空曠感이다.

이러한 空曠감을 헤쳐줄 때, 자기
홀로 는 떠있는 孤獨을 어찌 모를 것
인가.

그러기 위하여 먼저 여유 있는 사람
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농, 어민으로 하여
금 스스로 장만하는 장거연부판대계
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찌기 라디오가 있어야 하겠으면
서도 그것이 없어서 뜻을 잃었던 나
같은 사람은 더욱 이번 농어촌에 라
디오 보내기 운동을 느끼고 있다.

은 국민의 노력으로 사랑의 라디오
가 궁벽의 농어촌을 달리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
거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깊은 산 어둔 골짜기에서 고요속에
짐승들이 울거나, 사나운 바람 휘몰
아치는 낭떠러짐(斷崖)에서 이계는 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고 咆哮하는 바
다를 향하고 서서 처량하게 울부짖는
猛獸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

無限한 空間의 沈黙이 나를 두렵
게 한다. V란 파스칼의 發語는 詩
人 바레타가 라디칼의 論及한 일
도 있어 흥미 있거나 실상, 無限과
영원의 影像으로 비춰진 이 沈黙한 空
間의 眞意란 얼핏 人間의 智慧로써 速
斷을 내리기에는 매우 주저로울다.

언제보나 실지가 않은 하늘.
하루만 못보아도 갑갑하고 그리워
지는 하늘. 아무 말 한마디 던져 주
는 건 없어도 생명의 源泉인 양 맑은 바
람과 純色의 光彩를 발하여 매마른 가
슴에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득하게 멀리 바라보는 하늘 끝, 그곳
에는 또 아득하게 어리는 푸른 山脈
이 가로 놓인다.

人間의 鄉愁란 이런 데서부터 시작
되게 마련이고 또한 그지없이 憧憬을
 품게도 하는 것이다.

알피니스트의 憧憬, 그것은 영원 絶
頂의 鄉愁라고나 할까?

파이로트의 心境도 필시 이 무한한
蒼空에의 憧憬이나 鄉愁에서 시작되
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人間이 制約한 스페이스를 보답 더
확장시켜보려는 意志는 이런 자유로
운 해방감에서 얻어 보려는 것이 아
닐까?

그리하여 처음 內面世界로 발버둥
치며 探求를 거듭해 오던 人間은 다시
한번 外界로 눈을 돌려, 人智는 科學
의 機能을 힘입어 生생한 現實世界의
絶對境을 追求한다.

이것은 얼핏 兩立시킬 수 있는 세
계관은 못된다 할지라도 어찌된 無限
에의 挑戰이라는 意味에서는 兩極을
象徴시킨다.

人間은 그 中間狀態에서 언제나 더
못거리고 있다.

內的으로는 深淵에의 發掘을 探索
하고 外的으로는 絶頂에의 無限上昇
을 파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發掘과 上昇과의 成就란 未知數
의 세계니 만치 반드시 一定한 코오
스스에 의해 期約될 성질의 것은 아
니다.

언제나 변화 있는 生活를 바라는 人
間은 그저 순종의 자식이기 보다는 反
抗의 姿勢로서 수수끼와 같이 풀길
없는 宇宙의 神秘에 대하여 挑戰하기
를 즐긴다.
人間能力의 限界를 넘어서서 絶頂
에 오르려하고 深淵에 파고들려는 그
사실 자체가 不安하고 모험스러운 일
이다.

神도 惡魔도 아닌 人間.

그런 人間이 神이, 되려하고 짐짓
악마가 되려할 때, 저기 人間破綻이 생
겨나는 것 아닐까?

하지만 善惡의 神은 人間에게 무한
한 自由에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스도도의 人格을 통한 죽음과 부
활은 곧 그것을 말하고 있다.

영원 신비의 生命律을 통하여 무제
한 참 자유에의 길을 넓혀온 것이다.

可能的 世界에 생자이 미칠 때 우리
人間은 體力以上, 智能以上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想起하게 된다.

이리하여 지혜의 열매를 따 먹었다
는 人間은, 사람이면서 때로 惡魔도
되고 神도 되어 보려는 오만을 떨쳐
버린다. 格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를 문제삼지 않고 그저 自矜하여 보
는 것이다.

이런 모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기 전에 인간은 行動을 취
한다.

악마가 되어 보려다 自滅을 취하고,
神의 領域에 침범하려다 失樂園의 천
사로 추락되기가 일수다.

그것이 人間의 本性이요 慾望인 바
에야 어찌 할 수 있으랴만 우리는 그런
오만의 자리에 서기전에 지혜를 지혜
대로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갈 필
요가 있다.

주, 진리로서 調和된 創造의 인 業
을 위해 애 없없이 몸을 던지자는 말
이다.

지금, 시대는 전쟁을 부르고 있다.
아니 평화를 부르고 있다.
表面上으로는 전쟁의 위협이 加重
되고 있는 것 같지만, 內部的으로는 비

특 그가 自由陣營아닌 다른 세계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분명 平和를 渴求하며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그가 인간이 아닌 惡魔라던 몰라도 그도 결국 人間인 以上 戰爭을 위한 挑戰만이 行爲될 수는 없다.

일찌기 축복받은 地上에서 人間의 人間과의 관계에 있어 對話가 成立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았고서 어찌 宇宙에서의 對話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宇宙人的 對話라면 요즘 신문紙上에 나타난 보스토크 三號, 四號에서의 소련 두 宇宙人間的 對話를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두어 마디의 아침인가 저녁 인사의 교환에 不過하다. 그런데 왜 세계는 온통 通信網을 펼쳐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그다지 神經을 쓰지 않았던가?

적으니까 人類史上 初有의 事件이었기 때문이라. 신기한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人間, 日常의 흔해 따진 對話가 大氣圈外의 宇宙船에서 있어 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耳目은 그 한 焦點을 향해 모였었던 것이다.

생전 알지도 못하던 니콜라이에프와 포포비치가 脚光.

現代人間的 神話가 여기에 그치고 말 것인가? 아니 결코 아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달나라에 陸을 하고 金星에 到達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科學文明의 發達을 證明하는 것일뿐, 아직도 영원 未知數의 세계는 無限廣大될 것이다.

挑戰해 보라.人間이여! 네 몸이 상하지 않는 以上, 너는 너의 能力의 限

계를 사멸하기에 그다지 심심치는 않을 것이니까.

그러나, 한편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人間인 이상 너는 또한 상상상의 로니의 內面世界의 深淵을 향해, 存在의 究極을 探索하기에 그 위대한 노력을 저바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理由 하나 때문에 우리는 狂喜에 넘쳐 날뛰고 있는 것인가?

오늘도 無限의 挑戰은 자기 제자리에서 저마다 試圖되고 있다.

그실 엄청난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것마저 없다면 人間은 그 生存의 意義를 잃고다는 셈이다.

모두가 당연한 現實속에 생명이 깃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따름, 나에게서는 다져 더 설명할 言語를 잊는다. 인간의 혁명. 반드시 無用하다고는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망위의 사실들마저 그 究竟의 意味를 깨쳐 버리지 못하는 人間이지만 언제부터인가 人間은 다시 저새와 관련하늘, 無限大의 空間속에 飛翔하기를 좋아하는 習性을 키웠다.

地上에서 이루어 보지 못한 人間對話를 宇宙에서 가져보자는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엇일이다. 영동하게도 능력의 限界를 저바린 人間이 無限의 挑戰을 일삼아 얻어지는 宇宙對話.

그것은 결국 인간의 상식적인 會話에 그치고 말지 않았는가?

그들은 다시 땅위에 돌아와 비로소 安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妻子가 이 웃을 만났다. 그리고 自己의 體力이나 기재의 힘, 大氣圈 밖에서 얼마나

堪耐할 수 있었다는 情報로써 영웅이라는 稱號에 보답한다.

그러나 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人智와 宇宙秩序의 融合이라 할 것이다.

어떠한 宇宙人도 그 背後者들도 秩序에 對한 反抗이나 背理란 있을 수 없다. 그때에는 벌써 그 자신의 方便을 自招하는 일밖에 없을 테니까.

고요한 승오

〈東星高校敎師〉



번덕스러운 소나기가 가쁜 숨을 거두어 산등성이를 넘어 자취를 감추었다.

바람이 인다. 여린 가지에 제법 울람 줄랑 열매를 인친 어린 북송이나 무를 모질게 휘갈진다. 한참은 넋을 잃고 몸부림만 치다가 참다못해 그렇기도 아끼던 푸른 옷을 벗어 제치고 붉게 상기된 낫을 번쩍 들어 바람이

관음의 동가슴을 넓다 후려친다. 한 번... 두 번... 드디어 바람이 잔다. 바르르... 정면이 인다. 쪼개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노란빛... 나무라듯... 얼른 푸른 배인 속으로 북송아는 몸을 감춘다. 하나... 둘... 잎이 떨어져

이미 싸늘해진 아들들의 주검을 고히 덮어준다. 눈도 감고 입도 다문채 다 소곳이 고개 숙여 동가들의 명복만을 빌며 북송아는 아무 말이 없다.

앞서 들부기의 구름진 소리를 들으면서 붉게 붉게 속살이 익어만 갔다. 한 뼘 남짓한 스펀트에 호르는 전류를 온몸에 느끼며, 웬 일인지 팔뚝 시계의 소리가 자꾸만 유난스러워질 때면 나는 그리운 손님을 맞는다. 삼라만상이 고이 잠들고 커트미란 놈이 첫 선을 보일 때 나는 천하의 왕자가 된다. 그리하여 바람을 미워하고 북송아를 가뭏히 여기는 재판관 포서(Mohr)도 되어보고 서가에서 고히 잠자고 있는 「페스타로찌나 사르트르」도 되어 본다. 그뿐이랴? 화성의 우주인도, 「임제정」도 다 내 차지다. 고요! 고요는 정령 황금이다. 이 고요속에 인성이 있고, 우주가 있고, 또 철학이 있고, 생명이 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고요는 야삼경 깊은 밤에 달 보고 흘리는 눈물도 아니요. 의로운 잠자리에서 홀로 날리는 한숨도 아니다. 그것은 정령 깊은 마릿밀에서, 또 올망셈 속에서, 드리워진 황금 동아줄을 타고 올라온 만세의 기쁨이다.

사람은 살다가 죽어야 마는 것이 숙명이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움직여야 하고, 죽어 가며는 모든 활동이 끝장이 난다. 느닷없이 뛰어들는 불나방이란 놈이 한참 수신을 떨더니, 죽은 듯이 붙어 있다. 정령 동(動)은 정(靜)에 이르지는 무실진인가 보다. 못사라지 들끓는 홀에서 가만히 앉아서 무실진을 헤치노라면 호숫가 오두막 집에서 피아노의 건반을 두들기는 배

보편의 가쁜 숨소리도 들을 것이며 또 푸음이 고막을 찌는 비행기 속에서도 지상(二〇)마일의 어둠속을 나르는 그렌중령과 말을 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뿐이랴? 웃 인잔이 입의 거미줄을 건드리고, 또한 좀더 자기의 코를 뿜어 보려고 갖은 악을 쓰는 가운데 뿜어내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허공에 뜬 머리를 마냥 상쾌를 벗어나고 때 아닌 소나기와 바람을 일으켜서 죄없는 부옹아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일도 어지간히 많다. 「고요는 내가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준다. 내가 아니라 못 볼 때 나는 참된 나의 나가 아니요, 그것은 오직 육고간의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인생을 통찰하고 판조함이 없이 매진하는 야간 열차에 용감하게 뛰어들어도 보고, 어엿한 정치인이 그 눈 속에서 삼천만의 그림자들이 융양(溶融)되어 가는 가운데 자기의 배반 채우는 현명운 가져 보기도 한다. 아무튼, 인간 세상에 참됨을 바라고 아름다움을 기리며, 착함을 동경하는 나머지 그래서 안된 줄을 판연히 알면서도 생색과 위선이 너무나도 많다.

말을 쓴 인생, 아니 나를 저 흰벽에 가만히 붙여 앉아 인간을 판조하고 있는 고요속에서 불나방이란 놈이 얼마나 비웃고 있으랴? 이따금 느닷없이 날아들어 뿜을 치는 것이 인간을 응징하는 분노의 첩보인지도 모른다. 불안 여린 코스모스 숲속에서 여치가 운다. 그 소묘한 소리도 나에게 어쩔지 두렵기만 하다. 가을을 불러오는 그 소리건만, 또 고요의 웅달샘이로나 불인도해주는 어여쁜 여신의 파사로 운 손길이면 만 쉼일인지 자꾸만 발길

이 무거워만진다.

꽃향기 그윽한 봄아침에, 또는 뼈꼭새 우는 여름밤에, 고요가 내창문을 찾지 않는 일 없건만, 가는 여름철 다고 모기 소리 가날피만 가고, 귀뚜라미 쫓소리가 산들바람을 불러올 때면 나는 유달리 고요를 벗삼아 일파 전사람마냥 티라오스를 벗삼아 앉았다. 음에 이슬을 담뿍 맺혀보기를 즐긴다. 겨울과 같은 달을 쫓아 향아(姮娥)와 더불어 월월 티없는 세계를 날아도 보고, 풀짐에 맺힌 영롱한 이슬에 스테아리파운 별래의 노래소리에 취하여

가을의 章

김 정 철
〈學生〉



무언가 그리워지고 무언가 아쉬워지는 계절(季節)。 가난한 방랑자(放浪者)의 마음을 안고 달리는 차창(車窓) 밖으로 시선(視線)을 보내노라면 한때 피아벳 밑에서 휘젓는 못 군상(群象)들의 발자취가 무전서하게 울어진 모래사장이며, 갈적(褐赤)의 단풍의 잎새가 가을의 묘미(妙味)를 충분히 느끼게 한다.

흙내와 풀내가 얽혀진 시골 내음을 들 때면서 나열되며를 읽어 돌아볼 을 불러놓고 푸식 푸식 타는 나열선

도보고, 은하에 배 띄워 건우와 처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어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깨닫던 대저위에 먼저진 추한 내 그림자에 놀라 일른 방안으로 숨어 자리에 누운채 또 상념에 잠겨곤 한다. 정녕, 고요는 나를 위해서만 있고, 또 나는 고요속에만 사는가보다.

끝없는 번추의 바다에 파도가간다. 산산히 부서어진 상념의 조각을, 아니 내 몸뚱어리의 잔해를 읽어 모아 자리를 차고 창을 연다. 고요하다. 달도 진 어둠속에 부근성이 빛난다.

기속에 젖어 있는라 하면 나년의 매카한 내음속 에 즐거웠던 추억이랑 한아름의 환상(幻想)이, 절편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심를 밑에서 울어대는 가을의 전령사(傳令使)는 언제 뜨거운 햇빛에서 달렸는가 싶게 반갑고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을 먼저준다.

모든 사람들은 좀 덜만진 화북처럼 애뜻하고도 가을을 서며 서며하게 해주는 이 계절을 더없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기뻐한다.

화가에게는 시상(詩想)이 잘 떠올라 좋을 게고 식도라자에겐 먹을 게 많아 좋을 게고 아베크중독자에겐 서늘해서 좋을 게고..... 등등을 나는 멋대로 생각해 본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좀 덜 알려진 물건 좀 덜 익은 과일처럼 가을은 인간(人間)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그러기에 나는 일년 사계절중 가을을 가장 좋아하고 또 자랑한다. 계절마다 저대로의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풍이 뒤덮인 잔디위에 누워서

유처럼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무한히 깊은 것 같으면서도 알아보는 파아란 화면에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 보고 또 먼일을 그러보는 것은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진미(眞味)요, 언제고 향수(鄉愁)에 젖게하는 청포도며 인생의 허무 그대로를 느끼게하는 나열(열풍)도 가을에만 가질 수 있는 감성(感情)의 산물(産物) 이리라.

그런데 가을에 누워 덩구는 송아지가 어쩔지 서글픔을 일으켜주고 푸근히 젖어주는 창가에서 빗방울을 헤노라던 수채를 떠난 심원한 범탈정(法脫境)속에 빠져 들어가 나만의 세계에 도취할 수도 있고 밤부터 새벽까지 피나게 울어대는 귀뚜라미는 물갈이 무감각한 사람에게도 감성(感傷)을 일으켜서 애통할 수 없을게다. 길가에 덩구는 가로수(街路樹)같은 어떤 짐승의 시체처럼 느껴지고 말없이 선 가로수마저 무언가 서글픔에 잠겨 있는 듯하다.

기차를 타고 멀리 하늘 끝까지 달리고 싶다. 아니 기차가 아니라도 좋다. 멀리 그저 끝이 없으면서도 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저편까지 달리고 싶다. 모든 관계와 모든 그림자로 부터 떨어져서 말이다.

마음이 슬퍼서일까. 가을은 분명 슬픈 음악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연의 서정곡(叙情曲)이다.

나는 인간가 통제적으로 이 계절에 더 많은 자살자(自殺者)가 생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계절이 만 계절에 비해 더 풍부한 이 계절에 왜 그렇게? 이것은 정녕 인간의 마음속으로 감성(感傷)을 불러 넣어 주기 때문이리라.

꽃을 볼까라. 달은 소름이 끼치고
 무파랗게 창을 비쳐 올리고 나는 또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되리라. 담배를 힘껏 빨자
 달처럼 환하게 말이다. 창포도 알
 을 세어본다. 애인의 얼굴같은 포도
 알을..... 알알이 깨물어 보자. 시벨
 전 피가 탁이 튀어나오게 말이다.

가을밤이 깊어지면 호두 호두 호두
 끼는 여인의 마음으로 나는 이리저
 리 잠을 뒤척인다. 그리고 감상에 젖
 어서 박탈 수 없이 용감성이 없는 마
 음으로 피로움을 구가(謳歌)하는 것
 이다. 석양이 짙어 가는 황혼녘에 호
 숫가엎을 거닐어 보라. 붉은 노을이
 되치이는 겨울 속에서 인생의 고독
 (孤獨)을 맛볼 수 있고 고공(高空)을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는 앓는 애인(愛
 人)의 신음소리보다 더 깊게 폐(肺)
 를 찔렀을 것이다. 어둑어둑 저녁두는
 땅거미 속을 그저 묵묵히 자넌다고 있
 노라면 생의 허무를 느끼면서도 반박
 하지 못하는 허전함을 창자가 누는 듯
 한 아쉬움을 느끼리라.

비에 젖어 매서운 냄새가 나는 나
 업니미 위에 누워서 모래알을 헤아리
 는 소녀가 되자. 추억(追憶)에서 가
 지가 편이 동경(憧憬)을 날고 또 동
 경이 환상을 불러일으켜 드디어는 부
 서져서 췌그려지고 말라 뒤돌아선 나
 업이에 일으르키까지.....

가을비가 조용히 창을 때리는 어두
 운 방구석에 홀로 있을 때면 나의 마
 음은 부드럽게 그리워지는 또 후회해
 지는 것으로 딱 차곤 한다.
 내가 자란 시골은 평안도 두메다.
 그러니까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인가
 보나. 앞집 손이 누 노상 나를 어련의

처럼 앓고 다녔고 나는 얼마의 불우
 처럼 그녀의 첫가슴을 파고들어 호못
 하게 안겨 놓는 때이다. 힘찬 앞산으
 로 우리는 출항을 떠나곤 했다. 그
 날도 나는 무리하게 높은 바위에서 자
 라는 파알장게 물은 단풍잎이 고사하
 손이에게 파달라고 졸랐다. 바위가 힘
 하고 마침 비가 온뒤라 단풍잎을 파
 리 울라 가는 순간 그만 비골어 떨어
 저서 영영 한발울 쓰지 못하게 되었
 다. 나는 어떤 마음에 그저 무서워서
 울기만 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여서
 단 칠십처럼 기억속에 새겨져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후회와 그리워지는 마
 음으로 이렇게 철이 바뀌어 파알간 단
 풍잎이 생겨 날때인 북스럼게 느껴져
 든 손이의 얼굴을 일위애다 그려보
 는 것이다.

다음이 흠어진다. 그리고 나무가
 지가 할 벗는다. 이제 이 계절이 가
 버리면 비찬 생활의 육이 전신을 엄습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울고 싶으면서도 울지 못하
 고 무언가 이야기 하고 싶으면서도 무
 배어 말의 안나오는 경지(境地)야
 마도 이러한 관계의 인간의 심리(心)로 하
 여급기다려 지게 하나 보나. 배일을
 쓴 반나체(半裸)의 女人처럼 가을은
 정정 인간의 마음을 더없이 서늘뜨게
 하고 야릇한 감상에 젖게 하는 것이
 다. 적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활
 의 육이 비차 안정(安定)을 요(要)할
 때까지는 말이다.

이처럼 울고 싶으면서도 울지 못하
 고 무언가 이야기 하고 싶으면서도 무
 배어 말의 안나오는 경지(境地)야
 마도 이러한 관계의 인간의 심리(心)로 하
 여급기다려 지게 하나 보나. 배일을
 쓴 반나체(半裸)의 女人처럼 가을은
 정정 인간의 마음을 더없이 서늘뜨게
 하고 야릇한 감상에 젖게 하는 것이
 다. 적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활
 의 육이 비차 안정(安定)을 요(要)할
 때까지는 말이다.

이처럼 울고 싶으면서도 울지 못하
 고 무언가 이야기 하고 싶으면서도 무
 배어 말의 안나오는 경지(境地)야
 마도 이러한 관계의 인간의 심리(心)로 하
 여급기다려 지게 하나 보나. 배일을
 쓴 반나체(半裸)의 女人처럼 가을은
 정정 인간의 마음을 더없이 서늘뜨게
 하고 야릇한 감상에 젖게 하는 것이
 다. 적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활
 의 육이 비차 안정(安定)을 요(要)할
 때까지는 말이다.

東西
 逸話
 罪囚船

이탈리아 나폴리의 명 총독으로
 서 유명한 오스오나가 어느 때 파
 르제로나의 죄수선(罪囚船)을 순시
 한 일이 있었다.
 총독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에
 게 상냥하게 물었다.

『너는 언제서 이러한 곳에 오
 게 되었는지 술기 지 말고 말해봐.』
 이 말을 듣자, 어느 죄수 한 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의
 총독에게 매달려 죄의 용서를 받고
 자 제 자기 제멋대로 진상을 말하
 였다.
 무고(誣告)를 당했다는니, 재판
 을 잘못 받았 이렇게 됐다는니, 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
 장하면서 늘들로 총독의 동정애 호
 소했다.

총독은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머
 리를 끄떡이면서,
 『응 잘 알았다. 그러면 죄수선
 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모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뿐이란 말이지?』
 하고 재차 물었다.

『네, 네, 그렇구 말구요.』
 일동은 이구 동성으로 대답하였
 다. 그때, 총독은 단 한 사람, 구
 석에 쪼그리고 앉아 호느끼 홀고
 있는 죄수를 발견하였다.
 『응, 너는 또 어떻게 된 거냐?』
 『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정
 말게가 범한 죄 때문에 이러한 곳에
 살고 있지 않으면 안될 몸입니다.』
 그 죄수는 기운없이 이렇게 대답

하였다.
 『그때, 어떤 죄를 범했느냐?』
 『네, 사실은 작년에 두하지 않은
 재난으로 세 끼의 밥도 제대로 먹
 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인 저는
 이리저리 참을 수도 있었지만, 매일
 굶주림에 우는 처자의 얼굴을 보나
 못하여 나쁜 줄은 알면서도 남의 물
 을 훔쳐 그것으로 한 때의 주림
 을 면하였읍니다. 그러나 역시 하
 나님의 노여움은 무서운 것으로 일
 마 안가서 이 사실이 탄로가 되어
 드디어 이런 꼴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때, 조금만 더 마음을 세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무서운 도둑질
 을 안해 두었을 것을 하고, 지금
 총독님이 상냥한 말씀을 듣고 후회
 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
 이었다.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은 죄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
 리고 있다가, 갑자기 들고 있던 스
 티크로 그의 잔등을 후려 갈쳤다.
 『이 범살스러운 놈 같으니! 자
 들자니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무신
 의 죄인만 있는데 너 한놈만이 진짜
 죄인이구나. 고약한 놈, 너같은 놈을
 만 무실의 죄인과 같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송한 일이다.
 당장에 이 자리에서 꺼져라!』

하고 스스로 죄사를 불러주고
 당장에 그를 배 밖으로 추방하였다.
 총독은 만류스리우 추방하였다.
 죄수들의 앞을 떠났다. 그 곳에
 있던 죄수들의 볼에는 어느새 후회
 와 자책(自責)의 눈물이 쏟아져
 있었다.



한 생 涯

글 · 그림 박 내 현

年輪을 헤아릴 수 없는 藤나무 한그루가 拂拂판에 奇妙한 姿勢로서 있다. 꽃은 期待조차 할 수 없이 瘦瘠해지고 하루 하루 서 있는 것만도 대견하게만 보이는 老木— 때로 거친 皮膚에 손을 살피시다면 마치 숨가빠하는 老母의 가슴 언저리를 더듬는 듯 헤아릴 수 없는 心情이다. 半쯤이나 패여나가버린 나무 밑 돌레 속에는 얇게 얹은 개미族이 집을 짓기 좋아하고 樂園이라도 發見한 듯 돌레에 달을 쌓고 家族을 늘이는데 餘念이 없다. 오랜 冬眠에서 벗어나 다시로운 봄빛의 問安을 받으면 白綠빛 움이 뾰족 뾰족 움트기 始作한다.

은근히 가져온 冬節의 근심도 점차로 풀리우고 아직 살아 있다는 기쁨은 마치 먼 길에서 돌아 온 內家族을 반기는 듯 가슴이 흐뭇해진다.

— 그 強靱한 生命力 —

— 몸이 으스스라도 새 싹을 爲해 살아야 하는 產母와도 같이 偉大한 意志력이 여기에도 있는 상 싶다. 우리는 두 가지의 生命力을 보고 있다. 祝福속에 태어난 生命力이 不幸속에 살아야 하는 生涯와, 詛呪스럼게 태어난 生命이 萬福을 누리는 矛盾말이다. 이것이 運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면 그럼 生命이란 어디로 부터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러한 커다란 疑問속에서 한 生命은 마치 數 많은 나무잎 모양 오고 또 간다. 일마되지 않아 무성한 藤잎은 간 곳이 없을 것이고 또 어느새 生命이 남 모르는 體內에서 胎動을 할 것이 아닌가? 炎天에 시달린 葉緣素의 穗色이 날로 눈에 띄인다. 그러나 造物主의 多彩로운 餘技는 그들에게 또 한번의 更衣를 確約했다. 한 生涯의 마지막 丹粧을 橙黃으로 裝飾하는 季節의 饗宴 回想의 歡喜와 冬眠의 不安속에 떨어져 버려야 하는 黃色의 秘密는 季節中의 그 어떤 것보다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



短篇小說

更生

洪性裕
그림 李舜在

경식(慶植)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원구름이 떠도는 하늘은 가을하늘처럼 티없이 맑았다.
그는 그 푸르고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대견해서 커다랗게 심호흡을 했다. 폐를 깊숙히 틀어막신 공기속에 꽃향기라도 묻어 있는 것만 같아 가슴속이 뿌듯했다.
경식은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 그대로 두주먹을 꼬옥 움켜 쥐었다. 저 푸른 하늘과 이 맑은 공기에서, 경식은 되찾은 자유를 만끽하고, 스스로의 용기를 북돋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눈길을 하늘에서 내려, 문장 밑은 대로를 바라보자, 그는 다시금 압담한 심정에 젖어버리는 것이다.
어디로 갈까? 미상불 그것이 문제였다. 막막했던, 너무나도 막막했던 삼년 칠개월의 공백, 공백이라기보다는 공백으로 물리고 싶은 그 삼년 칠개월이, 그의 과거의 일체의 인연을 단절해 놓은 것만 같았다.
고향은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아니, 고향이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았다.
그리운 사람이 있었다. 옥이(玉伊)였다. 그러나 옥이인들 그대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리 만무했다. 아니, 그녀가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밖에 잊혀지지 않는 일꾼들이 있지만, 하나치고 찾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그저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막막하고 긴 삼년 칠개월, 그동안 경식은 하루치고 오늘의 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때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이 날을 타치고 보니, 희망보다도 절망감이 보다 무거운 중압으로 경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다.
경식은 지금 삼년 칠개월 동안 마포교도소에서 부역을 하다가, 五·一六혁

명 일주년 기념 특사로 막 불러 나온 걸인 것이다.

자유를 찾은 기쁨과 함께, 이 자유의 첫발걸음 어디로 돌려야 할까 막막해서 그저 우두망찰 하듯만 쳐다보고 있는데, 경식의 어깨를 툭 치는 손이 있었다. 범수(凡洙)였다.

같은 감방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온 친과 삼범이라는 모사였다. 범수는 경식의 어깨를 툭 치며 높이는 색, 웃었다.

「하루만 차야 보면 먹을 것이 멀어진다던。」

「이리로 가야 할까 생각하는 중。」

경식은 텅 빈 입술로 대답했다.

「이디루가, 이디루가 진! 감질은 편한 거야. 결국 이리로 또 찾아오게 마련이지...」

범수는 코도스의 밝은 물담을 가리켰다. 순간, 경식은 멀리라도 당한 것처럼 눈길을 고추세우며, 범수를 노려보았다.

「왜, 내 말이 틀릴 줄 알어? 넌 이 넓은 세상에 나와서도 모범수(模範囚) 행세를 하러 다니.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통할 줄 알구? 어림도 없어...」

범수는 마른 침을 적 내뱉으면서 응수했다. 그의 말에는 단호한 신념이라도 있는 것처럼 강렬하기조차 했다.

「넌 아직도 이 감옥속이 진저리가 나지 않나? 그래, 또 할 작정야?」

경식은 좀 멀리서 어린 어투로 힐난하듯 말했다.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지... 배가 고파지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고도 창자를 메꿀 수 있는 길을 나는 찾을테야...」

「한번 콩밥을 먹어 본 못 내기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놈은 하나도 없었지...」

「그렇지만 세상이란 나쁜 짓을 하기보다 좋은 일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거든...」

「결국은 여기 신세를 지게 마련이지...」

범수는 천천히 발을 옮기면서 말했다.

경식도 나란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묵묵한 속에서도, 범수의 말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강렬한 거부 의 힘의 뱃수부터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는 의식하고 있었다.

무오타리에서, 경식은 굳이 범수와 헤어졌다. 그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였다. 그와 함께라도 같이 꾸미는 것만 같아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봐...」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싹싹리 털지 말고 내제 찾아 오란 말야...」

난 결국 양동 뒷골목이 내 무대가 될지니까...」

범수는 넓적한 손을 내밀면서 경식의 손을 잡고 이죽거렸다.

「너도 좋은 일을 찾아봐...」

경식은 진정에서 그렇게 말했다.

「물론 찾지. 그렇지만 난 간병이가 너처럼 세지 못해서, 보석상을 털 용기는 없단 말야...」

범수의 비장거리는 듯한 말에, 경식은 힘없이 잠았던 손을 놓고야 말했다.

「한마디가, 예리하게 그의 가슴을 찌서 놓는 것과 함께, 삼년 칠개월여 전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 났기 때문이다.

눈가누가 흘날리는 초저음이었다.

경식은 고향에서 올라온 준설(俊燾)과 종로 뒷골목에서 많지 않은 술을 마셨다. 준설이 전해주는 고향 소식은 모두가 반가웠으나, 특히 우이의 소식은 경식을 즐겁게 해주었다.

우이는 요즘 결혼준비로 혼수를 장만하고 직접 바느질을 해가며, 경식이 돈을 벌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울하면서 도 탐스러운 우이, 언제 보아도 말이 없으나, 조용한 눈매에 다 정한 입에서 서러워하는 우이. 경식은 정말 우이가 그리웠다.

술집에서 나온 둘은 종로 내저리로 빠졌다. 밤이 꽤 어스렸는지, 폐점물서 두르는 가게가 하나 둘 눈에 띄었다.

두사나이는 아직 문을 닫고 있지 않은 이곳 저곳의 전열장을 들여다 보았다. 경식은 본시 전열장을 들여다 보는 데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이라서, 아예 탐을 내지 않던 것이다. 준설이 들여다 보는 대로 그저 넘겨다 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보물상 앞에 서었다.

무심히 전열장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경식에게 준설이 나직히 물었다.

「너 분에게 반지 사다 주었어?」

경식은 맥없이 고개를 저었다.

「여자에게는 반지가 제일야...」

「그렇지만 우리 같은 놈은 되도록 없지...」

「저번 번거하는 보석이 된지 알아?」

「다 아야...」

「요놈이 알뜰기산더, 요진 후진주...」

이것이...」

준설은 어디에서 웃어 들었는지 열심히 보석의 이들을 의고 있었다. 그의 애기를 들으면서 경식은 막연하게, 저 반지들을 우이의 손가락에 끼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놈의 유리창을 깨고, 살짝 건이 갔음 좋겠다...」

경식은 무심히 중얼거렸다.

「한번 해 보자우...」

경식의 두배와 같은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고 준설이 반복거리는 눈으로 물었다. 경식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알지? 내게는 이 놈이 있어...」

준설은 허리를 만져 보게 했다. 무겁고 딱딱한 물체였다. 권총, 권총...」

경식은 이유없는 전율을 느꼈다.

「페마침 보석상에서 폐점물 서두르며, 철문을 두드려서 내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휩쓸려 다보니 가게 앞에는 안주인듯 싶은 부인이 혼자 앉아 있고, 철문을 내리는 것은 부리는 아이인듯 싶은 중학생의 소년이었다. 경식과 준섭은 일곱을 마주쳐다 보았다. 오고 가는 두 사람에 번뜩거린 불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중의 함의이며, 신통흥이기도 했다.

주위를 살폈다. 공교롭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인적이 없었다. 그러자 저 제없이 날썰 물가점으로 준섭이 먼저 점내로 뛰어 들었다. 점내로 뛰어드는 준섭을 보고 경식은 알 수 없는 흥분상태를 느꼈다. 그리고 그 흥분은 그에 게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뛰쳐 그의 뒤를 따랐다.

준섭은 벌써 권총을 뽑아 들고 있었다.

「빨리 철문을 내리고, 그리고 꼼짝도 하지 말라 말아... 알지?」

준섭은 몸져 침착하였다. 총구의 위험 앞에 두 사람은 그저 오물오물 떨고만 있었다. 경식은 만사가 이처럼 손조롭고 간단할때에, 스스로 감탄을 했다. 두 사람의 기습은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이튿날 아침 준섭의 하숙집에서 경식은 S보석상의 강도기사를 읽으며, 또 다시 간밤에 보석상에 뛰어 들기 직전에 느꼈던 흥분과 같은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용기 대신 양심의 가책과 불안의 빛이 더욱 짙은 것이었다. 그리고 경식의 불안은 적중하고 만 것이다.

이 무계획적인 강도행위는 불과 하루만에 드러나, 불참하는 몸이 되고 만 것이다. 경식은 그 보석반지로 유익을 크게 취할 수 없는 것이 그저 서운할 뿐이었다.

교도소에서 풀려 나온지 일주일, 경식은 세종로 구장 앞에 후구리고 앉아서, 하늘로 솟아치는 분수(噴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바라보는 시선에 백이 없었다. 지금 경식은 완전히 지쳐 있는 것이다.

「혼자 힘으로 생생해 보겠다는 것은 그저 도박주의 득박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이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한 것이거든...」

「하지 않겠는 거지... 배가 고파지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심볼리 될지라도 내게 찾아 오라 말아...」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그렇게나 자신있게 말하던 범수의 말이 눈앞을 오락가락했다.

저 많은 사람의 물결... 오일의 향연속에 젖은 희망 어린 사람들의 밝은 얼굴... 저 무수한 밝은 표정 속에 왜 경식은 축에 끼지 못하는 것일까? 밝고 맑게 살아 보려는 의지를 왜 꺾으려 드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생생하려는 자기의 진심조차, 평온처럼 두려워만 하는 것일까? (결국 또 찾아가야 할 곳은 그 저곳 저곳한 교도소 밖에 없단 말인가?)

경식은 아이없는 고소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 아배가 배이 없었다. 피넛피임 옮기는 걸음거리가 더욱더욱 무너질 것만 같았다. 경식은 저

금 두끼를 굶고 있는 것이었다. 교도소에서 나온지 불과 일주일, 일주일만에 벌써 끼니를 굶어야 하는 자기의 인생이 죽고 싶도록 서늘퍼지는 것이다.

「난... 결국 양동 뒷골목이 내 무대가 될거니까...」

마지막 일리놓고 돌아섰던 범수의 얼굴이 자꾸자꾸 떠올랐다. (결국은, 결국은 그의 말이 옳았나 보다)

경식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의 앞으로 다가서는 하얀 물체, 하얀 물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두사람이 다가서고 있었다.

「어구메... 이제, 경식이 아아가...」

「그리고... 이제, 경식이 아아가...」

향토사투리가 북북 튀어나오는 말에, 경식은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하마 트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판 했다. 바로 고향의 같은 마을에 사는 권참봉과 김 서방이었다. 경식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표박 고향에서 나서 고향밖에는 모르는 그들이었다. 인제나 흠부성이의 배장방이를 입고, 지게를 메고 다니던 그들용, 이 넓은 서울바다에서 만나 보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제 웬일들이죠?」 경식은 뒷걸음치듯 했다.

「이게 참말 경식이 아아가... 감옥소에서 나온다가는 말은 들었지, 으쨌이 리구 캬페여...」 권참봉은 경식의 손목을 꼭 움켜쥐고 놓치지 않았다.

「어떻게... 어떻게 서울에 오셨어요?」 경식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저지러진 목소리였다.

「생전 처음 서울 구경 왔체... 박람회 구경 안 왔나...」 김서방도 물색없이 커다란 입을 펼쳐 드러내놓고, 성난거렸다.

「마, 마침 잘 안했나? 서울길을 몰라서 혼이 났는데... 함께 서울구경 하자구... 그리고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자구...」 권참봉은 잔뜩 움켜쥔 손을 놓지 않았다.

「고향에?」

「알마! 이제 농촌도 살게 안했나... 이제 다들 일할 보람을 찾았거든...」

「왜, 우리 마을에 호(沼)이 있지 않아? 배기팔도 말이여... 그 눈을 지난 저을 내내 메워 개간했지... 이제 그 개논이 됐거든... 우리 마을사람들끼리...」 경식의 뜻도 우이 앞으로 달아 나 있체...」

「우이 앞으로?」 경식은 점점 기어드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안마! 우이는 아직까지도 너를 기다리고 있체... 이제 곧 돌아오면 알뜰한 살림을 꾸민다고 할, 춘 저을에 도달 서 개간 안했나...」

「우이 후딱 구경하구 빨리 가자구...」

「권참봉이 힘있게 경식의 손을 잡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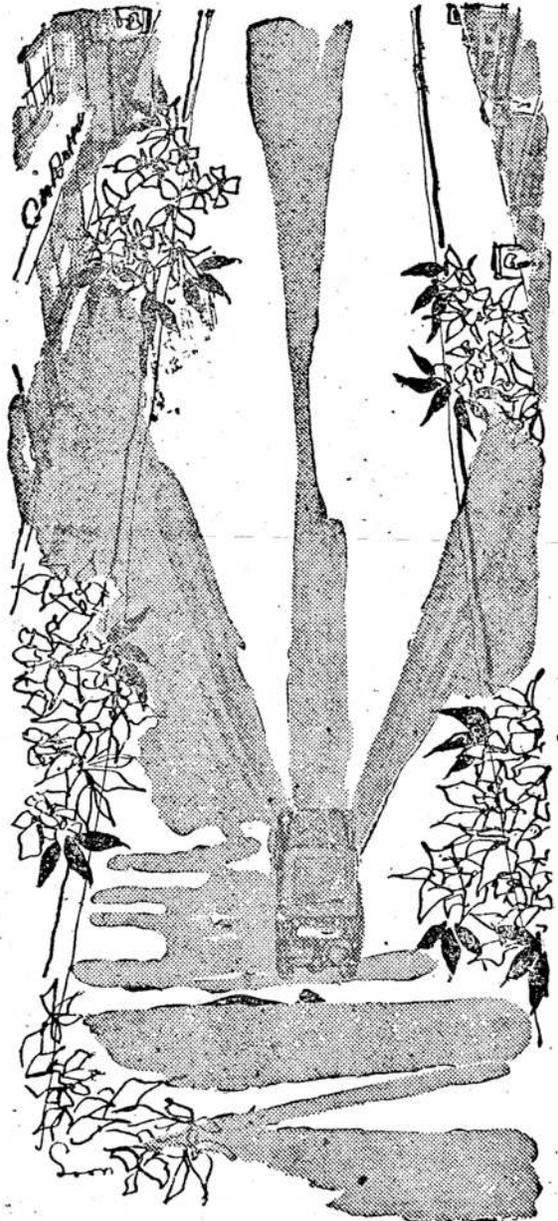
「그것 보라지... 참 서울구경 잘 왔지... 이렇게 경식도 만나고...」

경식은 두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 눈앞이 아물거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목이 터진 것처럼 울리내리는 눈물 때문이었다. (말)

間諜 666 號

柳 起 英

그림...李 舜 在



완전히 죽어서 시체해부까지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

골몬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의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했다 하더라도 해부까지 한 사람이 되살아나다니?

어쨌든 내가 알기에는 그 아를답고 젊은 여대생(女大生)이라는 김희자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내 눈앞에 연연히 나타났으니까 말이다.

그는 지난 여름 방학때에 경주시 어느 사과밭에서 누구인가에 살해 당했었다. 내가 왜 이 사건을 잘 아는가 하면 뜻하지 않게도 내가 그를 죽인 유력한 용의자의 한사람으로 지목되어 당시 경찰에 구금까지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발생 당시 나는 경찰관에 끌려 현장을 보았다. 저적대기로 덮여둔 그 묘지의 죽은 사람 얼굴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S 대학에 시간 강사를 맡고 있는 나는 경찰에서 방퇴자 죽지 상경하여 집에서 하루를 쉬고 이틀만 해질 무렵에 시내에서 모교수를 방문하고 그 길로 학교에 나가기 위해서 동화백화점 앞에서 합승을 기다리고 있을 때이다. 이때 바루 옆에서 서 있는 어떤 젊은 여자—

앗!

경주의 그 사과밭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그 김희자가 아닌가! 나는 침내 눈물의 심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여자였다.

그는 나를 못 보았는지 보고도 모른체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재빨리 올라탔다. 그리고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나를 바라보고는 상긋웃지 않는가. 그는 내가 나타나자 나임을 알면서도 모른체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그는 차가 떠나자 나를 보고 살인적인 그 미소를 더 진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그가 귀신이나 유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저렇게...

2

나는 먼저 그 기괴한 경주 살인사건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지난 여름학을 이용해서 나는 경주관광 호텔에 들어 있었다. 대학의 시간강사를 맡고 있는 나 따위가 하루에 삼만원씩이 달아나는 고급호텔에 들 팔자가 못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일이지만 내가가 그 호텔에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몇달전에 정부당국으로부터 경제정책의 입안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작성을 의뢰받고 그 원고를 써서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 나타나 자로는 거말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당국에서는 여름방학 동안에 완결할 것을 요구하며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니 경주 관광호텔에서 일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때서 그 고급호텔에서 난생 처음으로 호강을 해보는 팔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 호텔에는 하루에五千환짜리 방도 여럿개 있었다. 이것은 특호실이고 내가 들어있는 방은 一등五호실이었는데 하루 열방인 六호실에 그 문제의 여자 김희자가 들어 있었다. 특호실에는 一호실에 프랑스의 항공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 있었고 五호실에는 미국인 무사, 九호실에도 미국인이 들어 있었다. 이 九호실의 미국인은 나이가 젊고 미남자이며 샌프란시스코에 본점을 가진 모 무역회사의 한국 주재원이었다.

내가 그 문제의 여대생 김희자를 처음 본 것은 내가 호텔에 투숙하던날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갔을때 그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 안락의자에 끼어 있었다. 그런데 그 첫 인상이 나로 하여금 감탄사를 나오게 하였다. 그는 세상에 볼품은 미인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느냐 하는 감탄사다. 예쁘다는 것도 그 유형(類型)의 여러 가지다. 잔뜩하게 말해서 그 용모가 요부처럼 생

긴 얼굴, 무식하게 생긴 얼굴, 마음이 허뜨게 생긴 타일, 어딘가가 가까이 할 수 없고 가시를 품은 듯한 얼굴, 이밖에도 많다. 아무런 얼굴이 미인으로 생겨도 그 여자가 지닌 지식, 덕성, 교양 등 정신적인 요소가 구비되어 그것이 그 얼굴과 융합되기에 극히 아름답고 사실상 그러한 여성이란 산신(産神)이 일부러 천본살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없었을 것이다. 현배 이 여대생은 산신이 천본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미인이었다.

그는 「라이프」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못생기기로서 이틀이 높은 내시선이 자꾸만 그 여자에게로 쏠리나오려 민망할 지경이다. 이같은 나의 시선을 그 여자가 모를 리 없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자가 나를 보고 샅웃 웃었다.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없는 것 같은 그 매혹적인 미소! 그러면서도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 언제라도 친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근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샅웃 웃었다.

내 나이는 이제 서른 다섯이지만 아마는 데미리코코는 매코가 되다가 만 넘쳐코이고 코코는 일흔만치나 길고 거기에 수염이 밀집해서 나를 좋다고 생각할 여자란 매춘가(賈春街)에도 없었고 나는 자부(?)하고 있는 데미리코가 그 나를 보고 웃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내 자신 끌어쫓았 웃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그러럼 그는 매력적이면서도 그러럼 그는 나에게 친근감을 주는 아름다운 과 동시에 교양이 더덕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튿날 낮하에서 서루 지나칠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단정한 자세로 서서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를 했다. 뜻밖의 일이라 이때 나의 당황함이란 누가 보았으면 웃음꺼리였을 것이다.

『선생님, 저 S 대학의 나가시는 박우중 선생님 이시죠. 전, R 대학 영문과 학생입니다.』
『저는 인사말 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가 대학 생이라는 말에 나는 더한층 친근감을 느꼈다.』

『네, 침범지만 잘 알구 있어요. 저, 김희자의 말이요.』

그리고 그는 하루 내 열방인 六호실에 들어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서울에서 알만한 큰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도 말했다.

四, 五일의 지나가 나는 김희자를 「미스 김」하고 부르게 될만큼 친밀해졌다. 합계 식사도 하고 시내 다방이며 고적을 산책하기도 하고 단 둘이서 사과밭을 거닐기도 했다.

『선생님, 중요한 글을 쓰시는 데 방해가 되겠어요.』
그는 내 방에 들어올 때면 내가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태우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말했다. 한번은
『아니, 이렇게 누어 있는데!』
하고 내가 일어나니까 그는
『주무세요 가겠어요.』
하며 나가다가 나를 돌아보고는

『허지만 자꾸 선생님 방에 오구파서!』
하고는 불이나게 나가버렸다. 나는 머뭇하니 그가 바버린 도어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해질 무렵 사과밭을 들어서 산책할 때였다.

『선생님, 아직 젊으신데 머리가!』
하고 내 머리를 쳐다 보았다.
『젊다노, 내 나이가四십이 될선 넘었는데.』
실상 누구라도 나를 그렇게 보는 터이다.

『저것말, 방면 三十五세!』
하고 미스 김은 샅웃 웃었다. 아니, 이 여자가 남의 나이를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는가? 여자란 남자를 보는 눈이 따로 있는가? 어쨌든 내 나이를 사실대로 짧게 봐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일요 즐거운 일이다.

『미스 김은 학교를 마치면?』
『여자는 결혼을 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역시 옮겨 된 여자다 라는 만족감이 있었다.

『어떤 형용사일까 미스 김의 남편이 되는 남자는.』
그런데 내가 약간 놀란것은 그의 묘칭이 매우 쓸쓸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갑자기 불이 죽은 듯 잠잠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샅웃 웃으면서,
『선생님 같은 남성을 찾아야겠어요. 꼭 선생님 파 같은!』

하고는 또 상투 웃어 보였다.

이때 만일 내가 대머리에 넘쳐코 바소구리 입에 털보 못나기로 자부하는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닷자갓자 그를 힐끗 쳐안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닷자갓자 나는 오히려 그의 말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었다. 그때서 나는 약간 불쾌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었던 것이다.

『미스 김, 나는 추남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놀려 먹어서야 되겠소?』

그런데 화를 낸 것은 내가 아니고 도리어 미스 김이었다. 그는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를 모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열등이나 잘 생긴 남자를 좋아하느니라. 오해예요. 여자는 외뿔야 할지 모르지만 남자는—미남자는 실은 남성적이 아니구 어느 편인고하면 여성적이예요. 전, 선생님의 성격이 좋아요. 정말 선생님은 신사예요. 정말 정말……』

이쯤 되면 내 몸뚱이 바가 곤난하다. 『이렇게 칭찬을 듣구 가만 있을 수 없죠. 내가 한 터 내야겠읍니다.』

나는 엄뎀우려 웃어넘기며 재빨리 절어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때로 마주 보고 싶다가는 이 못난 사내가 그를 뚱뚱 쳐안고 키스라도 할 위험한 고비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 김은 어느새 친했는지 九호실의 「존·존슨」이라는 그 미국인과도 꽤 배로 농을 하면서 정담하게 지내고 있었다. 「존슨」은 정말 미남이고 젊고 유쾌하고 명랑한 농도 잘하는 남자였다. 그도 미스 김을 좋아하는지 곧장 미스 김의 도어를 누르하는 것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자자했다. 소곤대는 말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미스 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야 그들이 웃어대진 소곤대진 내가 알바 아닌 일이다. 현대도 나의 마음에 언장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히 내가 적어도 가벼운 철부스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미스 김이나 에게 대해주는 태도란 꼭 애인만 같으니 그 철부스 내내 자신이 그러한 의식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

른다.

여자의 힘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나는 미스 김과 지내고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서운해서 나를 걱정해 주는 아내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약 두주일의 지난 어느날 아침이었다. 이날은 아침 글들이 최고의 미워였을지도 모른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원 숲속에서 미스 김과 존슨이 나란히 앉아서 그것도 미스 김이 존슨의 손을 잡고 무엇인가 소곤대고 있는 광경이 내 눈에 띄었다. 이때 내가 놀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정담하게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전신을 휘감는 불명이 같은 내 질투심 때문이었다. 내가 여자로서 인해서 이처럼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미스 김은 나를 보고도 못본체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날 오후 정말 죽을 듯한 고통을 겪었고 그 이른날 밤엔 그 괴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3

이날, 호텔 안은 병방장치의 덕분으로 오히려 우울 지경이지만 바깥은 화씨 九十七, 八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온 천지가 용광로처럼, 이글이글 들끓고 있는 열두시경—나는 마지막 대부의 원고를 쓰다가 말고 김희자라는 여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수습대에 올라놓고 이리저리 풀이하고 있노라니까.

『선생님』 하고 미스 김이 누르를 했다. 어쨌든 반갑기 그치지 않다.

나는 얼른 자울을 들여다 보았다. 조금전에 이발을 했기 때문에 대머리는 도리가 없었지만 수염은 말숙히 깎아서 셋파란 자우이 마치 막 손울 내뽐은 모자리처럼 신선한 맛이 있다. 이렇게 이발을 하고보니 자부할 정도로 못생긴 얼굴은 아닌상 싶다. 혹은 미스 김이 사과밭에서 했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도어를 살점이 열고 상분 들어서는 미스 김! 아아 하나님 말소서. 말끔한 수염부 차림의 그의 요염한 자태! 나는 여기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매혹적인 육체를 묘사하는 것을 단념하겠노라. 단 지바라는 것은 당장이 방에서 물러나 달라고 해치고 싶을 뿐이다.

『선생님, 이 수염부 어울려요?』
『어울리느냐고? 누구를 어쩌자는 것이냐?』
『사람이란 누구나 매개가 그렇거나 나도 못한 내 자신을 그대로 점잖은 체해야만 했다.』
『나이스, 친하의 미인입니다.』
『어머나!』
『바닷가에 라두 가야겠군요.』
『네, 지금 곧 가요. 포항에 가겠어요. 선생님이 안가 시겠어요. 전 함께 가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함께 가는 분이 내가 아니냐고……』
『이때 존슨이라는 그 미국인이 문밖에 나타나서 나에게 무례를 하고』
『미스 김』 하고 불렀다.

『그럼, 선생님이 다녀 오겠어요.』
미스 김이 총총걸음으로 나가자 二, 三분도 못되어 웃을 잔아입은 미스 김과 존슨이 간단한 차림으로 나를 보라 합시는 듯 내 방 문앞을 나란히 지나간다. 나는 이골려 그들이 나서는 정원을 내려다 보았다. 존슨이 운전하는 세단형 고급차 운전대에 나란히 앉아 차가 미끌어지는 때 존슨을 바라보며 멋있게 웃어주는 미스 김의 얼굴이 똑똑히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마치 혼을 빼인 사람처럼 멍끔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야 미칠듯한 질투심에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쥘다.

나는 이날, 한술의 글도 쓰지 못했다. 또 이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포항을 간 그들은 밤 늦게야 돌아왔다. 六호실에 서 처음은 소곤대던 미스 김과 존슨의 대화가 어떻게 된 셈인지 점점 큰 소리로 변하니 마침내 성을 낸 미스 김의 말소리가 내방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열등은 알 수 없으나 싸움에는 불림이 없었다. 이

또한 어떻게 된 셈인가? 어쨌던 내가 관여할 꺼리는 아니다. 내가 확신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여기서는 내가 방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로 작성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날이 셀 무렵에야 스스로 지켜쳐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열두시나 되어서 간신히 잠이 깨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보이를 불러서 서울에 전보를 치게 했다.

『명二十六일 하오二시 서울도착』
그리고는 집을 꾸리기가 시작했다. 간밤에 나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 이 호텔에서 부질없는 짓을 그만 두기로.

집을 꾸린다고 해서 뭐 대단한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추령크한개에 옷가지를 챙겨놓고 원고문지를 간추려 버리면 된다.
추령크를 챙기는 것을 본 미스 김은 잠짝 놀라는 표정을 보였다.

『선생님, 떠나세요!』
『갑자기 떠나시는군요. 무슨 일이라 두 생겼어요?』

『아뇨. 예정대로 가는 거죠.』
내 말소리는 좀 통명스러웠다.

『저두二,三일 내루 떠나겠어요. 어쩌면 저두 내일 떠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는 미스 김이 떠나게 되리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실천 놀다가 가지지. 좋은 친구 두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존손을 두고 빈정대는 말이 아니다.』

『존손 말씀이죠. 턱없이 강짜부리잖아요. 정말 더 상중하다간 살인이라두 남짓 같아요. 죽기 전에 가야겠어요.』
마음 옆에 있던 보이가 이 얘기를 듣고 싱그레 웃었다. 아마 강짜가 대단했다는 지는 모르나 그만 강짜부릴 이유가 있겠지.

나는 내일 아침차로 이곳을 떠난다. 이렇게 생자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유쾌해졌다. 어디로

늘 하오에는 해방된 기분으로 시내나 한바퀴 둘러보자. 나는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시내로 나갔다. 어쩌면 외국에 온 기분으로 다방구석자락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노라니까 뜻밖에도 미스 김과 존손이 썩 들어섰다. 나는 일문 물어 앉았다. 두 사람이 정답게 얘기하는 꼴을 보라는 것은 나에게 질투심에 불타서 그 불에 그대로 화장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노릇이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 저 꼴을 안봐두 된다....

『미스 김 존손, 사과말로 산책 안가겠어요?』
『좋습니다.』

아이스 물을 마시고난 두 사람은 제발리 일어섰다. 나는 시내를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었다. 고적도 둘러보았다. 모르는 낯선 밤거리들 거닌다는 것은 어딘가 이국정서가 깃들여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호텔에 돌아오는 것은 열한시 무렵이었을까.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양 놀라운 일에 부딪혔다. 김회자가 조금 전에 사과밭에서 무참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호텔내에는 사람들이 범석대고 어느새 몇 사람의 경관이 나를 포위했다.

경관은 내가 등실 五호실에 있는 박우중이라는 인증(人證)을 확인한 다음 먼저 시체 확인을 위해서 호텔 지배인과 함께 현장에 가자는 것이다.

사과밭은 호텔에서 키로 쯤 되는 거리다. 경찰 절차 속에서 나는 내가 이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의 한사람이 되어 있음을 경관의 말에 의해서 알 수가 있었다.

현장은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한부메기의 인근 주민들이 먼 곳에서 구경할 하고 저어쭈 사과밭에 있고, 五명의 경찰관이 손 전등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내가 현장에 도착하자 나보다 먼저 존손이 와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침착하게 있었다. 『얼굴을 확인해 주시오.』

하며 경위가 저적대기를 쳐들고 전등을 비친다. 나는 성큼 물러섰다. 분명히 김회자다. 그 예쁜

미스 김이다. 지금 그 얼굴에는 피에 영크러진 머리카락이 뒤덮여 고담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 그대로이다.

경위는 저적대기를 덮고 물었다.
『六호실에 들어있던 김회자에 분명합니까?』
『네, 김회자였을 뿐 없군요.』
경위는 저배인을 바라보았다.
『틀림 없습니까?』

순경 한명이 현장 사건을 찍고 또 한명의 경관은 현장의 도본을 뜨고 있었다. 경위는 등쪽의 저적대기를 쳐들고 전등을 비쳤다. 나에게 보라는 뜻이다. 아무 등 오른쪽 쪽에 에미한 단도로 깊숙히 쥔 손바닥이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피가 흥정하게 고여 있었다.

『자, 이젠 시체를 병원으로 운반하시오. 시체해부를 합니다.』
서장으로 보이는 키가 후리후리한 나이는 경관이 다른 경관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 경위와 서장과 그리고 형사로 보이는 젊고 몸집이 건장한 명부한 사람과 나와 존손, 지배인은 함께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나와 존손은 사실상 엄격한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미리 호텔에 와 있던 경관이 서장과 경위에게 잠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은 물론 나와 존손과 김회자와에 관한 상세한 조사였을 것이다.

호텔 사무실에서 예비심문이 시작되었다. 경찰당국은 존손과 나와 두 사람의 한 사람을 거의 법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같이 보였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이상 야릇한 공기는 존손과 나와 관계였다. 두 사람의 증언은 저루가 상대방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무리투전개 되었었다. 존손은 내가 피해자와 무척 밀접했고 오를 잡자가 상정한다는 점을 쳐들어 심히 수상하다는 것과 자기는 오늘 처음 사과밭에 갔지만 나는 수차에 걸쳐서 피해자를 사과함으로써 인하는 것을 부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는 그가 어찌 단물에서 포항에 해수욕을 갔다는 것, 돌아와서 밤중에 언성을 높여 싸웠다는 것, 그리고 오늘,

피해자가 당신의 장자가 심하여 이대로 있다가는 살인이 날지도 모르니 금명간 경주를 떠나겠다고 말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증언은 그중에서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범행은 열시 삼십분 전후로 밝혀지고 존슨과 나의 아리바이가 추궁되었다. 내가 호렐을 나가서 호렐에 돌아올때까지의 아리바이는 대단히 불리하다. 혼자서만 돌아오다녔기 때문이다. 존슨은九시 반경 김피자와 사과밭을 떠나 시내로 나가서 거기서 헤어졌다라는 것이다. 그후 존슨은 다른 호렐에 들어있는 미국 대사관 서기관 모세를 찾아가서 용전을 마치고 호렐로 돌아온것이 열시四십분경이었다고 증언했는데이 증언은 그가 만났다는 미국 대사관 모세의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이때 서장이 포켓에서 신분지 동전을 꺼내어 테이블 위의 표를 보았다.
앗! 그것은 피물은 단도였다.

『단도는 현장의 서 두백피피 떨어진 계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외국제 단도입니다.』
서장은 나와 존슨을 번갈아 보았다.

『이 단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
서장은 또한 번 나와 존슨을 번갈아 보았다. 나와 존슨은 서로 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정황에서 매서운 눈초리를 교환하였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한결같이 침묵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존슨은 천연하고 태연하였다.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연할 수 있었지만 존슨은 의해서 저렇게 태연하던 발인가? 사실 법치고는 너무 나치연하다.

『이것은 외국제입니다.』
하고 서장은 존슨을 쏘아보며 강조했다. 존슨은 그럴다는 양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약간 피웃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기울고 하고 말했다.
『대환 문제다.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다.

서장은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했는지 못했는지 어리둥절했다. 내가 그 뜻을 말했다니 서장은 잠깐 놀랐다.

『나는 두 분을 구속해야겠소.』

나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범인이 짐작될때까지 구속당할지도 모른다고 예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슨은 필적 뒤대 놀랐다. 아무런 증거 없이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오히려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때 정복한 경관 두명과 아까 그 형사가 들어와서 서장을 귀속말로 무엇을 보고하고 나갔다.

『두 분은 잠깐 경찰서까지 함께 가십시오.』
하고 서장은 일어섰다. 경관들이 나와 존슨을 응위하는 바람에 존슨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에게 가보니 어느새 내 추령크가 나보다 앞서 온 반되어 있다. 다른 추령크가 두개 있었는데 그것을 본 존슨은 거의 자동적으로 뛰어가서 그 추령크의 하나를 덮쳐 끼안았다.

『왜 남 몰진을 승낙도 없이 가져왔소.』
하고 존슨은 소리쳤다. 경관들은 존슨의 항의를 못 들은채 무살하고 있었다.

나와 존슨은 격리되었다. 순경 두명이 나를 속직실로 안내하고는 한숨 자도 좋다고 말했다. 나는 지쳐서 아무렇게나 덩굴어졌다. 그리고 잠이 들까말까 하는데 깨우더니 서장실로 데리고 갔다. 이미 날이 셀 무렵이었다.

『어디 좀 우부쳤습니까.』
서장은 퍼부드러운 말씨로 대대한다.

『자백했습니까. 그 미국인이 여자를 살해했습니까.』
나는 순간 잠이 활짝 깨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에서도 그렇게 봤지요. 그렇지만 자백하기 전까지는 선생은 유력한 용의자 였거든요.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곧 상경하시죠. 자백하기 전까지의 사진이 오늘 조간에 보도 될 것입니다. 부인께서 걱정이

대단할 것이니까요.』
나는 호렐에 들러서 불을 보고 아침차를 예정대로 탈 수가 있었다. 사실은 일이 이렇게 되보니 구태어 호렐을 떠날 필요는 없어졌지만 전보도 쳐 두었고 그 보다는 사진이 조간신문에 보도 될것이라니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대구에서 잘아타고 죽은 듯 한숨 자고나니 서울역에 도착 때없이 흔들흔들 피로한 몸을 끌고 집창구를 나서니 어떤 여인의 우루루 달가들어 허리를 덮쳐 끼안지 않는가. 아내였다.

『범인이 나타났어. 미국인야.』
아내는 또한 번 나를 힐끗 끼안았다.

이제 애기를 처음으로 불러서 시체를 해부했던 어젯면 김피자는 이제 내 눈앞에서 때시를 타고 갔다. 그것두 그살인적이고 매혹적인 미소를 남기고.....

4

나는 학교에 와서도 멍하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실은 도서관에 책을 찾으러 왔지만 김피자가 머리에 서 떠나지 않는다. 급사가 전화를 받더니 부산에 갔던 민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다. 나는 일문 전화를 받았다. 민씨란 나의 중학 동창생이며 나와 출판할 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차 며칠전에 부산에 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내가 경주의 있는 것으로 알지못해 어떻게 전화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잡으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학교 앞에 있는 다방인데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대답의 전화였다. 민씨가 대답을 시켜 전화를 건 것이다.
다방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다가서더니

『실패합니다. 박우종 선생님이시죠.』
하고는 신분증을 쑥 내밀지 않는가. 그는 치안국에
있는 형사였다.

『전하는 제가 있었습니까. 잠깐 저와 함께 치안국
까지가 주십시오.』
한다. 과장이 찾는다. 그것이며 이유는 자기는 알 수
없다. 것이다. 그러나 적정할 것은 아닌것 같으며
무슨 상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짐작 된다는
것이다. 나는 어쩔지 불안했다.

『아니, 왜 그러는지요. 경주사건이라면 전 범인
이 체포됐지, 아니, 그건 그렇고 추었던 여자가 살
아 있잖소 어떻게 된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하고 형사는 도리어 반문한다.

『당신은 치안국에 있으면서 경주사건을 모르시
요.』

『압니다. 물론 범인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여
자가 살아 있다고? 그는 시체를 해부하고 대구에
서 화장했읍니다. 데마쥬죠.』

『그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
『데마? 아니요. 조금 전에 내가 그 여자를 만났
단 말이요.』

형사는 절절 웃으며 착자이라고 일소에 부치고 만
다. 이때 나는 내가 정말 착자를 하고 있지나 않나
하고 생각해 봤다. 그러나 그럴듯 같은 여자가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착자는 아니다.

형사는 택시를 불렀다.

치안국 마당에 들어서자 여가서 잠깐만 기다려 달
라는 말을 남기고 형사는 안으로 사라졌다. 곧 뒤이
어 그 형사는 정보를 한 총경과 함께 나타났다.

『그송니다.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모셨는데
저하루가 주실까요.』

절차가 나타났다. 경찰차가 아니고 『영』자가 붙은
세절차다.

나는 이 절차에 오르는 순간 공포감에 전신이 오
싹했다. 아직도 뒤가 가시지 않는 이 늦더위에 절
차는 새까만 커어텐으로 둘러싸여 해벌이라고 바늘
구멍만치도 새어들 틈이 없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의제와 단절하는 때는 이만 저만한 이유에서가 아닐
것이다.

저리는 이미 밤이었다. 절차는 꽤 빠른 속도로 달
리고 있었으나 도무저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 운전
수의 생김새도 어찌면 그렇게 무뚝뚝하고 마치 교수
형을 집행하는 교수인과 같을까.

『술집까지 말해주시오. 이 차는 형부소로 가는
거요.』

나는 절다다 못해 이렇게 불었다. 생각하면 나는
손톱끝만치도 죄를 지은 기억은 없다. 허저만 여타
가져 그럴사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모종의 정책 자료는 국가기밀에 속하
는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 손에 흘러들어가서. 경주사건의
흔은 자백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혐의가 나의
게 있어서.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선생님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나 저의 임무는 선생
님을 다른 어떤 분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요.』

『뭐? 나를 또 나른 누구에게 인계하다니.
』
『의관절 당신은 누구이며 이 차는 어디를 가는
거요.』

『저는 치안국의 모 계장이 읍시다. 이 차의 방향
은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딱 잘라서 말했다. 이상 『문답 불필요』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차는 수없이 카브를 접어가며 달리고 검은 커어
텐은 가로등 불빛이 스쳐갈뿐 방향은 어딘지 전혀
적작조차 가질 않는다. 이렇게 차는 벌써 三十分이
나 달리고 있다.

(나는 지금 죽으려 가는지도 모른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
가의 중대한 어떤 일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흔히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 본인이 모
르는 사이에 중대한 국가적인 사건에 관련되거나 또
는 범죄적으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는 그냥 들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터이다.

죽은듯한 침묵 속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리드
미컬하게 구도의 불안에 싸여있는 나의 신경에 부채
질을 하고 있다.

차는 오르막 내리막을 몇번 되풀이 하더니 불빛이
전면 보이지는 않지만 절을 잠시 달려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바퀴를 멈춘다.

(여기가 형부소 입구인가.)

형부소를 한번도 가보지 않은 나는 형부소의 거리
조차도 모른다.

『자, 내리시죠.』

총경이 먼저 내려서 정중하게 말한다.

나는 땅에 발을 붙이서四方을 휘둘러 보았다. 숲
속인지 어느 큰 우택의 정원인지 알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서늘시내의 어
느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 근방의 큰 담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형부소 근처는 아닌것 같다. 마포의
어! 구석도 같고 정을 같기도 하고 보기에는 영동
포어는 곳도 같다. 하여튼 방향을 상실해 버린 것
만은 틀림없다.

나는 총경의 안내로 약 五미터 걸어서 숲속에 있
는 아담한 주택으로 들어갔다. 들어선 방은 이 집
은점실인것 같으나 삼봉경하기 짝이 없다. 동근 타
자, 안락의자 한쌍, 벽에는 그림 한장도 붙어 있지
않다.

『잠깐 기다려 주시요.』
하고 총경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5

사람을 압살 시킬것만 같은 초조와 불안이 나를
금방 미치게 할듯 조아 들었다. 도대체 이 집은 누
구의 집이며 무엇을 하는 집인가?

아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 이 집을
탈출할 일이다. 그러나 그다음 순간 나는 백이 풀
이 저고 말했다. 이 언덕이나 리석은 생자이라. 필경
이 집 주위에는 삼엄한 경비함이 펼쳐있는 것이
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함이 당연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도 놀랄만한 어떤 기상천외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정말 가공할 사건이요. 내 추리는 명석한 선을 그어 이 사건의 전도를 돌릴 내었다.

아까 그 치안국 중령을 가진 청년이며 모 제장이 라는 중령이 더 그 교수인 같은 운전수이며 모두가 북한파의 스파이다. 아니 그 미모의 집회자라는 여자도 존슨이라는 미국인도 스파이의 일당이다.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밀자료를 탈취하려는 것이다. 아! 그 자로는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고 나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같이 나를 처치해 버리자는 수작이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이 기상천외한 나의 추리의 정확성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그러나 암약탈과 수수 무책임 합정 속에 빠져 있음을 자인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살맛이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때 도가 열리지 않는가. 놈들은 말을 보고 있다가 내가 움직이자 벌써 경계하기 시작하는구나.

물어서는 사람은 아까 학교 앞 다방에서 부산에 갔던 민이라고 속이고 나를 불러내어 치안국으로 끌고간 그 자작형사다. 놈들은 미리 내 주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내 친구 민씨가 부산에 간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번소이 가시렵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지요.』 하고 그가 형사인 피뢰간첩은 자못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그를 쏘아보고는 잠잠고 도로 앉았다.

『담배를 배우십시오.』

그는 들고 왔던 담배와 성냥을 탁자위에 놓고 다시 나가 버렸다. 나는 이때 또 다른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놈들이 나를 배수 포섭할 공작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제법 정중한 대접을 해가면서—

그런데 가만있자. 이제 들어왔던 가형사,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아닌가? 오!라, 그렇다. 내가 서 울에 내내서 아내와 애기하고 있을 때 저어쪽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얼굴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서도 본 기억이 있다. 어디서?

원해 긴장된 정신이 연속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살아나 주지를 않는다. 응, 생각이 있다. 경주서 왔다. 살인 사건의 발생하였던 그날밤의 그 형사다. 아니 또 어디서 본 얼굴이다. 응. 그날 저녁 내 혼자서 고적을 돌아다녔을 때 노상 내 뒤를 따라 다니다 시

뵈한 그 얼굴이다. 이제 생각하니 그는 곳곳에서 변장을 하고 있었다. 응. 그는 분명히 간첩이다. 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내 나이나 된 어딘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신사가 들어섰다. 그런데 놀랄을게도 이 얼굴 또한 어디서 많이 보아온 얼굴이 아닌가.

『S 대학에 나가시는 박우중 선생이시죠.』

나는 대구를 하면서도 자주만 그자의 얼굴을

라 보았다. 기억을 찾아내고 있는 판이었다.

『나는 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면 선생도 저를 알고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년듯이, 그러나 점점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웃음을 보였다.

오!라, 박우 그분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지만 신문지상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얼굴—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 겸 내무부 치안국장. 우리 치안당국의 사실상의 실권자.

『알지요. 매일같이 저상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뎠고 더우기 경주에서는 특별으로 어마어마한 국제간첩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긴장이 한꺼번에 확 풀려서 그자리에 섰세로 땅속으로 누아 내려버리고 말 것 같았다. 그러나 간신히 그것을 가로막아 주는 것은 내 덕택으로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국제간첩을 체포했다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의 말이였다.

『오늘 선생을 이처럼 모신 것은—』

마주 앉자 치안국장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귀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음성이 낮추어져 있었다.

『박선생에게 어디까지 피뎠힌 사파와 아울러 부타

이런 일 저런 일

◇프랑스인 「파울」이라는 사람은 살인 미수죄로 처음 사형선고를 받고 그 후 무기로 감형— 그런데 그가 형무소에 들어가자 二년만에 파울이 살해하려 고한 사람은 다물어년 하루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무죄처방 되었다. 一八〇〇년에 있었던 일이다.

◇옛날에는 死刑囚에게 死刑을 집행하기 직전에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을 물어서 그것을 주는 慣例가 있었다. 이렇경우 대개의 死刑囚는 그가 평소 먹지 못했던 음식물을 청한다. 그런데 한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다. 『부송아 한개만 먹고 싶습니다.』

『동지 설날에 부송아가 어디 있어. 명년 五·六월이 되어야 있겠지.』

그러자 사형수는 얻는 말을 받아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명년 五·六월이면 더욱 좋습니다.』

◇一八九九년 미국의 F·트레드웰이란 사나이는 양말실로 鐵柵鐵棒을 꿰고 脫獄하였다. 그는 자기가 신고있는 양말을 풀어서 그 실에 비누칠을 하고 감방 벽에서 모은 모래 시멘트의 부스럭기에 붙였다. 이 실은 출감의 역할을 하게 되며 그는 이것을 끈기있게 비비어 마침내 鐵柵을 양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점다 접해야 할 말이 있어서!』
하고 담배를 내밀면서 말을 계속했다.

『실은 존슨이란 그 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고 두 일이며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독 공산당의 국제간첩이었습니다!』
내가 뭐다 싶이 불렀지만 불문이다.

『그는 주한 유엔군의 중요한 군사기밀 문서들을 훔쳐 내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모 국제간첩으로부터 20만 달러의 계약으로 의뢰를 받고 5만 달러를 선금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유엔군 당국보다 우리가 약 2주일 앞서서 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슨— 그의 본명은 제루벤이며 소련국제간첩 [Three six] 즉 666 호인데 그의 손에 그 기밀문서가 쥐여져 있는지 아직 중간 간첩의 손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사 우리는 그가 독일인이거나 러시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우리는 존슨이 미국인이거나 미국대사관의 후援으로 한국에 주재해 있는 미국 상사의 지점장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들었다가는 한미간에 여러가지 난처한 일이 생긴 우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파견된 것이 지금 선생이 심히 괴이 짝이하는 그 집회자라는 여자입니다!』

자, 담배를 태우시며 들어주세요. 침 그녀는 존슨에게 점근해서 가늠하면 그것을 도무 훔쳐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문서를 그의 손에 들어왔는지, 어떤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존슨은 집회자가 그의 소지품을 들추어 본 기회를 전연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정보만 가지고 하등의 증거 없이 더구나 미국인을 수색도 걸기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집회자는 기밀한 사실을 했을 겁니다. 그의 소지품을 들추어 볼 수 있게 합니다. 한 쪽— 즉 존슨으로부터 금형상상 실험법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박 선생에게 점근한 것은 그때부터이며 선생을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는 사건을 보다 그럴사하게 만드

는 동시에 여타가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존슨의 장자로 살인이 날 것 같다는 얘기 등!』
나는 길게 한숨을 내 쉬었다. 국장은 말을 계속했다.

『존슨은 이중 추방크속에 그 군사기밀 문서들을 다 이드로 필드에 옮겨서 숨겨 두었습니다. 그는 어제 우리 나라에 들어온 호주 관광단 속에 끼여 들어온 소련 국제간첩에게 이 필드를 인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마트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잡지 못했으면 그 기밀이 소련과 북한에 회수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엔군 당국에서는 긴급비밀 회의를 열고 도난당한 그 군사기밀이 무효가 되도록— 말하자면 모든 군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10여명의 말하는 비용과 최소한 1년의 시일이 필요했고 가령 그렇게 한다면 유엔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어떤 기본태세를 적어 알게 되는 것이니 중대한 일입니다. 어쩌면 연구치고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연구이다. 어쩌면 그 여자는 잠적하게도 좋은 시합을 그처럼 해내었을 까?』

『집회자란 물론 본명도 아니고 여대생도 아니고. 그는 천부의 미모와 재치와 배우적인 소질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 비밀은 어느 시기가 되면 알려지도록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경관을 포함해서 일곱명이며 오늘 박 선생을 모시게 된 것은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이 비밀을 타인하지 말아 주실사하는 부탁입니다. 가족에게라 하더라도...』
내가 짐으로 돌아온 것도 물론 아까 타고 온 그 검은 커리어엔의 질차이다.

X X X

— 끝 —



編輯後記

建軍 열 배 물음 맞는다.

誕生과 더불어 世紀의戰爭을 치루어야 했던 우리 國軍은 그 나이에 비해 힘겨운 成長過程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文字 그대로 硝煙 속에서 不死身으로 자란 우리는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勇氣와 信念이 있다.

△나의 出擊回顧△와 △나의 出擊日記△ 두 편은 이런 意味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苦辛참담하던 鬪爭記錄을 斷的으로 回顧시켜 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卷頭의 畫報는 現代化된 오늘날의 空軍의 緊張된 一面을 浮刻해 주는 것으로 비록 氷山の 一角에 不過한 內容이지만 尙無缺이 前進하는 우리의 「姿勢」만은 보여질 것이라 믿는다.

x x x

△군인과 명예△를 특징으로 엮었다.

軍의 生命이 軍紀에 있다면 軍人 個個人의 生命은 高度의 名譽心을 견지하는 데 있다 한 것이다.

우리 花郎道의 傳統이나 中世 나이트 精神 등 그 어느 것이나 例外없이 「名譽心」은 武人의 갖추어야 할 으뜸가는 品性이었다.

民主軍隊의 軍人이 가져야 할 올바른 軍인의 명예심 확립— 이런 角度에서 삼가 一讀을 권한다.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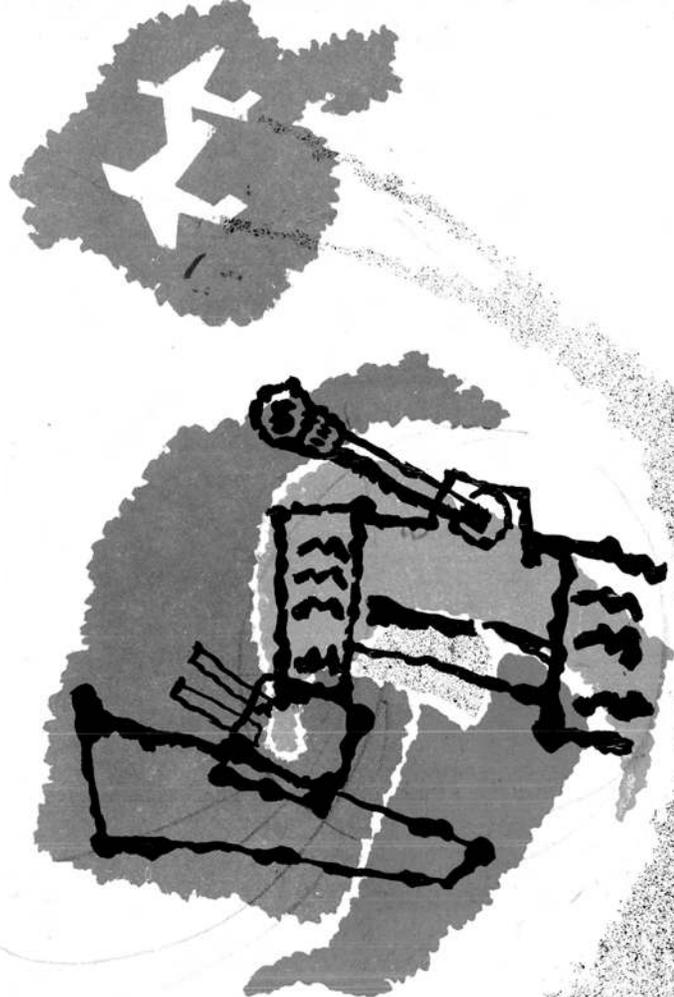
美第5空軍司令官 자곱 E 스마
트 중將이 來韓하여 張參謀總長과
交歡(8월 30일)



지난번 空軍將兵들이 거출한 在鄉
軍人會 再建祝賀誠金에 對한 感謝狀
이 金聖恩 在鄉軍人會長으로 부터
張參謀總長에게 傳達(9월 11일)



空軍將校婦人會에서는 順天地區水
災民을 구호하기 위한 정성어린 金
品을 모아 한국일보社에 기탁。(9월
6일)



건군 14주년